

國譯 靜一堂遺稿

성남문화원



정밀당 감씨 사당



정일당 감씨 묘소



정일당 감씨 묘역지도

강정일당 유고 국역 범례(國譯 凡例)

1. 취지

오늘날 우리들이 삶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옛 선현들을 발굴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강정일당 유고집을 국역하게 되었다.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류문인은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겨우 몇 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 한 분이신 정일당 강씨는 우리 성남시민에게 진실로 자랑할 만한 여류문인이자, 진정한 여성 성리학자이다. 서정적이며 낭만적 요소로 가득찬 다른 여성문인들의 시문(詩文)과 달리, 그 분의 시문은 학문의 정진과 심성수양이나 도덕적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서, 그 분의 문학세계는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정일당 유고 국역사업은 지식위주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식보다는 도덕적 함양과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주는 매우 뜻깊은 작업이 아닐 수 없다.

2. 발간과정

이번의 강정일당 유고 국역본은 성남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전부터 성남문화원에서는 강정일당 유고집의 국역사업을 진행시켜왔으며 그 일차사업으로서 강정일당 유고집 상반부가 이미 1998년에 발행된 바 있다. 이후 일차 사업 때에 생략된 行狀·祭文·拾遺 및 附錄 등에 관한 국역을 2차 사업으로 진행시킨 결과, 이제 비로소 강정일당 유고의 완역 단행본을 간행하게 되었다.

3. 원본의 출처

강정일당 유고의 원본은 현재 규장각 및 장서각에 각기 소장되어 있다. 조선 헌종(憲宗) 2년(1836년)에 남편 윤광연(夫 尹光演)에 의해 발간된 초간본(初刊本)과 1926년에 발간된 중간본(重刊本)의 두 종류가 현존하

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다 원문(原文)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장서각에 보존되어 있는 1836년에 발간된 초간본(K4-6464; 木活字版 1冊 77張)을 국역대본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이미 1998년에 발간된 강정일당 유고 국역본(성남문화원 발간)에서는 중간본 서문이 들어가 있으나, 이번 완역본에서는 제외되었다.

4. 편집체제

1) 본문 편집체제

유고 본문의 편집체제는 강정일당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기리기 위해 원본인 1836년에 발간된 초간본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따라서 강정일당 유고집의 내용을 시(詩)·명(銘)·서(書)·척독(尺讀)·별지(別紙)·기(記)·설(說)·제발(題跋) 등의 항목별로 분류, 국역한 1998년판 강정일당 유고 국역본과는 상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본문 국역문에 이어 잇달아 유고 원문을 실어놓아 독자들이 강정일당 문학세계를 좀더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역자

1998년에 이루어진 유고집 상반부 국역에 이어 이번 완역본 국역 등 두 차례에 걸쳐 국역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역에 참여하신 분이 3명에 이른다. 이에 각 역자의 번역 방향이 다소 다르므로 혼동을 막기 위해 각 국역 담당부분에 국역자의 실명을 명시해두었다.

3) 연대

원문에는 연대가 干支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정확한 연도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성남문화원 조진석간사가 일일이 서기연도와 어느 王代였는지를 밝혀놓았다. 또한 1998년에 발간된 강정일당 유고집 상반부 국역본에서 잘못된 부분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놓았다.

4) 한자 표시

독자들이 강정일당의 문학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로 한글을 사용하였으며, 한자가 필요한 부분은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해제는 제외).

國譯 靜一堂遺稿 目錄

詩 (三十七)

書 (七)

尺牘 (六十二)

別紙 (九條)

記 (三)

提撰 (二)

墓地銘 (三)

行狀 (三)

祭文 (三)

銘 (五)

雜著 (二)

拾遺

詩 (一)

尺牘 (二十)

附錄

行狀

墓地銘

祭文 (三)

誄文 (一)

槐詩（十四）

詩跋

筆帖跋

鰲村宋先生書略（二）

靜一堂書蹟

遺稿跋

靜一堂遺稿目錄終

차 례

축사	5
축사	7
발간사	9
강정일당 유고 국역 범례	11
정일당유고 목록	14
해 제(解題)	23
정일당유고 서문(靜一堂遺稿序)	35
 靜一堂遺稿	 39

시(詩)

1. 존경하는 시어머님 지일당의 시에 삼가 답합니다 (敬次尊姑只一堂韻)	39
2. 지일당의 원래 시(原韻)	40
3. 글 공부를 시작하며(始課)	40
4. 서당 아이가 매맞음을 바라보며(見書童被撻)	41
5. 산골 집(山家)	41
6. 스스로 분별하고자(自勵)	42
7. 근본이 착함이고나(性善)	43
8. 남편에게 드리웁네(呈夫子)	43
9. 길 떠나는 남편에게 드리는 시(敬呈夫子行駕)	44
10. 설날 그림 밤(除夕感吟)	44

11. 병을 앓고 나니(病後)	45
12. 우연히 시 읊으며(偶吟)	46
13. 중용을 읽은 후에(讀中庸)	46
14. 종손 근진의 아내에게(示從孫謹鎭婦)	47
15. 밤에 홀로 앉아(夜坐)	48
16. 탄원집 들레에서(坦園)	48
17. 해석 김상공께서 주신 새달력에 감사하며 (謝海石金相公惠賜新曆)	49
18. 청한자 이관하 부친의 회갑연에 바치는 글 (奉獻靑翰子尊大人回甲壽席)	50
19. 박중로에게 드린 시(贈朴仲輅)	51
20. 동갑 친구(示同庚諸友)	51
21. 탄원삼장을 짓고(坦園三章)	52
22. 삼가 군탄 선생 시에 답하여(謹次丈席詒難詩韻)	54
23. 여러 아이들을 일깨워 봄(勉諸童)	55
24. 설날 그믐날 우연히 지음(除夜偶作)	55
25. 안수재와 고신의에게 증정함(贈安秀才毅甲兼示高信義)	56
26. 남편께 드림(呈夫子)	57
27. 설날 아침에 삼가 남편께 드림(元朝敬呈夫子)	58
28. 트랙 풀을 뽑고서(除庭草)	58
29. 조카 성규를 타이름(示藏圭姪)	59
30. 임오년 겨울(壬午冬)	60
31. 경을 우러르고(主敬)	60
32. 매미 소리를 듣고(聽秋蟬)	61
33. 공자님 우러르고(仰孔夫子)	62
34. 내집을 찾는 손님(客來)	62

18 國譯 靜一堂遺稿

35. 변화가 보이는 내 집 탄원(坦園前路通乎康莊)	63
36. 성과 경을 담고 읊네(誠敬吟)	63
37. 담배피우기를 경계하신 시조부님께 답함 (謹次王舅戒吸煙草韻)	64
38. 우연히 시 읊으며(偶吟)	65

서간문(書)	66
--------	----

1. 강위여께 드림(與姜就如書)	66
2. 문중에 드리는 글(與宗中書)	68
3. 일가 광주께 드림(與宗人光周書)	69
4. 부산의 일가 겸께 드림(與宗人釜山之謙)	70
5. 풍천에 있는 일가 덕람께 드림(與豐川宗人澤霖)	72
6. 외숙 권오재를 위로하는 글(上舅氏權烏齋慰書)	73
7. 남편께 드리는 글(上夫子書)	75

쪽지 편지(尺牘)	77
-----------	----

작은 글(附別紙)	112
-----------	-----

1. 남편을 대신해 사문에 올린 별지(師門往復別紙)	112
2. 김부평께 답한 편지(答金富平別紙)	115

기록(記)	116
-------	-----

1. 선조 영은공의 묘를 다시 세우며(先祖永隱公塋墓記)	116
--------------------------------	-----

2. 만성재기(晩醒齋記)	118
3. 탄원기(坦園記)	120
 제사와 발문(題跋)	122
1. 세침을 쓰고 나서(書世諱後)	122
2. 돌아가신 의가 조부와 조모께서 남긴 생전의 사적을 번역하고서(書外王考妣遺事後)	123
 묘지명(墓誌銘)	125
1. 유인 김씨의 묘지명(謫人金氏墓誌銘)	125
2. 어려서 죽은 딸의 무덤에 묻은 지문(殤女瘞誌)	129
3. 효자 이군의 광명(孝子李君廣銘)	131
 행장(行狀)	133
1. 전의 형수인 유인 유씨의 가장(前嫂謫人柳氏家狀)	133
2. 장모인 유인 권씨의 행장(外姑謫人安東權氏行狀)	136
3. 공인 이씨의 행장(恭人李氏行狀)	142
 제문(祭文)	151
1. 무심옹 홍공 사호에 대한 제문(祭無心翁洪公文)	151
2. 족제인 성관 광덕에 대한 제문(祭族弟聖寬文)	152
3. 유취자 김공 윤추에 대한 제문(祭留取子金公允秋文)	154

20 國譯 靜一堂遺稿

명문(銘)	155
1. 필봉(筆筒銘)	155
2. 책상(案銘)	155
3. 벼루(硯匣銘)	156
4. 부채(扇銘)	156
5. 나무 새(木鳥銘)	157
잡저(雜著)	158
1. 사기록(思嗜錄)	158
2. 이불익 동자에게 벼루의 설로 훈시함(硯設示李童子弗億)	163
정일당유고 습유(靜一堂遺稿 拾遺)	165
시(詩)	166
1. 일가 동백께 올림(奉寄宗人東伯)	166
죽지 편지(尺牘)	167
부록(附錄)	177
1. 행장(行狀)	177
2. 유인 진주강씨 묘지명(儒人晉州姜氏墓誌銘)	198

3. 죽은 아내인 유인 강씨에	
대한 제문(祭亡室儒人姜氏文)	208
4. 유인 정일당 강씨에 대한 뇌문(孺人靜一堂姜氏誄文)	218
5. 만장(晩章)	223
6. 정일당시에 대한 발문(靜一堂詩跋)	238
7. 정일당 필첩 발문(靜一堂筆帖跋)	241
8. 강재 송선생이 보낸 두 통의	
서신(贈齋宋先生覆書略二度)	244
발문(跋文)	246
1. 정일당 강씨의 유고 뒤에 씌(靜一堂姜氏遺稿後)	246
2. 정일당유고에 대한 발문(靜一堂遺稿跋)	248
정일당유고 편집 후기	250

解題

曹平煥*

1. 靜一堂의生涯

靜一堂은 진주가 본관인 아버지 姜在洙와 어머니 安東 權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출생지는 충북 제천군 근우면 신촌이다. 정일당의 어머니가 회임 중에 태몽을 꾸었는데, 두 聖妃가 내려와 방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여기에 지극한 德人이 있어 지금 너에게 맡긴다.” 라고 일러 주어 그 후 정일당이 태어나자 이름을 至德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정일당의 아버지 강재수는 의정부 좌찬성을 지낸 姜希孟의 10대손, 의정부 우의정 姜龜孫의 9대손, 의정부 사인 姜克誠의 8대손, 도승지 姜宗慶의 7대손, 지제교 姜錫圭의 4대손이고, 어머니 안동권씨는 淸江處士 權瑞應의 딸로 부계와 모계가 다 조선 후기赫赫한 명문가이고 정치적으로는 정통 노론 계열에 속하였다.

정일당은 어려서부터 병약한 편이었지만, 품행이 단정하고 회노애락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으며, 부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한 번도 어기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효성 또한 지극하여 부모님이 병환이 나면 아무리 심한 더위에도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지 않았으며, 약을 다리고 음식 준비하는 일을 손수 다하며 시중을 들었다고 한다.

정일당은 20세에 6세 연하인 忠北의 선비 尹光演과 결혼하였다. 윤광

* 전국대학교 인문대 교수

연은 坡平 尹氏로 자는 明直이고 호는 坦肅이며, 아버지 尹東燁과 어머니 天安 全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윤광연의 어머니 天安 全氏는 호가 只一堂이며 作詩에 능한 여류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어서, 며느리 정일당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일당은 친정과 시가가 모두 전통 있는 양반가문의 후예였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빈한하여 혼례를 치른 뒤에도 시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친정에서 지내다가 3년여 만에야 시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생활이 더욱 곤궁해져서 남편 윤광연이 학문에 전념하지 못하고 賤服을 입은 채 영호남 지방을 표류하며 생업에 종사하였다.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지켜본 정일당은 눈물로 호소하며 자기가 바느질과 길쌈을 하여 살림을 꾸려나갈 것이니 집안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권면하였다.

정일당의 泣訴에 감동한 윤광연은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四書와 程朱의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 때 정일당은 가위와 자를 들고 한쪽 구석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남편의 글 읽는 소리를 유심히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남편이 읽는 글의 내용을 물어보고 암송도 하여 사실상 부부가 함께 공부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일당은 남편 윤광연이 유교 경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文理를 얻게 되자, 혼자서 공부를 하면 고루해지기 쉬우니 스승에게 나아가 공부하라고 권면하였고, 윤광연은 肅齊 宋稱圭의 문하에 들어가 다른 생도들과 함께 글을 읽었다. 하지만 남편이 평범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벼슬을 단념하고 안빈낙도의 길을 택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윤광연도 정일당의 충고를 받아들여 일찍 관직을 포기하고 제야선비로서 문생들을 가르치며 부인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면서 일생을 보냈다.

정일당은 윤광연이 학문과 덕성 수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해 주고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로는 많은 쪽지 편지들이 문집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윤광연에게 있어서 정일당은 스승이나 다름이 없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광연이 부인과의 관계를 서술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나를 中道의 바른 자리에 서게 하며, 천지간에 과오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내가 우둔하여 다 실천하지 못하였지만, 좋은 말과 바른 충고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겨둘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지간에 마치 엄한 스승을 대하듯 하였고, 조심하고 공경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정일당은 경제적으로 매우 빈한하여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 생활을 하면서도 아내로서의 도리를 완벽하게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집념 또한 대단하여 유교의 13경을 두루 읽어 연구하고 암송하여 誠과 敬으로 심성수양하는 것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여성 한문학자이다. 그러나 말년에 지병으로 극심한 고생을 하다가 1832년 9월 14일 61세로 타계하였다.

2. 體裁와 內容

정일당이 저술한 글은 『答問編』, 『言行錄』 등 모두 수십권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50세 때 (1822년 7월) 중병으로 인해 3일 동안 완전히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간신히 소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평생 동안 정성들여 저술했던 글들이 모두 소실되어 크게 탄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靜一堂遺稿』에 실려 전하고 있는 글들은 정일당이 타계한 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남편 윤광연이 수습 정리하여 보존해온 것들이다. 당시 사회의 현실이 여성의 문집 간행을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세인들의 편축을 무릅쓰고 윤광연은 전재산을 바쳐 정일당이 별세한지 4년만에(1836) 문집 『정일당 유고』를 간행하였다.

문집을 간행함에 있어서 行狀은 3종형제 진사 姜元會가 썼고, 墓誌銘은 刑曹判書를 지낸 梅山 洪直弼이 찬술하였으며, 跋文은 윤광연의 스승 圃齊 宋翼圭가 지었다.

그리고 『정일당 유고』의 초간본은 1836년에 단권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體裁는 원집 41장, 拾遺 3장, 부록 26장, 글씨 2장, 발문 2장 등으로 짜여졌다. 중간본은 1926년에 단권의 신헌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원집에 拾遺를 포함시켜 36장, 글씨 2장, 부록 27장, 발문 3장 등으로 구성되었고, 부록에는 초간본에 빠진 轍詞와 傳記 등이 추가로 삽입되어 있다.

정일당이 본격적으로 유교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남편 윤광연이 사업에 실패하고 학문에 전념하기 시작하던 때로, 그녀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부터이다. 남편에게 학업을 닦도록 권유하여 윤광연이 그 청을 받아들이고 학문에 전념하게 되자, 정일당 자신도 곁에서 바느질을 하며 함께 유교 경전에 관한 공부를 재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때 남편을 위해 쓴 시 「모夫子」가 전하고 있는 바 그 全文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침이 재덕이 없어 부끄러우나
어렸을 때 바느질을 배웠으니
당신께서는 모름지기 공부에만 힘쓰시고

衣食에는 관심을 두지 마오소서

정일당은 유교의 13경을 두루 읽어 깊이 연구하고 암송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전적들도 널리 읽어 고금의 역사와 정치의 변동에 대해서도 밝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전, 역사, 정치, 井田制, 귀신, 곤충, 초목 및 일생활 등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남편과 함께 궁리하고 토론하였으며, 그 결과를 두 권의 책으로 엮어 수양과 실천의 덕목으로 삼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언행 중에서도 선한 것이 있으면 모두 기록으로 남겨 교훈으로 삼고, 하나하나 정리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 십여권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다 유실되고 극히 일부의 글들만 남편 윤광연에 의해 수습 정리되어 전하고 있다.

정일당이 『小學』, 『大學』, 『中庸』 등을 읽어 그 요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하여 논의한 글들이 그녀의 행장 등에 기록으로 남아 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中庸』의 戒慎章에 관해서는 남편의 스승인 강계 송치규와 편지로 문답까지 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中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분석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일당은 『中庸』의 天命之性에 대하여, 하늘이 부여한 성품이란 子思가 말한 도덕의 근원을 극도로 높여서 말한 것으로, 결코 공중에 뜬 애매한 소리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하늘이 부여한 성품에는 애당초 남녀의 차별이 없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스스로 太姒나 太任과 같은 성인이 되기를 기약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여성도 결심과 노력의 여하에 따라 聖人이 될 수도 있고 소인배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여성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男女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크게 주목된다.

그리고 誠과 敬으로 심성수양하는 것을 중시한 학풍과 학풍으로 미루

이 보아 정일당은 성리학파에 속한 한문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일당은 심성수양을 二氣論과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이는 정일당의 실천을 위주로 한 학문적 성격 및 19세기 초반 서울 일원의 학문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일당은 誠을 사람의 존립 근거로 보고 敬을 사람의 존재 조건으로 간주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를 道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모든 性情을 거느리기 때문에 敬으로 마음의 주체를 세우지 않으면 멀고 힘든 수행의 과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분발해서 멈추지 않는 自強不息의 노력을 중시하고 得道의 길에 나태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정일당의 이와 같은 수행의 경지는 다음의 詩 「夢中詩」에 잘 나타나 있다.

여생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성현이 되기로 한 기약을 저버려 부끄럽네
늘 증자를 사모해 왔으니
이제 자리를 바꾸어 떠나야겠네

위의 詩는 정일당이 별세하기 3일 전에 지은 것으로, 죽음에 대하여 이미 달관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적인 자연환경과 혈육이 전멸하는 비극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도리를 다할 뿐, 운명을 탓하지도 않고 현실에서 도피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誠과 敬을 실천하는 데에만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정일당이 誠와 敬을 중시한 까닭은 다음과 같은 詩 「誠敬吟」에 잘 나타나 있다.

誠이 없으면 어찌 살며
敬이 없으면 어찌 존재하리
오직 이 두 가지만이

도로 들어가는 관문일세.

姜元晷가 行狀에서 “유학을 계승한 정통 명문가에서 태어나 그 기상이 단정 장엄하고, 그 언사가 간결 정직하며, 그 거동이 자연스럽고 周密하다”고 찬미한 것도, 정일당이 畚과 鍤을 토대로 수행하여 安貧樂道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정일당의 고고하고 단아한 삶의 자취는 다음과 같은 詩「埤園」에 잘 드러나 있다.

탄원은 그윽하고 고요하니
그 단아함이 선비가 살기에 좋아
홀로 천고의 시적을 탐독하며
작은 오두막에서 고고히 산다네

정일당이 남긴 詩는 모두 38편인데, 그 주제가 거의 대부분 학문에 대한 집념, 심성 수양, 도덕적 훈계, 안빈낙도의 생활, 자연속의 관조, 달관의 체험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례, 창송, 축원 등을 다룬 작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일당의 詩에서는 낭만적이거나 서정적인 요소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정일당이 성리학적 유교규범을 엄격히 지키고 실천하며 심성수양에 관한 소재들을 정리하고 다듬어 詩文으로 표현하는 것을 생활화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일당은 80여 편에 달하는 서간문을 위시하여 행장, 제문, 묘지명 등 상당히 많은 분량의 散文도 남기었는데, 이 또한 그 문체가 질박 강건하고 도학적인 취향을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또한 정일당의 遺文 속에는 높은 학문, 뛰어난 지혜, 영민한 처신, 인자하고 효성스러운 품성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독자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에 선생님을 뵙고 오시면서 '非禮勿視聽言動'이란 글귀를 얻어 그것을 새겨 걸러고 하신다니 참으로 값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 구절은 안자의 질문에 대한 공자님의 답변으로, 안자가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평생 힘을 바가 무엇인가를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더욱 돌아가신 시할아버님께서도 일찍이 이 구절로써 스스로 힘쓰시고 또 후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윗 글은 남편 윤광연이 正心으로 학문에 주력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 송부했던 것으로, 儒學에 대한 정일당의 식견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정일당은 남편을 권면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학문과 심성수양에 남다른 정진을 보였던 바, 그 실상이 다음과 같은 서간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저는 일개 여자로 규방에 갇혀있어 들은 것도 아는 것도 없지만, 오히려 바느질과 빨래, 청소 등을 하는 사이사이에 옛 경전을 읽으며 그 이치를 탐구하고 실천하여, 옛 사람이 담았던 경지에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달신께서는 대장부로서 道에 뜻을 두고, 스승을 모시고 친구를 사귀면서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으니, 어떤 배움인을 불가능하며, 어떤 강의인을 밝지 못하며, 어떤 실천인을 이루지 못할 바가 있겠습니까? 仁義로 말미암고 中正을 세운다면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또한 정일당은 예학에 관한 공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법이 天理의 절도요, 형식이므로 먼저 어떤 것이 예법이고 어떤 것이 예법이 아닌지를 밝힌 연후에 자기의 사욕을 과감히 끊고 天理를 실천한다면 正道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아비의 지어미에 대한 배려라고 할지라도 예에서 어긋나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았다.

스승은 道가 있는 곳으로서 임금이나 아버지와 일체입니다. 스승을 찾아뵙는 것은 아버이를 찾아뵙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어찌 제 병 때문에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병세가 심하긴 해도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당신께서 道를 듣는다면 실사죽는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영광이나, 원컨대 급히 탈 것을 준비시켜 길 떠날 준비를 하소서. 부모를 섬기면서 사사로이 처자를 생각한다면 孝가 돈독하지 못할 것이요, 임금을 섬기면서 사사로이 처자를 생각한다면 忠誠을 다하지 못할 것이요, 스승을 섬기면서 사사로이 처자를 생각한다면 배움이 성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정일당은 남편의 하는 일이 그릇되었다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즉시 편지로써 그 부당함을 지적해 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일당은 아내로서의 도리를 잘 이행한 현모양처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스승의 역할까지 하면서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참으로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다고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일당은 시집이나 친정이 다 경제적으로 매우 빈한하여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으며, 자식복마저 없어서 5남 4녀를 낳았지만 단 한 명도 기르지 못하고 모두 잃고 말았다. 다음 글은 들이 되기 전에 죽은 막내딸을 공동묘지에 묻고 표지를 세우면서 이미로서 느낀바비통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슬픔이 달관으로 절제되어 哀而不傷한 정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아아! 이것은 파평 윤광연의 영아 무덤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季淑이고 어머니는 姜氏다. 갑술년 8월 29일 서울 약현 埧園에서 태어났다. 단정하고 총명하여 서너 달만에 능히 부모의 얼굴을 구별하여 울다가도 부모를 보면 울음을 그쳤다. 가까이 하면 웃음을 띠고 멀리하면 눈동자를 흘기니, 이것이 바로 朱子가 말한바 저각이 없는 아이들도 부모를 보면 웃는다고 한 것이 아닐까. 이전에 5남

3녀를 낳았으나 모두 말을 배우기 전에 죽어,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 아이가 최후에 태어나자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기움인 애정은 사내아이와 같았다. … 죽은 날은 을해년 정월 초나흘이니 한 돌이 되지 못하였다. 팔주에 땅이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마을 남쪽 斥峰 오른쪽 산자락에 매장하였다가 同月 14일 이곳에 정식으로 매장한다. …… 슬픔이 넘쳐서 멈추지 못하고 글을 지어 새기니, 인정에 빠져서 지나치게 하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후세 사람들은 이를 양해하여 혹시 쟁기로 갈아엎어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이처럼 정일당이 쓴 散文은 대부분 짧막한 것들이지만, 간명한 문체에 자기성찰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잘 표현된 명문들이다. 따라서 학문에 대한 집념, 심성수양, 도덕적 훈계, 안빈낙도의 생활, 자연속의 관조, 달관의 체험 등에 관한 소재들을 정리하고 다듬어 표현한 詩文들과 함께 그 문학사적 가치를 새롭게 규명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3. 文學史的 意義

정일당은 결혼 전에 이미 四書를 읽고 書藝도 어느 정도 익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유교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남편 윤광연이 사업에 실패하고 학문에 주력하기 시작하던 때로, 정일당의 나이 이미 30세가 다 되어서였다.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삶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며 남편 윤광연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실정이었는데, 자신 또한 바느질감을 손에 들고 한쪽 구석에 앉아 남편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틈틈이 경전을 공부하고, 천지와 사람의 이치를 탐구하고,

성품과 천명의 근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의 철학적 탐구를 통해 여성도 본질적으로 남성과 다를 바 없으며, 학문과 덕성수양을 통해 堯舜과 같은 성인의 경지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강한 자아의식을 표방하였다. 그러므로 姜元晸는 정일당의 行狀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극찬하였다.

性情의 바른 것은 詩經의 關雎에서 얻은 것이고, 성실을 밝힌 월학은 中庸에서 얻은 것이며, 안빈낙도하는 생활은 顏回의 陋巷陋巷에 부끄럽지 않다. 詩에서 발휘된 문장은 성리학의 명분에 넣을 만하고, 단정한 필재에는 심성수양의 경건함이 드러나 있으며, 서간문에는 학문성취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또한 정일당은 가정을 다스리는 법도에 있어서도 반듯하여 가깝거나 먼 사람들을 접대함에 있어서 한 번도 결례를 하지 않았으며, 비록 성긴 밥과 나물국, 묽은 술과 적은 안주라도 반드시 정결을 다하여 손님들이 가난을 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율령원은 아내 정일당을 잃고 그 애절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 의심난 것이 있으면 누가 그것을 풀어 주겠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누가 그것을 도와주겠는가? 착오가 있으면 누가 그것을 바로잡아 주겠는가? 타당하고 바른 논리와 오묘한 뜻을 어디서 듣겠는가? 심신을 수양하고 품성을 함양하는 방도를 어디서 講磨하겠는가? 내가 큰 과오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설로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과 스승과 벗들의 훈도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대의 공이 가장 크다.

정일당은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접대하고, 바느질을 하고, 질병을 간호하는 일 외에 유교의 13경을 다반사로 여겼다. 그리고 순임금이 마음에 대하여 설한 것과 탕임금이 성품에 대하여 논한 것 등을 정밀히 연구

하고 강론하였다. 즉 정일당은 여성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면서 성현의 경전에 대해서도 침잠 연구하여 마음을 수양하고 몸을 닦는 요령을 설파하였으며,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접대하는 방도가 정통 유교의 바른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정일당의 遺文에는 과장되거나 화려한 작태가 전혀 없고, 오로지 수신과 공리에만 역점이 두어져 있다. 그러므로 당시 선비들이 정일당의 人品과 文才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文集을 편찬할 때 序와 跋, 그리고 輓章 등을 써준 文人 學者들도 근 20여명에 달하였다.

정일당은 평생동안 학문을 독실하게 하며, 천지와 사람의 이치를 탐구하고 성품과 천명의 근원을 연구하였다. 그렇지만 학문이나 문학적 업적보다 심성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더 중시하였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애환이나 그리움, 자연의 풍광 등을 읊은 당시 여성 文人들에 의해 쓰여진 詩文들과는 달리, 정일당의 詩는 오로지 수신과 공리에만 역점이 두어져 있고, 낭만적이거나 서정적인 요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정조~순조대에 걸쳐 행적을 남긴 여성 성리학자이며 文人인 정일당의 遺稿에 관한 연구는, 조선 후기 성리학의 여성계 보급과 여성들의 학문활동 및 의식변화 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한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간 한국 한문학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여성 文人들의 경우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지나치거나 경시해온 것이 사실인데, 지덕을 겸비하고 지행을 함께 닦은 여성 지식인일 뿐만 아니라, 여성 성리학자요, 文人으로 그 행적이 출중한 정일당을 계기로 여류문학의 입지도 새롭게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靜一堂遺稿 序

정일당유고 서문

신원봉 번역

무릇 사람이란 형제가 있으면 서로 화합하고 친구가 있으면 서로 협력하니, 이는 모두 인륜의 지극한 즐거움이나, 예로부터 이 즐거움을 얻은 자는 아주 드물었다. 하물며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타일러 경계하고 그것을 다반의 일상생활 속예까지 지속시켜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한다면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는가? 우리 문중의 탄원 명직은 어릴 적에는 호승심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질이 있어, 행하는 바가 모두 옳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관례를 받은 20대 이후부터는 점차 도를 지향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강재 선생 문하에 나아가 힘을 다해 독서하고 뜻을 키우며 힘써 실천하니, 나는 일찍부터 그를 중히 여겼다. 근래에 더욱 궁핍해지고 거기다 배우자까지 잃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사는 것이 처량하고 허전할 것인데도 도리어 더욱 분발해 처음의 뜻을 어기지 않으니 나는 그를 더욱 남다르게 생각했다. 하루는 돌연 소뱃자락에서 『정일당유고』라는 조그만 책자를 끄집어내더니 울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죽은 저의 처가 지은 것으로, 비단상자 속에 들어 있던 것을

수습한 것입니다. 일찍이 저의 처는 문장을 짓는 것은 부인이 할 일이 아니라 하면서 꺼내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처는 죽었지만 평소의 뜻을 손상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대로 없어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처가 지은 시는 적지만 그 요지는 모두 배우는 사람의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말입니다. 문장은 화려함과 수식이 없지만, 심신수양에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학문을 논함에는 성경(誠敬)을 위주로 하고, 공부를 논함에는 격물치지와 그 실천에 역점을 두어 조목조목 자연스럽게 경전의 뜻과 부합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아내로서의 몸단장과 살림살이의 틈에 옛 경전에 잠심하여, 지혜와 식견에 오묘한 깨달음이 반드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양의 깊이와 사물을 분별하는 식견의 정도는 남편인 저까지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기질을 서서히 변화시켜 스승을 따르고 친구를 사귀게 하여 큰 죄와 허물을 면할 수 있게 한 것은 모두 아내의 덕이었습니다.” 나는 숙연히 들으면서 처음에는 무릎을 치며 탄식하다가 마침내는 무릎을 모으고 예를 갖추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대를 남다르게 중히 여긴 것도 그런 까닭이 있었네. 그러, 평시에도 끊임없는 아내의 경계와 조언이 있었구먼! 그러니 어찌 남다르게 생각되지 않았으리?” 예로부터 후세에 이름을 남긴 명석하고 어진 부인들은 효나 정절, 덕행이나 문장 중 한 가지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했는데, 의리에 정통하고 학문의 조예가 깊은 부인에 대하여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책이 어찌 규방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겠는가? 더구나 이 일에 비교해 볼 때 형제간의 화목과 친구간의 교류, 문답 등에 있어서의 그 쉽고 어려움이나 잘잘못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명적이 발간하고자 하는 책은 불후의 것으로 영원히 후세의 귀감으로 삼으려는 것이니 어찌 그만두게 할 수 있겠는가? 명적은 내게 일가의 친분이 있다하여 한두 마디 서문을 요청하니 모른 채 할 수 없어 주저넘고 망령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기꺼이 이 글을 쓴다.

승정기원후 4번째 갑오년(1834년, 순조 34년) 9월 무자일, 통정대부 전
대사간 좌평 윤계홍이 쓴다.

靜一堂遺稿序

夫人有兄弟而埤埤相和¹⁾ 有朋友而鍾呂相合²⁾ 是皆人倫中至樂 而自古人之
有此樂者 絕難得而或有之 況乎家室之內 夫婦相得簪珥之聲³⁾ 不絕於燕閑茶
飯之設 皆足以資益 則其爲樂何如也 吾宗坦園明直甫 少好氣節所行者 不能
無得失 自勝冠稍稍擢道 遂就正於剛齋先生門 固窮讀書 篤志勵行 余嘗重之
年來 其窮益甚又喪其肝體⁴⁾ 身計之法⁵⁾ 殆人所不堪 猶尚益奮勵 不渝初
志 余益異之 忽一日 袖出一小冊子 題曰靜一堂遺稿 泣謂余曰 此吾亡妻所著
文字之收拾於巾箱⁶⁾中者 嘗自謂 文章非婦人事 未或出於藏 其人雖歿 不欲傷
平日志 然亦終有所不忍湮沒者 其爲詩絕少而要 皆學者自警之言 其文又非華
靡藻飾 無非端端於不佞身心上 論學則主誠敬 論工課則斷斷乎 格致與踐履
條條自合於經旨者 蓋其當時治紅之暇 潛心古經 必有慧識妙悟 而其用工之淺
深 見處之摘掇 爲其夫者亦未能盡知 然而使其夫浸浸然變其氣質 從師就友
能免於大罪過者 皆婦人賜也

1) 혼저상화(埤埤相和): '혼(埤)'은 흙으로 구워 만든 피리이며 '저(議)'는 대나무로 만든 피리로서, 형은 혼을 불고 아우는 저를 불어 서로 조화된 소리를 낸다는 것으로 형제간의 화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2) 종려상합(鍾呂相合): 종(鍾)은 종(鍾)과 통용. 종(鍾)은 황종(黃鐘), 리(呂)는 남리(南呂)로서 황종은 오성(五聲)의 첫 음으로 궁(宮), 남리(南呂)는 팔 음으로 우(羽)임. 따라서 종려상합이란 첫 음과 팔 음을 서로 맞춘다는 것으로 친구간의 화합이나 협력을 가리킴.

3) 잠이지경(簪珥之聲): 관에 꽂아 늘어뜨려 귀를 장식하는 옥, 따라서 잠이지경이란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으로부터 즐겁나 경계에 대해 듣는 것을 의미함.

4) 반체(肝體): 매우자.

5) 저화(澹豁): 쓸쓸하고 텅 비다.

6) 진상(巾箱): 비단으로 겹을 한 상자.

余竦然聞之 始焉擊節興歎⁷⁾ 終焉斂膝⁸⁾起敬而曰 噫 余之於子 重之異之者 其有驗矣 其有資於粹理之警 茶飯之益也 是尤豈不絕異矣乎 古昔哲辯賢媛之名於後世者 或以孝烈德行言語一節之美 照耀人耳目何限 而至於義理之精解 學力之深造 如此卷者 豈易得於閨閣之內也 其視兄弟之聯芳 明友之唱酬⁹⁾ 其難易得失 果何如也 明直之圖所以不朽 永作胎後之綱範 惡得已乎 明直甫¹⁰⁾ 以余有同人之好 要一言以識之 不敢自外 竊不揆僭妄 而樂爲之書

時 崇禎紀元後¹¹⁾ 四 甲午九月戊子 通政大夫 前大司諫 坡平 尹濟弘識

7) 擊節(擊節): 무릎을 치다.

8) 斂膝(斂膝): 무릎을 단정히 해서 앉다.

9) 唱酬(唱酬): 시가나 문장 등을 서로 주고받음.

10) 甫(甫): 관례를 하고 자(字)를 지을 때 자에 붙이는 글자. 일반적으로 남자의 미칭.

11)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숭정은 중국 명나라 마지막 임금 사종(思宗) 장렬제(莊烈帝)의 연호. 특히 조선 후기에 청나라 연호 쓰기를 꺼려 '숭정기원후'라 썼음.

靜一堂遺稿
시(詩)

한춘섭 번역

1. 존경하는 시어머님 지일당의 시에 삼가 답합니다(정사, 1797년,
정조 21년)

배움은 모름지기 윤리를 돈독히 하는 데서 시작되니,
어린이를 자애롭게 대하고 노인을 편안히 모셔야 겠지요.
고삐를 끈추잡고 이 길을 쫓아가면,
이로부터 탄탄대로가 이어질 겁니다.

敬次¹²⁾尊姑只一堂¹³⁾韻 (丁巳)

下學須敦倫
慈幼且安老
直轡從此行
自是坦坦道

12) 차운(次韻) : 남이 지은 시의 운을 따서 지은 시.

13) 지일당(只一堂) : 정일당(靜一堂)의 시어머니인 천안(天安) 전씨(全氏). 그녀의 집안 상황은 (강재문집(剛齋文集)) 권2, 19쪽에 잘 나타나 있다. 지일당은 정일당과 마찬가지로 조선조 학문과 시문에 능한 여류문인으로 이름이 높다. 이은상(李恩相) 선생은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에서, “학문이 높고 시문에 능하던 부인을 찾는다면 고구려 여왕(麗王), 신라의 성요(薛堉)를 비롯하여 유취춘(柳希春)의 부인 송씨, 광개군의 장모 봉원부부인(蓬原府夫人) 정씨, 난선현(蘭善縣) 허씨, 영향당(影響堂) 한씨, 지일당 전씨, 정일당 강씨, 윤지당(允摯堂) 임씨같은 이름난 부인을 들 수 있다”고 했다.

2. 지일당의 원래 시

봄이 오면 꽃은 활짝 피지만,
세월이 가면, 사람은 점점 늙어만 가네.
탄식한들 이제 무엇하리,
단지 착한 길을 쫓고자 할 뿐이다.

原韻

春來花正盛
歲去人漸老
歎息將何爲
只要一善道

3. 글 공부를 시작하며(무오, 1798년, 정조 22년)

서른이 되어 글을 읽기 시작하니,
배움에 동서를 가리기 어렵네.
이제라도 모름지기 노력만 하면,
아마, 옛사람의 경지에 가까워지겠지.

始課 (戊午)

三十始課讀
於學迷西東
及今須努力

庶期古人同

4. 서당 아이가 매맞음을 바라보며

아이야 근신하고 삼갈 수 있겠는가?
왜 네가 매를 맞는가?
이제 뉘우침이 생기거든,
마음을 다해 바른 몸가짐을 회복하거라.

見書童被撻

爾能謹而慎
過罪¹⁴⁾何處從
自今便有悔
誠心復正容

5. 산골 집

산중의 군자 집,
밝은 창가에서 독서를 하네.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니,
사림문의 늙은 삽살개가 짖어대네.

14) 과과(過罪) : 죄를 꾸짖다.

山家

山中君子宅
讀書對明牕
有客從遠至
柴門¹⁵⁾吠老獐¹⁶⁾

6. 스스로 분별하고자

좋은 세월들을,
유랑하여 헛되이 보내지마라.
배우지 않은 이룰 거울삼아라.
늙고 쇠약하면 궁핍한 집안 탄식뿐이네.

自勵

休令好日月
游浪斷送¹⁷⁾虛
宜鑑不學者
枯落歎窮廬

15) 시문(柴門) : 사립문.

16) 말(獐) : 삼살개.

17) 단송(斷送) : 아무렇게나 보냄.

7. 근본이 착함이고나

사람의 성품은 본래 모두 선해,
 그것을 다하면 성인이 된다네.
 인을 행하려 하면 바로 거기에 인이 있으니,
 이치를 밝히 몸을 성실히 하세.

性善

人性本皆善
 盡之爲聖人
 欲仁仁在此
 明理以誠身

8. 남편에게 드리웁네

저는 재주와 덕이 없어 부끄럽지만,
 어려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참 공부에 모릅지기 힘쓰시고,
 먹고 입는 것은 걱정 마소서.

呈夫子

妾愧無才德
 幼年學總針

44 國譯 靜一堂遺稿

眞工須自勉

衣食莫關心

9. 길 떠나는 남편에게 드리는 시

맑게 갠 새벽 눈물 뿌리며 당신을 보내니,
어느 산천에 가시더라도 잊지 마소서.
떠나기 전 오직 한 말씀 드리오니,
세상사 돌고 돌이 저 푸른 하늘 같이 여기소서.

敬呈夫子行屬

清晨灑泣送君子
去去湖山應不忘
臨行惟有一言告
世事循環如彼蒼

10. 설달 그믐 밤

좋은 세월 하는 일 없이 보내,
내일이면 내 나이 쉰 하나.
밤중에 슬퍼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남은 여생 오직 내 한 몸 닦을 뿐.

除夕感吟

無爲虛送好光陰
 五十一年明日是
 中宵¹⁸⁾悲歎將何益
 且向餘生修厥己

11. 병을 앓고 나니 (임오, 1882년, 순조 22년)

병들어 거의 위태롭다 다행히 차도가 있어,
 맑게 갠 가을날 창을 여니 마음이 상쾌하다.
 차도가 있는 것이 어찌 다 인삼과 백출 때문이겠는가?
 지금에서야 성(誠)의 밝은 경계를 몸으로 알겠도다.

病後 (壬午)

一病幾危今幸差
 清秋開戶余心快
 調濟豈專參朮功
 伊來體認誠明界

18) 중宵(中宵): 한밤중.

12. 우연히 시 읊으며

나에게 삼년독은 쑥이 없어,
속 깊은 병을 아직 고치지 못했도다.
지금이라도 장만하지 않으면,
훗날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으리!

偶吟

我乏三年艾
沈疴苦未醫
及今猶不蓄
他日悔何追

13. 중용을 읽은 후에

자사께서 지은 한 편 책이,
천년을 이어 많은 지혜를 열게 했도다.
본체가 확립됨에 치우침이 없고,
작용이 행해짐에 어긋남이 없어라.
처음부터 경계하고 삼갈 수 있어야만,
마침내 중화에 이를 수 있도다.
도에 이르는 관건은 세 가지 덕이니,
지극하도다, 이치여! 무엇을 덧붙이리!

讀中庸

一編思聖傳
千載繼開多
體立無偏倚
用行不謬差
始能存戒懼
終可致中和
達道關三德
誠哉理義加

14. 종손 근진의 아내에게 (최씨, 권씨)

끈음과 정성을 으뜸으로 삼고,
순종을 임무로 삼게나.
이것이 부녀의 도라네.
자네는 모름지기 이것에 힘쓰게나.

示從孫謹縝婦 (崔氏, 權氏)

貞懇首矣
順從務焉
是婦道也
爾須勉旃

15. 밤에 홀로 앉아 (계미, 1823년, 순조 23년)

밤 깊어 모두 고요해지니,
빈 들엔 달빛만 새하얗다.
마음은 씻긴 듯 맑아,
홀연 성정이 드러난다.

夜坐 (癸未)

夜久群動息
庭空皓月明
方寸¹⁹⁾清如洗
豁然見性情

16. 탄원집 들레에서 (갑신, 1824년, 순조 24년)

탄원은 그윽하고 또 고요해,
단아함은 사람사는 데 이르러 합일하니,
홀로 천고의 전적을 탐구하며,
서까래 성근 초막에 높이 눕는다.

坦園 (甲申)

坦園幽且靜
端舍至人居

19) 사방 한 치의 넓이. 마음은 가슴 속 사방 한 치 내에 있다고 생각해 '마음'의 뜻으로도 사용됨.

獨探千古籍

高臥數椽廬

17. 해석 김상공(재찬)께서 주신 새 달력에 감사하며 (남편을 대신
해 지음, 병술, 1826년, 순조 26년)

명협에 양기가 돌아 은혜가 이웃에 미치니,
산촌 집에서 그것을 따라 봄 겨울을 기록한다.
다만 세월이 그저 흘러감을 근심하며,
경계의 글을 암송하며 나날이 새롭기를 꾀한다.

謝海石金相公²⁰⁾(載瓊²¹⁾)惠貺 新曆 (代夫子作, 丙戌)

芟莠²²⁾陽生惠及隣

山家從此記冬春

只憂時月悠悠過

誦服良箴²³⁾全日新

20) 상공(相公) : 재상의 존칭.

21) 김재찬(金載贊) : 조선 순조 때의 문신. 호는 해석(海石). 『장조실록』 편찬에 참여했고,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지낸 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음. 순조 묘정(廟庭)에 배향됨.

22) 명협(芟莠) : 요양금 때 조정의 칼에 난 상서로운 풀 이름. 초하루부터 매월 한 잎씩 나서 자라고 열 멋새째부터 매월 한 잎씩 떨어져 그름에 이르렀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다고 함.

23) 문제의 하나. 경계로 삼는 글.

18. 청한자 이관하 부친의 회갑연에 바치는 글 (남편을 대신해 지음)

북쪽 산 아래에서 덕을 길러,
빛을 숨기니 도는 더욱 높아라.
자제들은 학 울음처럼 맑고 부드러우며,
손자들은 대나무 그늘처럼 푸르도다.
세월은 화살과 같아 이제 회갑에 이르니,
손님과 친구들이 모두 잔을 권하도다.
남은 음덕이 아직도 다하지 않아,
네 필 말이 끄는 수레가 문 밖을 서성인다.

奉獻青翰子(李觀夏) 尊大人回甲壽席 (代夫子作)

養德北山下
潛光道益尊
鶴聲清和子
筠影綠生孫
弧矢方回甲
賓朋共俯樽
餘庥曾未艾
車馳佇容門

19. 박중로(병은)에게 드린 시 (남편을 대신해 지음)

뜻을 행함에 비록 근면이 중요하나,
 학문의 길은 모름지기 바른 것을 찾아야 하네.
 오래 지속하면 끝내 이루리니,
 산이 되고 우물도 될 것이라네.

贈朴仲略 (乘殷, 代夫子作)

志行雖貴勤
 門路須尋正
 可久終成功
 爲山與鑿井

20. 동갑 친구 (남편을 대신해 지음)

나이 선이 넘어서도 거칠고 어리석음은 여전하기만 하니,
 허물과 후회가 산 같아 어느 누가 고칠 수 있으리?
 자네들 이제부터 서로서로를 도와,
 바라건대 아름답고 운택하게 여생을 보내시구려.

示同庚²⁴⁾諸友 (代夫子作)

五旬荒鈍只依前

24) 동경(同庚) : 같은 나이.

尤悔如山孰可銷
諸子從今相扶助
願資麗澤送餘年

21. 탄원심장을 짓고 (남편을 대신해 지음)

숲 속에 살며 계곡 물을 마시고,
책을 꺾어보고 스스로 좋아한다.
이전의 닦음이 마음에 있어,
오묘한 경지를 넘겨다 볼만하다.
의문은 많으나 서적이 없으니,
누구를 쫓아가 물어볼꼬?
이 충용과 정도를 실천하면서,
그 도를 넓고 평탄히 하리라.

햇살이 기운 황혼녘,
빙설에 덮힌 험한 산.
말을 먹고 수레에 기를을 치지만,
앞길은 멀다고 하네.
마부가 약해 마차를 몰기 어려우니,
그 힘든 오르막 내리막길이여!
황혼에 이런 길을 만났으니,
근심과 걱정이 어떠하겠는가?

새는 지저귀며 무리를 찾고,

고기는 해엄치며 때를 쫓는다.
 계절이 풀려 따뜻해지니,
 그 즐거움이 차재롭다.
 어이 떨어져 홀로 있으니,
 끝내 친구들도 품해졌다.
 원컨대 세 가지 이로운 벗이 있어,
 내 허물을 경계해주었으면 한다네.

坦園三章 (代夫子作)

林居谷飲
 抱書自好
 前修有心
 庶幾窺奧
 群疑蒞塞
 孰從往印
 履茲中正
 坦平其道

景仄虞淵
 水雪嵒峨
 秣馬脂輅
 前路云遐
 僕弱難取
 登頓于嗟
 遭此晚暮

54 國譯 靜一堂遺稿

憂傷如何

鳥嚙求群

魚沫逐隊

節舒陽和

其樂自在

胡爲索居

終罕明輩

願言三益²⁵⁾

動箴吾過

22. 삼가 군탄 선생 시에 답하여 (남편을 대신해 지음)

영광을 찾아~~찾아~~ 물흘리신 송우암선생이여!
한밤 중에 그 날의 시를 슬퍼하도다.
후생이 장엄히 춘추대의를 읊으니,
흐르는 눈물이 어지러이 백발을 적시도다.

謹次丈席²⁶⁾ 灘詩韻 (代夫子作)

寧陵²⁷⁾ 追泣宋夫子²⁸⁾

25) 삼익(三益): 삼익우(三益友), 즉 세 가지 이로운 벗을 말함. 삼익우란 곧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가리킴.

26) 장석(丈席):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

27) 조선 효종과 그 비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씨 능,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소재.

28)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가리킴. 우암은 효종과 관계가 깊음. 우암은 효종이 왕이 되기 전, 그의 사부였으며 왕이 된 후 간지 복벌제책을 추진했고, 죽어서도 효종묘(孝宗廟)에 배향(配享)되었음.

中夜悲歌當日詩

後生莊誦春秋義

感淚頻添白髮垂

23. 여러 아이들을 일깨워 봄

너희는 모름지기 열심히 책을 읽어,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어찌 헛되이 외어 읊조리기만 할텐가?
마땅히 성현과 같아지도록 해야지.

勉諸童

汝須勤讀書

毋失少壯時

豈徒記誦已

宜與聖賢期

24. 설달 그믐날 우연히 지음

옛 성인이 이 도(道)를 전해,
사람마다 모두 이것을 따른다.
마음의 달이 시리도록 맑은 물에 비치니,
정채로운 빛이 천추에 빛난다.

56 國譯 靜一堂遺稿

서로 전한 경(敬)자 하나,
누구라 이 빗장을 뿜을 수 있겠는가?
멀리서 찾으려 하면 헛수고에 불과하니,
모름지기 힘써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하리.
종신토록 스스로 노력해야지,
도를 바라보고 어찌 주저하리오.

除夜偶作

古聖傳斯道
人人所共由
心月印寒水
精光炯千秋
相傳一敬字
關鍵孰能抽
驚遠徒虛勞
力進須近求
終身宜自強
望道敢遲留

25. 안수재(준갑)와 고신의(정진)에게 증정함 (남편을 대신해 지음)

성인의 도는 큰 길과 같아,
옛과 지금이 그것으로 말미암도다.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 모름지기 탐구하는 것이라네.
 책 속에도 나침반이 있어,
 뚜렷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네.
 부지런하게나 고삐를 바로잡고 나아가,
 도의 경계에서 모두 유유자적하세나.

贈安秀才駿甲兼示高信義 (廷植, 代夫子作)

聖道如大路
 古今之所由
 學文非別致
 向上須探求
 卷中指南術
 歷歷在前修
 勉哉駕直轡
 道域借優遊

26. 남편께 드림

옛부터 간재선생을 좇아,
 한결같이 도를 구하였소.
 이제 삼십 년이 되었는데,
 조예가 과연 어떠한지요?

呈夫子

昔從良齋日
求道斷無他
于今三十載
造詣果如何

27. 설날 아침에 삼가 남편께 드림 (경인, 1830년, 순조 30년)

사람이 참으로 도를 듣지 못했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경사스러운 것이 없겠지요.
오직 공자의 가르침을 좇아,
일심으로 성(誠)과 경(敬)을 다함시다.

元朝敬呈夫子 (庚寅)

人苟未聞道
不死亦非慶
惟將夫子訓
一心盡誠敬

28. 뜨락 풀을 뽑고서

작은 호미로 우거진 잡초를 뽑는데,

단비가 흙먼지를 적셔주네,
 염웅의 뜻에 못내 부끄러운데,
 산 속 떠짐으로 옛 길이 열리네.

除庭草

小鋤理荒穢
 快雨²⁹灑塵埃
 縱愧謙翁³⁰意
 山茅舊逗開

29. 조카 성규를 타이름

선생께서 너의 효심을 알아,
 너로써 형의 뒤를 잇게 했다네.
 원컨대 너는 선생님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한결같이 하게나.

示誠圭姪

先生知爾孝
 以爾承兄後

29) 가을 때 오는 비

30) 북송(北宋)의 학자 주돈이(周敦頤)를 가리킴. 주희는 주돈이가 “자연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염웅의 뜻을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물을 뿜아내고 길을 만드는 뿜자의 인위적, 미자연적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라 볼 수 있다.

顧爾事先生

一如事父母

30. 임오년(1822년, 순조 22년) 겨울, 남편은 나에게 오언절구한 수를 보여주며 학문에 계속 힘쓰도록 독려했는데, 그 시에 화답하지 못하였다. 출연 어젯밤 꿈속에서 그 시에 대한 화답을 했는데, 깨어나서도 뚜렷이 기억이 나길래 그것을 기록하여 존한다. (임진년:1832년, 순조 32년) 별세하기 3일 전임

여생이 단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으니,
성현이 되겠다던 기약을 저버려 부끄러워라.
사모하던 증자를 생각하며,
이제 자리를 바꾸어 죽음을 바르게 할 때입니다.

壬午冬 夫子示余五絕 一道勉志業之進 就余未及仰和矣 忽於昨夜夢中 追次前韻 既寤而猶記 遂錄以存之 (壬辰卽屬顧³¹⁾前三日)

餘生只三日
慙負聖賢期
想慕曾夫子
正終易簀³²⁾時

31) 속광(屬顧) : 빙종을 가리킴. 숨을 거두려는 사람 코에 새 숨을 대어 호흡의 유무를 알아본 데서 유래된 말임.

32) 역좌(易簀) : 대나무 자리를 갈. 증자가 병이 위독해졌을 때, 그가 깔고 있던 자리가 너무 화려해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다고 바꾸게 한 뒤 죽은 고사에서 나왔음.

31. 경(敬)을 우리르고 (이하는 지은 연도를 알 수 없음)

만물의 이치는 천지에 있으며,
한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네.
경(敬)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면,
어찌 먼 길을 달려갈 수 있겠는가?

主敬 (以下年未考)

萬理原天地
一心統性情
若非敬爲主
安能駕遠程

32. 매미 소리를 듣고

모든 나무에 가을 기운이 서리고,
매미소리는 석양에 어지러운데,
물성에 감응하여 나직히 울조리며,
숲속을 홀로 거닌다.

聽秋蟬

萬木迎秋氣

62 國譯 靜一堂遺稿

蟬聲亂夕陽

沈吟感物性

林下獨彷徨

33. 공자님 우리르고

크도다 공자의 덕이여!

막막한 바다처럼 끝이 없어라.

기껏

표주박이나 헤아리는 자가,

어찌 모든 강을 받아들임을 알리오?

仰孔夫子

大哉夫子德

滄海浩無邊

嗟爾測蠡者

安知納百川

34. 내집을 찾는 손님

먼 데 사는 사람이 남편을 양모하여,

북관에서 찾아왔다고 하네.

집이 가난해 음식이 동났으니,

오직 술 석 잔이 전부라오.

客來

遠人慕夫子
 云自北關³³⁾來
 家貧易飲食
 唯有酒三杯

35. 변화가 보이는 내 집 탄원

슬프도다 타락한 세상이며,
 끝내 길을 잃어버린 자 얼마이던가!
 넓고 평탄한 우리집 길로,
 원컨대 고삐를 바로잡고 가소서.

坦園³⁴⁾前路通乎康莊³⁵⁾

衰哉叔季世³⁶⁾
 幾人逐迷程
 坦坦吾家路
 願言直轡行

36. 성과 경을 담고 읍네

33) 북관(北關) :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통칭.

34) 정일당이 살던 집. 남편 윤광연(尹光演)의 호가 탄재(坦齋)이므로 남편의 호를 따 탄원이라 했음.

35) 강장(康莊) : 변화한 거리. '강'은 오거리, '장'은 육통의 거리임.

36) 숙계세(叔季世) : 정치, 도덕, 풍속 등이 쇠퇴하여 망해가는 시대. 일반적으로 숙세(叔世) 또는 숙계(叔季)라 함.

64 國譯 靜一堂遺稿

성(誠)이 아니면 무엇이 있겠으며,
경(敬)이 아니면 무엇이 존재하겠는가?
오직 이 둘만이,
도에 드는 문이라네.

誠敬吟

非誠曷有
非敬曷存
唯斯二者
入道之門

37. 담배피우기를 경계하신 시조부님께 답함

나쁜 풀은 피우지 말아야 할 것이니,
옛적에는 이름조차 듣지 못했도다.
하물며 우리 시조부님의 훈계가,
이처럼 분명히 후세에 이어지고 있음에랴!

謹次王舅戒吸煙草韻

惡草不宜吸
於古未聞名
矧余王舅訓
垂後甚分明

38. 우연히 시 읊으며

변하지 않는 선생의 뜻이여!
 오로지 옛 성인을 배우고자 하셨네.
 알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고,
 사물을 대함에 몸을 먼저 바르게 하셨네.

偶吟

斷斷先生志
 唯期學古聖
 有知行必踐
 應物身先正

서간문 書

신원봉 번역

1. 강취여(일희)께 드림 (남편을 대신해 지음)

아우분이 와 직접 전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읽고 나서 초가을을 맞아 편안히 지내시고 계심을 알고 나니 비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듣기로 최근 공복(功服)의 상(喪)을 당하시고 또 어린아이의 죽음이 있었다 하니 단지 경악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상황을 보아 제가 미력하나마 힘이 되어야 할 텐데, 몸은 병들고 거기다 집사람까지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니 단지 한없이 걱정만 앞설 뿐입니다. 듣기로 후사를 이을 아들이 잘 자라고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으니 반드시 집안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모름지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배우게 하여 공부에 취미를 잃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8촌 형제들(참봉인 성희와 운희)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평소 효성이 지극하고 신의가 두터워 범인과 크게 다르며, 위인이 절도가 있으니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멀리서 스승의 가르침을 구할 필요 없이 아이로 하여금 이들 사이에서 가르침이 몸에 절로 배이게 한다면 어찌 가깝고도 편안하며 또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까? 늦가을엔 봉기(奉企)라는 역왕(歷枉)의 절기가 있어 이 때가 되면
제 손이 받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의가 아니나 김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했으니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전(1808년, 순조 8년) 7월 19일 아우 드림

與姜就如(日會)書 (代夫子作)

令季氏³⁸來訪 袖傳惠札 披讀³⁹之餘⁴⁰從審 新涼靜暇 慰荷無比 第聞
間⁴¹遭功服之喪⁴² 兼以天慘 警愕何喻 弟省狀姑依 而身恙室病 去益沈痼 悶不
可狀聞 胤⁴³兒善長可幸 而蒙養之功 果不失義方⁴⁴否 須及時勉誨 無至扞格之
患⁴⁵ 如何 令三從⁴⁶氏(參奉星會及雲會)昆季⁴⁷ 素知友敦睦 迨殊凡人 則爲人
大節 不出此箇道理 不必遠求師資 而使胤兒 日夕薰習於其間 則豈非便近而
切實乎 抄秋有歷枉之期云 奉企奉企 餘手謄倩書⁴⁸ 不備儀 戊辰 七月 十九日
弟某⁴⁹拜

37) 일회(日會): 정일당의 천정 큰 오라바니. 정일당에게는 일회(日會), 시회(時會) 두 오라바니가 있었음.

38) 제씨(李氏): 상대방의 아우에 대한 존칭.

39)披讀(披讀): 펴이나 편지를 읽다.

40) 여(餘): 여(余)와 통용.

41) 간(間): 요증.

42) 공복지상(功服之喪): 일반적으로 삼을 당하면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는 기간이 달라진다. 이 기간에 따라 상복의 종류도 달라지니 이를 오복(五服)이라 한다. 참회(斬衰)는 부모상으로서 3년이며, 제회(齊衰)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내외분, 형제간의 상으로서 1년이며, 대공(大功)은 사촌 형제의 상으로서 9개월이며, 소공(小功)은 오촌 아버지 내외분이나 6촌 형제의 상으로서 5개월이며, 시마(緦麻)는 칠촌 아버지 내외분이나 환촌 형제간의 상으로서 3개월이다. 이 중 공복은 대공과 소공의 총칭임.

43)胤(胤): 후사를 아들 아들.

44) 의방(義方): 가정에서의 교훈.

45) 한격지환(扞格之患): 완강히 거절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

46) 삼종(三從): 관혼.

47) 곤제(昆季): '곤'은 만형, '제'는 막내동생 또는 단순히 아우를 가리키기도 함.

48) 천서(倩書): 남의 손을 빌려 씀.

49) 모(某): 자기의 겸칭.

2. 문중에 드리는 글(남편을 대신해 지음)

찬서리가 날로 심해지는데 문중 여러 어른들께서도 다들 편안하신지 궁금합니다. 이 몸의 병은 가을을 지나도 완쾌되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을 형언할 수 없습니다. 아뵐 말씀은 저의 집에서 일찍이 만들어 놓은 본파의 족보는 조상의 사적과 자손들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여러 해를 두고 만든 것입니다. 갑자년에 온전에 산다고 하는 율행이라는 문중 사람이 몇 차례나 찾아와 보고 명단을 정리하는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겠다기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한 벌 밖에 없는 책의 서문과 명단 일부를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 들으니, 그 족보를 사사로이 출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인쇄본이라는 것을 보았더니, 소목이 물란하고 적서가 뒤섞여 있었으며, 그 밖에 잘못된 오류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백촌의 무식한 자로 제멋대로 자기 이름을 붙여 보려는 마음에서 이런 망측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번에 다시 족보를 만드는 일에 이 사람이 찾아와 속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중에서 엄하게 배척해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전의 죄도 엄하게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부디 여러 어른들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1814년, 순조 14년) 9월 15일 문중인 장연 율행

與宗中書 (代夫子作)

霜寒比緊 伏惟僉體候⁵⁰⁾萬衛伏憐 無任區區⁵¹⁾宗下 身恙經秋 尙不得夬蘇 私
悶何狀 就白 宗下家 曾修本派譜牒 祖先事蹟及子孫名錄 十分詳細 經始有年
矣 甲子歲 云居恩津宗人名允行者 來見屢次 自願於修單之任 故信而無疑矣
未幾⁵²⁾持單本 序文與若干單子而去 屢月後始聞之 則私自印出 故推見其所謂
印本 則昭穆⁵³⁾紊亂 嫡庶混淆 其他註誤⁵⁴⁾ 無所不至 此不過渠以鄉曲⁵⁵⁾無識者
產生冒托之心 有此罔測之舉 今番譜役 又恐此人來參 致有見欺之弊 若然 則
宗中嚴斥勿受 且懲前罪 至仰至仰 先事之慮 有不敢不然者 委此書告耳 餘不
備⁵⁶⁾ 伏惟僉下察

甲戌 菊月⁵⁷⁾ 望日⁵⁸⁾ 宗下某拜

3. 일가 광주께 드림 (남편을 대신해 지음)

한 해가 저물고 눈이 깊이 쌓였는데, 가서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
다. 정양하시는 중 편안하시기 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몸이 불편해
방에 침거하고 있지만 나아지지가 않아 스스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귀댁
의 3세 조상에 대한 글을 지금에서야 비로서 지어 보냅니다만, 그런 글을
지을 사람이 못 될 뿐만 아니라, 글의 체제도 졸렬하여, 조상님들의 광휘

50) 체후(體候): 안무를 들을 때 쓰는 말.

51) 구구(區區): 작은 모양.

52) 미기(未幾): 오래지 않아.

53) 소목(昭穆): 종묘나 사직에 신주를 모시는 차례. 시조(始祖)를 가운데 모시고, 그 왼쪽 줄을
소(昭), 오른쪽 줄을 목(穆)이라 하는데, 2, 4, 6세를 소에, 3, 5, 7세를 목에 모심.

54) 재오(註誤): 속여서 미혹되게 함.

55) 향곡(鄉曲): 시골, 벽촌.

56) 불비(不備): 편지 끝에 쓰는 말로서 의미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뜻임.

57) 국월(菊月): 음력 9월.

58) 망일(望日): 음력 15일.

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탁하시는 뜻을 저버리기 어려워 이렇게 참람되고 망령된 일을 하게 되어 두렵고 부끄러워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중에 남을 시켜 글을 써 서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을해(1815년, 순조 15년) 남원 풍연 윤된

與宗人光周書 (代夫子作)

歲暮雪深 瞻往良勤 卽惟啓居清重慰闕無已 宗末坏⁵⁹⁾ 蟄 吟荷頓無好況 祇用自憐 尊三世⁶⁰⁾ 文字 今始構呈 而不但非其人而已 體製蕪⁶¹⁾ 拙 不能發揮幽光第⁶²⁾ 難於遠孤盛意⁶³⁾ 有此僭妄之舉 悚愧交中 無以爲喻 餘病尙 不宜書儀 統希照亮

乙亥 臘日⁶⁴⁾ 宗末某拜

4. 부산의 일가 겸(謙)께 드림 (남편을 대신해 지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 번 반나절이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조문을 해야 하니 잠깐 사이 이미 옛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러러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어찌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날 장례를 치르느라 피로가 누적된 터에 일기마저 또 고르지 못하는데, 거상

59) 壞(坏): 때(坏)와 같음.

60) 삼세(三世): 조부, 부, 자의 삼대. {춘추}에서는 나와 아버지의 세살(보는 바의 세살), 조부 때 세살(들은 바의 세살), 증조 고조 때의 세살(전해들은 바의 세살)을 가리키기도 함.

61) 제무(製藝): 제(製)는 풍채, 무(藝)는 이치리위질. 따라서 제무란 몸이 뻗들어 초췌해진 것을 말함.

62) 제(第): 단지.

63) 성의(盛意): 고마운 뜻.

64) 납일(臘日): 동지(冬至) 뒤의 셋째 술일(戌日).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태조 이후 동지 이후 셋째 며일(未日)로 정했음.

하고 조석으로 상식을 받드느라 기력이나 제대로 차리시는지 걱정이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묵은 병에다 감기까지 겹쳐 날마다 신음하며 누워 있으니, 그 괴로움을 어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의하신 예법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우암 선생의 설에 의하면, 돌아가신 달에 부고를 들으면 단지 달수만 계산해 돌아가신 날에 소상(小祥)을 지내라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성복은 마땅히 부음을 들은 날로부터 계산해 입어야 하며 비록 후에 부고를 들었을지라도, 설사 몇 달 뒤에 들었다 하더라도, 성복은 그 달부터 계산하여 소상을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의 관점이 이처럼 명백하니 쫓아 따르는 데 의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 다 예의를 갖추지 못합니다.

병자(1816년, 순조 16년) 2월 25일 일가 윤광연 배

與宗人釜山之謙 (代夫子作)

省禮⁶⁵⁾ 頃者⁶⁶⁾ 半時⁶⁷⁾ 晤晤⁶⁸⁾ 迄庸伏慰襄奉⁶⁹⁾ 間已過行 仰惟孝思靡逮之痛 何以堪抑 積日⁷⁰⁾ 勞攘之餘 風日又此愆常 哀棣侍尊 動止⁷¹⁾ 支衡 遑念不能暫弛 宗末指病添感 日事⁷²⁾ 呻吟 悶苦何喻 下詢禮疑歸考 尤翁⁷³⁾ 說 則聞訃在亡月則 只計月數 而行練祥⁷⁴⁾ 於亡日 又曰 喪服 當從聞訃日計之 成服 雖後於聞訃數 月之後 亦不可據此爲斷 先正說既如是明白 遵用似無疑矣 餘不備 疏儀

丙子 二月 二十五日 宗末某拜

65) 생례(省禮) : 예절을 줄인다는 뜻으로 상제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 쓰는 말.

66) 경자(頃者) : 지난 번.

67) 반향(半時) : 반나절.

68) 진오(晤晤) : 가서 만나다.

69) 양봉(襄奉) : 장례를 모심.

70) 적일(積日) : 연일.

71) 동지(動止) : 행동거지.

72) 신(呻) : 꿀꿀거리다.

73) 우옹(尤翁) : 우암 송시열.

74) 연상(練祥) : 소상(小祥) 죽은 뒤 1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5. 풍천에 있는 일가 택림께 드림 (남편을 대신해 지음)

해가 바뀌지 반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소식이 막혀 있으니 안타깝고 우러러 그리는 마음을 어찌 금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들어 날씨가 점차 더워지는데 고요한 가운데 움직이는 일상의 계절이 모두 편안하신지 멀리 떨어져 걱정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해묵은 병이 자주 재발하여 나올 기약을 할 수 없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딱하고 처량할 뿐입니다. 때면 여러 종친들이 서로 아껴주는 우의를 생각하고 한번 찾아가 정담을 나누고, 또 명승지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이번 봄쯤에 출발할까 생각했는데 몸도 아프고 말도 시름시름해 끝내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 가을이나 겨울의 한가한 때로 미루었습니다. 그 곳 젊은이 중 증추과시에 응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파발의 시간이 촉박하여 이만 총총 줄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갑신(1824년, 순조 24년) 단월 열일 일가 윤평면 배

與豐川宗人澤霖 (代夫子作)

歲換適半 信息仍阻 悵⁷⁵⁾仰懷思 曷⁷⁶⁾惟其已 此際漸熱 靜中動用諸節 一向晏重 遠邇不容區區 宗末宿病頻作 振刷⁷⁷⁾無期 自顧悶憐 每念食宗氏相愛之誼 一次委進 稷鉞情話 兼作名區 壯遊⁷⁸⁾之舉 初擬今春發程矣 身恙馬瘡⁷⁹⁾ 此計竟違 更以秋冬間退期 而仲秋科時 郡中少年 如有入洛⁸⁰⁾之便 相報動靜 如何 餘

75) 悵(悵): 슬퍼하다.

76) 曷(曷): 어찌, …… 하지 않겠는가, “何不……”의 뜻과 같음.

77) 振刷(振刷): 떨치고 일어남.

78) 壯遊(壯遊): 큰 뜻을 품고 멀리 노닐.

79) 馬瘡(馬瘡): 앓다.

80) 入洛(入洛): 도움으로 들어감. ‘洛(洛)’은 후한(後漢)의 수도였던 낙양(洛陽)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유래되어 일반적으로 입경(入京)의 의미로 사용됨.

官職甚達 結此不備 伏惟亮照

甲申 端月 念日 宗末某拜

6. 외숙 권오재(중보)를 위로하는 글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갑자년 늦가을쯤일 것임)

인편이 드문데다 길도 멀어 안부를 들을 수 없으니 늘 그리는 마음에 답답했습니다. 지난 겨울 취여 오라버니가 돌아왔을 때 보내주신 편지를 보고, 그 때 비로소 외숙모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놀람과 슬픔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셨고 평소 기력도 왕성하시어, 제 생각에는 반드시 장수하시리라 여겼는데, 별세하셨다는 소식은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컨대, 외숙부님의 비통한 감정은 억제하기 힘든 것이며, 아이들이 울부짖는 모습도 눈에 선해 그 참담함이 잠시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비록 인편으로나마 생질간의 지극한 정을 위로의 말씀으로 표하고 싶어도, 근래 들어 병이 그칠 날이 없고, 형편도 여의치 않아 마치 월나라 사람이 자신을 매번 질책하는 것처럼 비통한 마음을 누를 수 없습니다. 초여름에는 치홍을 통해 다시 둘째 외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혹합니다! 정말로 참혹합니다!

그 건강하고 독실한 자질에다, 숙부님의 자상하고도 어지디 어진 덕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일 년도 안 되어 다시 이런 뜻밖의 참상을 당하니,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요 또 하늘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참혹한 화가 어찌 이처럼 거듭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매해마다 변을 당하니 비록 가계가 넉넉하다 할지라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하물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치르는 상례가 어찌 제 격식인들 갖출 수 있었겠

습니까? 모든 일들이 도무지 두서가 없을 텐데 거기다 숙부님의 제사까지 같이 모셔야 하니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일 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제대로 보증하지도 못하실 것을 생각하니 슬픔이 마디마디 맺혀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저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남편 역시 숙환으로 오랫동안 편하지 않아 생활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달포 전에 어린 집 아이의 죽음을 당하여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교차합니다만 글로는 감히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디 편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이만 종종 줄입니다.

上舅氏權烏齋(中實) 慰書 (年條未考 疑甲子季秋)

便稀路遠 音侯漠然 常用墓然 昨冬就如回 伏承覆札 始聞叔母主下世之報 驚慟⁸¹⁾何言 春秋殊不至⁸²⁾ 平時筋力亦云康旺 私情冀望 必躋遐壽⁸³⁾之域 豈意今者遽承幽音耶 伏想 叔主摧折⁸⁴⁾悲痛之懷 必難寬抑 兒小失恃呼號⁸⁵⁾之狀 有若目睹 尤覺慘毒 不忍忘食息之間矣 雖欲專人唁⁸⁶⁾候 以伸舅甥⁸⁷⁾至切之情 而近來殘疾 殆無暇日 且拘於形勢之不逮 若視越人 每切自訟而不勝悲念之忱 夏初 因致輿 繼聞第二從喪報 慘矣慘矣 以渠⁸⁸⁾強壯完厚之質 以叔主慈諒深仁之德 未蒙其澤 有此夢外之變 疊出於一芥⁸⁹⁾之內 不知者壽也 亦理也 召禍之荇⁹⁰⁾酷 胡至於斯 連年遭變 雖家計之稍饒⁹¹⁾者 似無宿厄之需 而況絕峽

81) 동(慟): 서럽게 울다.

82) 독로(篤老): 몹시 나이가 많음.

83) 하수(遐壽): 오래 살. (=遐年).

84) 좌절(摧折): 꺾고 부러뜨림.

85) 호호(呼號): 부르짖음.

86) 안(唁): 위문하다. 죽은 사람에 대한 조문을 '조(弔)'라 하고 산 사람에 대한 위로를 안(唁)이라 함.

87) 구형(舅甥): 외숙(外叔)과甥(甥姪).

88) 개(渠): 그, 그 사람. 개(其)의 뜻으로 사용됨.

89) 일芥(一芥): 일주년.

90) 전(荇): 거들하다.

91) 饒(饒): 거들하다.

窮家 初終喪禮⁹¹⁾ 其何以及期拮据 衰戚之餘 凡百必無統緒 且叔主頓見 此不忍見之境 自愛保重之道 應失其宜 念至於斯 節節悲結而釀淚矣 甥女身病漸瘳 外庭亦以宿症 長時欠愆 其他計活之艱 去而益甚 月前遺兒憾 侍下情理 何忍提達 嚮⁹²⁾所懷 殊不止此 而書不敢盡 伏祝氣體萬安 不備白

7. 남편께 드리는 글 (경인:1830년, 순조:30년, 겨울)

삼가 묻습니다. 간밤의 병환은 어제와 어떠하신지요? 회덕에서 돌아 오신 뒤 치하도 하고 조용히 말씀드릴 일이 있었으나 저의 병이 재발하여 정신이 아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니 움직이면 피로가 더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온종일 손님들로 붐비어 여쭙 사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몸도 한결 나아지고 손님도 다 돌아가신 데다 마침 술과 안주도 좀 있고 해서 아침문안을 기다렸다가 상을 차려들고 들어가 당신을 마주 뵈옵까 하였습니다. 날이 이미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직 세수 준비를 하란 말씀도 없으시니, 생각건대 아직 몸이 회복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으니, 이번에 선생님을 뵈고 오시면서 “비례물시 청언동(非禮勿視聽言動)”이란 글귀를 얻어 그것을 새겨 걸러고 한다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네 구절은 안자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으로서, 안자가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평생 힘쓸 바가 무엇인가를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더욱이 돌아가신 시 할아버님께서도 일찍이 이 구절로써 스스로 힘쓰시고 또 후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당신은 공자께서 안자에게 전한 이 귀중한 말씀을 받들고, 선조께서 지극한 경계의 말씀으로 삼은 것을 생각하시고,

91) 요(醺): 넉넉함.

92) 양례(襄禮): 상례(喪禮).

93) 비비(費費): 열심히 노력하는 모양, 달리는 모양.

또 스승께서 힘 쓸 것을 당부하신 뜻을 이어, 밤낮으로 헤이함이 없이 이것을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무릇 사리사욕이란 내 마음은 좋아하지만 천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예란 천리에 들어맞는 무늬이니, 반드시 먼저 어떤 것이 예이고 어떤 것이 예가 아닌지를 명확히 안 다음 자신의 사적인 마음을 과감히 끊고 오직 천리만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감히 이로써 당신께서 좀 더 힘쓸 것을 권합니다. 나머지는 직접 만날 때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上夫子書(庚寅 冬)

伏聞 夜間備候 比昨何如 自懷還次後 竊欲從煩 有所仰達 而非但賤疾纏
 神精絀昏 竊慮撓頓之餘 致有勞損 且獄日客挽 未暇稟賀 今朝則身恙稍間 賓
 客已散 適有酒饋 恭候晨謁後 仍爲進饋 隨即拜陳矣 日已晌午 尙無沃盥之命
 伏想 體內愆和 猶未復常 伏慮萬萬 竊聞 今番師門之行 受來非禮勿視聽言動
 字 將以刻揭書室 伏切喜幸 此四句 孔聖所以答顏子 而顏子所以終身請事 進
 於聖人者也 且王舅府君⁹⁴⁾ 嘗書此自勉 以教後人 伏願 夫子仰孔 顏傳受之重
 念先世箴戒之至 承師門勉勵之意 日夜靡懈 常目在是 夫已者 吾心所好 不合
 天理之謂 禮者天理之節文 必先明其何者禮 何者非禮 然後勇斷己私 一從天
 理 則可至於道矣 敢以此仰勉 餘在拜時續稟 不備

94) 부군(府君) : 죽은 바깥 조상에 대한 존칭.

붙임 : 쪽지편지 (모두 남편에게 올린 것)

附 尺牘 (井上夫子)

신원봉 번역

1

오늘 아침 할머니 한 분이 쌀말과 고기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으니, 할머니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마을 바깥으로 나가다가 무뢰한에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는데, 마침 당신이 지나가길래 말을 붙들고 울면서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 무뢰한을 엄한 어조로 타일렀는데, 그 덕분에 봉변을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고맙게 생각돼 쌀과 고기로 성의를 표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때 마침 바깥채에 손님이 있는 기척이길래 감히 번거롭게 할 수 없어 제가 그걸 되돌려 주려 했더니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바깥어른은 이전에 7일을 꼬박 굶고서도 천금의 재화를 거절했는데 이제 어찌 할머니가 가져온 것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는 탄식하면서 쌀과 고기를 갖고 되돌아갔습니다. 비록 성의를 표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지만, 제가 만약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은혜를 판 꼴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되돌려 보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今朝 一老婆來獻斗米斤肉 問其故 對曰 向出郊外 被毆於無賴漢 適值夫子

之適 泣訴馬前 夫子嚴辭諭之 遂得免焉 感恩實深 故獻此表誠 云云 時間 外堂有客 不敢煩達 自內還授 則老婆執堅不肯 故謂之曰 夫子嘗七日絕粒而却千金之賁 今豈受汝之物乎 老婆歎息 方持米肉還去耳 彼雖以誠意來獻 而我若受之 則有沽惠之嫌 故如是處之 未知如何

2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성내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어떤 집에 들리셨다고 한데 과연 그런지요? 그 집은 비록 사대부 집안이지만 이제는 술도 판답니다. 당신이 손님과 함께 들른 것은 정말 우연이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술을 사 마신다 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옛사람의 시에도, “군자는 미연에 방지하니, 의심 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俄者似聞 自城內還駕 歷入某家 果然否 此雖士夫家 今方賣酒 夫子之與客 歷訪 固出偶然 而安知外人不謂沽飲也 古人詩云 君子防未然 不處嫌疑間 可不警惕耶

3

이제 진지를 차려 드릴 테니 원컨대 아무 생각 마시고 다 드십시오. 오늘 집안 식구가 많으나 먹을 것이 넉넉히 돌아가니 부디 걱정하지 마소서. 설혹 넉넉치 못 하다 하더라도 군자는 기껏 먹는 것 같은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今將進飯 顧不介意而盡之也 今日家衆 所食均贍 請無慮焉 設或不贍 君子
不必屑屑於飯匙間事也

4

얼핏 들으니, 당신이 사람을 나무랄 때 목소리가 너무 거칠군요. 그것은
중용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설혹 사람을 바로잡으려 한들
자신이 먼저 바르지 못하니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원컨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俄聞 夫子責人 聲氣過厲 此非中道也 如是而設或正其人 已先不正 其可乎
顧加審思

5

이경암(진언)의 “存心不放, 循理无違 (마음을 잡아 방종하지 않고, 바
른 이치를 따라 실천하며 어기지 않는다)”는 여덟 글자는 홍세마(적필)
의 “以實心 行實事 (참된 마음으로 참된 일을 행한다)”는 말과 서로 표리
가 됩니다. 그리고 이양와(의성)가 자식에게 경계하도록 한 “善莫大於改
過, 惡莫大於欺心, 養福莫如寬, 速禍莫如忿 (선은 허물을 고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악은 마음을 속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복을 기르는
데는 관용보다 더한 것이 없고, 화를 재촉하는 데는 성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라는 네 구절은 비단 자식을 경계한 말일 뿐 아니라 실로
군자가 마땅히 경계하고 반성해야 할 바이니 원컨대 당신께선 더욱 스스

로 경계하고 힘쓰소서. 유참의(한휴, 호 저암), 이도정(정인, 호 사사당)은 모두 관순의 노인들로서 먼길을 마다 않고 자주 들려보는 것이 어찌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신의 학문과 행실을 사랑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자신을 충실히 닦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소서.

李綱庵 晉淵 存心不放循理無違八字 與洪洗馬 直弼 以實心行實事之語 相爲表裏 而李養窩 義勝 戒子書 善莫大於改過 惡莫大於欺心 養福莫如寬 速禍莫如忿 四句 不但戒子而已 實君子所當警省者 願夫子益自勉戒 俞參議⁹⁵⁾ 漢周 號著庵 李都正⁹⁶⁾ 廷仁 號四事堂 俱以八耋⁹⁷⁾長老 遠地屢顧 此豈爲尋常顔分而然哉 愛夫子之學行 而有所期待也 願修吾之實而副人之望

6

날이 저물면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왜 박기제(종전)의 말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日昏 不可行 夫子何不思朴其齋(宗傳) 言乎

7

『역경』에 이르기를, “음식을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술은 음식중 하나

95) 육조(六曹)에 딸린 정삼품 벼슬.

96) 도정(都正): 조선시대 종친부, 돈녕부, 훈원원의 정삼품 당상관 벼슬.

97) 팔耋(八耋): 관순.

의 큰 음식입니다. 원컨대 당신은 술을 절제해 만사에 신중히 대처하소서. 갑자기 무슨 일로 사람을 나무랄 때라도 혹 정도에 벗어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말투는 굳이가 마땅히 힘써야 할 바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온화한 모습으로 사람을 공손히 대하는 것이 덕의 기본”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나무랄 때 온화한 기색이 적은 것 같아 감히 아뢰는 바입니다

易曰 節飲食 酒是飲食中一大端 願夫子節飲而慎德 俄以何事切責某人 或不幾於過中之責耶 聲色言語 君子尤當用功處 詩云 溫溫恭人 惟德之基 夫子責人時 頗少溫和之氣 敢以仰告

8

오늘 아침 손님(이상사, 원중)이 떠나갈 때 왜 만류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해선 안 될텐데 하물며 그런 현자들요? 생각건대 제가 몸이 아파 저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쌀독에 아직 몇 되 박의 쌀도 남아있고, 병세도 어제보다 좀 가벼워졌는데 어찌 일개 아녀자의 일로 집안의 법도를 깨뜨렸는지요? 손님을 맞는 예는 조상을 모시는 일 다음 가는 집안의 큰 일입니다.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今朝客(李上舍⁹⁸, 遠重)去 何不挽留耶 衆人猶不可然 況賢者乎 想 必以賤恙中 恐致勞動而然也 然瓶中尙餘升許之米 且病症較昨稍愈 豈可憚一婦人之勞 而敗夫子之家規乎 接賓之禮 次於奉先 人家之大事也 切不可少忽耳

98) 상사(上舍) : 생원(生員) 소과의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있음.

9

일회가 추위를 무릅쓰고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 초췌한 모습이 안쓰러워 이렇게 밥을 지으라고 하셨나요. 예산의 아주버님(광학)이 오신지 열흘이 되는데 간혹 죽대집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회를 위해 밥을 지은 것은 비단 우리 사정에 무리일 뿐 아니라, 당신 입장에서 본다면 처가 형제를 자기 형제보다 더 중하게 대한 것이요, 저 입장에서 본다면 시댁 식구보다 자기 형제를 중히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의리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 감히 분부를 들을 수 없어 황송할 뿐입니다.

日會衝寒早來 故賜其勞瘁 而有此作飯之教耶 禮山叔(光學)之來此 今既近旬 而粥飲或闕 今日遽爲日弟作飯 非但力不贍 以夫子而言之 則妻兄弟親於己族 以妾而言之 則私兄弟重於夫黨 此雖小事 於義未安 不敢聞命 無任悚惶

10

익제(황윤종)는 어려서부터 술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항상 칭찬하시길, 이는 선비의 지조 중 하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집에 자주 들르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청컨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쓰소서.

益齋(黃潤鍾)自幼不入酒肆⁹⁹⁾ 夫子恆稱 其士夫之一節 而屢坐於某家 何也 似違言行相顧之意 請更勉之

99) 주사(酒肆) : 주점(酒店).

11

보내신 글월을 보았습니다. 그 중 “어찌 감히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말할 수 있으며,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 각기 취할 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공윤석은 옛 성인의 후예로서 순수하고 성실한 자질이 있다”, “조인석은 송산(松山)의 후예로서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다”, “박병은은 소박하고 성실하며 옛 것을 중시한다”, “임도철은 화평하고 즐거우며 윤리를 사랑한다”, “황호순은 추포(秋浦)와 지소(芝所)의 충효를 이어받았다”, “이경현은 귀천 직재(直齋) 도학의 후예이다”, “권도인, 강기영은 친인척이 훌륭하다”, “임달윤, 김용수는 멀리서 찾아온 성의가 훌륭하다” 등입니다. 생각건대 당신께서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문득 인정하고,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으면 지나치게 책망하십니다. 어찌 한 가지 좋은 점이나 나쁜 점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지만, 그것은 상제도 어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식견과 지혜가 성인에도 이르지 못한 자이겠습니까? 바라건대 모름지기 그 까닭을 보고, 그 말미암은 바를 살피며, 그 편안해 하는 바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자의 가르침대로 행하다 보면 서서히 열는 바가 있어, 거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를 구하는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만약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의 공부가 나날이 새로워진다면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내가 나서서 아이를 찾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찌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이 이러하니 청컨대 더욱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伏承下示 有曰 豈敢曰知人 豈敢曰爲人師也 但以目下來從而相守者言之 各有取焉 如孔胤錫 古聖之裔 而有純實之資 趙仁錫 松山¹⁰⁰之後 而有孝友之行 朴秉殷 橫實而好古 林道喆 和樂而愛倫 黃浩淳 緒于秋浦¹⁰¹ 芝所¹⁰²之忠孝 李敬鉉 裔于龜川直齋¹⁰³之遺學 權道仁 姜新永 因其親姻之好 林達潤 金應洙 雖孤遠來之誠 云云 竊念 夫子或以一善而概許之 一不善而過乎責 豈可以一善一不善 而知其人哉 書曰 知人則哲 惟帝其難之 況識鑑之不及聖人者哉 望須視所以 觀所由 察所安 如孔夫子之教 而徐徐參驗 庶可知矣 且夫求爲人師 則妄矣 若格致誠正之工 日新於己而自然及人 非我求之 董蒙求我 則亦何嫌於好爲人師耶 愚見如是 請更訓示

12

나에게 참된 덕이 있다면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어찌 훼손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참된 덕이 없다면 비록 헛된 명예가 있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욕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돌맹이라 해도 욕은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돌맹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욕이라 해도 돌맹이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원컨대 당신께서는 참된 덕을 기르는 데 힘써,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땅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는 것에는 개의치 마소서.

我有實德 人雖不知 何損焉 我無實德 雖有虛譽 何益焉 有玉於此 人謂之石

100) 송산(松山) : 여말 선조 조권(趙權)의 호.

101) 추포(秋浦) : 조선조 황산(黃嶺)의 호.

102) 지소(芝所) : 조선조 황일호(黃一鵠)의 호.

103) 직재(直齋) : 조선조 이기홍(李箕洪)의 호.

而無損於玉 有石於此 人謂之玉 而無益於石 顧夫子務實德 上不愧于天 下不作于地 無恤乎人之知不知也

13

군자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소장(消長)의 이치와 사물의 변화에 대해서는 마땅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천재(김감역, 상악의 호)의 역학이나 팔년당(심처사 류의 호)의 수론(數論)은 뜻이 정치하고 설명이 상세해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산공(윤승지 제홍의 호)의 시는 맑고 평온하며, 청한자(이감역 관하의 호)의 문장은 넉넉하고 해박합니다. 무릇 감정을 도야해 그것을 끌어내고, 올바른 생각으로 뜻을 이끄는 것 역시 유학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육경을 공부하면서 틈틈이 이것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君子處世 消長之理 事物之變 所當推究者也 山天齋 金監役¹⁰⁴相岳號 之易學 八年堂 沈處士¹⁰⁵堊號 之數論 其義精 其說詳 苟能善學 則斯可知要矣 鶴山公 尹承旨¹⁰⁶濟弘號 詩韻清穆 青翰子 李監役 觀夏號 文辭瞻博 夫陶情抒感 達意導志 是亦儒者之所不可無也 請於究會六經之暇 時時從事焉

104) 감역(監役) : 감역관의 준말. 조선시대 선공감(繕工監)에 소속되어 도목이나 건축공사를 감독한 공구품 벼슬.

105) 처사(處士) :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사는 선비.

106) 왕명을 전하던 벼슬.

14

권동자(용석)과 용직, 종형제가 배우러 왔는데, 과연 정문일침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배우러 오는 사람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하물며 학부형의 부탁이 있고 스스로 진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이라면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가르치십시오. 예를 들어 홍삼은(의십의 호), 조자안(인석)은 참된 효심이 있으므로 부모 섬기는 도로 쉽게 가르칠 수 있으며, 장중심(면)은 어질고 후덕함이 있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들어보면 나머지도 모두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權童子(用錫)從兄(用稷)弟之來 果有頂針之教耶 來者固不當拒 況其父兄有勤托 自家¹⁰⁷⁾有實心者耶 且隨其人而教之 如洪三隱 義雙號 趙子安 仁錫有誠孝之心 則易教以事親之道 張仲深 淵 有仁厚之姿 則易就其及人之善 舉此二者 餘皆可推矣

15

보여주신 여러 가지 학설을 다 보았습니다. 초상화는 신주(神主)와는 다른 것이므로 장손이 반드시 모셔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자손된 자는 모두 모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덕을 갖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라면 문하의 제자나 후학들도 당연히 불안하여 때가 되면 찾아뵙 수 있거늘, 하물며 자손된 자이겠습니까? 김부평은 평소 순수한 효심이 있었으나 종가에 양자로 가 생부의 제사를 모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부에

107) 자가(自家) : 자기.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으나 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충공의 초상화를 별채에 모셔놓고 제사 때마다 차례(茶禮)로써 성의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정(情)에 부합하며, 의리에도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下示 或說云云 謹悉¹⁰⁸ 蓋書像 與神主不同 不必宗子主之 爲子孫者 皆當守之 苟有德而入所瞻仰者 則門生後學 亦當奉安而以時瞻謁 況其子孫乎 金富平 素以純孝之姿 出后於宗家 而不得主祀於本生父 則終天之痛 無地可寓 故奉文忠公書像於別齋 每於文忠晬辰 設茶禮 省謁 以寓摺慕之誠 此實所謂於情安於義無損者也

16

송복천(홍성)은 강재의 딸아들이며, 김상사(병운)은 미호의 자손으로서 누차 방문했습니다. 당신이 극진히 대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매번 어렵고 궁핍해 여의치 못하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으니, 두 분은 모두 단정하고 후덕하며 마음이 너그럽고 공손하다 하니, 청컨대 간절한 마음으로 사귀어 학문의 동반자로 삼으심이 어떠신지요?

宋木川 欽成 嗣齋之胤 金上舍 柄雲 溪湖之孫 屢次見訪 在夫子 固當極意接待 而每緣艱乏不能從心 豈勝歎咄 竊聞 兩賢茲堪厚悃 請相對切慇 以爲交勉之地 如何

108) 근심(謹悉) : 편지에서 상대방의 소식 따위를 '삼가 알'이라는 뜻으로 쓰임.

17

부인의 절투는 심한 경우 집안을 망하게 하고 후사를 끊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리를 알지 못해서일 뿐 아니라,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자식은 곧 자기 자식입니다. 자식이 많다면 그만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종(女宗)에서는 일곱 가지 법도를 말하는데, 그 중 절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음변, 절도, 딸이 많은 것, 교만하고 꺾보는 것, 자식이 없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은 모두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절투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가만히 들으니, 당신께서 여계(女戒)를 지어 집안 부녀자들에게 교훈으로 삼도록 하신다면서요? 청컨대 그 속에 투기의 장을 넣어, 읽는 이로 하여금 단단히 그것을 깨닫게 하여 부덕을 기르게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婦人之嫉妬甚者 至於亡人家而絕人嗣 此不惟不識義理 亦不知利害也 夫之子即己之子 若子姓蕃衍 則爲幸何如哉 女宗言七去之道 曰 妬正爲首 淫辭 竊盜 長舌 驕侮 無子 惡病 皆在其後 然則罪莫大乎嫉妬矣 竊聞 夫子欲作女戒 以示子孫婦女 請編入妬忌一章 使讀者有所痛懲 而進於婦德 如何如何

18

모씨는 부자인데 술을 삼배나 권한 것은 과한 것이 아닌지요. 영원(윤 참판 행적)씨는 연세가 많은 노인인데 국 한 그릇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으니 결례인 듯 합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지만 생각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某富人而勸酒三盃 無乃過歟 鈴原(尹參判行直)老矣 湯羹間 未及接待 似爲欠事 此雖小節 不可不量處也

19

이아(시영)가 가족을 보호하고 집안을 지키며, 조상을 모시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모두 법도가 있으니 과연 모두 가르치신 대로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청컨대 더욱 친구를 잘 사귀어 우정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소서.

李雅(善英)之保族 守家 奉先 接賓 各有次第 果如下示 請益爲文勉 克成友道之美

20

이명부(병덕)는 시골 골짜기에 살면서, 주위에 스승이나 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번 당신께 올린 편지를 볼 때마다 구절구절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넘쳐흘러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상세히 답을 해 주시어 더욱 부지런히 나아가 성취토록 하소서.

李明夫 炳惠 居在鄉谷 雖傍無師友 而猶自篤學 每見其上夫子書 味學之實 藹然溢於辭表 殊甚欽歎 請盡意答之 使得益勉進就也

21

아버리와 자식은 한 몸으로서, 아버지는 마땅히 자애롭고 자식은 마땅히 효성스러워야 합니다. 청컨대 흠규에 대해 더욱 자애롭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스승을 아버지처럼 보며, 스승은 제자를 아들처럼 보는 것이 몇 도리입니다. 청컨대 비록 두루 사랑하신다 해도, 그 성실한 마음과 향상될 수 있는 자를 찾아 더욱 사랑으로 독려해 주시어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하심이 어떨런지요.

父子一體也 父當慈而子當孝 請夫子之於欽圭 更加慈愛 弟子之於師 視之猶父 師之於弟子 視之猶子 古道也 請夫子雖泛愛 而擇其誠心向上者 加愛而篤教 俾有成就 如何

22

심의를 비록 길사와 흉사에 모두 입는 옷이지만, 조문시 옛날에는 조복이, 지금은 소복이 있으므로 검은 단의에 색깔 있는 허리띠를 착용하고 조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강재선생께서는 심의를 입고 조곡(弔哭)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深衣¹⁰⁹⁾ 雖是通吉凶之服 而弔時 古有弔服 今有素服 則不必着黑緣采帶而弔之 故剛齋先生 有此深衣弔哭 恐似未穩之教耶

109) 심의(深衣) : 이권에 누운 선배가 입던 옷. 대개 흰 베로 두루마기 모양으로 만드는데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가를 들렀음.

23

복건이 비록 옛 제도는 아니지만 주자는 가례에서 이것을 쓰도록 명시했는데, 제사를 지낼 때 이것을 쓰는 것이 갓을 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幅巾 雖非古制 而朱子著于家禮 則臨祭之着 似愈於笠子¹¹⁰⁾耶

24

단의는 선비의 처가 입는 옷으로 순흑색인데 기제사 때 이것을 입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종사촌인 노암(기제의 또 다른 호)의 집에서는 이전부터 단의를 입도록 했는데 그 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祿衣 士妻之服 而其色純黑 忌祀時着此 似未穩 姑從魯庵(其齋之號)家 素祿衣之制 而但未有所考處 如何

25

화관이란 화인의 관으로서 옛날에는 이런 명칭이 없었습니다. 명나라가 들어서자 궁인들이 난을 피해 동쪽으로 오면서 이것을 쓰고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가례에 보면

110) 입자(笠子) : 갓.

'15세에 제례(筓禮)를 한다'하였고 그 주석에서는, 부인은 관이 없어 비녀로써 상투를 고정시킨다고 했는데, 저 생각은 '관(冠)'자가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笄 : 비녀)'자로 고치는 것이 어떨런지요?

華冠者 言華人之冠也 古無是名 大明革世後 宮人之避難來東者 著此冠 東人指以名之 然 考覓禮 十五而笄 註 婦人無冠 以簪固其鬋而已 竊恐 冠之一字 似未安 請易以笄字 何如

26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공부로서 이미 마음이 움직일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나 스스로는 알고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몸이 더욱 쇠약해지고 정신도 이전 같지 않아 다른 공부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효험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도 참마음으로 이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戒懼 是未發時工夫 而慎之於已發 而人不知己獨知之際 最爲緊要處 近日 衰症轉甚 精神益耗 未及於他工夫 而惟用力於此 不無微效 亦願夫子 實心體認

27

몇 해 전 이오헌(참판, 우제)께서 사신으로 북경에 가면서 자식을 당신

께 맡겼을 때, 당신은 한사코 사양하면서 노주(오진선, 회상)를 추천해 그에게 양보했습니다. 어제 수십 명의 선비들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당신의 이름을 듣고 예물을 들고 만나보려 했습니다. 또 그저 보내 준 예물도 아주 많았습니다. 당신께서 이들을 굳이 사양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과연 모두 잘 처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다른 사람 만한 덕이 없어 고마운 부탁을 무턱대고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참뜻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예물을 무턱대고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모순되는 듯하지만, 사리를 따져본다면 이번 일과 전번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는 것은 “복승하시(伏承下示)”조를 가리킴).

年前 李梧軒(參判, 愚在)燕行¹¹¹⁾時 托子于夫子 夫子固辭 因推讓于老州(吳進善, 熙常) 日昨數十章甫 自鄉赴學 聞夫子之名 相率贊見¹¹²⁾ 且饋遺¹¹³⁾甚多 夫子堅讓不受 右數事 果皆善處矣 一則吾無及人之德 而不可遽承盛托 一則未諳誠意之如何 而不可遽受饋幣 此雖與前日仰達者有若矛盾 而但於事理 有彼此之殊耳 (前日仰達 指伏承下示條也)

28

어제 저녁 병세는 어땠는지요? 눈바람이 휘몰아쳐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혹 병세가 악화되지 않았나 걱정했습니다. 달포 전 근진이 과원(果園)에서 밤을 따, 그 중 알이 굵은 것 한 되쯤과 고기 몇 덩이를 가져왔길래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꺼내 보니 밤은 반쯤이나 쥐가

111) 연행(燕行) : 사신으로 중국 북경에 가는 것.

112) 지현(贊見) : 선물을 가지고 가서 뵈.

113)饋遺(饋遺) : 가져 보내 줌.

술고 고기는 상해 있었습니다. 칼로 끊어내고 물로 씻은 뒤 화로에 구웠다가 종이값으로 줄 동전 두 닢으로 술을 사다 데워서 같이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어렵게 마련된 것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출할 때 드시면 잠시라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천만번 바랍니다.

伏聞 宵回愆度若河 風雪晶巖¹¹⁴⁾ 埃冷如冰 恐致詆患矣 月前 謹錄拾園栗 擇其大者升許 及切肉數片 持而來獻 故受置矣 今出而視之 栗則半爲鼠耗 肉則散矣 刀括水洗 煨燭于¹¹⁵⁾爐火 仍以紙價兩葉銅 沽酒而溫之以進 此物雖細 無忘所由來之艱如何 少若瘡飢旋 卽開卷無或流失光陰 千萬伏祝

29

근진의 천성이 비록 질(質)이 앞서 중도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문(文)이 앞서 질(質)을 해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입으로 승낙하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니, 조상을 모시고 집안을 지키는 일을 맡고 맡길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 아이보다 더 나은 아이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이끌고 가르쳐 성취를 얻을 수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 아이는 또 어려서 부모를 잃은 데다 할머니도 성격이 엄해 당신과 나를 항상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리 강변을 비바람과 출고 더움을 피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말린 밥을 품고 와 저녁까지 모시는데,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번번이 눈물이 흐릅니다. 이 아이가 혹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상세히 알려주고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 생각은

114) 비화(晶巖) : 흰눈은 모양.

115) 화산(煨燭) : 타고 남은 재

어떠신지요?

謹孫雖賢勝而欠於中行 然 猶勝於文勝而減賢矣 此兒 口有所諾 必踐其言 奉先守家 可恃此兒 而堂內無出其右者矣 幸望引而教之 使得成就焉 且此兒 幼而失母 祖母又性嚴 常視夫子與我 猶其父母 十里江郊¹¹⁶⁾ 不避風雨寒暑 身 簞糗糧 夙宵來侍 念其形容 番番零涕矣 此兒 小或有過 詳細開諭 切勿外視 如何如何

30

능산 황정언(기천) 문사(文詞)의 높고 절묘함과 기원 유영춘(한지)의 전서와 예서에 정통함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는 잦은 병치레에 나이도 많은 데다 경학과 예학에도 아직 통하지 못했으니 어느 겨를에 이 분들을 배우겠습니까? 바라건대 참된 마음으로 힘써 6서의 깊은 뜻을 탐구하여 성현의 영역으로 쫓아 들어갔으면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노력하시어 처음에 먹은 마음을 버리지 않기를 천만 당부합니다.

麓山黃正言¹¹⁷⁾(基天號) 文詞之高妙 綺園俞永春(漢芝號) 篆隸之精熟 果如下教 而但夫子 多病年晚 經禮之學 尙未融貫 何暇學此耶 惟望 實心自勉 探赜賁六籍之蘊奧 追步聖賢之闢域 夙夜孜孜 無負當年志 願千萬千萬

116) 강포(江郊) : 강이 있는 교외.

117) 정언(正言) : 조선조 사간원에 속한 벼슬. 정원은 두 명이었으며 품계는 정육품이었음.

31

사회 아우는 일찍이 공부할 기회를 놓쳤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조상을 모시고 친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형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여겨 성심으로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불행히도 오래살지도 못하였고 후사도 없었지만, 이제 들으니 기영이 친족 중에서 후사를 구하였다 하니, 성실한 마음이 있으면 마침내 그것을 이루나 봅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일심(형보)이 상사인 족형(창회)에게 편지를 해서 주변의 아이들에 대해 상세히 물어본 다음, 후사가 될 아이를 가르쳐서 기영처럼 집안을 지키게 했으며 정말 좋겠습니다.

時敎(時會) 早孤失學 然 能自力於奉先睦族 愛兄子如己子 誠心教導 不幸無年無兒 今似聞祈永求族子爲之后 此姪自來 誠心在此 竟能成之 奇幸奇幸 伏願 因徐一心(馨輔)便書探于上舍族兄(昌會) 從近詳聞 而教導所后之兒 同於祈永 使之守家 千萬幸甚

32

문중자의 복장은 검소하면서도 깨끗한데, 지금 당신의 복장은 검소하긴 하지만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검소한 것은 당신의 덕이지만, 때 묻고 땀에 젖어도 빨지 않고, 실밥이 터져도 김지 않는 것은 저의 죄입니다. 잣물을 풀고, 바늘에 실을 꿰고 기다리니 청컨대 옷을 벗어주소서.

文中子之服 儉而潔 今夫子之服 儉則儉矣 潔則未也 儉是夫子之德 至於墮汚而未辨¹⁰⁰ 綻裂而未補 妾之罪也 謹和灰紉針以俟 敢請

33

꽃은 정원에 심는 것이 마땅하며 내정에 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쪽 바위와 월담(月潭) 사이에 옮겨 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선화는 손톱에 물을 들이는 것인데, 저는 원래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 같이 옮겨 심었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花卉宜植於園中 而不宜植於內庭 移種于東巖月潭之間似好 而鳳仙花 所以染指甲者也 妾性不喜此 并爲移出 如何

34

어떤 아이 짝은 듣기로 나흔제 불도 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짝은 사흔제 밥을 못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가져온 선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부모 뜻도 아니고 아이 스스로 가져온 것이니 말입니다. 비록 되박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의리상 차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금동이 가져왔을 때는 한 섬이나 되는 많은 양이었지만, 주고받는 것이 정리에 합당하고 또 부모가 시킨 것이었기에 사양하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某兒家 聞四不舉火 吾家則三不炊 此兒所饋不可受 況非其親之意 而渠私自持來 雖是升米分銅¹¹⁸⁾之小 義則未安 若向來¹¹⁹⁾金釐之饋 則雖是石米之多 與受既合情誼 又以親命爲之 不宜辭也

118) 한(銖) : 쌀다.

119) 분동(分銅) : 천칭의 한 편 저울판에 올려놓아 물건의 무게를 헤아리는, 표준이 되는 추.

120) 향래(向來) : 지난번.

35

의(義)는 다스림의 근원이요, 이(利)는 난(亂)의 중추입니다. 듣기로 어떤 사람이 날마다 사랑채에 들러 이(利)를 말한다고 하는데, 문하의 아이들이 그런 말에 서서히 오염될까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왜 그런 사람을 일찌감치 멀리하지 않으셨습니까? 멀리하는 방법은 미워하기보다는 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의관을 정제하고 엄격히 바라보며, 예에 어긋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멀어질 것입니다.

義者 治之源也 利者 亂之樞也 聞或人日來外舍 多言利說 恐門生小子 習聞其言 浸浸然入於其中 夫子何不早遠此人 遠之之道 在乎不惡而嚴 當正衣冠 尊瞻視了 無非禮之言動 則彼自遠矣

36

사람에게 인의(仁義)가 있는 것은 사계절에 봄, 가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仁)을 말하면 예(禮)가 그 속에 있고, 의(義)를 말하면 지(智)가 그 속에 있으니,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人之有仁義 猶四時之有春秋 言仁 禮在其中 言義 智在其中 恐不必疑

37

스승은 도(道)를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서 임금과 아버지와 일체입니다. 스승을 찾아 뵙는 것은 어버이를 뵙는 것과 다름없으니, 어찌 제

병 때문에 그만둘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지금 병세가 심하긴 해도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당신께서 도를 듣는다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도리어 영광이니, 원컨대 급히 탈것을 준비시켜 길 떠날 차비를 차리소서.

師者 道之所在 與君父一體 尋師之行 與省親無異 則何可以賤疾停驂也 今病雖甚 未必死如 夫子聞道 則雖死猶榮 願趣駕¹²¹⁾戒程焉

38

부모를 섬기면서 사사로이 처자를 생각한다면 효(孝)가 돈독하지 못할 것이요, 임금을 섬기면서 사사로이 처자를 생각한다면 충성을 다하지 못할 것이요, 스승을 섬기면서 사사로이 처자를 생각한다면 배움이 성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루어 보면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영리하진 못하지만, 당신께서 사사로이 생각해 주시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사사로이 생각하신다면 덕업에 방해가 될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비록 제가 부귀와 편안함을 누릴지라도 차라리 가난하게 살다 굶어 죽는 것보다 못하니, 청컨대 더욱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글로서 붙손한 말을 올려 아내된 도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심구현(사동)선생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다 하였고 또 저도 일찍이 일이 있을 때마다 직언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고치기를 싫어하거나 그 잘못을 반복한다면 결국 덕업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게 되오니 바라건대 더욱 힘써 주소서

121) 촉가(勸駕) : 급히 탈것을 준비시킴.

事親而私妻子 則孝不篤 事君而私妻子 則忠不盡 事師而私妻子 則學不誠 推之事事 皆然 妾雖不敏 不願夫子之私之也 假使夫子一有所私而損於德業 則妾雖富貴寧逸 不若窮餓而死 請夫子勉之 每書字錄呈 直觸¹²²⁾不遇 殊失妾歸之道 然而沈攢軒丈(師東)嘗謂夫子有虛受之量 且妾嘗警承隨事直言之教 故不敢不盡言耳 若聞過而少或各改 改或貳之 則終無由進德 請夫子益勉益勉

39

가난한 것은 선비의 본분이며, 검소한 것은 사물의 근본입니다. 본분을 편안히 여기며 근본을 지키는 것은 내가 좋아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비록 삼공(三公)의 귀함이나 만鍾(萬鍾)의 부(富)라 하더라도 그 도가 아니라면 생각하지도 마소서. 공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롭지 못한 부(富)와 귀(貴)는 나에게겐 뜬구름과 같다”고요.

貧者士之分也 儉者物之本也 安分守本 而從吾所好 樂莫大焉 雖三公之貴 萬鍾之富 苟非其道 願勿掛念 不有孔夫子之言乎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40

이모(병도)가 나무 위로 올라가니, 그 처가 선비의 체모를 잃었다고 따끔히 간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잔탄할만한 것인데 하물며 이보다 더 큰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122) 觸(觸): 범하다.

李某(炳道)升木 其妻警諫以爲失士夫之體 此甚欽歎 況大於此者故

41

원컨대 당신께서는 선한 일을 행해도 잊어버리고, 잘못이 없어도 허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선을 보면 자신이 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악을 보면 자신의 병이라 생각하소서. 군자는 의리에 용감해야 하지만 혈기의 노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들으니 당신께서 사람을 나무라실 때 음성과 표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니 수신(修身)의 도에 크게 해로운 것 같습니다. 청컨대 경계하소서.

顧夫子有善忘善 無過思過 見善如己出 見惡如己病 君子不可無義理之勇 不可有血氣之怒 今聞 夫子責人 過於聲色 然則大有損於修身之道 請戒之

42

사흘째 밥을 짓지 못했습니다. 서동(書童)이 가서 호박냉국을 말아 왔는데, 그 중 주먹만한 호박을 몇 개 골라 썰어서 죽을 쑤었습니다. 술 한 잔을 구하려고 했으니 여의지 못해 죽만 올리게 되어 몹시도 안스럽습니다. 진실로 덕이란 하루라도 닦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학문 역시 하루라도 닦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것으론 독서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들으니 당신께서 이제 『역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이은하(만영)께서 오셔 겨울 동안 묵었다 가신다는군요. 그 분은 어려서부터 경학을 공부한 유학자로서 서로 같고

닭는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원컨대 날마다 토론한 것을 기록해 두시어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참으로 행운이겠습니다

不炊¹²³⁾ 今三朝矣 書童遍捲南瓜¹²⁴⁾蔓以歸 搜得其實如拳者數枚 切而爲羹 謀一盃酒 不得 只以羹獻 不任惶歎 德固不可一日而不修 學亦不可一日而不講 講學又莫先於讀書 竊聞 夫子方讀易 而李銀河子(晚英)來留過冬 此自少經學之儒也 相與講磨甚好 願以日日討論著 錄于片紙 下示則幸甚

43

교외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니, 바로 등화가련의 독서의 계절입니다. 모름지기 손님을 맞거나 하는 부득이한 일 외에는 독서에 전념하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바느질하고 밥하는 사이사이나 한밤중에 잠을 내어 책을 읽을 생각입니다. 그 동안 사서(四書)를 읽어 왔는데, 『맹자』 하권 제3편을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곧 끝날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당신께 『역경』을 좀 배웠으면 하는데, 손님이 오래 머무르신다면 어렵겠지요? 일간 김세마(현)께 글을 올렸더니 『시서대전(詩書大全)』을 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세마께서 당신께 주신 시에서 “단경을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머리가 백발이 되었으니, 장부의 한 평생 헛되이 보내고 말았도다” 라고 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청컨대 당신께서는 더욱 분발하여 덕을 새롭게 함으로써, 중단 없이 나아가도록 하소서.

新涼入郊 此正燈火可親之時也 望須接客應事 不得已之外 專意讀書焉 姜

123) 炊(炊) : 밥을 짓다.

124) 남과(南瓜) : 호박.

亦針線饋食之暇 中夜下帷之際 看字理會¹²⁵⁾爲計矣 向讀四書 而孟子下三篇 尙未訖¹²⁶⁾ 然, 不久當訖 擬自今冬 從夫子講易 而客若久留 則不可爲矣 從近 裁書于金洗馬金憲 許詩書大全借示 伏望 洪洗馬贈夫子詩云 丹經未成頭髮 白 百年虛作丈夫身 令人驚惕 請夫子益懋¹²⁷⁾新德 進進不已

44

안절이 며칠째 낮지 않으셔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눈을 감고 단정히 앉아, 생각을 거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운을 아래로 보내어, 마음을 보존하고 길러보소서. 이렇게 한다면 비단 병에도 좋을 뿐 아니라 덕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眼患屢日未廖¹²⁸⁾ 伏切悶慮 願瞑目端坐 息却閑思慮 平心下氣 存養方寸 則 非但調病之方面已 亦於尊德性之工 似有益矣

45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즐겁다”고 알려주신 것은 참으로 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갖 사물을 대함에 있어 반드시 그것이 선이 되는 이치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연함을 밝게 안 뒤에 선과 하나가 되어 그것을 실천한다면, 최고의 즐거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125) 이會(理會) : 이해.

126) 訖(訖) : 마쳤다.

127) 懋(懋) : 힘쓰다.

128) 廖(廖) : 낮다.

下示 爲善最樂 其言固甚大 但於事事物物上 必先推究其所以爲善之理 明如其當然 然後一於善 而實踐之 則可見最樂之效也

46

김상사(로)에게는 여러 사촌 형제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또 가마를 타고 온 손님에다 멀리서 부탁하러 찾아온 사람들도 역시 많습니다.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인의 도리를 다해, 경대부(卿大夫)는 경대부의 예로써, 선비는 선비의 예로써 대접합니다. 권세의 유무에 따라 접대에 경중의 차이를 두지 않아, 마음이 항상 바르며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찾는 것은, 당신께서 오직 자기 자신을 닦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담(송관성, 환기)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서를 하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스스로 그 도를 밝히기 위함일 뿐”이라 했습니다. 해석 상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충효를 행하고 도덕을 구하는 것은 모두 자기 내면의 일일 뿐”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격물치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원컨대 이로써 더욱 노력하시어, 오촌 선생의 성경(誠敬)에 대한 가르침을 반드시 체득해 마침내 지극한 선(善)에 이룬다면,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金上舍(巖) 羣從兄弟 時時來顯 且乘軒之客 自遠委訪者亦多 固爲可感 然但盡吾爲主人之道 而遇卿大夫 則以待卿大夫之禮 待之遇士 則以待士之禮 待之不以位勢之有無 有所輕重 則此心常正 而無侮辱之招矣 客之來見 以夫子有爲己之道也 性潭(宋贊成 煥箕號)曰 讀書窮理 自明其道而已 海石相公曰 爲忠孝 求道德 皆是自己分內事也 此皆格至之論 願以是孜孜自勉 而必體鰲村先生誠敬之訓 終歸于至善 則豈不美哉

47

아무런 의도 없이 행하는 자는 천리에 순응하는 군자요, 어떤 의도를 갖고 행하는 자는 사욕에 따르는 소인입니다. 참으로 돌이켜 자기에게서 구해 스스로를 밝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면, 평탄한 길을 달리 듯 고삐를 바로 잡아도 아무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無所爲而爲者 循天理之君子也 有所爲而爲者 徇人欲之小人也 誠能反諸己而求之 明乎斯而由乎斯 則坦然夷塗 直轡無礙矣

48

속담에 이르기를, “세 살 때 마음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 말은 기질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질이 훌륭한 사람은 쉽게 선을 행하고, 기질이 좋지 못한 자는 도(道)에 들기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마땅히 그 기질의 고하에 따라 이끌어야 합니다. 친척 중 동생 일희만이 어릴 때부터 효심이 지극했고, 과제를 부지런히 읽었으며, 어른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았습니 다. 자라서는 모든 사람이 한결 같이 부모께 효성스럽고 친구간에 우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견해가 탁월해 성취가 많을 줄 알았는데 불행히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조카인 훈영은 몸가짐이 안정되고 고요하며 독서를 좋아해, 앞으로의 성취가 크게 기대됩니다. 외친 중 상사(上舍) 종(國人)은 약한 자를 놀리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으니, 그 학문 태도와 행위가 가상합니다. 의경(翁靖)은 일찍이 그 사람됨을 보니 단정하고 두터우며, 온화하고 까다롭지 않으며, 겉은 침착하고 속은 밝습니다. 또 재주가 있으나 경솔하지 않고, 지혜로우면

서 어긋나지 않으며, 율리에 돈독하며 배움이 넓습니다. 가훈을 지키면 서 너그럽게 규범을 이루니, 외가 중에서 마땅히 제1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황생(중화)은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그가 사랑채에 있을 때 일찍이 우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단정하여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발걸음이 과원(果園) 쪽으로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옆에 앉아 강의를 들었으며, 하루종일 조용한 것이 마치 사람이 없는 듯하니, 그 마음도 필시 아무런 동요가 없어 당연히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당신께서 이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주선해 서로 이끌어 깨치거나 같이 닦게 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諺¹²⁹⁾云 三歲之心 八十猶在 此言氣質之難化也 氣質之高者 易與爲善 氣質之下者 難於入道 教人者 亦當隨其人之高下 而善導之也 親黨中 惟弟日會 自孩提¹³⁰⁾時 有懷橘讓梨之事 課讀勤孜¹³¹⁾ 不貽長者憂 及其長也 孝友敦睦 人無異辭 見解超卓 庶乎進就 不幸而夭 族姪勳永 容止¹³²⁾安靜 且好讀書 頗有可望 外親中上舍從(國仁) 弱不好弄 傲讀專篤 其文行可尚 諄諄(用正)嘗見其爲人 則端厚和易¹³³⁾ 外沈內明 藝而不輕 智而不駁¹³⁴⁾ 敦乎倫而博乎文 守其家訓 綽¹³⁵⁾有成規 當爲外族中第一人 黃生(鍾漢) 雖未親見 而其在外堂¹³⁶⁾ 未嘗聞喧呶¹³⁷⁾ 食飲之餘 整而不亂 足跡不到果園中 侍坐聽講 竟日寂然 如無人 其心必無出入 當有成就 願夫子與若而人周旋 或相提誨 或相切磨 則庶有資益矣

129) 언(諺) : 속담.

130) 해제(孩提) : 어린아이.

131) 자(孜) : 힘쓰다.

132) 용지(容止) : 몸가짐, 모습.

133) 화이(和易) : 온화롭고 까다롭지 않음.

134) 벽(駁) : 어긋나다.

135) 작(綽) : 너그러운.

136) 외당(外堂) : 사랑채나 사랑방.

137) 환(喧呶) : 우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

49

당신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결혼 상대자는 반드시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하고, 친구는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김무주(재완) 어른께서 다른 사람의 과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생각하면 바로 자신의 병폐를 말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흥미함에 빠져 주위 사람을 모두 잃을 판인데도 당신께서 경계의 말을 하지 않고 최근까지 상종하고 있으니, 우의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과실을 논하는 것도 이전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은 듯하니, 무엇 때문인가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夫子嘗言 求婚 必於其類 取友 必於勝已 又曰 金茂朱文 載庵 汎論人過失而曰 反而思之 則却是說己病 聞來 不勝警發也 今某人爲失類之婚 而夫子不戒近者相從 頗多損友 又或論人過失 似與前日所教不同 果何故耶 願聞其義

50

문하생 집에서 혹 물건이나 음식을 들고 올 때는 반드시 당신께 알린 후 사양하거나 받아들이나, 어떤 때는 당신께 알리지 않고 바로 사양하기도 합니다. 근래 알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단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김원백(맹연)이 가져온 안경이요, 다른 하나는 황의경(경호)이 가져온 고기입니다. 두 학생은 모두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며, 김원백은 당신의 눈이 침침해진 것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고, 황의경은 반찬이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부모의 명으로 들고 왔습니다. 모두 정에서 나온

것으로, 당신 역시 사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알려지도 않고 받아 들였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신지요?

門生¹³⁸⁾家 或有饋獻¹³⁹⁾ 則必稟于夫子 而後辭受之 或有不請而直辭之者 獨於近日不請受者 有二 一則金元伯(孟諤)眼鏡 一則黃義輝(敬浩)饋肉也 兩生俱自幼來學 而金則誠悶眼昏 黃則誠念無饌 以親命而來 俱是情既¹⁴⁰⁾ 夫子似亦不辭 故不及請而受之 未知如何

51

군자의 도는 자신을 닦아 남을 다스리는 것일 뿐입니다. 밤낮 부지런히 노력해도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떻게 한가한 생각이나 하고, 주거나 받거나 출입하면서, 멀고도 막중한 과업을 스스로 손상시킬 여유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더욱 경계하고 노력하소서. 사람의 수명이나 궁단(窮達)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된 사람이 세속의 말을 믿고 여자에게 책읽기를 가르치는 것을 크게 꺼려해 부녀자들이 왕왕 의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 정말 가소로운 일입니다.

君子之爲道 修己治人而已 日夜孜孜 猶恐不及 夫奚暇於閑思慮 閑言語閑酬應閑出入 以自損乎任重致遠之志哉 請夫子戒之勉之 人之壽夭窮達有命焉 爲父母者 信世俗之語 以教女子讀書爲大忌 故婦女往往全不識義理 甚可笑也

138) 문생(門生): 문하생.

139)饋獻(饋獻): 음식이나 물건을 바치다.

140) 情既(情既): 주다.

52

윤지당이 이르기를, “내가 비록 여자의 몸이나,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이야 애초 남녀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 또, “여자로서 태임과 태사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약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여자라도 노력한다면 역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允曄堂曰 我雖婦人 而所受之性 初無男女之殊 又曰 婦人而不以任姒¹⁴¹⁾自期者 皆自棄也 然則雖婦人而能有爲 則亦可至於聖人 未審 夫子以爲如何

53

윤지당이 이르기를, “효는 백행의 근원이다. 이미 그 근원을 잃었다면 천하의 현자와 능력 있는 자라도 도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르기를, “부모에게 불효하고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진실로 변할 수 없는 말입니다

允曄堂曰 孝者百行之源 既失於本源 則難盡天下之賢能 餘不足道也 又曰 未有不孝於親 而能盡忠於君者 此誠確論

141) 임사(任姒) : 태임(太任 :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과 태사(太姒 : 주나라 무왕의 어머니)

54

윤택진과 학진은 이미 당신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이들로서, 듣기로 그 바탕이 순수하고 성실하며, 또 선물을 들고 찾아뵙을 줄도 아니, 성의가 가상합니다. 그 미칠 수 있는 바에 따라 가르치신다면, 심증을 내거나 행하려 하지 않거나 할 열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尹宅鎭 鶴鐵 既與夫子爲同人¹⁴²⁾ 而聞其資質純實 又能贊見¹⁴³⁾ 誠意可尚 宜隨其人之可及者而教之 則似無厭苦難行之患矣

55

도암의 시에, “장년기는 허비하기 쉬우며 다시 얻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범인을 초월해 성인의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도암이 소년들을 가르치면서도 도리어 장년기를 허비하기 쉽다고 경계했는데, 하물며 장년기를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야 어찌 백 배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당신께서는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陶庵詩曰 壯年易失難重得 須作超凡入聖人 陶庵教少年 猶以易失壯年爲戒¹⁴⁴⁾ 失壯年者 豈可不下百倍之功乎 請夫子勉之

142) 동인(同人): 어떤 일에 뜻을 같이하여 도이는 사람.

143) 직현(贊見): 선물을 가지고 가서 뵈.

144) 신(愼): 하물며.

56

저는 일개 여자로 규방에 갇혀 있어 들은 것도 아는 것도 없지만, 오히려 바느질과 빨래, 청소를 하는 사이사이에 옛 경전을 읽으며 그 이치를 탐구하고 실천하여, 옛 사람이 닦았던 경지에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당신께서는 대장부로서 도에 뜻을 두고, 스승을 모시고 친구를 사귀면서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으니, 어떤 배움인들 불가능하며, 어떤 강의인들 밟지 못하며, 어떤 실천인들 이루지 못할 바가 있겠습니까? 인의로 말미암고 중정(中正)을 세운다면 성인, 현인이 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현은 장부인데 나 역시 장부이니, 무엇이 두려워 성현이 될 수 없겠습니까? 제발 당신께서는 날마다 덕을 새롭게 하여 반드시 성현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妾是一箇婦人 身鎖閨闈¹⁴⁵⁾ 無聞無識 猶於針線灑掃之隙 覽古經籍 窮其理而效其行 思欲與前修同歸 矧夫子以大丈夫 立心求道 從師取友 孜孜進益 則何所學而不能 何所講而不明 何所行而不達 由仁義 立中正 成聖成賢 誰能禦之 聖賢丈夫也 吾亦丈夫也 何畏而不爲哉 萬信夫子 日新其德 必以聖賢爲期

145) 규당(閨闈) : 여인의 방.

붙임 : 작은 글
附 別紙

1. 남편을 대신해 사문(師門)에 올린 별지

심의를 길흉사에 모두 입는 복장이라면 조곡시에도 당연히 심의를 입어야 하는 것인가요? 강재께서 대답하시기를, “심의를 입고 조곡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 어찌 감히 단정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고, 성담께서 대답하시기를, “심의를 입는 것은 길흉사에 모두 가능한 것인데 어찌 안 될 것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상은 계해년:1803년, 순조 3년에 있었던 별지)

師門往復別紙 (代夫子作)

深衣 通吉凶之服 則弔哭亦當服深衣耶 (廟齋答曰 深衣弔哭 恐似不穩 未見明據 何敢質言 性潭答曰 深衣之著 凡於吉凶 何所不可 右癸亥)

계신공구(戒愼恐懼)에 대해 주자께서는 ‘항시 경외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동(動)과 정(靜)을 통틀어 말한 것입니다. 또 존양성찰(存養省察)로써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계신공구가 정(靜)에만 속한 것도 같은데, 어떤 것을 쫓아야 하는지요? 강재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신공구를 신독(愼獨)에 대해 말하면 진실로 정(靜)에 속하나, 장구(章句) 중

‘常存(항시 -하는 것)’이란 두 글자는 바로 지적인 바와 같다. 이 때문에 사계선생은 동정을 겸한 것으로 보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서는 나누지 않을 수 없으면서 나누어서는 안 되는 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자세히 체험해 본다면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은 무진년:1808년, 순조 8년에 있었던 별지)

戒愼恐懼 朱子謂常存敬畏 則是通動靜言也 又以存養省察言 則戒懼似是專屬靜 如何看得而通從耶 (剛齋答曰 戒懼對愼獨言 則固屬靜 而章句中常存二字 誠如來示 故沙溪先生 兼動靜看 而吾先子以爲 不可不分中 又有不可分者 須仔細體驗 方可見得 右戊辰)

탄재(坦齋)의 질문 : “신주(神主)에다가 통덕랑(通德郎)¹⁴⁶⁾의 아내를 혹은 공인(恭人)¹⁴⁷⁾이라 쓰고, 혹은 유인(孺人)¹⁴⁸⁾이라 쓰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강재(剛齋)의 답변 : “부인의 신주는 남편의 실직(實職)¹⁴⁹⁾에 따라서 쓰게 되는데, 남편에게 통덕랑의 품계가 있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쓰는 것은 세속에서 잘 모르고 하는 것 같다.”(이상은 기사년:1809년 순조 9년에 있었던 별지)

題主¹⁵⁰⁾通德郎之妻 或書恭人 或書孺人 未知 何者爲得 剛齋答曰 婦人題主 從夫實職 則以有郎階而書恭人 似是俗例之誤也 右己巳

146) 통덕랑(通德郎) : 정5품 문관(文官)의 품계.

147) 공인(恭人) : 벼슬아치 부인의 정5품 및 종5품의 품계.

148) 유인(孺人) : 벼슬아치 부인의 정9품 및 종9품의 품계.

149) 실직(實職) : 실재의 관직.

150) 제주(題主) : 신주에 글자를 쓰는 일.

탄재의 질문: “제사 때 밥을 떠서 물에 마는 일을 도암(陶菴)¹⁵¹⁾의 예설(禮說)에 의하여 3년상 안에는 행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한 술갈을 떠서 마는 사람도 있고, 세 술갈을 떠서 마는 사람도 있으니, 어떤 것이 옳습니까? 감히 하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재의 답변: “제사 때에 밥을 떠서 물에 마는 일은 예(禮)에서 말하지 않은 바이거니와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니, 한 술갈을 떠서 마는 것이 옳은지 세 술갈을 떠서 마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감히 단정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이상은 기사년:1809년, 순조 9년에 있었던 별지)

抄飯¹⁵²⁾ 依陶庵說 三年內 則行之 而世有一抄者 有三抄者 何者爲得 敢乞下教 (剛齋答曰 抄飯 禮所不言 而鄙家未嘗行之 一抄 三抄之得失 何敢質言 上同)

탄재의 질문: “상식에 혹 죽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술갈을 어떻게 꼽아야 합니까?”

강재의 답변: “상식에 혹 죽을 쓸 경우에는 술갈을 죽그릇 위에 올려 놓고 술갈 자루가 서쪽으로 가게 하면 된다.” (이상은 신미년:1811년, 순조 11년에 있었던 별지)

上食¹⁵³⁾ 或以粥 則扱匙何以爲之耶 (剛齋答曰 上食用粥 則置匙于粥器上而西柄無防耶 右辛未)

151) 도암(陶菴): 《사계편람(四禮便覽)》을 편찬한 이재(李維)의 호.

152) 초반(抄飯): 제사 때 밥을 떠서 물에 마는 일.

153) 상식(上食): 아침 저녁으로 빈소(殯所)에 밥을 올리는 일.

2. 김부흥(영)께 답한 별지 (남편을 대신해 지음, 정해년: 1827년, 순조 27년)

남의 집 양아들이 된 사람은 자신의 생가보다 후사로 정해진 집의 제사가 우선이니, 생가의 제사를 모실 때는 다른 사람을 시켜 모시게 하고, 들어가 곡만 하고 나오는 것이니, 남계의 설이 참고할 만합니다.

생가에서 상을 당하면 후사로 정해진 집의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수암은 두건에 심의를 입는다고 했고, 도암은 두건으로서 패랭이를 쓴다고 했으니, 그대로 좇아 행하면 될 것입니다.

생가 시부모의 상에는 대공의 복을 입습니다. 의례와 법이 모두 그러하며, 또 신계선생도 그렇게 주장했으니 당연히 이를 좇아야 할 것입니다. 생가 시부모 상에 대공의 복을 입을 때는 평시에 입던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는다는 우암선생의 설도 있습니다.

答金富平(諱)別紙¹⁵⁴⁾ (代夫子作, 丁亥)

本生¹⁵⁵⁾喪葬¹⁵⁶⁾前所后忌祭 使人代奠 只入哭而退 南溪說可考 本生喪中 入所后廟服色 遂庵云 孝巾¹⁵⁷⁾布深衣 陶庵云 孝巾加以平涼¹⁵⁸⁾ 子可遵而行也

本生舅姑服大功 禮律同然 且有沙翁定論 恐當遵行 爲本生舅姑大功 則當時服玉色衣裙 尤翁說有之

154) 별지(別紙): 편지에 따로 덧붙이는 종이쪽.

155) 본생(本生): 본생가(本生家)의 준말. 양아들로 간 사람의 본디 아버지 집.

156) 상장(喪葬): 제사 지내는 일과 삼년상을 치르는 일.

157) 효巾(孝巾): 두건.

158) 평涼(平涼): 패랭이. 땃개비로 엮어 만든,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상제가 쓰던 것.

기 록

記¹⁵⁹⁾

신원봉 번역

1. 선조 영은공의 묘를 다시 세우며 (남편을 대신해 지음)

이조판서를 추증 받으신 선조 돈령부 도정 영은공, 정부인을 추증 받으신 선조비 김씨, 정부인을 추증 받으신 선조비 김씨, 이 세 분을 합장한 묘지를 경기 안성군에서 동쪽으로 십리 밖의 가사면 구사곡 분토산 동쪽 산기슭 신좌에 세우다. 지관은 이 땅을 소가 드러누워 있는 형세라 했다. 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윤 아무개의 무덤이 사라진 것은 44년 전의 일이라 했다. 정조 무오년(1798년, 정조 22년), 공의 후실 천정집 후손인 김려순이 광연에게 와서 말하기를, “강일문이란 자가 공의 묘비를 부수어 파묻어 버리고서는 묘자리가 관둔전이라고 떠들어댔다”고 했다. 광연이 가서 묻었다는 곳을 파 보니, 과연 조각난 비석 토막 너댓 개가 있었다. 조각을 맞추어 보니 고인의 직함과 이름 및 부인의 성씨가 용대(甬臺)의 것과 다름없었으며 또 상기 기록과 다름없었다. 광연은 다시 때를 덮고 손질하여 제사를 모셨다. 공의 무덤 아래쪽에도 무덤 세 개가 더 있었는데, 여러 곳의 기록을 검토해 보니, 공의 무덤 아래쪽으로 첫 번째가 참판공(이름 부, 장령을 겸직), 다음이 진사공(이름 극현, 장악정을 추증), 그 다음이 승지공(이름 재, 신(莘)의 세마, 현령)이었다.

159) 기(記): 사적과 경치를 적은 문서.

세 분의 묘가 상기와 같음은 진실로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당장 지식을 확인할 수 없어 감히 단정 짓지 못하고 후일을 기다린다.

심세은 평면이 삼가 봄

先祖永隱公塋墓記 (代夫子作)

先祖敦寧府¹⁶⁰都正¹⁶¹贈吏曹判書永隱公 先祖妣贈貞夫人¹⁶²金氏 先祖妣贈貞夫人金氏 三位合祔¹⁶³塋墓 在於京畿安城郡 東十里加士面九士谷粉土山東麓¹⁶⁴ 辛坐之原 衛士稱臥牛形 居民傳謂 尹某駿而失傳者 四十有四年矣 正宗戊午 公之後配¹⁶⁵親家¹⁶⁶後孫金麗淳 來告于光演曰 有姜一文者 碑公墓碑而埋之 墓田¹⁶⁷陳告¹⁶⁸爲官屯云 光演往掘其埋處 果有碎碑四五段 合而觀之 則官卿¹⁶⁹姓諱及配位¹⁷⁰姓氏不差 納諸塋臺亦不差 於是 光演始改葬¹⁷¹而享祀¹⁷²之 且公墓下有三塚 考諸家乘¹⁷³ 公以下參判公(諱傳, 行¹⁷⁴掌令¹⁷⁵) 進士公(諱克賢, 贈掌樂正) 承旨公(諱在, 莘洗馬止縣令)三世墓 皆曰上同 此固無疑 而姑不驗諸墳誌¹⁷⁶ 故未敢貿言 以俟後日焉 歲祭之禮 定以每年十月初吉 十世孫

160) 돈녕부(敦寧府) : 왕실과 가까운 친척 사이의 친선을 꾀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161) 도정(都正) : 돈녕부의 정삼품 당상관 벼슬.

162) 조선시대 정이품, 종이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

163) 합부(合祔) : 합장.

164) 옥(麓) : 산기슭.

165) 후배(後配) : 후실.

166) 친가(親家) : 친정.

167) 묘전(墓田) : 묘지.

168) 진고(陳告) : 즉 이야기하여 알린.

169) 관함(官衙) : 직함.

170) 배위(配位) : 남편과 아내가 모두 죽었을 경우 그 아내에 대한 경칭.

171) 사(莎) : 사초(莎草). 무덤에 때를 입히는 것.

172) 향사(享祀) : 제사.

173) 승(乘) : 기록.

174) 행(行) : 겸관(兼官)의 이름. 대관(大官)이 소관(小官)을 행하는 경우 어떤 관(官)을 행한다고 함.

175) 장령(掌令) : 사헌부의 경사품 벼슬.

176) 장지(墳誌) : 죽은 사람의 행적이나 자손의 이름, 나고 죽은 때 등을 기록한 글. 사기판에

2. 만성재기 (남편을 대신해 지음)

우리 유자(儒者)의 학문은 경(敬)을 위주로 하며, 경은 성실한 마음을 요체로 한다. 항시 스스로 씻어내고 바른 것을 택하니,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고, 숙취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물이 고요해져 파도가 잠자고, 먼지를 제거해 거울이 밝아지는 것이, 어찌 홀로 근신하고 한 곳에 전념하는 공부가 아니겠는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기질이 깨끗하고 탁하거나 순수하고 잡된 것의 차이가 있으니, 깨끗하고 순수한 자는 쉽게 선(善)을 행하고, 탁하고 잡된 자는 본성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우주를 훤히 꿰뚫어 보는 것은 상지(上智)가 그러하며, 종신토록 혼미하고 어리석은 것은 하우(下愚)가 그러하다. 이 때문에 옛 성인들은 경(敬)자 하나를 들어 덕(德)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로 삼았으니, 스스로 깨어나 다른 사람을 깨우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 남양의 홍자(종선)는 성품이 편안하고 고요하며, 효성스럽고 친구간에 우애가 있으며, 배움에 체계가 있고 또 스스로 담음이 독실한데, 자신이 거처하는 작은 집에 '만성(晩醒)'이라는 편액을 걸고는 나에게 글을 부탁했다. 나 역시 우둔해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감히 '마음을 깨운다(醒)'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석해 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여러 선생과 어른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경(敬)이란 생각을 바르고 크게 해 백 가지 사사로운 것을 물리치며, 움직이거나 멈추어 있을 때를 막론하고 시종일관하는 것이니,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환하게 빛나 항시 깨어있는 것이다. 내 나이 내년이면 오십이지만, 생각하는 것이

적거나 물에 새겨 무덤 옆에 묻음.

백옥이라는 사람처럼 아직 잘못을 알고서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한다. 홍자는 연세도 지긋하고 덕이 높아, 참으로 백성들의 선각자라 할 수 있으니, 어찌 '늦게 깨어난다(晩醒)'고 할 수 있겠는가?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처럼 지경(持敬)의 설을 취해 글을 지어 올리고, 또 스스로를 독려하고자 한다.

晩醒齋記(代夫子作)

吾儒之學 以敬爲主 而敬以醒心爲要 當自灑濯¹⁷⁷⁾而提擥¹⁷⁸⁾之 如寐而喚起 如醉而解醒 水止波靜 鏡明塵去 其非謹獨主一之工夫乎 人之生也 氣質固有清濁粹駁之異 則清粹者易於爲善 濁駁者難於復性 故光徹宇宙 上智是也 昏惑終身 下愚是也 是以古昔聖賢拈出¹⁷⁹⁾一敬字 作爲德門之鑰匙 要在自醒而醒人而已 今南陽洪子(宗善) 恬靜¹⁸⁰⁾其性 孝友其行 學有門路 篤於自修 所居小齋 扁曰晩醒 求余文以記之 余亦蒙蔭 而迷方者也 顧何敢創釋乎醒心之義也 蓋聞諸先生長者 以爲 敬者 正一念而勝百邪 貫動靜而徹始終 及其至也 靈臺¹⁸¹⁾洞照¹⁸²⁾ 主人常醒醒 余明年爲五十歲人 思如伯玉 知非而莫可企及 洪子則年尊德邵 固可謂天民先覺者也 夫奚特晩醒云乎哉 難孤勤託 姑取持敬之說 奉贈而自勉焉

177) 세탁(灑濯) : 씻음.

178) 제발(提擥) : 바른 것을 선택하다.

179) 연출(拈出) : 끄집어내다. 생각해 내다.

180) 열정(恬靜) : 편안하고 고요함.

181) 영대(靈臺) : 신령스러운 곳, 즉 마음을 일컫는 말.

182) 통조(洞照) : 환하게 비추다.

3. 탄원기

탄원이란 무엇인가? 탄재의 뜰이다. 왜 탄원이라 붙였는가? 이 뜰을 옛날에는 서원(徐園)이라 했는데 주인이 서씨였기 때문이다. 또 서원(西園)이라고도 했는데 한양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편인 탄재에서 거처하시니 어찌 탄원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공(鄭公)의 이름을 딴 청향이라든지, 고모씨의 고양이라는 마을, 소동파의 성을 딴 제방인 소재라든가, 구양수의 성을 딴 정자인 구정 등 사람 이름을 따서 칭하니, 이 뜰을 탄원이라 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는가! 탄이란 호는 누가 붙여 주었는가? 강재 송치규선생이다. ‘탄’의 뜻은 무엇인가? 거처한다는 뜻이다. 군자는 평탄하고 순조롭다. 그대가 시험삼아 탄원을 한 번 본다면, 땅은 척박한 자갈밭이요 나무는 구부러지고 집은 좁은 것이다. 확연히 높은 곳은 부양대와 중화단이요, 높다랗게 치솟은 곳은 돈대와 문부(文阜)이다. 향기로운 산책로는 그윽하고 꼬물꼬물하며, 작은 개울이 옆으로 흐르다 뜰을 가로지르니, 평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주인은 평탄한 마음으로 평탄한 도를 행하여, 황량하고 궁핍한 계곡을 험하다 여기지 않고, 쪽문과 좁은 출입구를 좁다고 생각치 않으며, 이제 막 밭의 고삐를 바로잡고 평탄한 인의의 땅을 달리려고 한다. 자갈밭, 구부러진 나무, 좁은 집, 우뚝 솟아 오른 곳, 그윽한 길이나 옆으로 흐르는 시내 등 어디를 가도 평탄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돌을 쌓으면 산이 될 수 있고, 샘물을 끌어오면 연못이 될 수 있으며, 사이사이 꽃을 심고 과수를 기르며, 채소 씨를 뿌리고 약초를 가꾸면 사이사이에 경제(經濟) 행위도 할 수 있다. 거문고와 술, 책 속에서 날마다 산과 친구가 되어 들뜬 소요 자적하니, 벼슬과 작록(爵祿)도 별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탄원 주인의 진정한 낙이다. 살찐 말에 가벼운 옷을 걸치고 활기차게 노니는 자들은, 일단 풍파를 만나면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

하니, 어찌 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평탄한 경지를 잃지 않는 것에 비할 수 있으랴? 『역경』에서는, “도를 실천함이 평탄하다”고 했고, 또, “구원으로 달려간다”고 했는데, 바로 탄원 주인이 그러하다.

坦園記

坦園者何 坦齋之園也 何云乎坦園 園舊稱徐園 以園主徐姓也 又曰西園 於漢師屬西也 今也 坦齋夫子居之 曷不坦園云乎 鄭公之鄉 高陽之里 蘇之堤 歐之亭 隨業人而名焉 園稱坦園 不其宜乎 坦之號 孰與之 剛齋宋先生與之 坦之義何 居焉 君子坦蕩蕩 爾嘗試觀乎坦園 則其土¹⁸³⁾ 其樹¹⁸⁴⁾ 其屋¹⁸⁵⁾ 有隆然高者 俯仰臺 中和壇也 有峯然峙者 起敬文阜也 薰¹⁸⁶⁾ 逕¹⁸⁷⁾ 幽而曲 小崑溪側而折園 不可爲坦矣 然而主人以坦坦心 行坦坦道 荒谿窮谷 不爲嶮 圭¹⁸⁸⁾ 華戶 不爲阨¹⁸⁹⁾ 方將戒珍 駕馭直轡 平驅乎仁義之域 其視¹⁹⁰⁾ 矚者 穆者 隆者 隆然而峯然者 或幽而或惻者 無往而非坦途也 壘¹⁹¹⁾ 石可以爲山 引泉可以爲池 栽花接果 種菜¹⁹²⁾ 藥 可以爲園中經濟 琴酒圖書之間 日與山朋 野客逍遙自適 皆可以傲公卿 輕爵祿 是則坦園主人之真樂也 彼乘肥衣輕 蹠康莊而遨嬉者 一遇風波 顛¹⁹³⁾ 路 不振 豈若棲遲¹⁹⁴⁾ 一園之中 而不失坦坦之地哉 易曰 履道坦坦 又曰 貫于丘園 坦園主人以之

183) 학(學): 자갈밭.

184) 규(楸): 구불구불함.

185) 패(圃): 패(圃)와 같은 글자. 노리게.

186) 경(逕): 소로.

187) 규두(園竇): 폭문.

188) 음(阨): 좁음.

189) 무(壘): 포개다.

190) 서(矚): 호미.

191) 무(壘): 넘어지다.

192) 서재(棲遲): 유유한 심경으로 놀며 지냄.

제사와 발문

題跋¹⁹³⁾

신원봉 번역

1. 세침을 쓰고 나서 (남편을 대신해 지음)

이는 우리 파평 윤씨 가문 직계의 세대첩으로서, 시조 태사공으로부터 불초한 이 몸에 이르기까지 모두 28대이다. 방계 친족과 적서 남녀를 모두 옛 족보에 따라 기록하였다. 지난 달 내가 회천으로 가 강재 송치규 선생께 제자의 예를 올리고자 했을 때, 스승이 우리 집 내력을 참고하기 편하도록 종가 아저씨 건창씨가 대신 써주신 것인데, 돌아온 뒤 비로서 그것을 꾸며 책으로 만들고, 기원 유한지선생께 표지를 전서로 써 줄 것을 청했다. 아! 조상들이 일으켜 세운 것은 충효와 근검이었는데, 자손들이 쇠락한 것은 어리석음과 경솔함, 사치와 오만뿐이었다. 진실로 일으켜 세운 것을 본받고 추락을 경계하고자 한다면, 배우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나의 나이도 올해 서른 하나로서 자질도 천박하고 학문을 시작한 것이 매우 늦지만, 밤낮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오직 선조의 경계를 덧붙이고자 하여, 이 책 말미에 그 대략을 갖추어 놓았다. 후인들이 이것을 보고 뉘우침이 있도록 하고자 한다.

승정기원후 181년(1808년, 순조 8년) 9월 19일에 불초손 윤광연 삼가 씀.

193) 제跋(題跋) : 제사와 발문.

書世牒後 (代夫子作)

此卽我家坡平尹氏直派世系 而自始祖太師公 至不肖身 凡二十八世 傍親及
適庶男女 皆因舊譜而記之 前月 不肖將行懷川 請贊于剛齋宋夫子爲便師門考
見 倚宗叔¹⁹⁴健菑氏 臨¹⁹⁵行書出 歸後始粧池爲冊 請綺園俞公漢芝篆于卷 噫
祖先之成立者 忠孝勤儉也 子孫之覆墜者 頑率邪傲也 苟欲法其成立 而戒其
覆墜 捨學何以哉 不肖年今三十一矣 姿識庸下 聞道甚晚 夙夜憂懼 唯是忝先
之戒 而略具其狀于此卷 俾後人之覽此者 有所懲于不肖也

崇禎百八十一年 九月 十九日 不肖孫某謹識

2. 돌아가신 외가 조부와 조모께서 남긴 생전의 사적을 번역하고 서 (남편을 대신해 지음)

이상이 외조부모께서 직접 남긴 본인의 사적에 대한 개략이다. 기사
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일흔 하나였다. 2월부터 몸져눕더니
여름이 지나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한글로 이 글의 내용을 적으시
고는 불초에게 한문으로 번역할 것을 부탁하시고는, 그 해 9월 마침내
돌아가시고 말았다. 경오년과 신미년 두 해 사이에는 돌아가신 할아버
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탈형, 말형수, 세 세대 여섯 분의 무덤을
옮기고 다시 장례를 지냈으며, 또 삼세의 남긴 사적을 찾아 수집하는
가운데 말형의 후사를 세웠다. 잡다한 일들이 많아 미처 번역하지 못하
다가 지난달 그름에 문서를 보다가 어머니가 남기신 글들을 찾게 되었
다. 6년이 지났는데도 금방 쓴 글 같아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치 못하다.
유언하신 일을 미루고 행하지 못했으니 그 불효가 크다. 삼가 위와같이

194) 종숙(從叔) : 아버지의 사촌 형제.

195) 임(臨) : 본 때 쓰다.

한문으로 번역한다. 갑술(1814년, 순조 14년) 9월 12일 불초자 윤봉언이
울먹이며 삼가 씀.

書外王考妣遺事¹⁹⁶⁾後 (代夫子作)

右我外王考妣遺事略也 歲己巳 先妣¹⁹⁷⁾年七十有一矣 自二月寢疾 跨夏漸訊
以謫書草此 托于不肖爲眞醜 是年九月 竟見背鳴呼痛矣 庚午辛未兩歲 行先
祖考妣 先考妣 伯兄伯嫂三世六位¹⁹⁸⁾ 仍又蒐摭¹⁹⁹⁾三世遺事間 又立伯兄
後 事故多端未能觀瞻 去月晦 披閱文字 得先妣遺墨 迄今六年 手澤如新 垂淚
罔極 遺命之遷延未行 不孝大矣 謹以眞醜如右 甲戌 九月 十二日 不肖子某泣
血謹書

196) 유사(遺事) : 죽은 사람이 남긴 생전의 사적.

197) 선비(先妣) : 돌아가신 어머니.

198) 변례(緦禮) : 무덤을 옮겨 장례를 다시 지냄.

199) 적(摭) : 줌다.

묘지명

墓誌銘²⁰⁰⁾

김동주 번역

1. 유인(儒人) 김씨(金氏)의 묘지명(墓誌銘) (남편을 대신해서 지음)

임수(林叟) 김공(金公)은 일찍이 나의 이웃인 남대문(南大門) 밖 어떤 집에 와서 임시로 붙어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세 명의 아들들을 나에게 보내와 글을 배우게 하였다. 나는 그를 계기로 해서 공의 자질이 정직하고 의리를 좋아함을 익히 알았고, 따라서 그 부인의 현숙함도 알게 되었다.

공의 배필인 김씨는 본관이 김해(金海)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른 시영(時榮)이란 분과 벼슬이 수사(水使)에 이른 이행(履行)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 분들은 유인(儒人)에게 11세조와 7세조가 된다.

고조는 이름이 병도(秉道)인데 무과출신으로 벼슬이 부사(府使)에 이르렀고, 증조는 이름이 계(啓)요, 조부는 이름이 응해(應海)인데 벼슬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고, 부친은 이름이 광시(光時)인데 참판(參判)에 추증되었고, 모친은 전주 이씨(全州李氏)로서 학생(學生)

200) 묘지명(墓誌銘) : 무덤의 설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의 사적을 쇠나 돌에 새겨서 무덤의 곁에 묻는 것.

시휘(時暉)의 딸이다.

영조 갑술년(1754년, 영조 30년) 12월 24일에 유인이 태어났다. 유인은 어릴 때부터 덕성(德性)이 있어 화평하고 인자하고 단아하고 조용하였다. 시집가서는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경건하게 받들어 어기는 일이 없었다. 음식을 장만함에 있어서는 따뜻함과 시원함이 입에 딱 맞게 하였다. 그리고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는 적이 없었다.

시부모가 편찮을 때에는 약 다리는 일을 몸소 하면서 여러 날 밤을 옷을 풀고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였다. 시어머니는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늘 말하기를 “우리 자손들은 모두 새 며느리처럼 되기만을 원한다.”라고 하였다. 남편이 혹 과오를 범했을 때에는 조용히 이해를 시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였고, 걱정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치를 가지고 너그럽게 비유해서 풀어주었다. 친정어머니가 늙막에 홀로 되어 유인에게 와서 의지하고 있었는데, 유인은 잘 봉양을 하였고, 돌아가시자 장사지내는 일 등을 유감없이 하였다.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일찍 죽고 어린 아들을 남겼다. 유인은 그 애를 잘 길러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집안일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다스렸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길쌈을 열심히 하고 낭비를 절약하였으나 남의 급한 일은 도와 주는데 있어서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다. 제사에 합당한 물건은 미리 마련해 두었고, 제사 때가 당하면 반드시 목욕제계를 하였다. 동서들을 대할 때에는 인정이 넘쳐흐르고, 집안사람들을 풍속함에 있어서는 간명하게 지휘하고 너그럽게 용서하였다.

평상시에는 말수가 없고 남을 대할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주었다. 말을 빨리 하거나 갑자기 얼굴 빛을 변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친척과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인을 칭찬하였다.

여러 아들들에 대해서는 효도하는 일부터 먼저 가르쳐, “자녀의 사랑

에게 너무 빠져서 효도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느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인은 미망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가서는 집안 일을 모두 맏아들에게 맡기고 자의로 처리하는 일이 없었다.

유인이 현재 임금의 계유년(1813년, 순조 13년) 2월 22일에 작고하자, 3월 28일에 보은군(報恩郡) 외북면(外北面) 예동리(禮洞里) 덕가현(德加峴) 사좌(巳坐)의 원덕에 새 자리를 잡아서 장사지냈다. 임수공(林叟公)은 이름은 명조(明祖)요, 본관은 경주(慶州)다. 전처(前妻)인 강릉 최씨(江陵崔氏)는 딸 하나를 길러서 유명(柳明)에게 시집보냈고, 유인은 계배(繼配)로서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맏아들 치원(致遠)은 김진광(金振光)의 딸에게 장가들고, 둘째아들 치도(致道)는 진량(陳亮)의 딸에게 장가들고, 셋째아들 치달(致達)은 손석(孫奭)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치원은 딸 셋을 두었고, 치도는 경(瓊)이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치달이 유인의 행장(行狀)을 가지고 고달프게 와서 나에게 묘지명을 부탁하였다. 내가 ‘그런 글을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사하였더니, 그는 울면서 계속 간청하였다. 내가 ‘옛날 그 유인과 한 동네 살 때 우리 선비(先妣)의 병환 중에 유인의 보살핌을 보아 나오셨고, 우리 선비께서 늘 유인의 의리를 사모하여 「현부인(賢婦人)」이라고 칭하시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 차마 글을 할 줄 모른다고 끝내 잠자코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삼가 그 행장 중에서 대강을 간추려 적고 다음과 같이 명(銘)을 붙였다.

화평한 기상은 한 집안을 잘 다스리기에 충분하고, 묵묵한 성품은 모든 일을 척척 잘 처리해 나갔으니, 깊이 품은 부덕(婦德)과 규방(閨房)의 범절에 꼭 맞았도다.

이 말을 지식에 새겼으니, 백세가 지나가도 이 무덤을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孺人金氏墓誌銘（代夫子作）

林叟金公 嘗僑居南郭 與余爲隣 而詔三子來問字於余 由是 習於公之質直好義 而又以知壺範之懿也

公之配曰金氏 其先金海人也 入我朝 有諱始榮 登武科 官刑曹判書 諱履行 官水使 寔孺人十一世若七世祖也 高祖諱秉道 武府使 曾祖諱啓 祖諱應海 僉中樞 考諱光時 贈參判 妣全州李氏 學生時暉女 英宗甲戌十二月二十四日 孺人生 幼有德性 和惠端靜 孝於尊姑 而敬夫子無違 在膳羞 適溫清 未嘗少懈 值不安節 躬執湯藥 累夜不卸衣 尊姑感其誠 嘗曰 願吾子孫 皆如新婦也 夫子或有過 從容辨析 引而當道 有憂戚 則輒以理寬譬 母夫人年老窮 孺人依焉 孺人奉而致其養 暨終事無憾 一弟早逝而有遺孤 俾成立而奉其祀 持家勤敏 早作晏息 執女紅 節冗費 而至於固人之急 無所怪惜 合於祭品者 則預儲以須 莅事 宿齋致潔 與姑媿恩愛篤至 御家衆簡而恕 平居 沈默慈諒 罕見其疾言遽色 宗黨鄰里 一辭稱譽焉 訓諸子 以孝爲先 戒其溺愛於子女 及稱未亡人 家事一聽於長子 而無或自違 卒于當寧癸酉二月二十二日 越三月二十八日 貶于報恩外北園禮同里德加峴 坐己之原 新兆也 林叟公 諱命祖 慶州人 前娶江陵崔氏 育一女 適柳明 孺人繼配也 舉三男 長致遠 娶金振光女 次致道 娶陳亮女 次致遠 娶孫爽女 致遠三女 致道一子璫 俱幼 致遠持狀纍然 而至托余以埋銘 固辭非人 而泣請不已 念昔同閨也 吾先妣疾病 賴孺人扶助 獲以濟焉 吾先妣亦嘗慕其義 而稱之曰賢 今忍以不文而終歟而已乎 謹提其梗槩 銘而系之曰 和足以宜一室 而默能以應萬爲 允叶乎含章之貞 闡樞之彝列 此辭於幽墟 庶幾更百世而勿侵夷

2. 어려서 죽은 딸의 무덤에 묻은 지문(誌文) (남편을 대신해서 지음)

아, 슬프다. 이 무덤은 과평(坡平) 윤광연(尹光演)의 어려서 죽은 딸을 묻은 곳이다. 그 이름은 계숙(季淑)이고, 그 어머니는 강씨(姜氏)다. 이 아이는 갑술년(1814년, 순조14년) 8월 29일에 약현(藥峴) 탄원(坦園)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얼굴은 단정하게 생기고 속은 밝고 지혜로웠다. 태어난 지 겨우 3-4개 월 만에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고 울다가도 부모를 보기만 하면 당장 울음소리를 그쳤다. 가까이 가면 방긋방긋 웃고 멀리 가면 눈길을 돌리곤 하였다. 이것은 주부자(朱夫子)가 이른바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도 아버지를 보면 웃는다.'는 것이 아닌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5남 3녀를 낳았으나 모두 말도 하기 전에 죽어서 부모는 '아빠', '엄마'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 아이가 려후에 낳기 때문에 이 애가 자라면 정을 붙이려고 사내와 똑같이 사랑하였다.

애 엄마는 본래 젖이 나지 않는 병이 있어서 애가 난 지 겨우 7일 만에 포대기에 싸들고 남의 집에 가서 젖 몇 방울씩 얻어 먹여서 살리려다보니, 날씨가 춥고 더운 것이며 길이 멀고 가까운 것을 가릴 새가 없었고, 간간이 암죽을 쑤어서 먹였는데, 이러한 동안에 외부의 나쁜 공기가 침입하여 위가 손상되었으니, 병이 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집은 본래 가난한데 흉년까지 들었다. 이 사정을 아는 친구들이 도와서 살리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계속하기가 어려웠다. 애는 병이 나자 설사를 심하게 하였다. 약을 쓰자 조금 낫는 듯하더니, 한 달쯤 지나서는 악화되어 결국 구하지 못하였다. 애가 죽은 날은 을해년(1815년, 순조 15년) 정월 초 4일이었다. 그 나이를 계산하면 돌도 채 되지 못하였다.

광릉(廣陵)에 우리 선산이 있으나 거기까지 가서 장사지낼 힘이 없어서, 마을 남쪽에 있는 탁봉(拆峯) 오른쪽 기슭에 임시로 묻었다가 그

달 14일에 그 자리에 깊이 묻었다.

아, 슬프다. 어떤 물건이건 생명체가 있는 것은 나면 죽는 것이 명이다. 그러나 혹 양육을 잘못해서 목숨을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한 명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애와 같이 어려서 죽은 것도 명을 그렇게 타고났다 하여 사람이 잘못된 일을 나무라지 않아도 종단 말인가? 너무 슬픈 마음을 견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글을 가지고 기록하게 되는데, 너무 정에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제발 후인들은 이 사정을 잘 살피서 개간의 손길이 여기까지 미쳐 무덤을 파헤치지 말아다오. 아버지는 파평 윤광연으로 자는 명직(明直)이다.

아버지는 기록한다.

彌女瘞誌(代夫子作)

嗚呼 此坡平尹光演彌女之藏也 其名季淑 母曰姜氏 甲戌八月二十九日 兒生于藥峴垣園之第 形端正 內明慧 三四朔 能辨其父母顏 雖啼號 見父母 輒止其聲 近之 則孩笑 遠 則流涎 朱夫子所謂 無知之兒見父 則笑者耶 前此 舉五男三女 俱未言而夭 父母未聞呼父母聲 兒最後生 冀其長而寄懷愛之同男子 子母素患 乳無涇 兒纔生七日 襁抱 就乳於他人所丐 涇滴以活 寒暑遠近 不暇顧問 以糜粥哺之 外氣侵 而中胃傷 受病固也 家素貧 歲且大飢 親朋之知其情者 欲助而全之 其勢難繼 及病泄甚 投之藥 幸或愈 涉月 竟不救 死之日 乙亥正月初四 計其歲 未葬也 廣陵有家珩 力不能致 淺埋于村南坵峯之右麓 厥十四日 因其地完瘞焉 嗚呼 物之有血氣者 生則有終 莫非命也 或養之 失其宜 不得全其性者 亦可謂命耶 如此兒之夭極其生 亦由命之固然而不責乎 人事之失宜乎 悲悲而不能捨 從以文而誌之 無乃過於情歟 庶幾後人之諒此 而勿使疇梨之及而壞夷之也 父坡平尹光演明直 父識

3. 효자(孝子) 이군(李君)의 광명(廣銘)²⁰¹⁾ (남편을 대신해서 지음)

시천(始泉) 처사(處士) 전의(全義) 이공 덕래(李公德來)는 나와 친하게 지낸 지 오랜데, 임오년(1822년, 순조22년) 5월에 나를 찾아와 울면서 말하기를 “말아들 원배(元培)가 작년 8월 25일에 죽었다. 그 애는 계축년(1793년, 정조17년) 10월 4일생이니, 나이 겨우 29세였다. 임시로 연서역(延驪驛) 신사동(新寺洞)에 묻었다가 다시 양주(楊州) 사파(四派)에 있는 그 어미 이씨(李氏)의 산소 아래 간좌(艮坐)로 옮겨 장사지내려고 한다. 아! 원배는 효자였다. 일가·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칭찬하였고, 또 그 애는 자네에게 수업하였는데, 자네 또한 효자라고 칭하였네. 지금 그 무덤에 명(銘)을 하여 후일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묘지명 짓는 일을 자네가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하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염치없이 부탁하네.”라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였으며, 대강 그 말을 적어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하늘이 부여한 이륜(彝倫)을 그 누가 잘 이행하였는가? 이씨의 아들은 그 자(字)가 백인(伯仁)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도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서늘하게 해서 부모의 몸에 알맞게 하였도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봉양하여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고, 반드시 술과 고기를 준비해서 부모의 입맛을 돋우었도다.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서 술을 완만히 대접하였고, 부모가 놀러 가시거든 용돈을 넉넉하게 드렸도다. 모친상을 당했을 때는 몸이 상할 정도로 지나치게 슬퍼하였고, 홀로 계시는 부친을 위로함에 있어서는 밤낮으로 애를 썼도다.

노름 돈도 대드리고, 이야기 책도 읽어드렸도다. 과객도 불러들여서 부친을 심심찮게 해드렸도다. 아우를 권하여 스승한테 가서 글을 배우게 하고서는, 몸소 그의 의복과 음식을 공급하였도다. 남을 사림에 있어서

201) 광명(廣銘) : 죽은 사람의 사적을 쇠나 돌에 새겨서 광중에 넣는 것.

는 허튼 수작을 하지 않고, 말을 하면 반드시 윤리를 강조하였도다. 그 아내는 우씨(禹氏)인데 부덕이 뛰어나서, 시부모의 병환에 정성을 쏟았다는 칭찬이 이웃마을에 자자하였도다.

아! 이런 사람이 생시에 빈궁으로 고생하다가 오래 살지도 못하였고, 두 아들마저 연달아 일찍 죽었으니,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이치가 어긋났다. 그러나 하늘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구나.

이 말을 지석에 새겨서 뒷사람들에게 알리노니, 혹시라도 개간하지 말고 이 무덤을 길이 보존할지어다.

孝子李君墳銘 (代夫子作)

始泉處士全義李公德來 與某相善久歲 玄默敦祥之仲夏 訪余居 泣而諡曰
長子元培 以昨年八月廿五日死 距其生癸丑十月四日 僅廿九稔也 權瘞于延曙
驛新寺洞 又將移震于楊州四派 其妣李氏山下良原 噫 元培孝子也 宗黨鄰戚
罔有異辭 且獲遊於吾子之門 吾子亦嘗以孝稱之 銘其竊而徵於後 非吾子而誰
托 敢以爲請 某聞而悲之 略掇其言而爲之銘曰 天畀秉彝 孰充厥類 李氏之子
伯仁其字 粵自髫髻 孝敬克備 溫清以時 便適親體 就養百方 務悅心志 必有酒
肉 供以滋味 客至欣接 盃酌不罄 親或出遊 資斧常贏 及遭內制 戚毀過程 慰親
艱苦 夙宵營營 蒲博之費 稗官之誦 招延拮据 以寫愁寂 勸弟從師 躬給衣食
交人不妄 言必敦倫 婦曰禹氏 懿德遠仁 侍疾尊章 誠恪聞隣 嗚呼 斯人生而窮
貧 歿不得年 二孤繼夭 報施理舛 奈何蒼昊 載此銘辭 以調來後 無或耕犁 永綬
斯光

행 장 行狀²⁰²⁾

김동주 번역

1. 전의 형수인 유인(孀人) 유씨(柳氏)의 가장(家狀)²⁰³⁾ (남편을 대신해서 지음)

유인은 성은 유씨(柳氏)요,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증조는 이름이 응수(應壽)인데 벼슬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고, 조부는 이름이 영(英)인데 벼슬은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부친은 이름이 원대(遠大)고, 모친은 한양조씨(漢陽趙氏)로 생원(生員) 인복(仁復)의 딸이었다.

그는 영조(英祖) 갑신년(1764년, 영조 40년)에 출생하여 18세에 우리 백형(伯兄)에게 시집왔으니, 이 해는 신축년(1781년, 정조 5년)이었다. 그 이듬해 임인년(1782년, 정조 6년)에 우리 집이 떠돌이 신세가 되어 유인의 본가에 가서 의탁하고 있다가 1년 뒤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이때에 유인은 미처 따르지 못했으므로 늘 탄식하기를 “부인에게는 남편을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시집갔으면 당연히 그 집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몹시 한스럽다.”고 하였다.

유인은 천성이 성실하며 근면하고 유순하였는데,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나서 모친을 섬김에 있어서는 효상을 다하고, 동생들을 어루만짐에

202) 행장(行狀) : 죽은 사람의 일생동안 있었던 행적을 적은 글.

203) 가장(家狀) : 나이·용모·품행·이력·계통 등을 적은 글.

있어서는 은혜와 애정을 깊이 배풀었으며, 시집가서는 시부모와 남편을 섬김에 성심과 공경을 다하고, 남편의 동생들에 대해서도 우애와 화목으로 대하였다.

시부모와 남편이 혹 화를 내거든 조금도 거슬리는 기색을 갖지 않고 끝까지 부드러운 얼굴과 유순한 말씨로 그 화를 풀었다. 길쌈을 한에 있어서는 날마다 부지런하였으므로 집안 사람들이 그가 등불을 끄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하였다. 그의 음식솜씨와 바느솜씨는 모두 깨끗하고 정교하여 법도가 있었다.

유인이 정조(正祖) 갑진년(1784년, 정조 8년) 9월 16일에 청양(靑陽)의 본가에서 작고하니, 이 해 월 일에 청양군 남상면(南上面) 방축촌(防築村) 신좌(辛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가 현재의 임금 신미년(1811년, 순조 11년) 3월 12일에 광주군(廣州郡) 대왕면(大旺面) 둔퇴리(遁退里) 금곡(金谷) 해좌(亥坐)의 언덕으로 옮겨 장사하여 그 남편의 무덤에 합편하였다. 유인이 우리 집으로 시집온 지 4년에 불과하였으니, 수는 겨우 21세였다.

그 규범(閨範)²⁰⁴⁾에 행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본가에 가서 우거할 때는 그 집 형편이 곤란하고 또한 갑자기 우리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효도하고 공경하고 부지런하고 민첩한 행동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 때 나는 5살 먹은 아이였는데, 유인이 늘 업어주고 안아주며 길렀다. 그 지극한 은혜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할 수 있거니와, 그 밖의 칭찬할 만한 행실은 선비(先妣)께서 생존하셨을 때에 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는가?

아! 슬프다. 유인은 마음속으로 시집에 오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지나다가 결국 본가에서 일찍 작고하여 그 쓸쓸한 외로운 무덤이

204) 규범(閨範): 여자의 모범이 될 만한 용의(容儀).

충남 고을에 붙여있으니, 그 생시와 사후의 무궁한 감회가 과연 어떠했겠는가? 나는 이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지금 먼 길에 영구(靈柩)를 모셔다가 돌아가신 형님의 무덤에 합장하는 것은 유인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것이다.

남편의 아우인 용광언이 삼가 행장을 지음

前嫂孀人柳氏家狀 (代夫子作)

孀人姓柳氏 系出文化 曾祖諱應壽 僉樞 祖諱英 縣監 考諱遠 大貳漢陽趙氏 生員仁復女 生于英宗甲申年十八 歸于我伯兄 是辛丑歲也 壬寅 吾家流寓 往依孀人本家 越一年 更移他所 孀人未及從 常歎曰 婦人有從夫之義 適人固當 于歸 而吾則未能 深可恨也 性誠勤柔順 而事母氏 盡其孝 撫弟妹 極其恩愛 及嫁 事舅姑 暨夫子 誠敬備至 夫之弟妹 亦接以友睦 舅姑夫子 或有不悅之甚 未敢少有怫然之色 終以婉順解之 紡紆之工 惟日孳孳 家人罕見其減燭休息 治膳羞 執縫紉 皆精好 有法度 正宗甲辰九月十六日 卒于青陽本家 是年某月某日 葬于本縣南上面防築村辛坐之原 當辛未三月十二日 改葬于廣州大旺面蓮退里金谷亥坐之原 合窆于夫子墓 孀人之歸我家 不過四稔 壽僅二十一歲 其閨範女行 固不可以詳悉 而壬寅往寓時 雖值窮匱倉卒 孝敬勤敏之節 彰然自著 余時五歲兒也 孀人常抱負育養 恩義甚摯 今尚宛然可記 其他可稱之行 先妣在時 每舉以語不肖者也 其敢忘諸 噫 孀人乃心夫家 以未及于歸爲恨 竟夭逝於本第 翳然孤塋 寄在湖鄉 其爲存沒無窮之感 當如何哉 余庸是結縵于中 跋涉遠道 奉櫬移葬 以副于亡兄幽宅者 成孀人之志也 辛未冬 夫弟某謹狀

2. 장모인 유인(孺人) 권씨(權氏)의 행장(行狀) (남편을 대신해서 지음)

장모인 유인 권씨는 본관이 안동이다. 시조는 이름이 행(幸)인데 고려 태조의 개국을 도왔고 벼슬은 태사(太師)에 이르렀다. 그 뒤 자손이 번창하고 벼슬이 연달았다. 조선조의 예종(睿宗)과 성종(成宗) 때에는 함(咸)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 익대좌리공신(翼戴佐理功臣)으로서 화천군(花川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양평(襄平)이었다. 그 뒤 6세를 내려와서 집의공(執義公)은 이름이 격(格)인데 곧은 절의로 이름을 드러냈으며, 세 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수암(遂菴) 선생으로 이름이 상하(尙夏)인데, 송자(宋子: 尤樞 宋時烈)의 도통연원을 이어받아 유림(儒林)의 영수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이름이 상명(尙明)으로 지행(志行)이 있었으나 일찍 작고하여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으며, 셋째 아들은 이름이 상유(尙游)인데, 벼슬이 판서(判書)에 이르고 덕업(德業)으로 이름을 드러냈다. 참판공(參判公)은 곧 유인의 고조고(高祖考)이시다.

증조는 이름은 섬(雙)이요 호는 옥소산인(玉所山人)인데, 학덕을 숨기고 현직에 나가지 않았고 수직(壽職)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으며, 조고는 이름이 초성(初性)인데 통덕랑(通德郎)을 지내고, 부친은 이름이 서응(瑞應)인데 지조를 깨끗이 닦고 옛일을 본받기를 좋아하였으므로 후인들이 그 분을 '청강처사(淸江處士)'라 불렀다. 모친은 연안 이씨(延安李氏)로 학생(學生) 제철(齊哲)의 따님이시다.

영조 경신년(1740년, 영조 16년) 4월 10일에 유인이 청풍(淸風) 황강(黃江) 마을 집에서 탄생하였는데, 천성이 단장(端莊)하고 정결(貞潔)하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셨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지성을 가지고 저녁에는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는 문안을 드리는 등의 예절을 행하고, 부드러운 얼굴빛과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부모 곁

에 앉아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다.

길쌈질에 능하고 음식솜씨에 뛰어나셨다. 배 찌고 마름개질 하고 빨래 하고 다듬이질하는 법이며, 삶고 찜하고 나물 무치고 양념하는 일은 반드시 부모의 몸에 편하게 하고 부모의 입에 맞게 하셨다.

몇 만의 수를 헤아림 있어도 손가락만 꾸부렸다 뵈다 하면 모자라고 남고 하는 수가 틀리지 않아서, 주산으로 놓는 사람도 그를 따를 수 없었다. 열녀전(列女傳)·부훈(婦訓)·여계(女誡) 등의 책을 읽다가 옛날의 효자·열녀의 사적을 봄에 이르러서는 유심히 살피고 본받기를 생각하셨다. 자매간에는 우애가 지극하였으며, 부모에게 병환이 있을 때에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약 다리는 일과 죽 끓이는 일을 반드시 몸소하였다.

어릴 때부터 행실의 순수함과 덕의 아름다움이 벌써 이와 같았던 것은 대개 처사공이 올바르게 가르친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천연적으로 행한 것이 많았다. 나이 20에 명족(名族)인 강씨(姜氏)에게 시집가셨다.

부군은 이름이 재수(在洙)인데, 어질고 지조가 있었다. 유인이 처음 시집오니, 집안은 뒤숭숭하고 생계는 어려웠다. 위에 후처로 들어온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봉양할 계책이 없었다. 그러자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음식을 제공하느라 거울에 손발이 모두 얼어 터졌으나 조금도 고생스런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시할머니는 성격이 엄해서 섬기기가 어려웠는데, 그가 말하기 전에 먼저 비위를 맞추어가며 한결같이 정성을 기울여서 끝내는 시할머니가 감동하여 손자며느리를 애지중지하게 만들었다.

부군을 섬김에는 공경하여 거역하는 일이 없었으며, 무슨 일이든 감히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으셨다. 부군이 혹시라도 곤궁함을 가지고 걱정하거나 탄식하는 말을 하면 곧 이치로써 너그럽게 비유해서 안심시키셨다.

매일같이 첫 닭이 울면 일어나서 가사를 정리하고, 밤이 깊어서야 잠 자리에 들으셨다. 더러는 새벽까지 일을 하였으나 피롭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늘 “여자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놀기를 즐겨서는 아니 된다.”고 경계하셨다. 평소엔 말없이 단정히 앉아있으면 아무리 친척의 부인이 라 하더라도 그 곁에서 감히 상스런 말이나 너털웃음을 하지 못하였다. 몸을 단속하여 남에게 존경을 받는 데에는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

조상을 받드는 일에는 매우 정성을 기울였다. 제수(祭需)에 합당한 물건을 만나면 반드시 저장하여 제사에 대비하였고, 제사 차리는 절차 등을 잘 알았으므로 친척간에 일이 있으면 유인에게 물어보고 행하였다. 일가집 아저씨인 산수헌(山水軒) 선생 진응(震應)²⁰⁵⁾은 유인의 지극한 효성과 훌륭한 길쌈 손씨에 대하여 자주 칭찬하기를 “우리 집안 부녀 중에는 그와 비교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

유인이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항상 말하기를 “어미된 사람이 애정에만 빠져서 허물을 비호하여 그 아비가 알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그 악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깊이 경계하는 바이다.”라고 하셨다. 이런 때문에 유인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은 감히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의 안 사람에게 타이른 훈계에는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정직하고 지성스런 마음을 갖는 것이 으뜸이다. 말소리는 모름지기 나직하게 내어야 하고, 동작에는 반드시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시집보내는 날에는 경계하기를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공경하고 시누와 동서간에 화목하여라.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내가 능히 이와 같이 하면 뜻을 봉양하는 효성이 이보다 그 무엇이 크겠는가. 빈천과 부귀는 본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빈한한 선비의 아내가 이런

205) 진응(震應) : 부사(府使)를 지낸 권정성(權定性)의 아들이자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의 증손.

뜻을 모르고 매양 가난을 싫어하는 생각을 가지면 또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하셨다.

임진년(1772년, 영조 48년)에 시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5년 후에 또 시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는데, 장례 등을 예절대로 치르고 몸이 상할 정도로 지나치게 슬퍼하였다.

처사공이 아들을 두지 못하자, 그 조카 중실(中實)을 양자로 삼았다. 처사공이 지난 계사년(1773년, 영조 49년)에 그 부인 이씨를 잃고 중실을 따라 계천(堤川)에 와서 사셨다. 이때 유인은 친정아버지와 담을 사이에 두고 살았으므로 돌봐드리게 편리하였는데, 8년 동안 효성을 바쳤다. 처사공의 병이 깊을 때에 가서는 3개 월 동안 약시중을 들면서 잠시도 곁에서 떠나지 않았고, 작고할 때에 가서는 몹시 애통하고 사모하였다.

무신년(1788년, 정조 12년) 가을에 부군이 폭질(暴疾)로 별세하자, 유인은 부군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목숨을 끊으려고 맹세했다가 아들이 어리고 의탁할 곳이 없음을 생각해서 억지로 목숨을 지연시켜 아들을 기르고 가르치셨다.

유인은 미망인이 되면서부터는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은 채 너무 슬피하다가 그대로 병이 나셨다. 부군의 3년상을 마친 몇 년 후에 청풍현(淸風縣)으로 이사하였다.

갑인년(1794년, 정조 18년)에 유인은 만아들 일회(日會)에게 서울이나 연천(漣川)으로 가도록 명하였으니, 그것은 그의 수학을 위해서였다. 일회가 “아프신 어머니를 두고 멀리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자, 유인은 권유하기를 “너는 이미 자랐고, 나의 병은 금방 죽을 병이 아니니, 어서 가서 모름지기 책을 읽고 행실을 닦아서 선인의 유훈(遺訓)을 저버리어 나의 죄를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다.

그 이듬해 겨울에 유인의 병이 위독하자 서둘러 집을 꾸려서 계천 옛집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11월 13일에 별세하니 향년 56세였다. 병진

년(1796년, 정조 20년) 2월 15일에 부군의 묘에 합장하였다.

두 아들은 일회(日會)·시회(時會)요, 한 여사(女嬀)는 윤광연(尹光演)인데 바로 나다. 일회는 김환삼(金煥參)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기영(新永)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시회는 이제만(李載萬)의 딸에게 장가들어 딸 하나를 두었는데 역시 어리다.

아! 유인은 품행과 도의가 구비되고 재주와 지식이 뛰어났는데, 시골에 살면서 빈곤에 시달렸다. 남들이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으나 유인은 외연하게 대처하고 태연하게 안정시켰으므로 가문이 유지될 수 있었다. 조상을 받들고 자손을 깨우친 일은 모두 이 세상 부인들의 모범이 될 만하였다.

내가 장가들어 처음 장인·장모를 뵈었을 때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유인이 나에게 “무슨 책을 읽었는가?”라고 묻기에 “사서(四書)와 소학(小學)을 읽었습니다.”고 답하였더니, 유인이 말하기를

“만일 몸소 행하지 않는다면 글을 헛 읽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때에 다만 ‘예, 예’ 하였을 뿐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주 철실한 일침이었던 것을 비로소 알았다. 이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버이를 섬기고 행실을 단속하는 요령과 마음을 다스리고 학문을 힘쓰는 방법에 대하여 한 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일깨워주었으니, 남모르게 간직하고 있는 지식이 빛나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다.

일회는 뜻을 가졌으나 오래 살지 못하였으므로 가정의 행사를 기록해 둔 것이 없었다. 시회가 세월이 오래되면 유인의 행적을 전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나에게 행장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이미 장인의 언행에 대하여 참람됨을 잊고 기록하여 행장을 지었으니, 또 안사람이 기록한 유인의 유사(遺事)와 시회가 보고 들은 일들을 대강 간추려서, 서로 참작하여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서, 이 뒤에 유인을 위하여 글을 지을 사람이 채택할 것에 대비한다.

을해년(1815년, 순조 15년) 12월 하순에
사위 파평(坡平) 윤광연(尹光演)은 삼가 씀

外姑孺人安東權氏行狀 (代夫子作)

外姑孺人權氏 籍安東 始祖諱幸 佐命麗太祖 官太師 其後子孫蕃昌 圭祖相望 在我叢 成兩廟 有諱誠 策翊戴 佐理功 封花川君 諡襄平 歷六世 執義公諱格 以直節著名 生三子 長遂庵先生諱尙夏 傳宋子道徳之統 寔爲儒宗 次諱尙明 有志行 早世 贈吏曹參判 季判書諱尙游 以懿業顯 參判公即孺人高祖考也 曾祖諱燮 號玉所山人 行諱高 善文章 隱德不仕 以壽階至同樞 祖考諱初性 通德郎 考諱瑞應 修潔好古 後人稱爲清江處士 妣延安李氏 學生齊哲女 英宗庚申四月十日 孺人生于清風黃江里第 性端莊貞潔 聰明絕人 自幼 事父母 能以至誠 晨夕 行定省禮 婉容怡聲於側 使親心悅豫 敏於女紅 精於治膳 紡績 裁浣 擣熨之法 烹飪 筴擇 調和之節 必於親便體而適口也 鉅萬之數 能屈指而計之 不差 踴躍掘算者 莫能及 讀列女傳 婦訓 女誡等書 及觀古孝子 烈女事 潛心慕效焉 與姊妹篤於恩愛 親有疾 達宵不卸衣 煎藥煮粥 必躬執之 其在童年 行純德美 已如此 蓋由處士公教導之正 而出於天得 不待矯勉者多焉 年二十 歸于姜氏名族也 夫子諱在洙 賢有志操 儒人之始歸也 家道杭樁 生業凋零 上有繼祖姑及尊姑 無以爲養 乃殫誠竭力 以供菽水 冬月手足皸瘃 不見辛楚色 祖姑性嚴難事 而先意承奉 潤屬惟一 終致感回而愛重之 事夫子 敬而無違 凡事罔敢自專 夫子或以弱悴 發於憂歎 則輒以理寬譬 每日鷄鳴而興 整理家務 夜分就息 或徹曉力作 不以爲勞 常以婦女情容嬉遊爲戒 平居 靛默端坐 則雖親戚婦人 不敢褻言哄笑於其側 其律已而孚人 有如此者 奉先甚虔 遇可於祭需者 必儲而待 習於薦享禮具 親黨有事 咨孺人而後行 族父山水軒先生 震應 亟稱孝敬之篤 女工之善曰 吾族婦女 罕有其比 教子女 常謂 爲母者 溺愛護過 不使父知 是長其惡也 吾所深戒 由是 在膝下者 無敢爲非正之事 詔室人之訓有曰

婦人順從爲務 貞恕爲首 聲音頌低緩 動作必有常 嫁之日 戒曰 孝於姑 敬夫子 和妯娌 是吾願也 爾能如此 則養志之孝 孰大於是 貧富自有定分 寒士之妻 昧於此義 每存厭貧之意 亦何益哉 壬辰 祖姑捐世 越五年 又遭尊姑喪 終事如禮 哀毀踰制 處士公無子 取從子中實爲后 公既於癸巳 喪其配李夫人 因就中實居于堤鄉 孺人與之隔牆 便於溫清 致其誠孝者 凡八年 及公疾篤 三朝侍湯 不暫離側 及卒 致其哀慕 戊申秋 夫子暴疾不起 殯葬畢 矢不欲生 念孤嗣幼而靡托 強自支延 以育以誨 自爲未亡人 未嘗輒見天日 積傷悲疾 因以成疾 終制後 數年 移往清風 甲寅 命長子日會 往漢師及澠鄉 爲其受學也 日會 以遠離病親 辭 孺人屈之曰 汝既稍長 吾病非朝夕危者 往須讀書修行 無廢先人遺教 以重吾罪也 越明年冬 疾革 促裝還堤鄉舊居 遂以十一月十三日卒 享年五十六 丙辰二月十五日 葬附夫子墓

男日會 時會 一女婿尹光演 卽不佞 日會娶金煥參女 生一男祈永 一女俱幼 時會娶李載萬女 生一女 亦幼 於乎 孺人行誼淳備 才識詣 處窮鄉 食苦貧 凡其遺值 多人所難 然孺人處之沛然而順 穆如而定 門戶得以維持 幼先而養後者 俱可以爲世俗簪珥之則也 不佞始拜於甥館也 庸駭無似 孺人問所讀書 對以四書 小學 孺人謂曰 若不體行 便是虛讀 當日唯唯而已 追思 始知針砭之切也 繼而承誨者不一二 事親飭行之要 治心向學之方 片言提撕 簡而不煩 尤信乎所存之實 含章而益光也 日會有志無年 家庭事行之紀述 闕如也 時會懼其久而無傳 以狀文屬諸不佞 既於外舅言行 忘慚而述之 又略取室人所錄孺人遺事及時會之逮於耳目者 參互而刪補 以備立言之採擇焉 歲乙亥臘月下浣 外甥 坡平尹光演謹狀

3. 공인(恭人) 이씨(李氏)의 행장 (남편을 대신해서 지음)

경현와(景賢窩) 김공 명운(金公命運)은 나와 20년 동안 사귀어온 친구

다. 그의 아들 취화(取和)가 그 부친의 명으로 내게 와서 글을 배웠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은 대대로 쌓아 내려오는 아름다운 덕화(德化)에 연원이 있고, 가법(家法)이 훌륭하여 전할 만한 것이 많음을 더욱 알게 된 지 이미 오래였다. 지금 취화가 그 부친의 명으로 작고한 공인(恭人)의 유사(遺事)를 기록하여 싸 들고 와서 물면서 나에게 행장을 지어달라고 청하는데, 김공과 교분이 깊은 것을 생각하면 어찌 끝내 사양할 수 있겠는가?

공인은 성이 이씨로서 왕족이다. 성종대왕(成宗大王)의 아들 경명군(景明君) 곧 이름이 침(忱)이란 분이 바로 그 시조요, 그 아들은 안남군(安南君) 곧 이름을 수련(壽鍊)이라 하며, 안남군은 금천군(錦川君) 곧 이름이 보(浦)라는 분을 낳고, 금천군은 창원정(昌原正) 곧 이름이 재형(齊衡)이란 분을 낳았으니, 이분들은 바로 공인에게 6세조와 5세조가 된다.

고조는 이름이 생인(生寅)인데 진사(進士)를 하고, 증조는 이름이 단석(端錫)인데 벼슬이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이르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는 이름이 극연(克淵)인데 통덕랑(通德郎)을 지내고, 부친은 이름이 태수(台秀)인데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을 지냈다. 모친은 숙부인(淑夫人) 문화유씨(文化柳氏)로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도장(道章)의 딸이다.

영조(英祖) 임진년(1772년, 영조 48년) 6월 6일에 공인이 태어났다. 공인은 성품이 온화하고 인자하고 신실하였으며, 말씨가 유순하고 자상하고 분명하였다. 그리고 공인은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돈독하여 종당(宗黨)에서 칭찬을 받았다.

시집가서는 시부모를 섬김에 그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다. 매일 같이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문안을 하고, 밤에는 시부모가 잠자리에 드신 뒤에야 물러갔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오래가도록 조금도 해이하지 않았다. 아침·저녁 밥상에는 맛있는 반찬을 정성껏 갖추어놓았고, 시부모에게 병환이 있을 때에는 약을 다리고 죽을 쑤는 일을 몸소 하여 그 덩고

찬 것을 알맞게 해서 드렸다. 한 번도 옷을 벗고 편한 곳에 가서 쉬는 적이 없었다. 병이 나아 원상태로 돌아와야 그만두었다.

무슨 일이든 시부모가 말씀하기 전에 그 뜻을 받들어서 처리하였다. 아무리 미세한 일도 감히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때문에 시부모가 극도로 애지중지하였고, 항상 등을 어루만지며 ‘우리 집 어진 며느리’라고 하였다.

공인은 일찍이 『여계(女誡)』와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 같은 책들을 떼껴 국문으로 번역해서 외우며 사모하고 본받았다.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을 보면 탄식하기를 “어찌 사람이 되어서 까마귀만큼도 못하는가?”라고 하였다.

친정부모가 이미 작고하여 서모가 의탁할 곳이 없자 부군에게 청해서 데려다가 함께 살았다. 전후 20년 동안 한결같이 은의(恩義)를 베풀었다. 부군을 경건하게 섬기면서 일의 크고 작은 것을 박론하고 오직 부군의 명대로 따랐다. 혹 부군의 성념을 만나면 겹을 먹고 감히 한 마디도 못하였다. 일찍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가장이 지나치게 성을 내서 혹이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아내 된 나의 도리에 있어서는 다만 순종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남편이 혹 여색에 빠지더라도 역시 질투하지 말고 아내 된 도리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남의 집 부녀가 질투가 심하고 성질이 사나운 것을 보거나 말을 함부로 하고 술을 마시어 얼굴이 벌건 사람을 보면 그들의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깊이 경계하였다.

공인은 매일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나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온종일 가사에 열중하였으며, 말소리는 안방 문 밖을 나가지 않았고, 발자취는 바깥 사람에 미치지 않았다. 음식을 장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결하게 하려고 하였고, 마느질은 반드시 암전하게 하려고 하였다.

부군이 손님을 좋아함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공인은 정성을 다해서 접대하였다. 그리고 항상 말하기를 “우리 집 남자가 나가면 남의 집 손님이 되고, 남의 집 남자가 오면 우리 집 손님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정성껏 접대해야 하지,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하물며 손님을 접대하는 예는 조상을 받드는 예에 다음이거늘, 주인 된 사람은 불성실하고 안채의 부녀자는 더욱 소홀하게 하며, 하인들은 따라서 배나 심하게 하는데, 어찌 정신을 차려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인은 한 번도 남의 단점을 말한 적이 없었고, 남을 대하여 나무라지도 않았으며, 남과 더불어 억지로 시비를 가리지도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비록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착한 점이 없으면 족히 기뻐할 것이 없고, 비록 남이 나를 헐뜯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과실이 없으면 족히 화낼 것이 없다.”고 하였다.

공인은 재물을 주고받을 때에는 계산을 분명하게 하였으며, 남에게 빌려쓰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날짜를 적어놓았다가 그 기일이 되면 반드시 갚았다.

또한 공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하여,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등 아끼는 것이 없었다.

외아들 하나를 가르치는 데 일정한 법도가 있었다. 공인은 항상 말하기를 “사람 중에 그 누가 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만일 애정에 빠져서 가르칠 줄을 모르면 바로 짐승이 될 것이니, 한갓 사랑만 하는 것은 해가 될 뿐이다.”고 하였다. 그 아들이 어릴 때에 게으름을 피우며 놀기만 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반복해서 경계하기를 “사람에게 귀중한 것은 행실인데, 그 행실을 밝게 알려고 하면 책을 읽어야 한다. 나는 들으니 ‘책을 읽는 차례에 있어서는 소학(小學)을 제일 먼저 읽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는 모름지기 소학을 읽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아들이 혹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군에게 알려서 꾸짖고 매를 때리게 하였다. 그리고 부군에게 청하기를 “그릇을 잘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훌륭한 목공을 구해야 하고, 사람을 잘 가르치려고 하면 반드시 어진 스승을 구해야 합니다. 들으니 ‘윤(尹) 선생은 어진 분’이라 합니다. 어찌 아이를 그 분에게 가서 배우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삼천지교(三遷之敎)²⁰⁶⁾도 있었고, 또 천리 밖으로 스승을 찾아간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같은 시내에서 이사가는 수고쯤이야 꺼려할 것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부군은 그 말에 따라 취화를 나에게 와서 배우도록 명하였다.

을축년(1805년, 순조 5년) 겨울에 산후증(產後症)으로 1년이 넘게 앓다가 병세가 악화되자, 공인은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병으로 결국 죽을 것을 알고 있다. 수명의 장단은 하늘에 배인 것인데, 다시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다만 한이 되는 것은, 우리 아들의 성취함과 또 장가들어 조상의 일을 받드는 것을 미치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라고 하였다.

병인년(1806년, 순조 6년) 10월 보름날, 공인은 병이 위중한데도 오히려 취화에게 명하여 서재(書齋)에 나가서 공부하도록 하였다. 취화는 수백 보를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려서, 이내 되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그러자 공인은 취화에게 말하기를 “지금 너의 아버님은 마침 외출하셨고, 나의 병은 치료되지 못하겠으니, 이것이 유감이다. 내가 죽은 뒤에라도 너는 허송세월하지 말고 선생님을 찾아가 잘 배움으로써 땅속에 있는 나의 영혼을 위로해다오.”라고 하였다. 그 이튿날 새벽에 공인이 결국 작고하니, 모월모일(某月某日)에 고양군

206) 삼천지교(三遷之敎) :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가르치기 위하여 세 번 이사한 일.

(高陽郡) 원당면(元堂面) 목희리(木稀里) 모좌(某坐)에 장사하였다.

김공은 자가 영자(永之)다. 그 시조는 이름이 흥광(興光)인데, 신라 헌강왕(憲康王)의 셋째 아들이어서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서 광산(光山)으로 도피하였으므로, 자손들이 이내 그 곳에 살면서 광산을 본관으로 하였고, 자손들이 계속 번창하여 동방의 대성(大姓)이 되었다.

본조(本朝 : 朝鮮朝)에 들어와서는 이름이 성옥(成玉)이란 분이 있어,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고, 5세를 내려와서는 이름이 협(浹)이란 분이 있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교리(校理)에 이르렀으며, 또 3세를 내려와서는 이름이 효신(孝信)이란 분이 있어, 비로소 무과(武科)로 진출하여 벼슬이 훈련원 도정(訓練院都正)에 이르고,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이후로는 대대로 무과에 올라 벼슬이 계속 이어졌다. 다시 4세를 내려와서는 선전관(宣傳官)으로 좌승지(左承旨)를 추증된 이름이 한명(漢明)이란 분과, 또 선전관으로 참판에 추증된 이름이 성필(聖弼)이란 분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이름이 득연(得衍)이란 분이 있었으니, 이분들은 김공에게 증조고(曾祖考), 조고(祖考), 고(考)가 된다.

초취(初娶)의 연안김씨(延安金氏)는 재후(載厚)의 딸인데 자녀를 두지 못했고, 공인은 그 계배(繼配)로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곧 취화다. 취화는 신사년에 무과에 오르고, 사과(司果) 이시상(李時祥)의 딸에게 장가들어 딸 둘을 두었는데, 아직 다 어리다.

김공은 사람됨됨이가 활달하고 신의가 있고 후증하였다. 경신년 여름에 나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아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에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또 나는 그 사이에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할 일이 많았으므로 남을 가르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무진년 10월에 비로소 그의 부탁대로 가르쳐주었으니, 지금 햇수를 계산하면 벌써 15년이 되었

다.

나의 자신을 돌아볼 때 고루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는데, 어찌 남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 다만 여러 해 동안 공을 들여 사람을 감복케 한 공인의 정성을 생각한다면 어찌 감히 공인의 존몰(存沒)을 가지고 차이를 둘 수 있겠는가? 취화는 마음을 새우고 몸을 가짐에 대하여 대강 그 방법을 알고 있으니, 그 어머니의 옳은 방법으로 지도하던 교훈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비록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직업을 가지고 활 쏘고 말 타는 일에 종사는 했지만, 그 얼굴을 살펴보고 그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근칙(謹勅)하는 유사(儒士)였다.

기록할 만한 공인의 착한 덕과 아름다운 행실이 너무도 많다. 이제 대강 줄거리만을 간추려 적어서, 후일에 공인을 위하여 글을 지을 사람의 자료로 삼게 한다.

숙정(肅靖)³⁰⁷⁾ 기원 후 네 번째 돌아오는 임오년(1822년, 순조 22년) 초여름 하순에 파산(坡山) 윤종언이 삼가 행장을 지음.

恭人李氏行狀 (代夫子作)

景賢窩金公命運 與不佞 有二十年之舊 其子最和 以親命來且受書 由是益知其世德之有淵源而家範之多可傳久矣 今最和 以其大人命 記其先恭人遺事 袖致而泣請爲狀 追念契分之深厚 烏可終辭乎 謹按 恭人姓李氏 增派也 成宗大王子景明君諱忱 卽其鼻祖 而其子曰安南君諱壽鍊 安南生錦川君諱備 錦川生昌原正齊衡 寔恭人六世若五世祖也 高祖諱生寅 進士 曾祖諱端錫 官吏曹參判 贈吏曹判書 祖諱克淵 通德郎 考諱台秀 訓練院僉正 妣淑夫人晉州柳氏 顯護軍道章之女 英宗壬辰六月初六日生恭人 性質溫和慈諒 辭氣寬緩詳明 自

307) 숙정(肅靖) : 명(淸)나라 의종(毅宗)의 연호.

幼以孝友見稱於宗 及歸夫家 事尊章 致其誠敬 每日 夙興 寢夜分 俟定乃退 習以爲常 久而不少懈 朝夕之供 極其溫味 有疾 則茶藥湯糜 躬自煮和 適其溫冷以進 未嘗卸衣就便處 復常然乃止 每事 先意承順 雖細微 未敢專 舅姑極加愛之 常撫背曰 吾家賢婦也 嘗抄女戒 三綱等書 以慧字翻寫 記誦而慕效焉 見人之不孝於親者 歎曰 何其爲人反不若禽鳥之反哺乎 考妣既歿 庶母靡所依托 請于夫子 率來同居 終始二十年 恩義如一 敬事夫子 事無鉅細 惟夫子是從 或值其怒 則惴然不敢出一言 嘗謂人曰 家長過致志怒 雖或不當於理 在我之道 只當遵順承受而已 雖惑於女色 亦宜勿妬以違婦道也 見人家婦女之妬悍及肆於言而瀆於酒者 恥其所爲 而深戒之 每早盥櫥 掃除室堂 終日孜孜 而語音不出於閨門 足跡不及於外舍 膳羞必要精潔 裁縫必要端正 夫子喜客 過從者多 播人彈心力以接待之 恆云 吾家男子出 則爲他家客 他家男子來 則爲吾家客 當以誠待 不可踈慢 況接賓之禮 次於奉先 而主人者每多不誠 內間婦女尤爲忽略 至於婢僕 從而信甚焉 寧可不惕念加勉乎 未嘗言人短處 不對人詈罵 不與人強辯 恆云 雖有譽我者 我無善 不足喜也 雖有毀我者 我無過 不足溫也 財物取予之際 分數甚明 有所貸用於人者 則記其月日 及期必償 喜施恤 貧寒者衣之 饑者食之 無少吝情 教一子 有法度 恆云 人孰不受其子 善教者是真愛者也 若溺於情而不知教 則是禽犢也 其所以愛之 適足爲害矣 兒子幼時惰遊不讀 則反覆戒之曰 所貴乎人者 行也 欲明其行 要在讀書 吾閱讀書次第 莫先於小學 爾須受讀而體行之 兒子或有過 則必告夫子 呵責而夏楚之 請於夫子曰 器欲成 必求良工 人欲學 必求賢師 聞 尹子賢者也 蓋使兒子就學 古有三遷之教 又有千里從師者 況在同城而憚遷徙之勞乎 夫子從其言 命最和來學於余 乙丑冬 因晚後餘症 經年沈篤 語家人曰 吾知此病終不可起 脩短在天 復何怨乎 但恨未及見吾之兒之將就 又得娶婦 以承先幹蠡也 丙寅十月之望 疾革 猶命取和出就書齋 行數百武 兒忽心驚而身慄 仍還歸扶持 是夜 恭人謂之曰 夫子適出外 吾病殆不救 是吾憾也 吾歿後 爾無虛送歲月 從師善學 以慰吾九原也 翌曉 遂終 某月某日 葬于高陽元堂面木樨里某坐原 金公字永之 其上祖諱

興光 以新羅惠康王第三子 知宗國將亂 避于光山 子孫因以爲鄉貫 蕃昌赫奕 爲東方大姓 入本朝 有諱成玉 文科 大司成 五世有諱浹 文科 校理 又三世有諱孝信 始以武進官 止訓練都正 錄原從勳 自是世登武科 冠冕相繼 更四世 有宣傳官贈左承旨諱漢明 宣傳官贈參判諱聖弼 同中樞諱得衍 是其曾王考 王考考也 初娶延安金氏載厚女 無育 恭人其繼配也 育一男 卽淑和 辛巳 登武科 娶司果李時祥女 二女幼 金公爲人闊達信厚 庚申夏 余始識面 一見 輒以托子爲言 余辭不敢當 且余間多棲屑未暇 及此越三年 戊辰十月 始如其請 計今已十五年 顧余淺陋 何足以爲人師 第念恭人眷眷之意 積年勤摯 令人感歎而欽服 豈敢以存沒以有聞乎 淑和立心持身 粗知其方 可謂不負義方之訓矣 雖以箕裘之業 從事弓馬 而觀其貌聽 其言儘是謹飭儒士也 余於恭人之狀 不敢辭而爲之者 以此 然其淑德懿行之可書者甚衆 今略存梗槩 以俟後之立言者云爾 崇禎後四壬午 孟夏下浣 坡山尹某謹狀

제 문 祭文²⁰⁸⁾

김동주 번역

1. 무심옹(無心翁) 홍공(洪公) 사호(絲浩)에 대한 제문 (남편을 대신해서 지음)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돌아온 무진년(1814년, 순조 14년) 8월 29일에 파평(坡平) 윤광연은 삼가 하찮은 제물을 가지고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겸 도총부 도총관(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都摠府都摠管) 무심옹(無心翁) 홍공(洪公)의 영연(靈筵)에 곡하면서 고하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청렴결백하게 처세하신 것은 공의 고유한 덕이셨고, 엄숙하고 질서정연하며 한 점의 티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처신하신 것은 가정을 살아가는 데의 법칙이었습니다. 호서의 고을에서 선정을 베풀자 그 곳 백성들은 공의 치적을 노래하였고, 벼슬을 내놓고 남대문 밖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셔서 편안하게 지내셨습니다. 수를 누리신 것은 천품을 잘 타고난 것인데 게다가 벼슬까지 하셨습니다. 임금께서 은혜를 베풀어 계속 높은 벼슬을 내리었습니다. 90세로 팔좌(八座)²⁰⁹⁾에 참여하셨으니, 음도(蔭途)²¹⁰⁾로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공께서 만년에 저의 이웃에 계셔서 저는 공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208) 제문(祭文) : 죽은 사람에게 예도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제물을 올리고 읽는 글.

209) 팔좌(八座) : 6조판서와 좌·우참판(左右參贊)을 가리킨다.

210) 음도(蔭途) :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에 나가는 길.

공께서는 저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공께서는 남을 인정하시는 일이 적은데 저에게는 특별히 후하게 하셨습니다. 대절(大節)²¹¹⁾을 가지고 권면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였습니다. ‘충효(忠孝)’ 두 글자를 큰 글자로 써 주셨으므로 저는 그것을 옷깃과 띠에 수를 놓았습니다.

공의 별세를 애도하였는데 벌써 소상이 다가옵니다. 저는 우환에 시달리느라 즉시 와서 조상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공에게 지은 죄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목이 매입니다. 박주(薄酒)와 단사(短辭)를 가지고 감히 사정을 아뢰오니 부디 용서하소서.

祭無心翁洪公(絲浩)文(代夫子作)

崇禎紀元後四戊辰八月甲午朔二十九日壬戌 坡平尹某 謹以菲薄之奠 哭告于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五衛都總府都總管 無心翁洪公靈筵曰 恬靜廉介 維公常德 肅整精白 居家之則 施政湖邑 民歌惠績 歸棲南郭 安于家食 壽由稟厚 從以人辟 天褒有輝 匪頌繼修 九臺八座 蔭途罕覩 晚忝隣契 獲侍座右 不以鄙幼 實荷提誘 公少許可 於我特厚 勉以大節曰 忠與孝 大字書贈 衿紳銘鏤 奄悼登化 祥養且邇 迫於憂病 未即往誄 辜負夙昔 如輶如塋 薄醪短辭 敢陳斯義 尚鑒

2. 족제(族弟)인 성관(聖寬) 광덕(光德)에 대한 제문 (남편을 대신해서 지음)

갑술년(1814년, 순조 14년) 3월 2일에 족형(族兄) 윤광연은 삼가 주과

211) 대절(大節) : 죽기를 한하고 지키는 절개.

(酒果)의 제물을 가지고 제자인 한홍기(韓洪基)를 시켜서 성관의 영언에 곡하며 다음과 같이 고하네.

아! 슬프다. 오늘은 바로 자네의 대상일세. 세월이 여러 번 바뀌어 깨연(几筵)을 칠거하게 되었네. 머리가 하얀 부모님은 너무 원통해 울부짖고, 젊은 아내와 어린 아이는 한없이 애통해 하네. 자네는 막연하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 딸인가? 아니면 영영 떠나버려 뒤도 돌아보지 않는단 딸인가?

아! 슬프다. 자네 같은 인자한 성품과 어진 행실로는 웅당 후한 복을 누려야 할 것인데 이렇게 일찍 죽었고, 자네 같은 아름다운 글 솜씨로는 쇠퇴한 우리 집안을 떨칠 수 있었는데 한 이름도 이루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이치란 딸인가?

우리 일가간의 정의를 예전부터 돈독하였지만, 자네의 아우 광학(光學)이 우리 숙부의 양자로 들어온 뒤로는 정이 더욱 끈끈하고 사랑이 더욱 깊어져서, 오래오래 지내며 평생을 서로 의탁하려고 하였는데, 지금은 다 틀렸구려.

지난해에 호서에 갔다가 오는 길에 들러서 한 번 조곡을 하였으나 가슴에 맺힌 설움을 다 풀지 못했고, 또 길도 멀고 질병도 몸에서 떠나지 않아서 제문을 가지고 술 한 잔 부어 놓는 것마저 내가 직접 할 수가 없구려. 아! 슬프다. 성관은 이런 사정을 양해하고 부디 이 술을 흠향하게 나.

祭族弟聖寬(光德)文 (代夫子作)

維歲次甲戌三月壬辰朔二日癸巳 族從某 謹用酒果之奠 使從遊生韓洪基 哭告于聖寬靈筵曰 嗚呼 今日卽君之終祥也 星霜屢易 這幾將徹 鶴髮之二親寬號 伶仃之孀孤茹痛 君其冥漠而不知耶 抑長往而不顧耶 嗚呼 性行之慈仁 宜

享厚福而夭其天年 倘翰之精妙 可振衰門而未成一名 此何理也 同人之誼 由前篤矣 而自君之弟(光學)后吾叔父 情之密而愛之摯 期以長途 托以平生者 今焉已矣 去年湖行 歷入一哭 結轡之懷 未盡杼寫 且以山川間闊 疾病纏身 操文一醉 亦未能躬將 嗚呼 聖寬諒此情 而歆茲后 尙饗

3. 유취자(留取子) 김공 율추(金公 允秋)에 대한 제문 (남편을 대신해서 지음)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되는 경진년(1820년, 순조 20년) 2월 18일에 파평 윤광연은 유취자 김선생의 영구(靈柩)가 황려(黃驪)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병든 몸을 억지로 이끌고 와서, 삼가 한 잔 술과 한 접시 과일을 가지고 곡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별합니다.

아! 슬픔니다. 뜻은 삼영(三英)²¹²⁾을 숭상하여 남에게 얹매지 않는 기개를 가졌으나 배우려 해도 배울 수가 없다가 만년에야 공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익부(益部)²¹³⁾의 기구(耆舊)²¹⁴⁾에 대해서는 쇠망해 가는 세상에 더욱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슬픔니다. 부디 흠함하소서.

祭留取子金公允秋文 (代夫子作)

維崇禎紀元後四庚辰二月丁亥朔十八日甲辰 坡平尹光演竊聞 留取金先生 統行 將向黃驪 力疾而來 謹以卮酒樓菓 哭訣曰 嗚呼 志向三英 羸爽憫憫 欲學未究 晚陪屨杖 益部耆舊 衰俗興想 嗚呼 哀哉 尙饗

212) 삼영(三英) : 여기서는 강극(剛克)-유극(柔克)-정직(正直)의 3덕(德)을 가리킨다.

213) 익부(益部) : 친구들이 모인 곳.

214) 기구(耆舊) : 나이 많은 친구.

명문 銘²¹⁵⁾

한준섭 번역

1. 필통

거문고 아닌 선반의 재질이나,
문방의 좋은 친구라네.
돈독한 보낸 마음, 잊을 수 없네.

筆筒銘

遶琴材度
文房良友
贈篤不忘

2. 책상

관공치가 여기서 떠나지 않고,
여러해 공을 들어 뜻을 도모하도다.

215) 금석이나 기물(器物)에 새겨 그 사람의 공덕을 기려 후세 자손에게 보이거나, 경계의 글을 새겨 조석으로 반성하는 자료로 삼는 글.

156 國譯 靜一堂遺稿

엄한 스승을 대하듯,
종일 경외하도다.

案銘

肘不離此
功以歲計
如對嚴師
終日敬畏

3. 벼루

생김이 둔하지만 은밀히 저장하니,
모름지기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하게나.

硯匣銘

鈍爲體藏之密
須點檢無汙缺

4. 부채

달은 손에 들고 바람은 소매에 가득 차다.

扇銘

月在手 風滿袖

5. 나무 새

이것이 어떤 새일까?
탄원의 방정함과 절조라네.

木鳥銘

是何鳥
坦園陽²¹⁶⁾

216) 陽(陽) : 임우(廉隅)를 가리킴. 풍행이 방정하고 절조가 굳은 것을 말함.

잡 지 雜 著

1. 사기록

김동주 번역

11세조 시할아버님 의정공(議政公)²¹⁷⁾께서는 소시에 술에 취하여 꽃나무 아래에서 주무셨다.

10세조 시할아버님 판서공(判書公)²¹⁸⁾께서는 남쪽으로 내려가신 뒤에는 비봉산(飛鳳山) 아래에 서재(書齋)를 지어 ‘영은당(永恩堂)’이란 현판을 걸었고, 또 분토산(粉土山) 아래에 한 집을 지어 ‘백직재(白直齋)’란 현판을 걸고서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경사(經史)를 토론하고, 혹은 거문고도 타고 술도 마시며 스스로 즐기셨다.

8세조 시할아버님 망세헌공(忘世軒公)²¹⁹⁾께서는 천성이 시(詩)·주(酒)를 즐기셨는데,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시는 교묘하게 지을 필요가 없고 그저 뜻만 말하면 될 뿐이요, 술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셔서는 안 되고 그저 거나하면 그만둘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상은 『가세고사(家世故事)』에 보인다.)

217) 의정공(議政公) : 보좌공신(輔佐功臣)에 녹훈되고 파평윤원군(坡平府院君)에 봉해지며 영의정에 추증된 윤통(尹統)을 가리킴.

218) 판서공(判書公) : 돈녕도정(敦寧都正)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윤흥상(尹興商)을 가리킴.

219) 망세헌공(忘世軒公) : 장악정(掌樂正)에 추증된 윤극현(尹克賢)을 가리킴.

6세조 시할아버님 포은공(浦隱公)²²⁰께서는 독서를 즐기셨는데, 밤이 깊어서야 바야흐로 주무시고 첫닭이 울면 곧 일어나셨다. 항상 음식을 조절하여 많이 자시지 않았다.

부인 심씨(沈氏)께서는 매우 부덕(婦德)이 계셨다. 평일에는 논어(論語)와 소학(小學)을 원으로써 몸을 닦고 마음을 단속하는 방편으로 삼았고, 매일 밤이 깊을 때마다 자그마한 잔에 술을 붓고 꿀이나 혹은 계피가루·설탕 등을 타서 부군에게 올리고 따라서 경의(經義)에 대한 강론과 질문을 하셨다.

고조 시할아버님 대헌공(大憲公)²²¹께서는 천성이 소나무를 사랑하셨다. 의좌·지팡이 등 모든 기구를 다 소나무로 만드셨다. 송순주(松筍酒)를 마시고 술잎가루를 자셨으며, 소나무의 자태나 냄새와 맛 그 절조(節操)에 대하여 한 가지도 좋아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대헌공을 ‘송옹(松翁)’이라고 일컫었다.

대헌공의 제사가 비록 추운 겨울(10월 9일)에 있었으나 증조시할아버님께서는 반드시 송편과 송순주를 마련하여 소나무로 만든 술잔과 접시에 담아서 올렸다. 시할아버님의 만년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일을 폐지하지 않으셨다. (이상은 가정에서 전해 들음).

증조 시할아버님 판서공(判書公)²²²께서는 시(詩)·주(酒)를 즐기셨다. 일찍이 말씀하기를 “선조(先祖) 망세공(忘世公)의 덕행(德行)이야 어찌 감히 따를 수 있겠는가, 오직 이 두 가지만은 원만큼 한다고 여긴다.”고 하셨다.

판서공께서 일찍이 고을 원으로 나가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마침 큰 흉년을 만났으므로 백성을 구제하기에 급급하여 항상 죽을 자서

220) 포은공(浦隱公) : 이조판서에 추증된 윤목(尹牧)을 가리킴.

221) 대헌공(大憲公) : 진사(進士)로서 대사헌(大司憲)에 추증된 윤철호(尹喆浩)를 가리킴.

222) 판서공(判書公) : 흔히 국제(克齊) 또는 사고당(師古堂)으로서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윤생(尹生)을 가리킴.

가면서 백성을 구제하였다.

또 천성이 지극히 검소하셨다. 의복과 그릇이 조금만 사치스러우면 반드시 엄하게 꾸짖으셨다. 그러나 오직 술에 있어서만은 혹 과한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꾸짖지 않으셨다. 손님이 오면 반드시 술을 차려 두어 순배를 하였는데, 안주는 고작 마른포·과일·채소뿐이었다. 술을 아무리 많이 자셔도 항상 술을 조용히 이겨서(溫克) 정신을 잃는 지경에 이르지 않으셨다. 그때에 어떤 친구가 공에게 이르기를 “자네가 ‘극(克)’자로 호를 한 것은 비록 ‘극기(克己)’의 극에서 나온 것이나 그 또한 ‘온극’의 극을 이름일세.”라고 하니, 공은 웃으면서 “‘온극’도 또한 ‘극기’의 일단이 아닌가?”라고 하셨다.

시할아버님 지추공(知樞公)²²³⁾께서 일찍이 여관에 계실 때에 중추(中秋)²²⁴⁾를 만났다. 시아버님께서 “무엇이 잡수고 싶습니까?”라고 여쭙으셨더니, 지추공께서는 “별로 먹고 싶은 것은 없다. 다만 햅쌀을 가지고 술을 빚고 밥을 지으며, 소고기를 가지고 회를 치고 구이를 하면 좋으니라.”고 하셨다.

지추공의 제삿날은 8월 9일이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자손이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오직 이 네 가지만은 이때에 마련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성의를 다하고 힘을 쏟아서 마련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다. (이상은 부군에게 들었다.)

시할머님 정부인(貞夫人) 이씨(李氏)께서는 율회를 좋아하셨으므로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제사 때면 반드시 마련하셨다.

돌아가신 시아버님 자재공(自齋公)²²⁵⁾께서는 딱딱한 음식물을 좋아하시고, 돌아가신 시어머님 지일재(只一齋)께서는 담백한 반찬을 좋아하셨

223) 지추공(知樞公) : 호는 정심재(正心齋)이고, 진사(進士)로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윤심장(尹心襄)을 가리킴.

224) 중추(中秋) : 추석(秋夕)을 가리킴.

225) 자재공(自齋公) : 통덕랑(通德郎)을 지낸 윤동엽(尹東燁)을 가리킴.

다.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일찍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시아버님께서 박 오가리·도라지·콩나물을 좋아하셨으므로 생신(6월 25일)에는 이런 나물로 반찬을 해 드렸다. 네 막내 시동생도 이런 나물을 좋아했다. 그의 생일이 네 시아버님 생신보다 8일이 뒤지므로 그 나물들을 남겨 두었다가 먹었다. 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제사 날이면 역시 이 나물들을 장만해 쓴다. 나는 깨끗하게 썰은 쌀로 지은 백반과 마른 조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새 며느리도 나와 식성이 같구나. 부자(父子)와 고부(姑婦)가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셨다.

나의 돌아가신 친정 부모께서는 마른 고기를 좋아하셨으므로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가끔 보내드리도록 명하셨다. 근자에는 부군의 지시로 인하여 조금씩 싸 보내서 사사로운 정을 펴곤 한다. (이상은 내가 직접 듣고 본 일).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였다. 그런 때문에 제계하는 날에는 돌아가신 분의 거처하시던 것과 웃고 말씀하시던 것과 생각하시던 것과 즐거워하시던 것과 잘 자시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는 제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만일 제계하는 날에 가서야 생각하면 미쳐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한탄이 많은 것이다. 하물며 예를 다해 제물을 차리는 일을 돕는 것²²⁶⁾은 바로 부인의 직책이지를 앎는가? 더욱 이것은 내가 힘쓸 곳이다.

물건 하나라도 제사에 쓸 만한 것이나 조상이 잘 잠수시던 것을 보면 구해서 성심껏 보관해 두었다가 제사 때에 쓰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기록하여 함박 잊어버리는 일에 대비하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에 주목하여 조상에 대한 효성을 극진히 하게 한다.

226) 예를…것 : 이 말은 《예기》 내칙편에 보인다.

思嗜錄²²⁷⁾

十一世祖舅議政公 少時被酒 睡於花樹下 十世祖舅判書公 南歸後 建書齋於飛鳳山下 扁曰永隱堂 又於粉土山下 築一堂 扁曰白直齋 日與學子 討論經史 或琴酒 自娛 八世祖舅忘世軒公 性喜詩酒 嘗曰 詩不必巧 言志而已 酒不可亂 浹洽而止 以上見家世故事 六世祖舅浦隱公 好讀書 夜分方寢 鷄鳴即起 常節飲膳 不多食 夫人沈氏 甚有婦德 平日誦論語 小學 以爲脩檢之方 每夜深以小盃斟酒 和蜜或桂糖之屬 進之 因講問經義 高祖舅大憲公 性愛松 几杖器用 皆以松 飲松筍酒 服松葉屑 凡松之姿狀 臭味與其節操 靡不好焉 故人稱松翁 其諱辰 雖在冬月 十月九日 曾祖舅必具松餅 松酒 盛以松盃 櫟 薦之 泊祖舅晚年 猶不廢以上家庭傳聞 曾祖舅判書公 喜詩酒 嘗曰 先祖忘世公德行 何敢全及 唯此二者 其庶幾乎 其在莅邑時 值荒年 急於賑民 常啜粥而賑之 又性至儉 衣服器皿稍華 則必嚴責之 唯酒醪之需 雖或過費 無責焉 客至 必設酒數巡 肴用脯果 菜蔬而已 飲雖多 常自溫克 不至於亂 時有親友謂公曰 子以克號 雖出於克己之克 其亦溫克之謂也 公笑曰 溫克 不亦克己之一端乎 祖舅知樞公 嘗於旅館 值中秋 先舅請問所欲 公曰 別無所欲 但此時 新稻米作酒飯 肥牛肉作膾炙 則佳耳 公諱辰 適八月九日也 先舅常曰 子孫雖貧 唯是四者 此時不甚難辦 苟有誠意 極力爲之可也 以上聞諸夫子 祖姑貞夫人李氏 嗜肉膾 先舅姑臨祭必具 先舅自齋公嗜硬物 先姑只一齋嗜潔膳 先姑嘗謂余曰 先夫子喜食乾脯 吉更 豆卷菜 故諱辰 六月二十五日 以此爲需 季兒亦同嗜 而其生日後先夫子八日 故儲餘菜以食之 喪後 則忌辰亦用此物 吾最喜精鑿白飯及乾石魚 新婦亦然 父子姑婦之同嗜 亦奇矣 吾先父母 嗜乾魚肉 先姑有時命送 近因夫子之教 略略肅送 以伸私情 以上余所聞見 古之人事死如事生 故齋之日 思其居處 笑語 志意 所樂及其所嗜 然貧家祭需 當先期營辦 若待齋日而思之 則每多不及之歎 況禮相助奠 是婦人之職 則尤其是余勉力處 苟見一物之合於祀用及先

227) 사기록(思嗜錄) : 조상이 즐기던 것을 생각해서 기록함.

世嗜好者 誠心藏儲 及期而用可也 余故錄此 以備忽忘 且令兒輩常目於是 以盡報本追遠之誠云爾

2. 이불억(경현이라 개명) 동자에게 벼루의 설로 훈시함

번역 신원봉

벼루에는 세 가지 덕이 있으니, 첫째는 단단함이고, 둘째는 고요함이며, 셋째는 무거움이다. 단단함으로 오래가고, 고요함으로 오로지하며, 무거움으로 흔들리지 않으니, 이 때문에 군자가 귀하게 여긴다. 하물며 선왕의 성온과 선조의 유택이 있음에랴? 내가 듣기로, 너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기원공은 교리 때 상감을 알현하자, 상감께서 특별히 벼루 하나를 하사하시면서 당부하시기를, “그대는 직제의 후손으로 청빈한 집안 사람이니, 부디 힘쓰고 또 힘쓰시오” 라고 했다고 한다. 기원공은 그 벼루를 항상 보물처럼 아껴 사용하다가 만년에 너에게 물려주었으니, 네가 어찌 불경스러울 수 있겠는가? 네가 바깥어른을 따라 배운 지도 이미 몇 년이 되었다. 바깥어른께서는 근래 회천으로 가는 길에 관서 지방을 유람하시기로 해, 나에게 네 교육을 부탁하셨다. 네 나이라도 이제 적지 않고 또 집안도 몹시 가난하니, 만약 뜻을 굳게 세우지 않고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면, 비단 선조의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선왕의 분부하심을 어기는 것이 된다. 너는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드시 세 가지 덕을 근간으로 삼아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벼루의 단단함처럼 항상 기개를 지녀야 하고, 벼루의 고요함처럼 온온히 마음을 수렴하며, 벼루의 무거움처럼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힘없이 행한다면 벼루 속에서 나날이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硯說示李童子弗億(敬銘兒名)

硯有三德 一曰貞 二曰靜 三曰重 貞則久 靜則專 重則不撓 是以君子貴之 況於先王盛恩 先祖遺澤之所存乎 余聞汝祖考²²⁸⁾杞園公 以校理入侍²²⁹⁾時 正廟特賜一硯 且諭曰 爾是直齋之孫 清寒之家 勉之勉之 杞園公 常寶用此硯 迨²³⁰⁾晚年以付于汝 汝其可不敬歟 汝從學于夫子 既有年矣 夫子近作懷川行 又遊關西 托余教汝 汝年既淺少 家又酷貧 若立志不堅 甘自暴棄 則非但有違先祖之意 亦將上負 先王之命 汝須一念兢惕 斯²³¹⁾夕孜孜 必以三德爲柯 則介然有常 如硯之貞 密然收斂 如硯之靜 凝然自持 如硯之重 從斯於是 進而不已 則庶幾硯田之中 日有穫焉

靜一堂遺稿終

228) 조고(祖考) : 죽은 할아버지.

229) 대궐로 들어가 임금을 알현함.

230) 계(迨) : 물을 붓다.

231) 혼(斯) : 아찔.

靜一堂遺稿 拾遺

시
詩

한준섭 번역

1. 일가 동백(성대)께 올림

(남편을 대신해 지음, 신묘년(1831년, 순조 31년) 정월, 빠진 것을 훗날 보충함)

말에는 항상 장자의 기풍이 있고,
영동을 다스림에 그 선정을 칭송하도다
한가할 때 관배나무 행랑에서 시를 읊으니,
산봉우리 달과 시내같이 흐르는 구름, 한 폭의 그림같도다.

奉寄宗人東伯(暨大, 代夫子作, 辛卯 正月)

言議常存長者風
旬宣²³²⁾東道誦治功
棠軒無事吟詩處
嶺月川雲似畫中

232) 순선(旬宣) : 사방을 두루 다스려 왕의 명령을 펴는 것

쪽지 편지 尺牘

신원봉 번역

1

종손(근진)의 딸아이는 올해 네 살인데, 깨치는 것이 빠르고 순순히 잘 따라옵니다. 정성을 다해 바르게 이끈다면 이후 부덕을 갖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從孫(謹鐵)之女 今四歲 穎悟有心地 苟隨事循循提 誨導之以誠正 則庶幾他日進就懿德矣

2

낮잠을 자면 기운이 혼미해지고 의지가 나태해지며, 말이 많으면 원한이 생기고 비난이 일며, 과음하면 성품이 황폐화되고 덕을 잃으며, 담배를 많이 피우면 정신이 손상되고 어른을 업신여기게 되니, 모두 경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晝寢則氣昏志墮 多言則怨生譏興 過飲酒則戕性而喪德 多吸嘔則損神而長

儆 俱宜戒之

3

“물은 사물을 윤택하게 하지만, 점토나 돌을 윤택하게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만약 성인이라면 어느 한 측면을 들어 그런 사람까지도 교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윤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윤택하게 할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下教 水能潤物 而粘土不潤 此似爲下愚而發然 如使聖人當之 則安知或因其一端而化之也 竊願不患其不潤 而患不能潤

4

이승선(진언)의 『중용』 차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듣기로 홍상서(석주)에게 변론한 것으로서 그 뜻이 두루 상세하며, 또 그가 지은 『산야문답(山野問答)』과 『엄박종핵(淹博綜覈)』은 세상에 쓰일 만하다고 하니, 가까운 시일 내 빌려서 보여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李承宣 晉淵 庸學簡疑 聞是與洪尚書(夷周)講辨者 其義周詳 又其所著山野問答 淹博綜覈 可爲世用云 從近借示甚好耳

5

선조인 무곡공의 『훈자격언(訓子格言)』을 학곡의 죽형(창회)께서 막 출판해 친척들에게 나누어 보낸다고 하니, 다행히 삼주형(원회)께 부탁할 수 있다면 한 질을 얻어 올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신지요?

先祖愚谷公 訓子格言 鶴谷族兄²³³⁾(昌會) 方付梓²³⁴⁾而將分送于親戚云 幸須托于三洲兄(元會) 受一秩以來 如何

6

당신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비록 작은 은덕이라도 거기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상사(한기)께 달 것을 빌려 마침내 그리워하던 고향 선성으로 갈 수 있었으니, 진실로 적은 은덕이 아닌데도 어찌 보답할 생각을 하시지 않는지요?

夫子嘗言 德雖小宜 思報向賴 崔上舍(漢綺)借乘 得遂懷鄉宣城之行 良非小德 曷不思報耶

7

정원의 평온대는 이세마(도중)께서 이름을 지었는데, 땅이 울퉁불퉁하고 자갈 두성이라 평온이라 했다고 하니,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만나시거든 한 번 여쭙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233) 죽형(族兄): 성과 본이 같은 일가로서, 상복을 입는 친척 안에 들지 않는 형제가 되는 남자.

234) 부자(付梓): 출판.

園中平穩臺 李洗馬(度中)名之 其地榮確不平 而名曰平穩 似有所取義 更逢時間之 如何

8

무릇 백성들이 뛰어난 것은 삼고(三古)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서동(書童) 중 노귀는 자상하고 총명하며, 이암은 돈후하고, 유철은 효성스럽고 근면하니 모두 가르칠 만합니다. 청컨대 어리다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凡民俊秀 三古之所不棄也 今書童中 盧龜詳明 李巖敦厚 劉岳孝謹 皆可教也 請勿以卑幼而忽之

9

죽질 준영은 사촌형(윤영)을 친형처럼 대하고 친척들과도 화목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의 독실한 실천을 이어받을 만하니, 매우 경하할 일입니다.

族姪濬永 待其從兄(允永)若同己 且睦于親戚 能承先父兄之篤行 甚可嘉也

10

작은 아버지님 동주공의 글씨와 그림은 바르고 곧으며, 문헌 아주버님(진사, 광의)의 필법은 험차고 빠릅니다. 이제 상자 중에 몇 행밖에 남아 있지 않으니, 청컨대 예산 아주버님(광학)과 죽질(자훈)에게도 나누어 주어, 잘 간직해 모범을 삼도록 하소서.

從舅東洲公 字畫正直 文軒叔(進士, 光義 初名光載)筆法遒敏 今篋中唯有數行 請分送于禮山叔(光學) 及族姪(滋勳)使之謹守 以存典刑焉

11

심은진(문영)은 하는 일 없이 들락거리곤 하니 탄식할 일입니다. 임사목(노), 이군수(형수) 두 분과 심상사(홍모)께서 연이어 들러 강의를 하신다는데, 어떤 책을 다루며, 또 어떤 말씀을 특히 많이 하시는지 기록했다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沈恩津(文永)虛顧可歎 任牧使(魯) 李郡守(馨秀)兩賢 及沈上舍(弘模) 連次見枉所講 何書所質 何義 必多所聞 幸望錄示

12

보여주신 이영양(건주) 어른의 가르침은 조목조목 모두 옳아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처자를 제사지낼 때 읽는 축문에 관한 것은 이전 분들의 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왜 홍사문(직필)께 물어보지

않으셨는지요?

下示 李英陽丈(建甯)所教 條條皆是 深得欽歎 但夫祭妻 子讀視一段 與先賢說有異同 盍於洪斯文 直弼 就質焉

13

윤상서(광보)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시비를 읊은 시’ (시비는 어떤 날 정해지며, 어떤 사람이 정하는 것인가? 읊은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을 비(非)라 한다면 시비로 절로 하나로 돌아가나, 읊은 것을 일단 그르다 하면 시비가 매번 서로 어긋나니, 누가 시비의 다툼을 해결해 영원히 시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까?)는 참으로 공감에 가깝습니다만, 시(詩) 중 시비가 뒤섞여 가르치는 바가 뚜렷하지 않으니, 조화되지 못한 거친 표현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신지요?

尹尙書(光普)來示 其是非吟 (是非何日定 何人定是非 是是非曰非 是非自有歸一 是一曰非 是非每相違 誰決是非訟 永罷是非疑) 固爲可感 但詩中是非渾無指的 恐未可輒和 姑以拙辭 如何

14

보여주신 한 구절 “공자, 안자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바요, 임씨와 사씨는 그대가 기원해 온 바이니, 뜻한 일을 서로 독려해야 하거늘, 이처럼 황혼기에 접어들어서라!” 은 매우 장엄합니다. 사람은 인성이 전함을

알지 못함이 없고, 성인이 본성을 다함을 알지 못함이 없으나,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선함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본성을 다하는 것임을 모른다면, 알고 있는 것은 진실로 참된 앎이 아닙니다. 혹 알고서 행하더라도 뜻이 견실하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으니, 하루 이들 세월만 흘러, 끝내 거칠고 서투름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이 일찍이 두려워했던 바이니, 이번 힘쓰도록 격려하신 뜻을 어찌 가슴속에 간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下示一絕(孔顏吾願學 姪子攸期 志業且相勉 況茲衰暮時) 莊誦無已 人莫不知人性之善 莫不知聖人之盡性 而苟不知如何性善 如何盡性 則所知者固非真知 又或有知而行之者 然立志不堅 作輟無常 一日二日 年光流邁 竟未免虛莽 此是嘗所惕然者 今承勉勵 敢不服膺

15

군자는 예가 아니면 말하지 않아, '괴력난신(怪力亂神)'을 공자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니다. 최근에 듣기로, 문하의 젊은 축들이 이익을 말하고 괴이한 것들을 논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엄히 꾸짖어 바른 자세로 독서하도록 하지 않으시는지요?

君子非禮不言 怪力亂神 子所不語 近聞門下少輩 說利談怪 漫浪度日 何不嚴責 使之正容讀書

16

당신과 교유하면서도 시종 달라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스스로를 반성해야 합니다. 만약 말에 충심과 신의가 없고 행동이 경(敬)에 독실하지 못하다면, 내가 스스로 닦지 못한 것인데 어찌 다른 사람을 점검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증진(曾傳)』에 이르기를, “자신을 돌이켜 본 뒤에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라”고 했으니, 이로써 삼가 격려드리는 바입니다.

從夫子游而終始不渝者無多 此不可咎人 而當反求諸己矣 若言不忠信 行不篤敬 我無自脩之實 則奚暇點檢他人 曾傳云 猶諸已而後求諸人 敢以是仰勉

17

해석 김상공께서 일찍이 당신께 말씀하시기를, “산 위의 정자에 앉아 종일 탄원 쪽을 향해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집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면 죽이라도 끓여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도들이 출입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가르치는지를 안다네”라고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따뜻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빈낙도하면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라는 경계의 말씀이 아닌 줄 어찌 알겠습니까? 때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 무거운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海石金相公 嘗謂夫子曰 某在山亭 終日只對坦園 見屋上烟生 則想醴粥之炊否 見學徒出入 則知教授之多少 此固出於相愛之意 然又安知非戒夫子以固窮樂道 篤學誨人耶 每思其言 深覺感荷

18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유고를 간행하여 오래도록 전하려 하는 것은 참으로 효심에서 나온 것이나, 앞사람의 일을 이어받아 행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니, 마땅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집을 간행하는 것은 가정형편이 이런 지경이니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몇 질만이라도 정성껏 베껴두어 여유가 생길 때를 기다린다면, 효도에 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先舅遺稿之營刊壽傳 誠出孝思 而紹述言行 尤大於此 所當夙夜自勉 而文字剗削 家既窮窶 末由強就 則姑爲精寫數帙 以待事力之稍裕 似無害於孝道矣

19

돌아가신 아버님 유고(遺稿)를 당신께서 반드시 간행하시려 하고, 또 동백(참판, 성대)과 서하준(대간, 체흥) 등 도와주려는 친척이 있고, 옛부터 잘 아는 분들 중에도 힘을 돕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니, 지금이라도 속히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며, 더 이상 꾸물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 혹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스스로 빨리 하고 싶어도 일이 크게 어그러질 것입니다.

先稿刊役 夫子必欲成之 而東伯(參判, 聲大) 及西河倅(大諫, 濟弘) 既有惠助 親戚知舊之出力者頗多 今宜即速始役 不可遲延遷就 或至乾沒 自速大戾矣

20

홍세마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마음으로 참된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친구분들 중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실로 참된 마음으로 참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종 일관할 수 있어 표리가 일치할 것이니, 이것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洪洗馬(直弼) 云 以實心行實事 今士友中 能如是者幾人 苟有實心實事 則必能終始如一 表裏相合 斯可以知其人矣

靜一堂遺稿拾遺終

附 錄

김동주 번역

1. 행장

유인(儒人)은 성은 강씨(姜氏)요, 호는 정일당(靜一堂)이요, 본관은 진주(晉州)다. 수양제(隋煬帝)²³⁵⁾가 동쪽으로 고구려를 칠 적에 이름을 이식(以式)이라고 한 분이 병마원수(兵馬元帥)의 직함을 가지고 수나라 군사를 크게 깨뜨려 명성을 3국(三國)에 떨쳤으니, 이 분이 바로 그 시조이시다. 그 뒤에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여 동방(東方)의 명족(名族)이 되었다.

이름을 계옹(啓雍)이란 분이 계서 문과에 급제하여 국자박사(國子博士)란 직함을 가지고 김방경(金方慶)²³⁶⁾을 도와 일본을 쳐 공을 세워서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에 봉해지셨고, 3대를 내려와서 이름을 군보(君寶)란 한 분은 문과에 급제하여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봉산군(鳳山君)에 봉해지고 문경(文敬)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이름을 시(耆)라 하고 호를 양진당(養眞堂)이라고 한 분은 문과에 급제하여 삼중대광 문하찬성사(三重大匡門下贊成事)로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에 봉해지고 공목(恭穆)이란 시호를 받으셨는데, 그 사적이 『고려사』에 실려 있다.

235) 수양제(隋煬帝) : 수나라 양제는 성명이 양왕(楊廣)인데, 그 아버지 문제(文帝 : 楊堅)를 시해하고 황제가 되어 고구려를 정벌하다가 패하였음.

236) 김방경(金方慶) : 고려 고종 때의 명신(名臣).

이름을 회백(淮伯)이라 하고 호를 통정(通亭)이라 한 분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이르셨으며, 이름을 석덕(碩德)이라 하고 호를 완역재(玩易齋)라 한 분은 은일(隱逸)로 진출하여 국자감(國子監)²³⁷⁾·사헌부(司憲府)의 장관과 동전(東殿)²³⁸⁾·남궁(南宮)²³⁹⁾의 차관을 지내신 동시에 우리 세종대왕을 섬기면서 『오례의(五禮儀)』를 편찬하였으며,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작고하고 대민(戴敏)이란 시호를 받으셨으며, 이름을 희맹(希孟)이라 하고 호를 사숙재(私淑齋)라 한 분은 세 차례 과거에서 장원을 차지하고 두 차례 훈부(勳府)에 올랐으며 진산군(晉山君)에 봉해지고 좌찬성(左贊成)으로 작고하여 문량(文良)이란 시호를 받으셨는데, 모두 명신전(名臣傳)에 보이고, 다 문집이 있어 이름을 『진산세고(晉山世稿)』라 한다. 이름을 구손(龜孫)이라 한 분은 문과에 급제하여 우의정(右議政)에 이르고 숙헌(肅憲)이란 시호를 받으셨다. 숙헌의 증손은 이름을 극성(克誠)이라 하고 호를 취죽(醉竹)이라 하는데, 문과에 급제하여 사인(舍人)이란 벼슬을 하고 호당(湖堂)²⁴⁰⁾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셨으며, 이름을 종경(宗慶)이라 하고 호를 매墅(梅墅)라 한 분은 문과에 급제한 뒤에 사국(史局)에 추천되었으나 미처 보직되지 못하고 작고하여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었으며, 이름을 진취(晉攄)라 하고 호를 곤계(困溪)라 한 분은 예종릉(睿宗陵)의 참봉(參奉)을 지냈다. 우계(牛溪) 선생이 일찍이 ‘오도(吾道)를 맡길 데가 있다.’는 말을 가지고 허여하기까지 한 분인데, 불행하게 일찍 작고하셨다. 또한 모두 문집이 있어 이름을 『속세고(續世稿)』라 한다. 아우로서 생원(生員)을 하고 이름을 진승(晉昇)이란 분의 증자(仲子)를 취하여 수사(後嗣)를 삼으니, 이름은 덕

237) 국자감(國子監) : 성균관(成均館)의 다른 이름.

238) 동전(東殿) : 이조(吏曹)의 다른 이름.

239) 남궁(南宮) : 예조(禮曹)의 다른 이름.

240) 호당(湖堂) : 독서당(讀書堂)의 별칭. 곧 문관(文官) 중에 특히 문학이 뛰어난 사람에게 말미를 주어서 오로지 학업을 단게 하던 서재(書齋).

후(德後)요, 호는 우곡(愚谷)인데, 『훈자격언(訓子格言)』을 짓고 이조참판(史曹參判)에 증직되었으며, 이름을 석규(錫圭)라 하고 호를 오아재(鰲牙齋)라 한 분은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억울하게 죄에 걸려 북으로 동으로 귀양 다닌 지 10년 만에 풀려났으며, 또 문장(文章)을 가지고 권척(權戚)²⁴¹⁾의 비위를 거슬러서 벼슬이 겨우 군자감정(軍資監正)과 지제교(知製敎)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 분은 바로 유인의 5세조이시다.

고조는 이름을 제부(濟溥)라 하고 호를 무유당(無有堂)이라 한 분은 통덕랑(通德郎)으로서 문행(文行)을 가지고 세 번이나 이조전행(史曹銓衡)에 올랐지만, 결국 관운(官運)이 없어서 떨어지고 말았다. 증조는 이름을 주우(柱宇)라 하며 호를 취장재(就將齋)라 하는데, 경종(景宗) 계묘년(1723년, 경종 3년)에 실시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윤지술(尹志述)을 위해 신원소(伸冤疏)를 올렸다가 상대편 사람의 비위를 크게 거슬러서 일생 동안 벼슬길이 막혔는데, 그 유집(遺集)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

조부는 이름이 심환(心煥)이요, 부친은 이름이 재수(在洙)인데, 모두 독실한 행동이 있었으나 일찍이 작고하여 이름을 떨치지 못하였다. 모친은 안동 권씨(安東權氏)로 청강처사(淸江處士) 서응(瑞應)의 딸이요, 옥소산인(玉所山人) 섭(燮)의 증손이며, 수암(遂菴) 선생의 중계(仲弟)로서 참판(參判)을 지낸 상명(尙明)의 현손(玄孫)이다.

유인은 영조(英祖) 임진년(1772년, 영조 48년) 10월 15일 제천(堤川) 근우면(近右面) 신촌(新村) 집에서 태어났다. 이에 앞서 그 어머니는, 두 성비(聖妃)가 그 집에 내려와서 곁에 모시고 서 있던 한 사람을 가리키며 “이 애에게는 지극한 덕이 있다. 지금 이 애를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한 태몽을 꾸었는데, 얼마 안 가서 유인이 태어났다. 그 어머니는 이상하게 여기고 드디어 그 꿈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241) 권척(權戚) : 권세 있는 척산(戚臣).

유인은 천성이 차분하고 단정하여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 빛에 나타내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여러 아이들과 장난을 치지 않았으며, 발자취가 대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 비록 몸은 아위어 병이 많았으나 정력은 남보다 뛰어났다. 길쌈하는 일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하였다.

청소하는 일과 응대(應對)하는 일은 깍듯이 가정교훈을 이어받았으므로 그것을 보는 자들은 모두 ‘천인(天人)’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청강공(淸江公)은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워하면서 “산수軒(山水軒) 종형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너의 어머니는 우리 권씨 문중에 제일 가는 부인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너는 꼭 어머니를 닮았구나.”라고 하였다.

유인이 8세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잘못하는 일도 없고 잘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²⁴²⁾는 말과 “밤에 다닐 때에는 반드시 촛불을 갖고 다니야 한다.”²⁴³⁾라는 등의 말들을 외어서 가르치면 유인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들었으며, 한 번도 그 교훈을 어기는 적이 없었다. 부모가 병환을 앓을 때에는 아무리 혹독하게 추운 날씨와 대단하게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옷을 벗거나 눈을 붙이지 않았다. 약을 다리고 음식을 장만하는 일은 반드시 몸소 하였다.

무신년(1788년, 정조 12년)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유인은 너무 슬퍼하다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집이 몹시 가난하였으므로 어머니를 때라 바느질도 하고, 길쌈도 하느라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의 노고를 탄망히 여기어 잠시 쉬도록 하면 유인은 ‘힘들지도 않고 또 잠도 오지 않는다.’는 말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위안시켰

242) 잘못하는…한다 : 이 말은 (시경) 소아(小雅) 사간(斯干)장에 “여자를 낳아서… 잘못하는 일도 없고 잘하는 일도 없이 오직 음식에 관한 일만을 함으로써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을지라도.”라고 보인다.

243) 밤에…다닌다 : 이 말은 (예기) 내칙편에 “여자가 규문(閨門) 밖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얼굴을 가려우며, 밤에 다닐 때에는 촛불을 갖고 다니며, 촛불이 없으면 다니지 않는다.”라고 보인다.

다. 하인들이 혹 고기나 과일 같은 것을 가져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반드시 어머니에게 드렸다.

유인은 산해년(1791년, 정조 15년)에 탄재(坦齋) 윤공(尹公)에게 시집 갔는데, 두 집이 모두 가난하여 곧 신행을 하지 못하였다. 이듬해에 시아버지가 유인의 권정으로 찾아가서 보고 10여 일을 묵으면서 유인의 인행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우리 집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계축년(1793년, 정조 17년)에 시아버지가 별세하자, 갑인년(1794년, 정조 18년) 여름에 유인이 비로소 청강(淸江)에서 배를 타고 떠나니, 그 어머니는 당부하기를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시누이와 동서와 일가간에 성심을 다하도록 하라. 가난은 의례 선비 집에 따라다니는 것이니, 일체 운명에 맡기고 조금도 언짢게 생각지 말라.”고 하니, 유인은 그 말씀을 새겨듣고 떠나서 종신토록 잊어버리지 않았다.

유인은 비록 아무도 없는 곳이나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은 적이 없고, 걸음걸이를 서서히 옮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면서 효도를 극진히 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할 때에는 반드시 절을 하였으며, 특색의 물건이 생기면 반드시 보관해두었다가 부모를 봉양하거나 조상의 제수로 썼다. 시어머니가 몹시 사랑하였으나 감히 그것을 받고 조금도 태만하거나 소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작고할 때까지 16년 동안을 하루같이 하였다.

기사년(1809년, 순조 9년)에 시어머니의 상을 당해서는 몹시 서러워하였으며, 조석곡(朝夕哭)과 상식(上食)하는 일에 그 정성과 예제를 다하였다. 그 해는 큰 흉년이 들었고, 또 겨울은 몹시 추웠다. 집에는 동전 한 푼, 쌀 한 톨이 없었는데, 힘을 다하여 장사를 치렀다. 배사를 반드시 몸소 하였으므로 손발이 모두 얼어 터졌다. 어떤 사람이 “너무 과로합니다.”라고 말자, 유인은 “이게 무슨 소리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유인은 부군에게 극진히 공경하였다. 부군이 매년 출행할 때마다 하룻밤 이상을 자고 올 상황이면 반드시 절을 하였다. 돌아왔을 때에도 역시 절을 하였다. 규문(閨門)의 안이 엄숙하기가 마치 조정과 같았다. 시동생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우애가 돈독하였다. 그 아버지가 작고한 뒤로는 더욱 보살피주었다.

계축년(1793년, 정조 17년)에 일화(日會)가 서울로 와서 우리 아버지께 글을 배워서 결국 압전한 선비가 되었으니, 이것은 유인의 뜻이었다. 남편의 형제를 박대하는 사람을 보면 매우 부당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남편을 사랑할 줄 알면서 그 형제를 박대하면 이것은 시부모께서 동등하게 보시는 뜻을 체험하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다.

시아버지의 초상을 치른 뒤에 집안 살림이 더욱 형편없게 되었다. 만시숙 숙암공(肅菴公, 光國)이 남의 집에 세를 얻어 나가서 몸소 막일을 했으나 오히려 어머니를 봉양하기에 넉넉지 못하였다. 탄재(坦齋)도 상복차림으로 충청도와 경상도 지방을 떠돌게 되었다. 그러자 유인은 울면서 권하기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사람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외리를 버리고 살기만을 도모하는 것은 도리를 배우고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만 못합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바느질과 길쌈은 대강 할 줄 아니, 밤낮으로 열심히 하여 죽은 잠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낭군께서는 성현의 글을 읽으시고, 집안 일에는 관심을 갖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탄재는 그 말에 감동하여 사서(四書)와 정주(程朱)의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유인은 항상 가위와 자를 가지고 한 쪽 귀퉁이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면서 탄재의 글 읽는 소리를 들었다. 혹은 글자의 획도 물어보고, 혹은 글자의 음과 뜻도 물어보았다. 유인은 한 번 슬쩍 보고는 곧 암송하였고, 또 심오한 뜻도 이해하였다. 탄재는 깜짝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다. 결국

은 유인과 강마(講磨)하며 날마다 예전에 들지 못한 것을 들었다.

몇 년 뒤에 유인은 또 말하기를 “배우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낭군께서는 성현의 교훈이 이미 당연한 것으로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독학하고 사우(師友)가 없으면 고루함을 면치 못하니, 원컨대 낭군께서는 스승을 따르고 친구를 사귀어 도움을 받으소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탄재는 더욱 분발하여 사문(師門)에 가서 수업을 청하고, 여러 학우들을 따라 놀았으므로 학업이 크게 진취되었다.

탄재가 여러 날을 기한(飢寒)에 시달리다가 먼 길을 떠나게 되니, 유인은 절구 한 수를 지어서 작별의 정을 서술하고, 또 “세상일은 돌고 도는 것이니, 잠시 군색한 것으로 언짢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권면하였다.

무오년(1798년, 정조 22년)에 과천(果川)으로 이사가서 남의 빈집을 빌어 살았는데, 낮에는 호랑이가 울어대고 밤에는 도깨비가 휘파람을 불어대므로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또 일곱 끼니나 굶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어린애 참상까지 당했다. 그러나 유인은 오히려 너그럽게 위로하기를 “낭군께서 정도를 지키시면 사(邪)가 저절로 멀리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곤란할 때일수록 더욱 인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인명의 장단은 저절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있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뿐이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탄재가 우연히 과오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신신당부를 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였다. 탄재가 사랑에서 처리하는 일이 혹 사리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편지를 급히 보내서 중지시켰다.

어떤 재신(宰臣) 하나가 탄재의 가난함을 무척 빈망히 여기고 있었다. 이런 때에 마침 어떤 사람이 돈 천냥을 가지고 와서 탄재에게 일을 부탁

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자 그 재신은 탄재에게 편지를하기를 “그 사람의 일이 옳은 일이니, 자네가 편지로써 그 일을 나에게 알리면 내가 그 일을 성사시켜 줄세” 라고 하였다. 이것을 안 유인은 말하기를 “돈 천냥과 나의 지조를 바꾸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부군에게 권하여 편지를 보내서 사양하게 하였다.

또 언젠가는 탄재가 돈 수백 냥을 잃어버리고 몹시 걱정을 하였다. 그러자 유인은 말하기를 “돈을 얻거나 잃거나 하는 것은 운수에 관계되는 일인데, 무슨 개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황고(皇姑)²⁴⁴께서 ‘시루는 이미 깨져버렸는데, 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²⁴⁵”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대장부가 이 따위 시시한 일로 걱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하였다.

탄재는 본래 한 항아리의 쌀도 저축해 놓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 3세 7위(位)의 묘(墓)를 천리 밖에서 파다가 변례(緘禮)를 하였고, 형제와 친족을 위하여 양자를 들인 사람 7~8명에 대해서도 혼인이나 초상 등에 쓰이는 비용을 마련해 주는 일 또한 많았으며, 또 탄재가 자주 먼 길에 스승과 친구를 찾아다니느라고 많은 비용을 냈다. 그런데도 유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집안을 잘 지켜갔다. 집안을 다스리는 규율이 분명하였고, 멀고 가까운 사람을 막론하고 접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탄재는 친성이 손님들을 좋아하였으므로 신발이 항상 뜰에 가득하였다. 유인은 탄재의 뜻을 따라서, 손님이 올 때마다 성의껏 음식을 해냈다. 비록 잠곡밥에 나물국, 하얗은 술에 변변찮은 안주일망정 반드시 정결하

244) 황고(皇姑) : 부인이 이미 작고한 남편의 어머니에 대한 존칭. 선고(先姑)라고도 한다.

245) 시루는…있겠는가 : 이 말은 동한(東漢)시절 맹민(孟敏)의 고사(故事). 맹민이 시루를 지고 가는 도중에 시루가 땅에 떨어졌으나 맹민은 돌아보지 않고 갔다. 학태(郭泰)가 이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더니, 맹민은 “시루는 이미 깨져버렸는데, 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라고 하였다. 이 말이 여기에 정일당의 서어머니의 말처럼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다.

게 차려서, 손님들로 하여금 그의 가난한 형편에 대한 염려를 놓고 마냥 즐겁게 놀 수 있게 해 주었다. 사람들이 더러 '어떻게 그리 힘든 일을 하느냐?'고 하면 유인은 "이것은 바로 부인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작은 일이다. 이것도 못한다면 그런 부인은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하였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여러 해 동안 길쌈 등을 하여 동전 수십 꾸러미를 모아 가지고 남의 큰 일을 성취시켜 주었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는 절대로 자랑하는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남에게 빌려 쓴 돈이 있으면 약속 날짜에 반드시 갚았다. 비록 옷이나 비녀 같은 것을 잡혀거나 파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기일을 넘기지 않았다. 유인이 언젠가는 말하기를 "사람이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절로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빈한한 선비를 따라 사는 아내들은 가난을 싫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비방하기까지 하니,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비리의 물건은 죽어도 받을 수 없거늘, 하물며 꼭 죽을 처지에 놓인 것도 아닌데 재물을 탐하여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 보면 반드시 그것이 비리의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선(善)이란 것은 모든 것을 잘 다스려지게 하는 근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利)라는 것은 모든 일을 어지럽게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만일 이(利)를 가지고 와서 말하는 자가 있거든 다만 정도를 지키므로써 그를 멀리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평상시에는 말을 빠르게 하거나 얼굴 빛을 갑자기 변하는 일이 없으며, 하인들에게까지도 소리를 지르거나 나무라는 일이 없었다. 바깥마당에서 요란스럽게 음악소리와 함께 팽대놀이를 하더라도 한 번도 문틈으로 내다보는 일이 없었다. 밤에는 촛불을 가지지 않으면 한 번도 마루에서 내려가는 일이 없었다.

재물을 나눔에 남의 목을 먼저 챙겨 주고 자신의 목은 뒤에 가졌으며,

음식을 나눔에 있어서는 죽은 사람의 앞에 먼저 놓고 산 사람의 앞에는 뒤에 놓았다.

잘한 일은 그 칭찬을 남에게 돌리고, 못한 일은 그 허물을 자신에게 돌렸다. 남의 착한 점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행여 다 찬양하지 못할까 싶어하고, 자신의 잘한 점을 숨김에 있어서는 행여 남이 알까 싶어하였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착한 점은 칭찬해 주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허물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허물은 다스리지 못하고 먼저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였다. 남이 헐뜯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부군에게 그 사람을 더 후대하도록 권하기를 “그저 나의 도리만 다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평생 동안 학문에 독실하였다. 천인(天人)의 관계를 탐색하고, 성명(性命)의 근원을 연구하였으며, 존양성찰(存養省察)의 공부에 주력하였다. 경(敬)과 의(義)가 함께 진행되게 하고, 동(動)과 정(靜)이 한결같이 하였다.

소시에 『중용(中庸)』의 계신장(戒愼章)을 읽되, 정미한 뜻을 분석함에 있어 은연 중 주자(朱子)의 뜻에 맞게 되었다.

일이 없어 한가하게 있을 적에는 문을 닫고 단정히 앉아서 마음이 아직 발동하기 전의 상태를 체험해 보고 스스로 말하기를 “신기(神氣)가 화평하여 기한(飢寒)과 질병의 고통을 모두 잊는다.”라고 하였다.

또 언젠가는 유인이 주부자(朱夫子)가 동안현(同安縣)에 있을 때에 ‘들려온 종소리가 미처 끊어지기도 전에 이 마음은 벌써 도망가버렸다.’는 말을 듣고 매일 종소리가 날 때면 조용히 앉아서 체험해 보았고, 또 글방 아이가 수표(水杓)를 치는 놀이를 하되 치는 속도의 느리고 빠른 간격이 절도가 없자, 유인은 그 소리를 고르게 치도록 하고서는 이 마음의 드나드는 사이를 시험해 보았으며, 또 유인은 혹 바느질을 하되 여기서부터

저기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을 변동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기도 하였다. 그런 뒤에 유인은 스스로 말하기를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려서 애를 먹었으나 차차 습관이 되어서 만년에 와서는 표리(表裏)가 태연해졌다.”라고 하였다.

13경(經)²⁴⁶⁾을 두루 읽어 심오한 뜻을 연구하고, 매일 혼자 있으면서 글을 읊조리고 외우곤 하였으며, 또 전적들을 널리 보아서 고금치란(古今治亂)의 사적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알았다.

서예(書藝)를 좋아하여 항상 등간 밑에서 붓을 휘둘렀다. 글씨 획이 힘차고 레정한 것은 그 시할아버지 정심재(正心齋)의 필법(筆法)과 도정(都正) 황도곡(黃道谷·運祚)·교리(校理) 홍간재(洪良齋·儀泳)·진사(進士) 권천유(權天游·仁復)의 글씨를 모방하였고, 또 심재(心齋)와 강재(剛齋)의 반초서(半草書)를 배웠는데, 은구철색(銀鉤鐵索)²⁴⁷⁾이 모두 심획(心畫)에서 나왔다.

또 시율(詩律)도 공부를 하였는데, 그다지 힘을 들이지 않았어도 자연히 문장을 이루었다. 문(文)의 경우는 30세 후에 짓기 시작했으나 탄재에게 글을 받으려 오는 사람이 있어 미처 지어 주지 못할 겨우는 유인이 더러 대신 지으면서 “이것은 부인이 하는 일이 아닌데, 혹 남이 보고 알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기미년(1799년, 정조 23년) 가을에 탄재가 중주(中洲) 이상서(李尙書·直輔) 어른을 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무오년(1798년, 정조 22년)에 유인이 지은 절구 한 수²⁴⁸⁾에 대해 말하게 되었더니, 이공이 대단

246) 13경(經) : 열 세 가지 경서(經書) 곧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공양전(公羊傳)·곡양전(穀梁傳)·논어(論語)·효경(孝經)·이아(爾雅)·맹자(孟子).

247) 은구철색(銀鉤鐵索) : 은으로 만든 갈구리와 쇠로 만든 철사. 곧 글씨 획이 힘있는 것을 비유함.

248) 절구 한 수 : “나 이 서론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니, 배움에 있어 동자 서를 분간하기 어렵네. 이제라도 노력만 하게 된다면, 예전 사람과 똑 같게 될 수 있으리.(三十始課讀 於學迷東西 及今爾努力 庶期古人同)”라는 수를 가리킨다.

히 칭찬하기를 “어진 부부 사이에 서로 경계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유인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였고, 이 뒤로는 더욱 숨기고 편언척자(片言隻字)도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신사년(1821년, 순조 21년) 제석(除夕)²⁴⁹⁾에 와서야 비로소 시 한 수를 보였으니, 그것은 아마 탄재가 더욱 말을 조심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리라.

유인이 언젠가 말하기를 “오륜(五倫)은 오상(五常)의 이치이므로 이것은 모두 사람의 마음 속에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스승은 비록 천륜(天倫)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세 군대²⁵⁰⁾를 거쳐서 생성되므로 한결같이 섬기는 까닭에 ‘심상삼년(心喪三年)’²⁵¹⁾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원컨대 낭군께서는 옛 도리를 따르소서.”라고 하였다.

소학(小學)을 논함에 “몸은 만사(萬事)의 근본이 되고, 경(敬)은 일신(一身)의 주체가 된다. 그런 때문에 ‘경신(敬身)’ 한 편이 바로 소학의 총론이 된 것이다.”라고 하고, 대학을 논함에 있어서는 “학문은 격물치지(格物致知)보다 앞선 것이 없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대부분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 격물치지에 대한 고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성명(性命)의 미묘한 이치와 일관(一貫)²⁵²⁾의 오묘한 이치는 한갓 한 마당의 공연한 설화로만 지어 보아서는 아니 되니, 모름지기 먼저 사람이 일상 하는 일에 입각해서 독실하게 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249) 제석(除夕) : 설날 그믐날 밤.

250) 세 군대 : 낳아준 아버지, 길러주는 임금, 가르쳐주는 스승을 가리킴.

251) 심상삼년(心喪三年) : 상복(喪服)을 입지 않고 3년 동안 마음속으로 근신하는 일.

252) 일관(一貫) : 한 이치가 온갖 일을 꿰뚫는 것.

또 말하기를 “‘천명지성(天命之性)’²⁵³⁾은 바로 자사(子思)께서 도(道)의 근원을 극도로 말씀한 것이다. 자사는 또 계신공구(戒愼恐懼)²⁵⁴⁾를 가리켜 보여서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에 착수할 곳을 먼저 알게 하였으니, 공중에 띄어놓고 한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천명지성’은 본래 남녀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부인으로서 태임(太任)²⁵⁵⁾·태사(太姬)²⁵⁶⁾와 같이 되기를 결심하지 않는 자는 또한 자포자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천지 만물은 나와 일체인 것이다. 그러니 만일 한 가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지 못하면 나의 한 가지 지식이 모자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천지(天地)·귀신(鬼神)·괘상(卦象)·정전(井田)에서부터 곤충(昆蟲)·초목(草木) 및 경사(經史)에 대한 어려운 뜻과 일상생활에 의심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조목별로 열거하여 탄재에게 질문하면 탄재는 아는 대로 답해 주고, 모르는 것은 스승과 친구에게 물어서 답해 주었다. 탄재가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절의하면 유인이 성의를 다해 답변하였다.

드디어 그 문답한 것들을 기록하여 두 책으로 만들어서 몸소 행하는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 한 마디 착한 말과 한 가지 착한 행실이 있으면 듣는 즉시 책에 적어 넣어 본보기로 삼았다.

임오년(1822년, 순조 22년) 7월에 유인은 위험한 병에 걸려서 기절한

253) 천명지성(天命之性) :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성품. 자사(子思)가 지은 《중용(中庸)》 첫 머리에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란 말이 보인다.

254) 계신공구(戒愼恐懼) : 《중용》 첫 장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심하고,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라(戒愼乎其所不聞 恐懼乎其所不聞)”는 말이 보인다.

255) 태임(太任) : 주(周)나라 왕(王)의 아내이자 문왕(文王)의 어머니. 《열녀전(列女傳)》에 의하면, “성품이 단일성장(端一誠莊)하고, 임신할 때에 가시는 눈으로는 나쁜 빛을 보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고, 입으로는 악한 말을 내지 아니함으로써 태교(胎教)를 하여 문왕을 낳았다.” 한다.

256) 태사(太姬) : 주나라 문왕의 아내이자 무왕의 어머니. 인자하고 명면하여 뛰어난 부덕(婦德)이 있었다 함.

지 3일만에 소생하였다. 문답편(問答編)과 언행록(言行錄)이 모두 없어졌다. 그러자 유인은 탄식하기를 “평생 정력을 쏟아온 것이 모두 없어졌구나.”라고 하였다. 임진년(1832년, 순조 32년) 가을에 유인은 병이 더쳐서 결국 작고하였다. 유인이 작고하기 하루 전에 탄재가 들어가서 보고 눈물을 흐르니, 유인은 정색을 하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모두 운명에 달려있는 것인데, 무슨 슬퍼할 것이 있겠습니까? 원컨대 낭군께서는 신중하소서.”라고 하였다.

이 해 9월 14일에 서울 약현리(藥峴里) 탄원(坦園)의 집에서 작고하니, 향년 61세였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유인이 작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오열하며 통곡을 하였다. 탄재 문하에 있는 학도로서 혹은 어려서부터 유인에게 부양되거나 혹은 안에 들어가서 유인을 배알했던 자 수십 명도 모두 흰 띠를 두르고 통곡을 하였다.

10월 30일에 광주(廣州) 청계산(淸溪山) 동쪽 대왕면(大旺面) 둔퇴리(遁退里) 임좌(壬坐)의 언덕에 정사하였으니, 선영(先塋)을 따른 것이었다.

윤자(尹子)는 이름은 광연(光演), 자는 명직(明直)으로서 강재(剛齋) 송선생(宋先生·稷圭)을 스승으로 섬겼는데, 강재는 그의 호를 ‘탄재(坦齋)’로 하도록 명하였다.

그의 시조는 이름이 신달(莘達)인데, 고려 태조를 도와서 벼슬이 태사(太師)에 이르렀다. 현손(玄孫)인 문숙공(文肅公)은 이름이 판(璠)으로서 여전(女眞)을 쳐 큰공을 세워서 영평백(鈴平伯)에 봉해지고, 문공공(文康公)은 이름이 언이(彦頤)로 문학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부자(父子)가 다 『고려사』에 보인다. 9대로 내려와서 소장공(昭靖公)은 이름이 곤(坤)인데,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참여하여 파평군(坡平君)에 봉해지고 벼슬은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이르렀으며, 3대로 내려와서 이름을 흥상(興商)이라 하고 호를 영은(永隱)이라 한 분은 벼슬이 도정(都正)에 이르렀을 때에 연산주(燕山主)의 혼조(昏朝)를 만나자 벼슬을 버리고 은둔생활을 하였다. 뒤

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이름을 부(溥)라 하고 호를 구사(九思)라 한 분은 장령(掌令)을 지냈으며, 이름을 재신(在莘)이라 하고 호를 초어(樵漁)라 한 분은 학행(學行)으로 천거를 받아서 세마(洗馬)를 거쳐 현령(縣令)에 이르렀으며, 이름을 매(枚)라 하고 호를 포은(浦隱)이라 한 분은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으며, 이름을 삼성(三聖)이라 하고 호를 극재(克齋)라 한 분은 우암(尤菴:宋時烈) 선생으로서 군수(郡守)를 지내고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이름을 심전(心震)이라 하고 호를 정심재(正心齋)라 한 분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냈으며, 이름을 동엽(東燁)이라 하고 호를 자재(自齋)라 한 분은 일찍이 미호(溪湖:金元行)의 문하에 다녀 문행(文行)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바로 그의 10세조, 9세조, 및 7세조, 6세조이고 또는 증조고(曾祖考), 조고(祖考), 고(考)이다. 그리고 바(妣)는 천안전씨(天安全氏)로 여충(汝忠)의 딸이며 호는 지일당(只一堂)인데, 그의 행장은 강재(剛齋)가 지었다.

탄재가 40년 동안 독실하게 공부함에 안으로는 어진 아내의 훌륭한 보필이 있고, 밖으로는 어진 스승의 지도가 있어서, 뚜렷이 유문(儒門)의 망사(望士)가 되었다. 그런데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도움을 받던 규중(閩中)의 어진 아내를 갑자기 잃었으니, 그 비통한 심정이 어찌 그지 있겠는가?

유인은 5남 4녀를 낳았으나 모두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일가 사람인 광주(光周)의 아들 흡주(欽圭)를 데려다가 후사를 삼았는데, 그는 한산(韓山) 이문재(李文在)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한 아들 구진(九鎭)을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유인은 타고 난 자품이 뛰어나고 심지(心地)가 순수하고 깊어서, 천인(天人)·서명(性命)·왕괘(王霸)·사정(邪正) 등에 대하여 속속들이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게다가 존양성찰(存養省察)의 공부와 중화(中和)의 덕을 많이 쌓았으므로 발현하여 문한(文翰)이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봉황새의 광채가 찬란한 것과 같았다. 그러나 유인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숨겨서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하였으므로 그의 실력을 아는 사람도 적었다.

탄재는 그 유고를 수집하여 장차 출간하려고 한다. 멀어진 금 조각과 부서진 옥 가루처럼 생긴 한두 편의 글로도 오히려 족히 그의 실력을 알 수 있겠으니, ‘고기 한 점만 먹어보아도 온 술의 국 맛을 짐작하겠다.’는 격언이 여기에 해당된 말이 아니겠는가?

아! 천지의 혼후한 기운이 사람에게 부여되매, 남자에 있어서는 요제(堯帝)와 순제(舜帝)가 되고, 여자에 있어서는 태임(太任)과 태사(太姒)가 되며, 요제와 순제를 계승한 분은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 공자(孔子)요, 주공과 공자를 이어서 일어난 분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다. 전성(前聖)과 후현(後賢)이 계통을 서로 이어서, 오도(吾道)가 마치 하늘에 있는 해와 별처럼 밝은데, 만일 태임과 태사를 계승하여 일어난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는가? 조대가(曹大家)나 맹덕요(孟德曜)와 같은 여자는 어질기는 어질었지마는, 그들이 도(道)를 들었는지 여부는 나는 알지 못하겠다.

유인은 문헌고가(文獻故家)에 태어나서 기모(氣貌)는 단아하고 장엄하며, 언사(言辭)는 간명하고 정직하며, 행동거지는 안존하고 찬찬하며, 행실은 족히 한 세상의 표준이 될 만하고, 문장은 족히 대가의 보폭이 될 만하였으니, 아! 거룩하여라.

초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은 혹 함양한 광명의 덕이 모자라 기욕(氣慾)에 가려지기 쉽다. 아는 것이 철저하지 못한 것은 학문을 강구하여 이치

257) 조대가(曹大家) : 성명은 반소(班昭). 조세숙(曹世叔)에게 시집갔다가 조세숙이 죽은 뒤에 한(漢)나라 화제(和帝)가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황후(皇后)와 귀인(貴人)들을 지도하게 하고 조대가란 호를 지어 주었다. 조대가는 〈여제(女戒)〉를 남겼다.

258) 맹덕요(孟德曜) : 이름은 광(光), 자는 덕요(德曜). 양흥(梁肅)의 아내. 얼굴은 막색이었으나 덕행(德行)은 뛰어났다 한다.

를 밝히는 공부가 없기 때문이고, 실천력이 부족한 것은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실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才)·덕(德)이 겸비(兼備)하고 지(知)·행(行)이 병진(并進)한 사람을 유인에게서 보았다.

그렇다면 유인 같은 사람은 어찌 '여중군자(女中君子)'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실로 여사(女史) 중에 다시없는 사람인 것이다. 내가 어찌 친척간이라 아부해서 지나친 칭찬을 한 것이겠는가?

탄재가 유사(遺事) 1편을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와서 읊면서 말하기를 "내 아내를 잘 아는 사람으로는 아내 같이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행장을 지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만사(機詞)도 지고, 또 뇌문(誄文)도 지었는데, 덕행을 기록하는 문자와 같은 것을 또 어찌 나의 졸렬한 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하고서, 삼가 그 대강만을 적어서 후일에 유인을 위하여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자료가 되게 한다.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되는 계사년(1833년, 순조 33년) 9월 20일에
삼종(三從) 강원공(姜元公) 지음.

行狀

舊人 姓姜氏 號靜一堂 系出晉州 隋煬帝東伐高句麗時 兵馬元帥諱以式 大破隋師 名震三國 是其鼻祖也 奕世蟬聯 爲東方名族 有諱啓庸 文科 以國子博士 佐金方慶 征日本 有大勳 封晉山府院君 歷三世 諱君寶 文科 門下侍中 鳳山君 諱文敬 諱著 號養眞堂 文科 三重大匡門下贊成事 晉山府院君 諱恭穆 事在麗史 諱淮伯 號通亭 文科 政堂文學 諱碩德 號玩易齋 以隱逸進 長國子憲府 亞東銓 南宮 事我英陵 贊修五禮儀 卒知敦寧府事 諱戴敏 諱希孟 號私淑齋 三登巍科 再馳勳盟 封晉山君 卒左贊成 諱文良 俱見名臣傳 皆有集 曰晉山世稿 諱龜孫 文科 右議政 諱肅憲 肅憲之曾孫 諱克誠 號醉竹 文科 舍人 賜暇

湖堂 諱宗慶 號梅野 文科 萬史局 未及補而卒 贈都承旨 諱晉暉 號壺溪 睿宗 寢郎 牛溪先生 嘗許以吾道有托 不幸早土勿 亦皆有集 曰續世稿 取第生員 諱 晉昇 仲子爲嗣 諱德後 號愚谷 著訓子格言 贈春曹亞卿 諱錫圭 號登亞齋 文科 擢於胄 北謫東遷 十年而有 又以文章忤權戚 官止軍資監正 知製敎 寔儒人之 五世祖也 高祖諱濟溥 號無有堂 通德郎 以文行三登銓刻 終屈於命 曾祖諱桂 宇 號就將齋 中宗宗癸卯司馬 疏伸尹公志遠冤 大忤一邊人 遂終身坎坷 有遺 集 藏于家 祖諱心煥 考諱在洙 俱有篤行 蚤世不振 故安東權氏 清江處士瑞應 之女 玉所山人燮之曾孫 遂庵先生仲弟參判尚明之玄孫也 擢人 以英宗壬辰十 月十五日 生于堤川近右面新村第 先是 母夫人有娠 夢兩聖妃降其室 指侍者 一人曰 此有至德 今以付汝 既而擢人生 母夫人心異之 遂因夢而名焉 性貞靜 端一 喜怒不形於色 自幼不與群兒戲 足不履閭外 雖清羸多疾 而精力過人 善 女紅 不教而能 灑掃應對 恪承庭訓 見者嘖嘖以爲天人 清江公奇愛之曰 山水 從兄嘗言 汝母爲吾權第一婦女 汝其趾矣 八歲 先府君諱 無非無儀 夜行以燭 等語 以訓之 擢人俯首聽從 罔或有違 親有疾 雖祈寒暑 不解衣 不交睫 藥餌 食飲 必躬親之 戊申 遭外艱 哀毀踰制 幾至傷孝 家甚貧 從母夫人 針線紡績 達宵不寐 母夫人閱其勞 令暫休 擢人對以不勞且無睡意 以安母氏心 婢僕輩 或進魚果之屬 雖甚飢 必奉于母夫人 辛亥 歸于坦齋尹子 兩家俱貧 未卽裝行 翌年 尊舅臨見 留十數日 察其言行 甚宜之曰 吾家其復興乎 癸丑 尊舅下世 甲寅夏 擢人始自清江舟行 母夫人戒之曰 善事尊姑 無違夫子 婦如親黨之間 須盡吾實心 貧者常也 一任命數 慎勿戚戚 擢人承聆而退 終身不忘 雖於無人 之地 昏夜之中 言不敢不謹 行不敢不徐 夙興夜寐 極其孝敬 定省必拜 得一味 則必藏儲 以爲供親奉先之需 尊姑愛之甚 然不敢恃此而少有意忽 終尊姑之身 十六年如一日 己巳 尊姑之喪 哀毀甚切 晨夕之哭 上食之節 盡其誠禮 時值荒 年 冬且寒 嚴家罄鉢粒 而竭力營葬 每事必親 手足輟痠 人或言其太勞 擢人曰 是何言也 吾不爲 而誰爲之乎 致敬於夫子 每出行 經宿以上 則必拜 歸亦如之 閨門之內 肅若朝廷 有丈夫弟二人 友愛篤至 自失所怙 益加撫恤 癸丑 日會貞

笈京師 從我先人 卒爲謹飭之士 孺人志也 見人薄於夫之兄弟 則甚非之曰 知愛其夫子 而薄其兄弟 是不體舅姑均視之意也 尊舅喪後 家計益凋落 夫兄肅庵公 光國 僦屋數椽 身親鄰事 醫不贍於奉養 坦齋亦曳屨 奔走於湖嶺之間 孺人泣勉曰 人以不學 無以爲人 與其棄義而營生 不若聞道而安貧 婦雖不才 粗解針黹 當日夜孜孜 以具饋粥 願夫子讀聖賢書 無以家務關心 坦齋感其言 取四書及程朱書讀之 孺人每手執刀尺 隅坐而聽 或問字畫 或問音義 婦視一過 遂即開誦 又解奧旨 坦齋大加驚異 遂相與講誦 日間所不聞 後數年 又曰 學而不行 與不學同 凡聖賢謨訓 既知其當然 則可以行之 然獨學而無師友 則不免固陋 願夫子從師取友 以自益焉 坦齋益自奮勵 就師門請業 多從諸君子游 學業大進 坦齋嘗寒餓日久 適作遠行 孺人奉以一絕 殷臨別之懷 且勉以物理循環 不足欣戚之意 戊午 僑居果川 借人空舍 虎豹盡啼 變魘夜啼 滿目淒荒 且七時絕粒 間遭兒憾 孺人猶能寬慰曰 夫子守正 邪自遠矣 饑困之時 尤當忍性 修短之命 自有定分 皆不必憂 但患在己之道未能自盡 夫何怨尤乎 坦齋偶有過失 則必申申勉戒 在外堂處事 又或不中 則以片紙急報止之 一宰臣閱坦齋之貧 時有操千金而干囑者 宰臣書於坦齋曰 事直矣 君其以書告我 我其成之 孺人曰 以千金而易吾之操 可乎 勸夫子 報書以辭 又嘗失數百金 坦齋有憂色 孺人曰 得喪雖數 何必芥懷 況皇姑之言曰 甌已破 視何益 丈夫不當憂此等小事耳 坦齋素無貲石 而行三世七位極葬於千里之地 爲兄弟親族立后者七八人 營辦婚喪亦多 且數從師友於遠道 而孺人能以死守家 治規井井 遠近接濟 未嘗或闕 坦齋性喜賓客 戶牖常滿 孺人從其志 每客來 極意營辦 雖蔬食菜羹薄酒 寸肴 必致精潔 使客忘其貧而盡其歡 人或謂其難能 孺人曰 是婦道之小節也 此猶不能 則焉用婦人爲哉 嘗曰 不能日炊 而屢年拮据 得數十糲 成人大事 終絕口 不伐已功 有所假貸於人 則指日以償 雖典賣裙釵 不踰其期 嘗曰 人之貧富 自有定分 寒士之妻 每有厭貧之心 至於怨舅姑 誦夫子 是非人道也 又曰 非義之物 死此不可受 況在不必要死之地而可以貨取乎 故見一物 則必先求義之當否 又曰 善者 治之源 利者 亂之樞 若有以利來說者 但當守正 以遠之耳

平居無疾言 鐘色 呵叱 不及於僕隸 音樂優戲 喧闐外庭 而未嘗窺戶 夜不秉燭 則未嘗下堂 用財 則先人而後己 分飪 則先死而後生 善則歸美於人 過則歸咎於己 揚人之善 唯恐不及 掩己之能 唯恐有知 惡而謝其善 愛而知其過 然未嘗言人之過 曰 不治己過 而先言人過 可乎 人有毀己者 勸夫子加厚曰 盡己而已 平生篤學 探賾天人之際 研窮性命之源 致力於存養省察 敬義交須 動靜如一 少時 讀中庸戒慎章 剖析精義 闇合紫陽之旨 閑居無事 闔戶端坐 體認未發 自言 神氣和平 渾忘飢寒疾病之苦 又嘗見朱夫子 在同安 聞鐘一聲 未絕此心 已自走作 之語 每當昏曉鐘時 默默體驗 書童擊水杓為戲 疏數無節 僮人令勾其聲 以驗此心操捨之頃 又或持針綫 期以從此至彼 不易此心 自言始患浮淺 漸至澁習 洎晚年 表裏泰然矣

遍讀十三經 沉潛袖釋 每獨處吟誦 又博觀典籍 古今治亂之迹 瞭如指掌 喜作字書 常於燈下運毫 適逸楷正 模寫尊王舅正心齋筆法及黃道谷 都正運神號 洪良齋 校理儀泳號 權天游 進士復仁號 書 亦學心齋性潭本號 剛齋半行 而銀鉤鐵索 一出心書 工於詩律 不甚用功而自然成章 文則三十後始為之 人有謁文於坦齋者而未及酬應 則僮人或代撰而曰 此非婦人事也 或恐人之見知也 己未秋 坦齋拜中州李尚書丈 直輔 語次偶及戊午一絕 李公極加歎賞曰 賢夫婦相戒之辭 擲人聞之愧 自是益加韜晦 片言隻字 絕不示人 至辛巳除夕 始見一詩 蓋知坦齋之益謹於言也 嘗言 五倫 五常之理也 皆是人心自然處 非勉強也 又曰 師者雖非天屬 然生三而一事之 故有心喪三年之制 而今人不知有此 顧夫子克從古道 論小學則曰 身為萬事之本 敬為一身之主 故敬身一篇 乃是總會 論大學則曰 學莫先於格致 今人多不能脩齊 由其不能格致上用功也 又曰 性命之微 一貫之妙 無徒作一場空說話 須先從人事上篤實求之 又曰 天命之性 自是子思極言道之本原 又指示戒懼 使學者先知下工夫處 非懸空說了 又曰 天命之性 初無男女之殊 婦人而不以任姒自期者 是亦自棄也 又曰 天地萬物 與我一體也 苟未格一物之理 則欠吾一知 自天地 鬼神 卦象 井田 以至昆蟲 草木 與夫經史雜義 日用所疑 一一條列 以質于坦齋 坦齋隨知隨答 所不知者

問于師友而答之。坦齋又或設疑問難，則諸人盡其意而答焉。遂錄其問答爲二編，以爲體行之資。人有一言一行之善，則聞輒入錄，以爲模楷。壬午七月，儒人得危疾，氣絕三日而蘇。答問編言行錄，并見聞失，諸人歎曰：平生精力，盡歸烏有矣。壬辰秋，疾革，屬稿前一日，坦齋入見，泣下。儒人正色曰：死生命也，何戚之有。顧夫子慎旃。是年九月十四日，卒于漢師樂峴里坦園第。享年六十一。隣里老少聞儒人之歿，皆失聲哭。學徒之在門，而或自幼被養，或升堂拜見者數十人，亦皆帶素號哭。以十月三十日，葬于廣州清溪東大旺面通退里壬坐之原。從先兆也。尹子名光演，字明直，師剛齋宋先生。剛齋命其號曰坦齋。其上祖諱華達，佐麗祖，官太師。玄孫文肅公諱璫，討女真，有大勳，封鈴平伯，文康公。諱彥頤，以文學名。父子俱見歷史。九世而昭靖公諱坤，參佐理勳，封坡平尹，官吏判。三世而諱興商，號永隱，官都正。值昏朝，棄官隱，贈吏判。諱傳，號九思，掌令。諱在華，號機漁，薦學行，由洗馬止縣令。諱枚，號浦隱，贈吏參。諱三星，號克齋，師尤庵先生，郡守。贈戶判。諱心震，號正心齋，知樞。諱東燁，號自齋，早游溪湖之門，有文行。即其十世。九世若七世六世而曾王考，王考考也。號天安全氏，生其汝忠女也。號只一堂，其行蹟有剛齋語。坦齋篤學四十年，內有良箴，外有賢師，苑爲儒門之望。而遽失閨中切磋之益，其悲哀之情，良有既乎。儒人舉五男四女，不育。取宗人光周子欽圭爲后。取韓山李文在女，生一男九鎮。幼，儒人天資絕高，地步醇深，天人性命，王霸邪正，靡不瀟流而窮源，加以存省之工，中和之德，發爲詞翰，猶祥鸞瑞鸞光采爛，然而常自謙虛，若無所有。人亦罕有知者。坦齋方搜輯遺稿，將以入梓，零金碎玉，猶足以知其所存，則一闕全鼎，其在斯歟。嗚呼！天地醇元之氣，醞釀而賦人，在男子，則爲堯舜，在婦人，則爲任姒。繼堯舜而作者，文武周孔也。繼周孔而作者，程朱也。前聖後賢，統緒相承，吾道如日星于天。而若夫繼任姒而作者，果誰歟？如曹大家、孟德曜，賢則賢矣，吾未知其聞道也否乎。儒人生于文獻故家，端莊其氣貌，簡正其言辭，安詳其動止，行足以標準一世，文足以步驟鴻匠，噫，其盛矣。此超逸之才，或欠於涵養，光明之德，易蔽於氣慾，知之不至，以其無講學明理之功也。行之不力，以其無誠意正心之實也。惟才德兼備，知行交須者，余於儒人見之。然則如儒人

者 奚止爲女中之君子 實女史中所未有也 余豈成阿其親而溢美乎哉 坦齋補遺事一編 泣而曰 知吾內 莫如子詳 爲爲狀 余曰 既觀之 又誄之 若其狀德文字 又烏可以損辭也 謹撰梗槩 以俟他日立言者

崇禎後四癸巳九月下泮 三從姜元會撰

2. 유인 진주강씨 묘지명

탄원(坦園) 윤명직(尹明直)이 나를 강한(江漢)가로 찾아와서 그 아내인 강유인(姜孺人)이 지은 『정일당유고(靜一堂遺稿)』를 보이며 “여기 서문을 써서 숨겨진 덕을 발표해다오.”라고 요구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부인의 덕은 속에 간직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네. 또 그 행장을 읽어보니, 인의(仁義)와 충신(忠信)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네. 그런데 문사(文辭)를 가지고 그 이름이 썩지 않고 길이 전하게 하려는 것은 유인의 본의에 어긋나는 일인 듯하네.”고 하였다. 그렇더니 명직은 “부득이 그렇다면 어찌 묘지(墓誌)를 지어서 오래 후세에 전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기에 나는 “그것은 해야 되지.”하고는 드디어 행장을 상고해서 다음과 같이 쓴다.

유인은 진주강씨(晉州姜氏)이므로 고구려 병마원수(兵馬元帥) 이식(以式)을 비조(鼻祖)로 삼는데, 대대로 벼슬이 끊기지 않고, 훌륭한 인물이 배출하여 해동(海東)의 명족(名族)이 되었으니, 그 족보는 거론할 것이 없다.

고(考)는 이름이 재수(在洙)요, 비(妣)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서 처사(處士) 서응(瑞應)의 딸이요, 한수재(寒水齋)²⁵⁹⁾ 선생의 종현손(從玄孫)이다.

259) 한수재(寒水齋) : 송시열(宋時烈)의 수계자인 권상하(權尙夏)의 호 수암(遂菴)이라고도 함.

권유인이 이상한 꿈을 꾸고 유인을 낳았으므로 그 꿈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유인은 천성이 정정(貞靜)하고 단일(端一)하여 발자취가 대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

처사공(處士公)은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워하면서 “산수軒(山水軒) 종형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너의 어머니는 우리 권씨 문중에 제일 가는 부인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너는 꼭 어머니를 닮았구나.”라고 하였다. 유인은 여자가 경계해야 할 일을 당부 받고는 한 번도 그 교훈을 어기는 적이 없었다.

시집갔을 때에는 그 시아버지가 유인의 훌륭한 언행을 보고는 “우리 집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유인은 시어머니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였다. 조석으로 시어머니에게 문안할 때에는 반드시 절을 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적에는 너무 애통해 하다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그 때에 마침 흉년을 만나서 집에는 동전 한 푼, 쌀 한 톨도 없었는데, 힘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살이 얼어터졌으나 피로를 느끼지 못하였다.

유인은 부군에게 극진히 공경하였다. 부군이 출행할 때마다 반드시 절을 하였다. 유인은 학업을 권하기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사람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외리를 버리고 살기만을 도모하는 것은 도리를 배우고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만 못합니다. 재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바느질과 길쌈은 대강 할 줄 아니, 죽은 잠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낭군께서는 성현의 글을 읽으시고, 집안 일에는 관심을 갖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명직은 그 말에 감동하여 사서(四書)와 정주(程朱)의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유인은 항상 가위와 자를 가지고 한 쪽 귀퉁이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면서 명직의 글 읽는 소리를 들었다. 유인은 한 번 슬쩍 보고는 곧 압송하였고, 또 심오한 뜻도 이해하였다.

유인은 다시 명직에게 스승을 찾아갈 것을 권하기를 “배우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훈(經訓)의 당연합을 참으로 안 연후에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학하면 고루하니, 원컨대 낭군께서는 스승을 따르고 친구를 사귀어 도움을 받으소서. 그리하여 ‘사람은 세 군데를 거쳐 생성하므로 한결같이 섬겨야 한다.’는 뜻을 다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명직은 가세가 더욱 말미 아니어서 한 곳에 편히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깊은 산중으로 가서 남의 빈집을 빌어 살았는데, 호랑이와 표범은 종횡무전하였고, 양식은 떨어져서 여러 날 끼니를 걸렸으며, 게다가 또 어린애 참상까지 당했다. 그러나 유인은 오히려 명직이 너그럽게 마음을 먹도록 위로하기를 “낭군께서 정도를 지키시면 사(邪)가 저절로 멀리 떠날 것입니다. 인명의 장단은 저절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 이렇게 곤란할 때일수록 더욱 인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뿐이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명직이 우연히 과오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신신당부를 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였다. 명직이 사랑에서 처리하는 일이 혹 사리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편지를 급히 보내서 중지시켰다.

명직의 가난함을 민망히 여기어, 돈 천냥을 가지고 와서 일을 부탁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자 이것을 안 유인은 그 돈을 받지 말도록 권하기를 “돈 천냥과 나의 지조를 바꾸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라고 하였고, 명직이 또 언젠가 돈 수백 냥을 잃어버리고 몹시 걱정을 하였다. 그러자 유인은 말하기를 “돈을 얻거나 잃거나 하는 것은 운수에 관계되는 일인데, 무슨 개의학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명직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3세의 묘(墓)를 면례(緘禮)하였고, 친족을 위하여 양자를 들인 사람이 근 10명이 되었는데, 그들은 혼인이나 초상 등에 쓰이는 비용을 마련함에 있어서 모두 유인의 힘을 입었다.

명직은 천성이 손님들을 좋아하였으므로 신발이 항상 뜰에 가득하였는데, 유인은 성의껏 음식을 해냈다. 그의 능한 손씨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자, 유인은 “이것은 바로 부인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작은 일이다. 이것도 못한다면 그런 부인은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하였다.

유인이 언젠가는 말하기를 “사람이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절로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빈한한 선비를 따라 사는 아내들은 가난을 싫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비방하며 울기까지 하니,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비리의 물건은 죽어도 받을 수 없거늘, 하물며 꼭 죽을 처지에 놓인 것도 아닌데 재물을 탐하여 받을 수 있겠는가? 선(善)이란 것은 모든 것을 잘 다스려지게 하는 근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利)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이지럽게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때문에 물건을 만나거든 먼저 의리에 합당한 물건인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러니 만일 이(利)를 가지고 온 자가 있거든 정도를 지킴으로써 그를 멀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평상시에는 말을 빠르게 하거나 얼굴빛을 갑자기 변하는 일이 없으며, 하인들에게까지도 소리를 지르거나 나무라는 일이 없었다. 낮에는 문틈으로 내다보는 일이 없고, 밤에는 마루에서 내려가는 일이 없었다.

재물을 나눔에 남의 목을 먼저 채겨 주고 자신의 목은 뒤에 가졌으며, 음식을 나눔에 죽은 사람의 앞에 먼저 놓고 산 사람의 앞에는 뒤에 놓았다.

잘한 일은 그 칭찬을 남에게 돌리고, 못한 일은 그 허물을 자신에게 돌렸다. 남의 나쁜 점을 숨겨주고 남의 착한 점은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자신의 허물은 다스리지 못하고 먼저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였다. 명직을 헐뜯는 사람이 있자, 유인은 명직에게 그 사람을 더 후대하도록 권하기를 “그저 나의 도리만 다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유인은 언젠가 말하기를 “천명지성은 본래 남녀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부인으로서 태임(太任)·태사(太姬)와 같이 되기를 결심하지 않는 자는 또한 자포자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인은 마음 수양에 전력하여 동(動)과 정(靜)이 한결같았다. 그리고 항상 단의(褌衣)를 입고 명직을 따라 새벽에 가묘(家廟)에 참배하고, 물러 나와서는 반드시 팔짱을 끼고 단정히 꿇어앉아서 마음이 아직 발동하기 전의 경지를 체험해보고 “신기(神氣)가 화평하여 기한(飢寒)과 질병이 있음을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유인은 매번 새벽과 저녁에 치는 종소리를 듣고는 심체(心體)의 존재 여부를 묵묵히 체험하기를 마치 주선생(朱先生: 朱子)이 동안현(同安縣)에 있을 때에처럼 하였다.

또 글방 아이가 수표(水杓)를 치는 놀이를 하자, 유인은 그 소리를 고르게 치도록 하고서는 이 마음의 드나드는 사이를 시험해 보았으며, 또 유인은 바느질을 하되 여기서부터 저기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을 변동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유인은 마침내 존심양성(存心養性)의 힘을 입어,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려서 애를 먹던 것이 점점 고정되어 갔던 것이다.

유인은 학문을 좋아하기를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이 하였다. 13경(經)을 두루 읽고 심오한 뜻을 연구하되 밤낮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리고 전적을 널리 보아서 고금의 치란(治亂)과 인물의 선악(善惡)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알았다.

유인이 언젠가 말하기를 “오륜(五倫)은 오상(五常)의 이치이므로 이것은 모두 사람의 마음 속에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몸은 만사(萬事)의 근본이 되고, 경(敬)은 일신(一身)의 주재가 된다. 그런 때문에 ‘경신(敬身)’ 한 편이 바로 『소학』의 총론이 된 것이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학문은 격물치지

(格物致知)보다 앞선 것이 없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대부분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 격물치지에 대한 고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성명(性命)의 미묘한 이치와 일관(一貫)의 오묘한 이치는 한갓 한 마당의 공연한 설화로만 지어 보아서는 아니 되니, 모름지기 먼저 사람이 일상 하는 일에 입각해서 독실하게 구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천명지성(天命之性)’은 바로 자사(子思)께서 도(道)의 근원을 극도로 말씀한 것이다. 자사는 또 ‘계신공구(戒愼恐懼)’를 들어서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에 착수할 곳을 먼저 알게 하였으니, 공중에 띄어놓고 한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천지 만물은 나와 일체인 것이다. 그러니 만일 한 가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지 못하면 나의 한 가지 지식이 모자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삼재(三才)²⁶⁰⁾와 만상(萬象)으로부터 경사(經史)·백가(百家)²⁶¹⁾ 또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깊이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이것들을 기록하여 3편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에는 정의(精義)와 명론(名論)이 많았다. 그런데 결국 이 책이 유실되고 말았으니, 아! 애석하구나.

필법(筆法)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심획(心畫)을 그려냈고, 작문에 있어서는 한 번도 쓸모 없는 말을 쓴 일이 없었다. 혹은 부군을 대신해서 짓거나 혹은 잠계(箴戒)를 하기 위해 지은 글들이 우연히 남의 눈에 띄어서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이 뒤로는 더욱 숨기고 내놓기를 꺼려하였다.

유인은 병이 위중할 때에 가서 전연 죽음을 꺼리는 기색이 없었다. 명직이 눈물을 흐르자, 유인은 정색을 하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모두 운명에 달려있는 것인데, 무슨 슬퍼할 것이 있겠습니까? 원컨대 남군께서는 신중하소서.”라고 하였다.

260) 삼재(三才) : 하늘·땅·사람을 가리킴.

261) 백가(百家) : 백가책(百家書). 곧 여러 학자들의 저서.

결국 임진년(1832년, 순조 32년) 9월 14일에 작고하였으니, 그의 태어난 해를 따져보면 육십갑자가 한 번 돌아오는 해였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마치 천척의 상을 당한 것처럼 슬퍼하였고, 명직의 학도로서 안에 들어가 유인을 배알했던 자들은 모두 흰 띠를 두르고 통곡을 하였다. 10월에 광주(廣州) 둔퇴리(遁退里) 임좌(壬坐)의 언덕에 장사하였으니, 선영(先塋)을 따른 것이었다.

윤자(尹子)는 이름은 광연(光演), 자는 명직(明直),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그는 대대로 문행(文行)을 계승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오촌(鰲村) 송공(宋公)²⁶²을 사사하여 곤궁 속에 학업에 힘썼는데, 내조를 받음이 많았다 한다.

유인은 9남매를 낳았으나 모두 기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유인은 명직에게 축첩(蓄妾)을 시키고 그 첩을 마치 자녀처럼 보면서 말하기를 “절두의 악은 마땅히 칠거지악(七去之惡)²⁶³의 머리에 놓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계자(繼子)는 흠규(欽圭)이고, 흠규의 아들은 구진(九鎭)이다.

아! 옛날 선왕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는 애당초 남녀의 차별이 없었는데, 여자는 스승에게 가서 배우지 않았구나. 『시경』에서 경계한 것은 다만 “잘못하는 일도 없고 잘하는 일도 없이 오직 음식에 관한 일만을 할 뿐이다.”란 말이 있을 뿐이다. 이런 때문에 양반집 규수 중에는 아무리 뛰어난 자질과 훌륭한 학식이 있다 하더라도 도학(道學)을 가지고 스스로 힘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진실로 한 마디의 말이라도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성인이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위장강(衛莊姜)²⁶⁴과 허목부인(許穆夫人)²⁶⁵의 시가 국풍(國風)에 배열되게 된 것이다.

262) 송공(宋公) : 강재(剛齋) 송치규(宋啓圭)를 가리킨다.

263) 칠거지악(七去之惡) : 아내를 내쫓는 일곱 가지 이유. 곧 불순부모(不順父母)·무자(無子)·음(去)·무(無)·악(惡疾)·다언(多言)·질도(驕虐).

264) 위장강(衛莊姜) : 춘추시대 제후(齊侯)의 딸이자 위장공(衛莊公)의 부인.

265) 허목부인(許穆夫人) : 춘추시대 허목공(許穆公)의 부인.

시도 오히려 배버리지 않았거든, 하물며 학문에 전력하여 천인성명(天人性命)의 근원을 깊이 연구한 것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

지금 유인의 글을 읽어보니,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세상에 도움을 준 것이 근고(近古)의 규수 중에서는 단 한 사람뿐이었으니, 단지 부인으로서의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명직에게 말하기를 “유인은 그대의 스승이었네. 그대가 다시 10년을 글을 읽으면 유인의 거룩한 덕을 알게 될 것이네.”라고 하니, 명직은 웃으면서 “자네의 말이 옳네.”라고 하였다. 정일(靜一)은 유인이 스스로 지은 호가 아니고, 그의 소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한다.

아! 유인은 명문가의 따님으로서 거룩한 덕을 지니고 인의충신(仁義忠臣)을 갖추었네. 시례(詩禮)를 무척 좋아하고 법규(法規)를 그대로 지키었네. 동정(動靜)에 어긋남이 없고 몸가짐에 부끄러워함이 있었네. 절도에 맞게 걸음을 걷고 예절에 맞게 처신을 하였네. 상복(象服)²⁶⁶이 알맞으니 잠이(簪珥)만 어울리는 게 아니었네. 학문을 좋아하고 도를 즐긴 것은 본래 천성이 그러했네. 하늘이 지혜를 부여하여 모든 이치를 환하게 깨달았네. 새벽에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군에게 공부하도록 권하였네. 자나깨나 오직 사모한 분은 바로 옛날의 신지(莘棼)²⁶⁷였네. 학문이 독실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죽은 뒤에야 그만두었네. 청계(淸溪)는 맑게 흐르고 둔산(遁山)은 길게 뻗었네. 산소 자리 잘 이루어졌으니 역사를 안장하였네. 거룩한 덕 매우 아름다우니 밝게 후세에 보이리. 나의 명 써지 않아 역사 쓰는 사람에게 알려주리.

송정 기원 후 네 번째 돌아오는 음미년(1835년, 순조 35년) 윤 6월 10일에
당성(唐城) 홍직환(洪直僊)은 찬(撰)함.

266) 상복(象服) : 존자(尊者)가 꾸미는 옷.

267) 신지(莘棼) : 태임(太任)과 태사(太姬)를 가리킴. 신국(莘國)의 성은 사(姬)요, 지국(棼國)의 성은 임(任)이기 때문이다.

撰人晉州姜氏墓誌銘

坦園尹明直過余江漢之上 示其內子姜儒人所著靜一堂遺稿 要一言 發其潛幽 余曰 婦人之德 含章而不外見 且竊讀其狀 仁義忠信不離於心 欲以文辭圖不朽者 恐非儒人素志 曰 無已 則盍爲誌 用壽厥傳 余曰 是不可以已也 遂按而叙之 儒人 晉州人 以高句麗兵馬元帥以式爲鼻祖 奕世主組 名德輩出 爲左海名族 不須譜也 考諱在洙 妣安東權氏 處士瑞應女 寒水先生從玄孫也 權儒人有異夢 而舉儒人 因夢而名 性貞靜端 一足不蹈閭外 處士公奇愛曰 山水軒從兄嘗稱 汝母爲吾宗第一婦女 汝其趾矣 仍受女誡 罔或少違 及嫁 舅宜其言行 曰 吾家其復興乎 事尊章至孝 定省必拜 及喪哀毀 幾不全 時值荐饑 家罄糗粒 而竭力終事 體膚黻瘵 而不知勞致 敬君子 出行必拜 勸其居業曰 人而不學 無以爲人 與其棄義而營生 不若聞道而安 貧 妾雖不才 粗解針黹 當謀餽粥 願讀聖賢書 無以家務累心 明直感其言 讀四子及程朱書 儒人每手執刀尺 隅坐而聽 遂卽聞誨 默契奧旨 復免明直從師曰 學而不行 與不學同 眞知經訓之當 然後可行 獨學則固陋 願從師友以自廣俾 盡生三事一之義 明直家益落 不爨厥居 僑寓窮山 虎豹縱橫 累日絕火 又罹鴟鵂 而儒人猶寬明直曰 守正 邪自遠矣 脩短 自有定命 饑困尤當忍性 患未盡在我 夫何怨尤 明直有過失 必申警不休 雖在外堂 出片幅止之 有罰明直之貧 操千金干嚙者 儒人勸其勿受 曰 詎可以千金而易吾之操 明直亦嘗喪財 儒人曰 得失關數 毋少介懷 明直赤手 舉三世緇囊 爲親族繼絕者近十人 且營辦昏喪 咸賴儒人之力 明直好賓客 戶屢常滿 儒人極意供歡 人謂其能 儒人曰 是婦道之疎節 而猶不能 則焉用婦人爲哉 嘗云 貧富自有定分 寒士之妻厭貧而至於訕泣 非人道也 苟其非義 死且不可受 況不必死而可以貨取乎 善者 治之源 利者 亂之樞 以故遇物 先求義之當否 苟有以利來者 守正以遠之 居 恒無疾言遽色 呵叱不及僕隸 晝不窺戶 夜不下堂 臨財 先人而後己 分飪 先死而後生 善則歸人 不善則歸己 慙慙乎惡惡揚善曰 不治己過 而先言人過 可乎 有毀明直者 勸其加厚曰 盡己而已 嘗云 天命之性

初無男女之殊 婦人不以姘媼自期者 是自棄也 專於內脩 動靜如一 常服綠衣 隨明直 晨謁家廟 退必端拱跪坐 體認未發境界 神氣和平 不知有飢寒疾病 每聽晨夕鐘聲 默驗心體存否 如朱先生同安時 書童擊水杓爲戲 孺人令均其節 以驗操舍之頃 又初針期 以從此至彼 不易此心 竟賴存養之力 始患浮揚 漸底凝定焉 好學如渴 遍讀十三經 沈潛闡釋 晝夜罔倦 博通典籍 古今治亂人物 臧否 燦然若指掌 嘗云 五倫 五常之理也 皆人心所自然 非勉強 又曰 身爲萬事之本 敬爲一身之主 敬身一篇 是小學總會 又曰 學莫先於格致 今人不能修齊 由不能用工於格致 又曰 性命之微 一貫之妙 無徒作一場空說 先從人事上求之 又曰 天命之性 則子思極言道之本原 又舉戒懼 學者先知下手處 非懸空說了 又曰 天地萬物 與我一體 苟未格一物之理 則欠吾一知 三才萬象 以至經史 百家 日用所疑 罔不鑽研 錄爲三編 多精義名論 竟佚不傳 惜哉 筆法一出心畫 嘗不作閒言語 或爲君子代訴 或爲歲戒發者 偶被人見賞 自是彌加韜晦 以訖其出焉 及疾革 無怙化意 見明直泣 正色曰 死生命也 何憾之有 顧夫子勉旃 竟以壬辰九月十四日卒 距其生甲子一周也 隣里如喪親戚 明直學徒升堂而拜者 皆素帶號哭 十月 葬于廣州通遠里壬坐 從先兆也 明直名光演 坡平人 世襲文行 服事繁村宋公 固窮勉學 而得於內助者爲多云 孺人九舉 不育爲之 畜妾視遇如子女而曰 妬之爲惡 當居七去之首 繼子欽圭 欽圭子九讓 嗚呼 古先王施教 初無男女之別 而女子不就傳 詩之所誡 只在無非無儀 惟酒食是議 以故簪珥中 雖有英資朗識 未嘗以遠學目焉 苟有一言可採 聖人不棄 此衛莊姜 許穆夫人之詩 所以見列於國風也 詩猶不刪 況專於學而窮天人性命之原者哉 今讀孺人文 其敦學問神世程者 近古閨閣中一人 非特婦人之能言者也 余謂明直孺人 君之師 君更讀十年書 可以知孺人之德 明直笑曰 子之言是也 靜一 非孺人所自號 而乃所顯在茲云 銘曰

翁嗟碩媛 名聞宵子 維德之符 具茲四美
敦悅詩禮 循蹈繩軌 動靜無違 行已有恥
環佩瓊瑤 翼翼靡靡 象服是宜 不徒簪珥

好學善道 是安素履 天授慧識 洞窮象理
 鶴鳴味朝 以扇夫子 寤寐羹牆 卽古莘棼
 弗篤弗措 死而後已 清溪澗澗 遁山窮處
 永安且固 以藏女士 德音孔嘉 昭示無止
 我銘不朽 敬告彤史
 崇禎紀元後四乙未閏六月上澣 唐城洪直翁撰

3. 죽은 아내인 유인(孀人) 강씨(姜氏)에 대한 제문

1)

송정 기원 후 네 번째 돌아오는 임진년(1832년, 순조 32년) 10월 15일에 남편인 윤광연(尹光演)은 조전(朝奠)²⁶⁸⁾을 인하여 망실유인정일당강씨영전(亡室孀人靜一堂姜氏靈前)에 곡하면서 고합니다.

아! 오늘은 바로 당신의 회갑 날입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머리가 하얗게 쉰 두 늙은 부부가 마주 앉아서, 비록 조밥에 나물국일망정 차도 마시고 물도 마시며 마냥 즐길 터인데, 어썩서 오늘은 나만 있고 당신은 보이지 않는게요? 흰 휘장에는 쓸쓸한 바람만 감돌고, 제상에는 뽕안 먼지만 앉았구려. 단지 쓰다 남은 원고며 필묵만이 해진 상자 속에 흩어져 있을 뿐이니,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 기가 막히는 구려.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지도 어언 40여 년이 되었구려. 그 동안에 함께 걱정하고 슬퍼하며 가난에 시달리면서 고생하던 일들을 지금 와서 생각

268) 조전(朝奠) : 영전(靈前)에서 아침에 거행하는 제전(祭奠).

하면 하나도 통곡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후하고 지극히 성실하고 지극히 정직하여, 스승이 될 수 있고 법이 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단지 보통 부인만이 따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비록 덕을 닦아 대성한 군자라 하더라도 역시 따르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그래서 나는 더욱 슬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오니, 부모님들은 편히 지내게 되었고, 동서와 시누이들은 의가 좋게 되었고, 친척들은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고, 하인들은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한 뿔박의 쌀도 저축된 것이 없었으나 계사를 모시는 일은 한 번도 거르는 적이 없었고, 주머니에 한 푼의 동전도 담겨있는 것이 없었으나 손님을 접대하는 데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 한 말은 꼭 실천에 옮겼으므로 약속 기일이 되면 일각도 늦추지 않았고, 사양해야 될 일과 받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비리의 물건은 한 개도 취하지 않았으며, 남의 어려운 사정은 급하게 도와주고, 자신의 보양은 간소하게 하였으며, 자신을 단속하는 일은 무섭게 하고 남을 책망하는 일은 너그럽게 하였습니다.

9남매를 낳아서 모두 기르지 못했으나 원망해 하는 마음이 없었고, 3일 동안 끼니를 끊이지 못했으나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금씨는 금석(金石)에 새기고 남을 만큼 훌륭하게 썼으나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일찍이 그것을 본 적이 없었고, 금은 큰 문장과와 상대할 만큼 뛰어나게 지었으나 친척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낮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앉았고, 아무리 가까운 뜰이라 하더라도 밤에는 반드시 촛불을 들고 나갔으며, 말 소리는 안방에서 나가지 않고, 발자취는 대문 밖에 미치지 않았으며, 음식은 극도로 깨끗하게 장만하고, 바느질은 극도로 정밀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천품을 탁월하게 타고난 때문이라 하겠지만, 또한 경전(經傳)에서 힘을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확고한 지행(志行)이 있었으므로 무슨 일이든 모범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았는데, 이것이 어찌 사람마다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것 뿐 아닙니다. 나는 어린 때에 공부를 하지 못해서, 장성하자 어리석고 미련하였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어서, 생계를 꾸려가려고 동서를 해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심(恒心)을 보유할 수가 없었는데, 그 때에 당신은 울면서 나에게 권고하기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사람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의리를 버리고 살기만을 도모하는 것은 도리를 배우고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만 못합니다. 또 먹고사는 데는 본래 정해진 운명이 있으므로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나의 본분을 닦아 천명을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의식(衣食)을 가지고 남군께 걱정을 끼치지 않을 것이니, 남군께서는 모름지기 공부할 것을 작심하여 저의 바라는 정성에 부응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비로소 당신의 이 한 마디 말에 감동하여 공부할 것을 단단히 결심하고 사서(四書)와 정주(程朱)의 글을 구하여, 문을 닫고 앉아서 글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매번 책을 펴놓고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당신은 길쌈거리를 가지고 한 쪽 귀퉁이에 앉아서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읽는 일도 익숙하지 못할 때에 당신은 벌써 암송을 하였고, 나는 글 뜻에 대한 의심이 아직 풀리지 못할 때에 당신은 벌써 이해를 하였습니다. 서로 질의 응답을 주고받는 사이에 학문의 요령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5~6년을 하고 나자, 당신은 또 말하기를 “배우고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생각하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글 가운데 성현의

말씀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미 행해야 할 것임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스승과 친구의 도움이 있는 연후에야 그 행하는 것이 어긋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남군께서는 스승을 따르고 친구를 사귀어 도움을 받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또 당신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사문(師門)에 가서 수업을 청하고, 또 여러 학우들을 따라 놀면서, 실천하고 성찰(省察)하는 공부에 감히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나이 60이 되도록 별로 성취된 것은 없으나 어릴 때의 미친 듯이 날뛰고 경솔한 행동을 하던 때에 비하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또 평일에 성명(性命)의 근원을 연구하고 정일(精一)의 요령을 탐색하여 항상 사물을 응접할 때에 단정히 꿰어앉아서 마음이 아직 발동하기 전의 경지를 체험해보고 스스로 말하기를 “매번 질병이 있을 때마다 얼른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단정히 앉아서 성명(誠明)의 경지를 터득하면 자연히 신기(神氣)가 화평하여 질병이 언제 몸에서 떠나갔는지 모르게 된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고 드디어 학문에 열중하였습니다. 비록 감히 얻은 바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이 끝내 방사(放肆)하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말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떤 형태의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일찍이 말하기를 “부인이 남편을 섬김에 있어서 사랑하기는 쉽지만 공경하기는 어렵고, 순종하는 자는 많지만 경계하는 자는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만은 나에게 대하여 남이 하기 어려운 공경을 행하고, 남이 별로 못하는 경계를 하였으며, 나에게 한 가지 착한 점이 있음을 보면 한갓 기뻐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권면을 하고, 나에게 허물이 있음을 보면 한갓 걱정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책망을 하여, 반드시 나로 하여금 중정(中正)한 땅에 서서 천지간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였

습니다.

비록 나는 우매하여 그 말을 다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가언(嘉言)과 격론(格論)만은 한평생 명심하고 있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비록 부부 사이지만 엄하기가 마치 존엄한 스승을 대하는 것 같아서 조심하여 조금도 소홀히 못하였습니다. 매번 당신과 앉으면 마치 신명(神明)을 대하는 것과 같았고, 매번 당신과 말하면 마치 눈이 아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아!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은 평소에 걸린 병이 노년기에 더욱 심하여 장기간 병석에 있었으나 올 가을에 와서는 여러 날 동안 조금 차도가 있기에 나는 기쁨을 견디지 못하면서 ‘환갑을 지낼 수 있으리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당신이 아직 운명하기 전에 내가 들어가서 보았는데, 당신은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정색하며 말하기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인데, 어찌 슬퍼하십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에 밥상을 받고 있었는데, 당신을 또 말하기를 “음식을 조심해서 드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여러 차례 새 떠느리를 돌아보며 차마 잊을 수 없는 의사를 보이고, 또 나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기에 내가 “너무 심려치 마오. 모든 일은 내가 이미 배워왔으니, 스스로 처리하리다.”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당신은 결국 조용히 눈을 감고 훌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임종시에도 차분한 얼굴과 자상한 말씨가 평상시와 똑같았고 조금도 전도되거나 착란을 일으킨 일이 없었으니, 또한 어찌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분이 아니겠습니까? 아!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이 떠난 뒤로 나는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소.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무 심하구나. 자네의 슬퍼함이여! 흠아 비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신세가 처량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아니

면 고단하고 빈한하여 장례를 치르고 제전을 드리는 일을 예식처럼 할 수가 없음을 서러워해서 그러는 것인가? 어찌 그리도 남과 달리 슬퍼하는가?”라고 하기에 나는 “그런 게 아닐세. 자네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알겠는가?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곧 떳떳한 이치요, 가난하고 곤궁한 것은 바로 선비의 본분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가지고 몹시 슬퍼하겠는가?

다만 생각하건대,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 내게 의심난 일이 있을 때에는 누가 그것을 풀어줄 것이며, ……(이하 유심)

祭亡室孺人姜氏文 (三篇)

維 崇禎紀元後歲次丙辰十月癸卯朔十五日丁巳 夫尹光演 因朝奠 哭告于亡室孺人靜一堂姜氏靈筵曰 嗚呼今日 是君回庚之日也 使君而猶在 則嗚嗚然老夫婦相對 雖粟飯糲羹 啜茶飲水 其樂亦足 而胡爲今日 徒見有我 不見有君 素帷風淒 木榻塵凝 只留殘稿刺墨 散亂於空箱破篋之中 觸目淒慘而已 嗚呼痛哉 君之入吾室 終始四十餘年 其間同憂共戚 食貧攻苦之事 追而思之 無一非痛哭處也 而惟君至仁至厚至誠至正 可師而可法 可敬而可重者 非但尋常婦女之所不可及 雖成德君子 亦有所難者 吾於是 愈爲之悲傷焉 君之于歸 父母安之 鄉鄰宜之 宗黨稱之 婢僕依之 室無升斗之儲 而奉祭祀 罔或有缺 囊罄錙銖之資 而接賓客 必盡其歡 信於賤言 及期則一刻不宿 明於辭受 非義則一介不取 急於周濟 簡於自奉 嚴於律己 寬於責人 舉九男女不育 而心無怨焉 歷三晝夜絕粒 而容無戚焉 字畫足以勒金石 而傍人未嘗見焉 文辭可以侔鉅工 而親戚不之知焉 炎陽雖酷 晝必掩門而坐 階庭雖近 夜必秉燭而行 聲音不出中閨 足跡不及外戶 飲膳極其潔 針線極其精 此雖出於天稟之卓異 而蓋亦得力於經傳者多 確有操守 動成模楷 類皆如是 斯豈人人之所可能也哉 且不唯是也 吾幼而失業 長而愚駭 親齡漸高 家計剝落 役於營生 奔走東西 終不能保有

恒心 君嘗泣而勉余曰 人而不學 失其所以爲人 與其棄義而謀生 不若聞道而安貧 且一飯一啄 元自有定 不可力求 惟當修吾本分 以俟天命 吾雖不才 終不以衣食 累夫子之心 須以讀書爲念 以副吾仰望之誠 吾始感君一言 奮發磨礪 取四書及程朱書 閉戶課讀 頗致勤苦 每展卷咿唔 君執女工 隅坐而傍聽 吾讀未熟 君已聞誦 吾疑未解 君已盪會 往復問難 咸得領要 如是五六年 君又曰 學而不思 與不學同 思而不行 與不思同 凡書中聖賢謨訓 俱是當行底道理 既知其當行 則行之可也 而必有師友之資 然後 所行者 不至於過差 顧夫子 從師取友 以自益焉 吾又惺然開悟 自是就師門講業 又從諸君子游 用工於踐履省察 不敢自懈 行年六旬 迄無所成 然比之少日猖狂妄率 亦自不同 君又平日 研窮性命之源 探蹟精一之要 常於應事接物之際 兀然端坐 體認未發 自言每有疾恙 輒收斂端坐 觀得誠明之界 自然神氣和平 不知疾之去體也 吾聞之甚喜 遂勉而學之 雖未敢自謂有得 而此心終不放肆 以至於今日 憶君之言 吾未知其爲何狀人也 嗚呼痛哉 吾嘗謂婦人之事丈夫也 相愛則易 主敬則難 承順者多 勸戒者少 惟君之於吾 行人之所難 得人之所少 見吾有一善 則非徒喜之 又加勉焉 見吾有愆 尤 非徒憂之 又從而責焉 必使吾立於中正之域 爲天地間無過之人 雖吾闇劣 未能悉從 然嘉言格言 終身服膺 所以夫婦之間 嚴若尊師 肅肅祗祗 罔或有忽 每與君坐 如對神明 每與君語 如眼睽睽 自今以後 斯人也 不可得而復見 嗚呼痛哉 君素嬰沈疴 老而尤劇 長在枕席 迨至今秋 數旬少間 吾私自喜幸 謂可以及見晷辰 忽於一朝 病勢猝加 方其未沒 吾入而視之 君見我 泫然泣下 既而正色曰 死生命也 何庸戚戚 吾時進食 君又曰 顧慎飲食 屢顯新婦 意不能忘 又欲向吾有言 吾曰 勿勞也 凡事吾已講磨者 當自處之耳 無何 君遂冥然而昧 遽然而化 其於臨卒之際 氣貌從容 言辭周詳 一如平日 略無顛倒錯亂之舉 亦豈非大過於人者歟 嗚呼痛哉 自君之逝 吾不能不過哀 或謂余曰 甚矣子之哀也 無乃自念夫鰥居孤處 身世譴涼而然歟 抑亦自傷夫舉寒窮窶殯葬饋奠 無以如禮而然歟 何其異乎人之哀之也 吾曰 否否 子安知我之心哉 生老病死 卽理之常 長貧固窮 乃士之分 吾何爲甚哀 但念吾室人之亡 吾有所

疑 誰其釋之 吾欲

2)

……(앞부분 유실) 신미일에 남편 윤광연은 망실 정일당 강씨의 명연에 곡하며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아! 슬픔니다. 오늘은 바로 나의 생신입니다. 나는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어 늘 비통해 합니다. 선비(先批)께서는 나를 어루만져 기르시며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매년 이 때를 당하면 머리털을 베어 팔아서 음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음식을 먹이고 곧 강석(講席)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즐겁게 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은 공부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선비의 뜻을 계승하여 나를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도록 권하였습니다. 살림살이의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고 그저 평생 동안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멀리 떠나버렸으니, 누가 다시 당신을 계승하겠소? 나 혼자 이 세상에 남아있으니, 옛날이 그림고 오늘날이 슬픔니다. 몇 명의 학동들이 술병을 들고 와서 술을 권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감회가 생겨서 눈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당신은 자주 꿈에 나타나서 책을 가지고 글 뜻을 물어봅니다. 혹은 좋고 나쁜 일을 미리 알려주어 피해나갈 길까지 지시해 주시는구려. 혼령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처럼 하시는 거요?

나는 이 술을 나누어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니, 나를 위하여 측은히 여길 것이오 아!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흠향하소서.

日辛未 夫尹光演 哭告于亡室靜一堂姜氏靈筵曰 嗚呼 今日我生之辰 余早

失結 悲痛在身 先祖撫我 期我成人 每當此時 截髮爲髻 饋及同志 輒設講席
非要樂康 實爲資益 君繼此志 勸我麗澤 何有何亡 平生殫力 君今逝矣 誰復繼
之 我獨斯存 感舊悲時 二三子來 佩壺傳觴 觸物傷懷 有淚滂滂 君輒入夢 執策
問義 或告休咎 指以趨避 謂靈昧昧 胡能如斯 我分斯酒 侑君一酌 知君有心
爲我惻惻 嗚呼 痛哉 尙其歆格

3)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돌아오는 계사년(1833년 순조 33년) 9월
9일에 남편 윤광연은 정일당 명면에 국하며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아! 슬픔니다. 당신이 작고한 지 얼마 안되어서 나는 질병이 날로 더해
가고 가난이 날로 심해졌으며, 아손(兒孫)들은 다 흩어지고 비복(婢僕)들
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한 몸만이 쓸쓸하게 남아서, 떨어
진 신에 해진 옷을 입고 굶고 배고픔에 시달리며 쓸쓸한 동산 속 헐어진
초가집 안에서 기거하고 있으니, 무슨 신세가 이렇게도 외롭고 고생스럽
단 말입니까?

게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인심은 고약해졌습니다. 도둑은 제청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고, 상상지도 못했던 변고까지 겹쳐 일어납니다. 뜻하지
아니한 옥설과 까닭 없는 횡방이 이 몸을 옥죄고 이 마음을 어지럽히므
로 잠시도 편할 날이 없으니, 또한 무슨 운명이 이처럼 기구하단 말입니
까?

이것은 내가 평소에 아버님의 훈계를 잘 준수하지 못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지 못하고, 당신의 경계를 잘 따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우리 선생님 같이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서도 일찍이
남의 비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내게 신심을

잘 닦은 실상이 있다면 남들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처럼 언행이 변변치 못하여 남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마땅치 않겠소?

아! 슬픔입니다. 아버님께서 일찍이 훈계가 계셨으니, 충효(忠孝)와 절의(節義)가 바로 그것이고, 스승께서 일찍이 가르침이 계셨으니, 극복(克復)²⁶⁹⁾과 성경(誠敬)이 바로 그것이고, 당신께서 일찍이 경계가 있었으니, 존성(存省)²⁷⁰⁾의 공부와 중화(中和)의 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종사하여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서 책을 읽는 일로 여생을 마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돌아보건대, 한 치쫘 전전하면 한 자 쫘 후퇴하며, 앞에서 잃어버리고 뒤에서 흘러버려서, 천지 사이에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으니, 후일에 당신을 지하에서 만나게 되면 어찌 얼굴에서 땀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슬픔입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새장가를 들라.’고 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더러 ‘침을 얻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아버님의 훈계도 준수하지 못하고, 스승님의 가르침도 받들지 못하고, 어진 아내의 경계도 따르지 못했으니, 이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여 차마 하루도 편이 지낼 생각이 없고, 그저 죽고만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또 자식 하나도 두지 못한 데다가 거들 조상에게 죄를 질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때문에 밤낮으로 한탄하고 슬퍼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 슬픔입니다. 아! 슬픔입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세월은 흘러서 벌써 1년이 되었으니, 제청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아무리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269) 극복(克復): 《논어》 안연편에 있는 “자신의 사적 욕구를 극복하고 가장 바른 도리인 예로 돌아온다(克己復禮)”를 줄인 말이다.

270) 존성(存省): 존양(存養) 곧 존심양(存心養性)과 성찰(省察)을 줄인 말이다.

술 한 잔을 올리니, 울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구려. 아! 슬픔니다.
부디 흠양하소서.

維 崇禎後四癸巳重陽日丙子 夫尹光演 謹以巨酒 哭告于靜一堂靈筵曰 嗚呼 君沒未幾 疾病日侵 窮蹙日甚 兒孫盡散 婢僕不留 唯吾孑然一身 腹穿腸弊 喚飢呼寒 臥起於荒園破茅之中 一何身世之孤苦耶

歲值饑荒 人心不減 盜及於筵几之物 變出於情想之外 橫來之辱 無從之毀 纏轢其身 拂亂其心 而曾無寧靜之日 又何命途之崢嶸耶 是吾平日未能遵先人之訓 奉尊師之教 從儒人之戒 以至於此耶 以吾師太賢之德 曾被毀辱於人 而猶曰 吾有自修之實 則人言豈至斯哉 然則若余之言行謬淺 未孚於人者 宜其遭此矣 嗚呼 先考嘗有訓矣 忠孝節義是已 吾師嘗有教矣 克復誠敬是已 儒人嘗有戒矣 存省之工 中和之德是已 竊欲從事於是 孜孜不懈 閉戶讀書 以終餘年 而顧此寸進尺退 前亡後遺 作一天地間無用之物 他日從君於泉下 安得不汗顏哉 嗚呼 君之云逝 人或勸余繼室 又或使余卜姓 而余既不能遵先訓 奉師教 從賢妻之戒 則此心誠不忍一日安養 祇欲自苦以斃 而但念血屬無遺 重得罪於祖先 是以 晝宵悲歎 罔知措身之地 嗚呼 嗚呼 夫復何言 日月周葬 靈床將撤 從今以後 雖欲有言 告訴無處 茲陳一牘 聲淚俱迸 嗚呼 哀哉 尚饗

4. 유인(孺人) 정일당(靜一堂) 강씨(姜氏)에 대한 뇌문(誄文)²⁷¹⁾

임진년(1832년, 순조 32년) 월 일에 탄재(坦齋) 윤명직(尹明直)이 그 아내인 유인 정일당 강씨를 잃고 통곡하기를 “하늘이 나의 어진 친구를 빼앗아갔으니, 이후로는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구나.”라고 하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유인에 대해서는 나만큼 자세히 아는 사람이

271) 뇌문(誄文) : 죽은 사람의 생전 덕행을 추추어 서술해서 만든 글. 뇌사(誄詞)라고도 함.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만시(挽詩)로 율시(律詩)와 절구(絶句) 도합 네 수를 지어서 보냈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뇌사를 짓는다.

부인으로서 재주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덕이 있지 못하고, 덕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재주가 있지 못하다. 세상에 혹 웅만한 재주와 웅만한 덕을 겸한 사람만 있어도 오히려 여중사(女中士)가 될 수 있건만, 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 유인 강씨로 말하면 남보다 뛰어난 재주와 세상에서 보기 드문 덕을 가지고서 처녀 때에는 요조숙녀란 칭찬을 들었고, 시집갔을 때에는 덕성(德性)을 함양한 실력을 발휘하였다. 규문(閨門)의 안은 엄숙하기가 마치 질서를 지키는 조정과 같았다.

긴 밤 차가운 등불 아래에서 유인은 바느질을 하고, 부군은 책을 읽었다. 명직이 독서하여 사문(斯文)²⁷²⁾의 명유(名儒)가 된 것은 실제로 유인이 계발한 힘이었다. 유인은 그 부군으로 하여금 가난한 관계로 마음을 요동하지 말고 오직 학문에만 힘쓰게 하였다. 부부간에 서로 경계하는 내용이 족히 신명(神明)을 감동시킬 수 있었거니와, 유인의 경계대로 실천한 명직 또한 앞만 보고 용감하게 전진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유인은 이 때에 가끔 부군의 곁에 앉아서 여러 책들을 섭렵하기도 하고, 가끔 글 뜻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40년 동안을 제사 지내고, 손님 접대하고, 바느질하고, 음식장만하고, 상고를 당하고, 질병이 있는 경우들 제외하고는 공부에 몰두하였다. 13경(經) 같은 것은 바로 유인의 다반사(茶飯事)²⁷³⁾였고, 순제(舜帝)의 심(心)에 대한 학설²⁷⁴⁾과 탕왕(湯王)의 성(性)에 대한 학설²⁷⁵⁾에 있어서도 그 정미한 뜻을 터득하지

272) 사문(斯文) : 유학(儒學). 또는 유림(儒林)을 가리킴.

273) 다반사(茶飯事) : 향다반사(恒茶飯事)의 줄임 말. 곧 예사로운 일, 일상 있는 일.

274) 순제의…학설 :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있는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하게 하고 전일하게 하여야 진실로 그 중도를 가지리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는 말을 가리킨다.

275) 탕왕의…학설 : {서경} 탕고(湯誥)에 있는 “훌륭하신 상제가 백성들에게 중(衷 : 中)을 내려

않은 것이 없었으며, 항상 주공(周公)의 『이아(爾雅)』와 『좌씨춘추전(左氏春秋傳)』과 『근사록(近思錄)』과 『격몽결(擊蒙訣)』 등 여러 가지 책들을 즐겨 보았고, 여항(閩巷)에서 보는 소설 같은 것은 한 번도 눈에 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유인의 순수한 천리를 자득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유인을 남자로 태어나게 하였더라면 경학(經學)²⁷⁶⁾에 두어서 좋은 말도 하고 간하는 말도 하게 할 수 있었고,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 후진도 가르치고 풍속도 깨우치게 할 수 있었으니, 세도(世道)에 보탬이 되는 것이 그 어떠했겠는가? 그러나 하늘이 동물에 대하여 이탄을 줄 경우 뽕은 주지 않는 법이니, 그 원리가 그러하거늘,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아, 유인이여! 성정(性情)의 올바름은 관저(關雎)²⁷⁷⁾에서 얻고, 명성(明誠)의 학문은 『중용(中庸)』에서 얻었으며, 가난을 편안하게 여긴 것은 단표락(單顰樂)²⁷⁸⁾에 조금 손색이 없고, 시에 발표한 것은 염락십(鹽洛什)²⁷⁹⁾에 참여시킬 만하였으며, 은구(銀鉤) 같은 글씨 혹은 바른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고, 계속 연구함은 위로 지향해 가는 공부임을 알겠다. 평생 저술한 것이 많은 것은 아니나 남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다. 경서차변(經書差辨)과 서(序)·기(記)·잠(箴)·명(銘) 같은 것들은 기록하는 대로 없애버려서, 마치 쇠 소리와 같은 쟁쟁한 문장이 모두 없어지게

주어 순히 하여 몇몇한 성(性)을 소유하였으니, 능히 그 도(道)에 편안하게 하는 이는 군주인 것이다.(惟上帝降衷于下民 若有恒性 克綏厥猷 惟后)라는 말을 가리킨다.

276) 경학(經學): 임금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 경연(經筵).

277) 관저(關雎): 『시경』주남(周南)의 편명. 관저편에는 대체로 숙녀가 군자의 데릴이 되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뜻이 담겨있다.

278) 단표락(單顰樂): 가난을 편안하게 여긴 안자(顔子: 回)의 낙천을 가리킴. 『논어』용야편에 “어질도다, 顰回여, 한 도시락 밥, 한 표박의 물을 먹으면서 누추한 거리에서 사는 것을 사람들은 괴롭게 여겨 견디지 못하는데, 회는 그것을 낙으로 삼고 고치지 않으니, 어질도다, 회여(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不改其樂 賢哉回也)”라고 한 공자의 말씀에 보인다.

279) 염락십(鹽洛什): 『염락풍아(鹽洛風雅)』와 같은. 『염락풍아』는 염락학자(鹽洛學者)인 관 주돈이(周敦頤)·정호(程頤)·정이(程頤)·왕백(王柏) 등 48명의 시를 모은 시집.

되고, 오직 몇 편의 글만이 상자 속에 남아있을 뿐이니, '고기 한 점만 먹어보아도 온 손의 국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유인처럼 재주와 덕이 겸비한 사람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하고 하루아침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또 자식 하나도 없어서 죽을 때에 부축도 못하게 하였으니, 어떻게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만일 태임(太任)과 태사(太姒)의 덕을 가지고 유인에게 드리면 유인은 절대로 자처하지 않을 것을 알거니와, 세상에서 일컫는 조대가(曹大家)의 영재(英才)와 같은 것도 유인은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일언이폐지하고 '재주와 덕을 겸비한 군자'라고 이른다. 후일에 여사(女史)가 유인을 위하여 전기(傳記)를 쓸 경우는 '여중군자(女中君子)'라고만 하면 될 뿐이다.

나는 마음 속에 매우 섭섭한 것이 있다. 문학은 우리 집안의 청전(靑鯤)²⁹⁰⁾인데, 나 같은 것은 본래 우둔하여 늙도록 성취한 것이 없고, 집안의 형제들 중에 조상의업을 계승할 수 있는 자도 얼마 안 된다. 그런데 또 어찌 유인으로 하여금 우리 집안의 장부로 태어나지 않고 다만 명직의 좋은 벗이 되게 하였는가? 이것은 명직으로서는 다행한 일이지만, 우리 집안으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이런데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인은 곧 우리 재종숙(再從叔) 재수(在洙)의 딸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조사(弔辭)를 한다.

아, 유인이시여! 정정(貞靜)하고 순일(純一)했으니, 병옥(氷玉) 같은 자질이었고, 속에 간직한 것 바깥으로 나타나서 얼굴이 윤택하고 등이 탁퍼졌으니, 그것은 학문의 공이었네.

아, 유인이시여! 어질고 효성스러웠으니, 시아버지가 '어진 며느리'라

290) 청전(靑鯤) : 푸른 빛깔의 전(鯨). 전하여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업(業)을 가리킴.

하였고, 토담을 철거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으니, 부군은 '좋은 벗'이라 하였네.

아, 유인이시여! 온갖 어려움 겪으셨는데,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있겠소? 군자의 배필로 둘 다 아름다우니, 그 미덕 길이 켜지 않으리.

이해 10월 하순에 삼종(三從) 강원회(姜元會)는 눈물을 뿌리며 읊.

孺人靜一堂姜氏誄文

歲壬辰之月日 坦齋尹明直 喪其配孺人靜一堂姜氏 哭而慟曰 天奪我良友 而今而後 吾不復有爲矣 第念之 孺人莫如我詳 爲挽詩律絕四首而歸之 遂續爲之誄曰 婦人之有才者 未必有德 有德者 未必有才 世或有中才小德之兼而有者 則猶可爲女中之士 而我未之聞也 今孺人 以絕人之才 曠世之德 未笄而有窈窕之稱 既嫁而有涵養之實 閨門之內 肅然若朝廷之儀 而永夜寒燈 孺人持針 夫子讀書 其讀書爲斯文之名儒者 實儒人開發之力也 使夫子不以貧寒亂心而惟學是勉 則夫婦相成之意 有足以感神明 而明直之爲之也 亦可謂勇往直前者矣 孺人 於是 或從傍涉獵 或專精研究 終始四十年之間 除了供祭祀 接賓客 針線羹飧 憂憾疾病等事 如十三經 是儒人之茶飯 而舜之說心 湯之說性處 靡不揔其精微之蘊 嘗愛有周公 爾雅 左氏春秋 近思錄 擊蒙訣諸書 而聞巷諄諄 一不經眼 此豈非孺人之自得於天理之粹然者乎 倘使孺人而爲男子身 則可以置經輟而進善納規 可以蒞兩席而闡蒙警俗 其爲有補於世道者何如 而惟天之予齒去角 其理則然 尙何怨哉 嗚呼 性情之正 得於閨誰 明誠之學 得於中庸 安於貧 則不愧乎簞瓢之樂 發於詩 則可參乎蘧洛之什 銀鈎之畫 吾知其直內之敬 尺竿之步 吾知其向上之功 平生著述不爲不多 而不使人知 如經書筭辨序 記 箴 銘之類 隨錄隨祛 擲地金聲 盡歸烏有 惟若干篇留落篋笥 一閱釜鼎 其在斯歟 奈之何以孺人之才之德 啖盡艱難 一朝示邁 而又無一簣血胤 扶將於死生之際 安得不爲之悲 且唏也 吾將以任姒之德 獻與孺人 則固知孺人之

讓而不居 如世所稱曹大家之英才 亦儒人之所不屑也 一言以蔽之曰 才德兼備 謂之君子 它日女史之爲儒人立傳者 其唯曰 女中之君子乎 抑余有私切悲于中者 文學乃吾家之青氈也 故余願蒙 到老無成 門內弟兄 其能擔負繼述之責者 亦無幾

又何使儒人不爲吾家之丈夫 而只爲明直之一良友也 此明直之幸 而吾家之不幸也 吾安得不爲之悲且盡也 蓋儒人 卽我再從叔諱在洙之女也 系之以辭曰 嗟 儒人兮 靜而一 永玉之質 存中發外 晬而盡 學問地功 嗟 儒人兮 仁且孝 舅曰賢婦 撤去土壙 引正路 夫曰良友 嗟 儒人兮 備嘗艱 奈何乎 天君子之遠合 兩美 永言不朽

是年冬十月下泮 三從姜元會 揮淚而書

5. 만장(挽章)²⁸¹⁾

1)

제나라와 주나라의 규중(閨中)에선 꼭 강씨를 일컬었으니,²⁸²⁾
정일당 유인에게 모든 아름다움이 총 집결되었구나.
부군에게 어진 충고 드리 바른 길로 인도하였고,
차가운 촛불 밑에서 바느질하며 글벗 되어주었네.
글씨는 왕희지(王羲之)와 조맹부(趙孟頫)의 심획(心畫)을 본받았고,
시는 소옹(邵雍)과 정이(程頤)의 이학(理學)에 우러나왔네.
만일 우리 집안에서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다시 진산세고(晉山世稿)에 빛을 댔으리.

281) 만장(挽章) : 만장(挽章)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지은 글.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 뒤를 따르게 함. 만사(輓詞) 만사(輓詩).

282) 제나라와…일컬었으니 : 제나라의 성이 강씨이고 주나라의 부인 중에 강씨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남대문 밖에서 여사가 살았는데,
 집은 고요하여 자리엔 티끌 한 점 없었네.
 삼천 가지의 예의에 단연 모범을 보였고,
 사십 년 동안 가난으로 온갖 고생 겪었네.
 명성을 가지고 자신의 지위 넓히었고,
 은애를 가지고 인륜의 비중 높여놓았네.
 그런데 끝내 무엇 때문에 땅 속에 묻히서,
 청계산에 어두운 빛만 드리우게 하였는가.
 삼종 남매로서의 동감 나이다 보니,
 유인의 재덕에 대해선 내가 가장 잘 알지.
 나의 변변치 못한 시르는 사실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더구나 구천에 계신 분에게 지나친 칭찬을 할 수 있겠소.
 탄원자에게 말하겠는데,
 어찌다 좋은 벗 잃었소.
 어서 유고(遺稿)를 수습하여,
 길이 썩지않게 해다오.

진사(進士) 삼종(三從) 강원회(姜元會)

齊閭固壺必稱姜 靜一孺人集衆芳 奉勸良談來正路 裁針寒燭伴書床
 筆描王趙存心畫 詩帶邵程玩理章 若置吾家男子列 優看世積更添光
 城南有女士 堂靜座無塵 模範三千禮 簾飄四十春
 明誠恢地步 恩愛重人倫 埋沒竟何故 青溪暮色頻
 三從之親一甲年 孺人才德我知專 拙篇猶不能摸寫 矧可區區詔九泉
 寄語坦園子 如何失良友 收拾遺文墨 永言圖不朽
 三從 姜元會 (進士)

2)

예전부터 내려오는 열녀전의 여인들,
 그 누가 우리 누이동생과 같았소.
 음식 솜씨에서는 부인의 도리 다하고,
 길쌈에서는 교묘한 솜씨를 보였시오.
 젊을 때에 부군에게 권고하여,
 스승에게 가서 공부하게 하였네.
 부군에 정성스레 권고한 말들을,
 편지 속에서 자주 볼 수 있었네.
 길쌈 등불 옆으로 책을 비추었는데,
 글의 깊은 뜻 연구하지 않은 것 없었네.
 여사로 한 문장의 절묘함은,
 평생에 쌓은 학문의 공 때문.
 많은 책들을 두루 섭렵하여,
 음양 오행의 이치 이미 통했네.
 여류 중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유림 중에 끼어도 남음이 있으리.
 저술한 삼십 권의 책들이,
 애석하게도 다 없어지고 말았네.
 몇 편의 시문이 남아 있으니,
 보는 사람 반드시 감격하리라.
 나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가풍의 계승 양보한 것 부끄럽다.

족종(族從) 진사(進士) 강창화(姜昌會)

古來列女傳 孰與我妹同 役僂動婦道 露箴巧女紅
 早年勸夫子 從師俾發蒙 懇懇規勉語 累累尺牘中
 績燈傍照書 鍵捷靡不窮 餘事文辭妙 平生學問功
 千百編盡閱 二五機已通 非特宜閨範 優優入儒叢
 著述三十卷 情哉付虛空 餘煖存勞罷 覽者必激衷
 愧我男子身 讓與繼家風
 族從 姜昌會 (進士)

3)

나는 옛날 유인을 찾아볼 적에,
 훌륭한 그 모습 벌써 보았었소.
 규중에 숙련된 학문 간직되었으니,
 산림에서 엄한 스승 일었던 것.
 절실한 공부는 일상적인 일에 응용하고,
 마음 수양은 아직 발동하기 전에 힘쓰셨네.
 노재자(老萊子)의 처,²⁸³⁾ 문백(文伯)의 모친²⁸⁴⁾과 함께,

283) 노재자(老萊子)의 처 : 노재자는 중국 춘추시대 초(楚) 나라 사람.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나이 70에 항상 때때옷을 입고 어린애의 놀이를 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하였다. (고사전(高士傳))에 “노재자가 난세를 피하여 몽산(蒙山)의 양지쪽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초나라 왕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물소 찾아왔다. 이때 노재자는 삼태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왕이 노재자에게 ‘정사를 함께 해보자.’고 하니, 그는 승낙하였다. 그러자 왕은 떠났다. 노재자의 처가 땀나뭇물 해 가지고 돌아와서 노재자에게 ‘당신은 정사를 함께 할 것을 승낙했느냐?’고 물으니, 노재자는 ‘승낙했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처는 ‘소침은 들으니, 주육(酒肉)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불기도 될 수 있고, 벼슬을 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목도 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남에게 재물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하고는 그 삼태기를 던져버리고 떠났다. 노재자도 그 처를 따라가 강남에서 살았다.”는 말이 보인다.

284) 문백(文伯)의 모친 : 문백은 노(魯) 나라 공보문백(公父文伯)을 가리킴. (소학(小學))에 “공보문백이 조정에서 퇴근하여 그 모친이 길밖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못 마땅하게 여기자, 그 모친은 ‘노나라가 말하겠구나,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노라면 착한 마음이 생기고, 논밭을 밭한 마음이 생기는 법이다. 지금 나는 과부로 있고, 너는 조정의 미관말직에 있다. 그러나 조석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조상의 업을 손상하지나 않는가 하고 걱정해야 할 것인데, 하물

후세에 길이 전해져야만 될 분이다.
 명문에 훌륭한 여사가 있어,
 천성을 순수하게 타고났네.
 유인의 덕을 알려고 하거든,
 그 부군 어질게 만든 것 보소.
 옛 경서를 열심히 배우게 하고,
 곁에서 좋은 친구 역할하였네.
 이 성(誠)자 하나만을 가지고,
 사십 년 동안 꾸준히 행하였네.
 신의는 들처럼 굳게 지키고,
 말쑥은 봄처럼 온화하게 했네.
 웅당 복록 누릴 줄로 생각했는데,
 어찌 그리도 갖은 고생 하였는가.
 여원 대나무 가운데 열매가 없듯,
 주린 기러기 눈이 몸에 가득하듯.
 아! 정일당의 평생에 남긴 글들,
 상자 속에 흩어져 먼지만 앉았네.
 선행한 분에게 끝내 보답이 없으니,
 저 하늘 어찌 그리도 무심하단 말이오.
 생전에 수없이 질병치레 하더니,
 사후에 훌륭한 문장 남기었구려.
 샘물 소린 서럽게 오열을 하고,
 빈 장막엔 쇠잔한 달빛 스산하네.
 백관(伯鸞)²⁸⁵⁾만이 외롭게 남아있어,

며 게으름을 괴을 생각을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했다.”는 말이 보인다.

285) 백관(伯鸞) : 어진 부인 맹광(孟光)의 남편인 양홍(梁鴻)의 자(字).

또한 머리에 눈물로 옷깃 적시네.

안동(安東) 참봉(參奉) 권용정(權用正)

我昔升堂拜 曾瞻淑慎儀 閨中存宿學 林下得嚴師
切實常行處 虛明未發時 菜妻與歎母 同傳亦應宜
名門女士在 純粹得天全 欲識儒人德 能令夫子賢
古經動講席 良友勉周旋 只此一誠字 行之四十年
守信堅如石 發言溫若春 謂宜貽福祿 胡乃備酸辛
爽竹秋無子 飢鴻雪滿身 堪悲靜一字 零落篋中塵
作善竟無報 彼天何杳茫 生來多疾病 身後見文章
古井幽泉咽 虛帷缺月涼 空留伯鸞在 白首淚盈裳
安東權用正(參奉)

4)

우리 동류의 명직씨는,
고상한 뜻 품고 탄원에 살았네.
온거하여 담박한 생활 즐기고,
물 마시며 청빈하게 지냈네.
스승과 친구의 도움 받았지만,
여사의 훌륭한 보필도 입었네.
웅색한 삼간의 낡은 집에서
금실 좋게 반평생 넘도록 지냈네.
죽술을 먹는 것도 부인의 덕분,
옷가지를 입는 것도 부인의 덕택.
조상의 제사 땀 제물을 정성껏 차리고,

손님이 왔을 땐 주식을 험껏 마련하였네.
 한 물건도 받고 안 받을 걸 분명하게 살렸고,
 모든 일은 정의를 따져 신중하게 처리하였다.
 사람마다 어렵게 여기는 것들을,
 무슨 일이든 정당하게 처결하였다.
 부인들 거처하는 규방 안에선,
 도의가 가장 으뜸이란 걸 누가 알겠는가.
 하늘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항상 조심하고,
 경서는 언제나 곁에 두고 그 말대로 따랐네.
 심신의 수양이 제대로 되었으니,
 표리는 저절로 곧고 방정하였다.
 가정에선 엄숙하면서 화목함을 지키고,
 동네에선 단정하면서 장엄함을 보였네.
 진실한 공부는 남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숨기고 있는 덕은 은은한 빛을 머금었다.
 옥이 쌓였으면 산은 저절로 광채를 토하는 법,
 난초가 있으면 골짜기는 스스로 향기를 풍기는 법.
 뒤늦게 만사를 짓게 되었으니,
 제대로 찬양하지 못한 것 부끄럽소.
 (이하 추반)

완산(完山) 송자(承旨) 이진원(李晉淵)

吾黨明直叟 尙志坦園岡 嚴棲安淡泊 飢飲味潔芳
 雖資師友益 抑賴女士良 老屋三間纔 和瑟半生強
 饋粥從內法 裘葛辦中藏 奉先謹承實 留客藎在場
 一介審辭受 百爲謹權量 人人所畏難 事事必亭當

最是閨閣裏 誰識道義長 天明恒若臨 經言每在傍
 定靜主一地 表裏自直方 室家宜肅雍 隣里敬端莊
 眞工維有學 潛德乃含章 玉蘊山吐輝 蘭幽谷生香
 宿寥追挽字 慚愧欠稱揚 (以下追挽)²⁸⁶⁾
 完山 李晉淵 (承旨)

5)

천고에 규방의 좋은 점들 집합한 분은,
 도학과 문장을 겸한 정일당일세.
 발휘한 성명학설 사람들 전해 외는데,
 우리 선군께서부터 매우 존경하셨네.

기재(杞溪) 유희주(俞晦柱)

閨門千古集群芳 道學文章靜一堂 發揮性命人傳誦 自我先君起敬長
 杞溪 俞晦柱

6)

사관이 만일 붓을 든다면
 정일당전을 잘 쓸 수 있으리.
 독실하게 공부한 성인의 학문일 뿐,
 여사로 한 것은 바로 문장이었다.
 부부는 서로가 스승과 친구였으나,
 예의 범절은 늘 짝듯이 갖추었다.

286) 추안(追挽) : 장례가 지난 뒤에 지은 찬장.

고금의 양반집 부인들 중에,
덕행을 겨루면 누가 낫겠는가.

과평(坡平) 윤현상(尹顯商)

良史如椽筆 能書靜一堂 萬工惟聖學 餘事是文章
夫婦兼師友 豆籩間几床 古今君子宅 芳馨較誰長
坡平 尹顯商

7)

윤자는 심신을 수양하는 선비,
한 평생 그 부인을 스승으로 섬겼네.
부부간에 서로 공경을 하여,
언제나 예의를 갖추었다오.
도의를 서로 연마하고,
문장도 서로 공부하였네.
부귀영화 잊고 즐겁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풀밭에 묻혔네.
추산이 내게 무슨 말 할 듯하다가,
들으려 하면 다시 입을 다무는구나.
우러러보려 하니 저승길 막혀있어,
쓸쓸한 바람만이 우수수 불어오네.
거룩한 덕행 신명이 알고 계신데,
나의 만장이 무슨 소용 있겠나.
윤자의 슬픈 생각 위로하려고,
그저 하찮은 글 내놓았을 뿐.

宣城 李宜顯 (縣監)

10)

천인과 성명의 근원을 연구한 학문,
단장 척자가 모두 훌륭한 말들이네.
후대에 역사에 이 일이 기록되면,
큰 선비는 바로 이 유인이라 하리.

연안(延安) 세마(洗馬) 김현(金鉉)

學究天人性命源 短章隻字擲嘉言 千秋彤史書其事 應謂鴻儒是碩媛
延安 金 洗馬

11)

아! 훌륭하시도다 강씨집 파님이여,
규범이 천연적으로 이루어졌도다.
부군에겐 학문을 하도록 권하였고,
옛 사람보다 가난함에 태연하였네.
문장도 작은 문장이 아니었고,
성정(誠正)²⁹¹ 공부도 조예가 깊었다.
훌륭한 업적 후세에 전해질 것이니,
천추에 신명에게 절정할 수 있으리.

척제(戚弟) 안동(安東) 진사(進士) 권국인(權國仁)

291) 성정(誠正) :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가리킴.

狗歟姜氏姊 閨範出天眞 進學識夫子 安貧邁古人
文章亦非小 誠正已能臻 懿蹟從傳後 千秋可質神
安東 權國仁 進士

12)

문장은 반씨집 딸²⁹²⁾과 같았고,
필법은 위씨집 아가씨²⁹³⁾와 같았네.
규방에 진짜 선비가 있었으니,
천추에 정일당 한 분 뿐일 것.

안동(安東) 진사(進士) 김병운(金炳雲)

文章班氏姊 筆法衛家娘 閨閣眞儒在 千秋靜一堂
安東 金炳雲 進士

13)

우리 유평에도 학문하는 사람 적은데,
더구나 규방에서 그 누가 능통하랴.
당호만 봐도 그의 덕 알 수 있으니,
그래서 나는 여사의 풍도를 읊노라.

풍천(豊川) 감역(監役) 임익상(任翼常)

鮮矣吾儒問學工 況於閨閣孰能通 堂名可以知其德 我用爲吟女士風

292) 반씨집 딸 : 한대(漢代)의 반소(反蘇)를 가리킴.

293) 위씨집 아가씨 : 왕희지(王羲之)의 스승인 진대(晉代)의 위삭(衛觶)을 가리킴. 위삭은 위함중(衛恒從)의 딸이자 여음태수(汝陰太守) 이구(李矩)의 처였는데, 예서(隸書)를 잘 썼다 한다.

豊川 任翼常 監役

14)

학문은 천인의 이치를 통하였고,
 덕은 성명의 진리를 보전하였네.
 규중에 비치는 한 조각의 달은,
 천추에 티끌을 물들이지 않으리.

안동(安東) 권경안(權敬仁)

學透天人理 德全性命真 一片閨中月 千秋不染塵
 安東 權敬仁

6. 정일당 시(靜一堂詩)에 대한 발문(임오년: 1822년, 순조 22년),
 화산(花山) 권우민(權愚仁)

이상 두 수의 시²⁹⁴⁾는 탄재(坦齋) 윤명직(尹明直)의 아내인 정일당 유인
 강씨가 지은 것이다. 명직이 이 시를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보이며 말하
 기를 “부부생활을 한지 30여 년이 되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글자나 대강
 아는 줄은 알았지만, 한 번도 시를 지은 것은 보지 못했소. 지금 이 두

294) 두 수의 시: ‘제석감음(除夕感吟)’이란 제목으로 지은 “해놓은 일 없이 좋은 세월만 허송,
 내일이면 내 나이 바로 한 해. 밤중에 슬피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남은 여생은 오직
 내 몸을 닦을 뿐이다(無爲虛送好光陰 五十一年明日是 中宵悲曉將何益 且向餘生修厥己)”
 이라는 시와 ‘독중음(讀中書)’이란 제목으로 지은 “자사에서 지은 한 편의 책은, 천재에
 몇 성인 제송하고 후학 제발한 공 많네. 본체가 확립하여 치우침 없고, 작용이 행하여 어긋남
 이 없다. 처음에 경계하고 삼가는 마음 가져야, 마침에 공화에 이를 수 있네. 달도는 삼덕과
 관계가 있으니, 지극하도다 여기에 다시 달할 이치 있겠나(一編忠聖傳 千載權閑多 體立無
 偏倚 用行不謬差 始能存戒懼 終可致中和 達道關三德 誠義理義加)”라는 시를 가리킨다.

수의 시는, 하나는 51세 되던 해 설날 그믐 밤에 감회가 있어 스스로 힘쓰기 위해 지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년 가을에 큰 병이 나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증용』을 읽으며 공부에 힘쓰겠다는 뜻으로 지은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자네에게 보이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하였다.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살펴보았더니, 비록 부인이 지은 시였지만, 향수 냄새나 분 냄새를 풍기는 여자의 기상은 없고, 산림에서 공부하는 선비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 지혜롭고 재주 있는 부인이 자신의 회포나 묘사하고 사물이나 읊은 시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비록 글을 읽어 뜻을 구하는 선비라 칭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 자기를 반성하고 마음을 진실하게 갖는 공부에 이처럼 열심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존경심이 생겨서 저절로 무릎이 여미어 앉은 자세가 고쳐졌다.

아! 옛날에 유명한 부인이 매우 많았지만, 조대가(曹大家)는 글을 잘 하고 현숙하였으므로 ‘여사(女士)’란 이름을 얻었고, 그 나머지는 손가락을 꼽아 셀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에는 사임당(思任堂)²⁹⁵⁾과 윤지당(允摯堂)²⁹⁶⁾ 두 부인이 있어 다 덕행이 뛰어났는데, 사임당은 시를 잘 하고, 윤지당은 문을 잘 해서 가장 이름을 낸 분들이다. 지금 유인은 시만 잘 했을 뿐 아니라, 사서(四書)를 즐겨 읽어서 차기(筴記)도 많이 남겼고, 이상 두 부인의 장점을 겸하였으나 역시 부군에게 내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 어질고 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295) 사임당(思任堂): 이원수(李元秀)의 차미자 윤곡(栗谷) 이아(李珥)의 모친인 신씨(申氏)의 호. 사임당(師任堂) 또는 임사재(任思齋)라고도 하는데, 경문(經文)에 통하고 시화(詩畫)에 능하며 부덕(婦德)이 있었다.

296) 윤지당(允摯堂): 조선시대 신광유(申光裕)의 처인 임씨(任氏)의 호. 성리학(性理學)에 뛰어났고, 유교 2권이 전한다.

대개 부인의 행실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친척이나 동네에서 전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나는 명직과 교우관계를 갖은 지 이미 오래요, 게다가 또 유인의 외척이 되는 처지니, 또한 들어서 아는 바가 있는 사람이다.

유인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동서와 시누이 사이에 화목하였으며, 지성으로 제사를 받들고 조심스럽게 손님을 접대하였으며, 종손(從孫)을 친아들처럼 사랑하였다. 그리고 집이 몹시 가난해서 남들은 견디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조금도 언짢은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지내고 한 번도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없었으며, 집에 있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부군에게 걱정을 끼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비록 타고난 천성 때문이었으나 경전에서 얻은 힘 또한 많았던 것이다.

명직은 소시에 기개를 숭상하고 규범에 얽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유인이 깨우쳐준 한 마디 말로 인하여 스승을 찾아가고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책을 읽고 몸을 단속하여 의젓한 큰선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유인의 언행이 사람을 감화시킴이 이와 같았으니, 보통 알려진 부인과는 동등하게 말할 수 없다.

명자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인간에 부끄럽지 않은 것’²⁹⁷⁾을 한 가지 즐거움으로 삼았다. 명직은 바야흐로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힘쓰거니와, 또 유인과 더불어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일상 생활을 하는 사이에 많은 교육적 도움을 받고 있으니, 나는 ‘명직에게 두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두 수의 시 끝에 발문을 써서 축하하는 바이다.

297) 우러러… 것 : (명자)진심상에 “부모가 다 생존해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인간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형제를 얻어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라는 말이 보인다.

靜一堂詩跋 (壬午 花山 權愚仁)

右二首 坦齋尹明直室內靜一堂姜孺人所詠也 明直袖而示不佞曰 余居室三十餘年 雖知家蔭粗解文字 而未嘗見爲詩 今此詩 一則望六之年 遇除夕 感懷自勉 一則今秋大病幾危能甦 讀中庸而用工之辭 故以示君 何如 不佞敬而覽之 雖婦人所作 而無香奩粉脂之氣 有山林藏脩之意 非慧聞才敏思懷詠物之比 雖自謂讀書求志之士 似不能如是 其懇懇孜孜於省己誠心之工也 不覺斂膝更坐 嗚呼 古之名媛甚多 曹大家能文而賢 以女師名 其餘 則指不必僂 而我東有思任 允摯兩夫人 俱有德行 而思任傳吟詠 允摯播著述 最有稱焉 今孺人 非特此詩 好讀四書 多有笥記 兼兩夫人之所能 亦不顯示夫子 其賢有德可知也

蓋婦人之行 非外人所可與知 而自有族姻隣里之所傳 不佞與明直交久 而又爲孺人外戚 亦有所聞知者 孺人善事尊姑 和於姒氏及姊 奉祭敬 接賓謹 愛從孫如己子 家貧甚 人所不堪 晏如無幾微色 未嘗干求於人 不以有無爲夫子憂 此雖出於天賦 亦有得於經傳者多矣 明直少頗尙氣 不遵繩墨 因孺人一言啓發 尋師從友 讀書飾躬 儼爲巨擘 遠近稱之 孺人之言行有以動人者如此 不可與尋常有名稱婚女同日而語矣 孟子 以不愧不作爲一樂 明直方以是自勵之 又與孺人討論講磨 有文會輔仁之益於舉案奉壺之間 不佞以爲 明直有二樂 茲於二詩 謹書其後而賀之

7. 정일당 필첩 발문 (기사년: 1833년, 순조 33년, 화산(花山) 권용정(權用正))

나는 유인에게 외척(外戚)이 된다. 처음 유인을 약현(藥峴)의 집에 가서 뵈는 때에 옷깃을 여미고 꿇어앉아 계시는 유인을 보니, 그 엄숙한 모습이 마치 신명을 대하는 것과 같았다. 유인은 나에게

“무슨 책을 읽는고?”라고 묻고, 또 “이 아이는 굳은 심지를 가졌구나.”라고 하였다. 나는 그 때에 비록 어렸지만 그래도 존경심은 가졌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님에게 여쭙어보고 나서야 유인의 덕행이 실로 ‘여중군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 뒤에 또 ‘유인은 문장도 잘 하고 글씨도 잘 쓰는데 숨기고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했으나 얻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와 유인은 서로 친한 사이라, 자주 서신이 오갔는데, 그 국문글자는 단정하고 사연은 간곡하였다. 그래서 속으로 상상해본 바가 있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우리 백부(伯父)께서 유인의 시 두수를 외우고 또 발문을 쓰셨다. 나는 드디어 그 시를 보게 되었으나 글씨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임진년에 유인은 세상을 떠났다. 탄재 어른은 유인의 글씨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글씨 획은 굳세고 방정하며 순수하고 고아하였으며, 순하고 부드러운 자태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어려서 유인을 뵈 때처럼 공경심이 생겼다.

또 유고를 보았더니, 그 시문은 모두 의리(義理)와 성명(性命) 속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확실하기는 오곡과 같고, 답답하기는 물이나 양념하지 않은 국과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충만한 소득이 있게 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유인의 타고난 자질의 뛰어남과 학력(學力)의 깊음을 더욱 알게 되었는데, 그 문장과 필법은 소종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인은 온갖 고초를 다 겪었고, 본래 질병이 많았으며, 또 자녀 하나도 두지 못하였으니, 유인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 어찌 이렇게도 어긋났을까? 그러나 자신에게는 그 복을 인식하게 하였지만, 후세에 그 이름을 크게 전하게 하였으니, 이 또한 이치인 것이다.

천지의 장구한 세월을 가지고 보면, 백년도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와

같은 것이니, 생시에 복을 누리는 것과 사후에 이름을 전하는 것을 비교하면 그 득실에 있어서 어떤 것이 많고 어떤 것이 적겠는가?

탄개 어른께서 지금 유인의 유고를 수집하여 인쇄에 붙이려고 하고, 또 필적을 모아 필첩으로 만들어서 오래 전해지게 하려고 한다. 나는 필첩 끝에 내 이름을 실기를 은근히 원하는 마음에서 삼가 이상과 같이 쓴다.

靜一堂筆帖跋 (癸巳) 花山 權用正

余於擢人爲外族 始拜擢人于藥峴第 見其敝標危坐 氣容靜肅 如對神明 問余所讀何書 又曰 此兒有心 余時雖幼 猶竦異之 及歸 問于家大人 乃知擢人德行 實女中君子也 其後又聞 擢人善文章 工楷書 而秘不示人 余思欲一覽而不得 然先妣與擢人相善 數數致書 問訊諺字端好 詞理想到 於是墨 有所推想者焉 既而余伯父誦擢人二詩 且爲之跋 余遂得見其詩 而筆則未也 歲壬辰 擢人下世 坦齋丈 乃以擢人墨跡示余 字畫勁正純古 絕無柔媚之態 余不覺凜然起敬 如童年拜擢人時也 又觀遺稿 其詩文 皆從義理性命中出 鑿鑿如五穀 淡淡如玄酒大羹 令人充然有得 於是 益知擢人天資之高 學力之深 而其文詞筆法 有所自而然也 擢人備經艱楚 素多疾病 又無血嗣 天之報施 一何舛也 然審其祿于身 而昌其名于後 亦理也 以天地之久而視百年 猶一瞥也 其得失 孰多少哉 坦齋丈 方搜輯遺稿 將以付梓 又收筆蹟 帖而粧之 欲壽其傳 余竊願載名於末 書如右

8. 강재(剛齋) 송(宋)선생이 보낸 두 통의 서신(게사년:1833년, 순조 33년 8월과 을미년:1835년, 현종 1년) 3월)

보내준 시문은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한 번 읽어보니,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옷깃을 여미고 경의를 표하게 되었네. 또 자네의 훌륭한 친구를 잃은 것이 유독 상배(喪配)만 한 슬픔이 아님을 알겠으니, 거듭 자네를 위하여 슬피하네. '유고의 발문을 지어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사양할 수 있겠는가?

현합(賢閣)²⁹⁸의 유사(遺事)는 재삼 읽어보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경심이 생기니, 이것으로 볼 때 자네의 상배한 슬픔이 시일이 갈수록 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세. '글을 지어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실로 나 같은 변변치 못한 사람의 감당할 바 아니나 또한 감히 변변치 못한 것을 가지고 사양하지 못하겠네……

유인의 행적을 차마 없어지게 할 수 없어서, 광연(光演)이 재차 선생님께 '글을 지어주십사.'하고 청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월을 주신 것인데, 광연은 질병이 자주 발작하여 몸소 가서 봐줄 겨를이 없었고, 유고의 간행은 장차 끝이 나게 되었으므로 감히 선생님께서 심적으로 허락함에 따라서 삼가 선생님의 주신 글월 속에서 대략을 간추려서 이 책 끝에 기록합니다.

剛齋宋先生覆書略二度(癸巳 八月 乙未 三月)

送示諸紙 強病一閱 不覺斂衽 又知益友之失 不獨喪配而已 重爲之嗟傷也 文字之示 顧何可辭 云云

賢閣遺事 奉閱再三 不覺起欽 宜乎 座下之悼惜 久愈不能已也 文字之托 實非陋劣所可堪 亦不敢以是爲辭 云云 擧人行蹟 不忍泯滅 光演再請文字於 師門 師門下書如此 而賤疾頗作 未遑躬謁 刊役將訖 敢遵心許 謹以師門下書 中大略 錄于篇末

298) 현합(賢閣) : 남의 무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

靜一堂遺稿終

발문 跋文

김동주 번역

1. 정일당(靜一堂) 강씨(姜氏)의 유고 뒤에 씀

아! 이 『정일당유고』란 것은 바로 과평(坡平) 윤광연 명직(尹光演 明直)의 아내인 유인 강씨가 지은 것이다. 자고로 ‘여사(女士)’란 칭호는 많았지만, 여자로서 할 일을 다 해가면서 틈틈이 성경(聖經)·현전(賢傳)을 깊이 연구하여 그 마음을 잡고 몸을 닦는 요령과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논설함에 있어서 유가(儒家)의 정로(正路)를 잃지 않기를 강유인처럼 한 사람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하물며 가난과 질병으로 평생을 시달려 온 것은 실로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처지를 당했음에랴? 진실로 정일당과 같은 지극한 공부가 아니었던들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른바 ‘척독(尺牘: 편지)’이란 것은 모두가 그 부군을 권면하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 또 매우 정직하였으므로 이를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숙연한 마음이 생기게 하였다. 명직의 현명한 스승과 존경할 친구를 어찌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명직이 상배한 지 이미 어려 해가 되었으나 비통함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명직이 유고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면서 “이 유고를 차마 없애지

게 할 수가 없어서, 활자로 출간하려고 하니, 한 말씀 적어서 이 책을 빛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 글을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다가 늙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되어서 붓을 놓은 지 이미 오래다. 또 홍세마 직필(洪洗馬直弼)이 매우 자세하게 서술해서 지은 묘지명을 부록으로 실었으니, 내가 또 무슨 군더더기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생각하건대, 유인은 진산대성(晋山大姓)으로서 그 내외세덕(内外世德)이 당연히 유인 같은 분이 있어지게 하였다. 규방 안에서 한 성인을 바라는 공부는 세상에 장부로 태어나서 뜻을 세우지 못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유고의 간행은 진실로 유인의 뜻이 아님을 알겠지만, 그렇다고 끝내 간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유인은 여러 자녀를 낳았으나 하나도 제대로 기르지 못해서 그 업적을 이를 자가 없으니, 이것이 슬픔 뿐이다. 명직이 혹 노쇠했다고 스스로 주저앉지 않고 더욱 덕학(德學)을 힘써서 유인이 갈망하던 평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지하에 있는 유인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 어찌 이 유고를 간행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있지 않겠는가? 명직은 더욱 힘쓰기 바란다.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되는 병신년(1836년, 현종 2년)
늦가을 일애 은진(恩津) 송치규(宋時圭) 씀.

書靜一堂姜氏遺稿後

嗚呼 此靜一堂遺稿者 坡平尹光演明直內子獨人姜氏所著也 自古 固多有女士之稱 而女紅之暇 潛心根究乎聖賢經傳 其論說操心修身之要 處事接物之方 不失儒家正路 如獨人者 蓋所未聞 況其貧病平生 實有人不能堪者耶 苟非靜一之至 何以有是 所爲尺牘 皆所以勸勉戒厲於其夫子者 而溫柔之中 又甚正直 使讀之者自不覺其靡然 明直之明師畏友 豈待他求 此明直所以甲益已有年 而

悲憫不能已者也 明直袖示余曰 不忍使之泯沒 以活字印出 願得一言以爲重 顧余非其人 而老病濱死 久磨筆研 且洪洗馬直弼爲作墓誌 敘述甚詳 而編爲附錄 余又何以贅焉 第念 儒人晉山大姓 其內外世德 宜其有儒人 而閭閻中希聖之工 可以愧世之爲丈夫而無立志者矣 然 則斯稿之刊 固知非儒人之意 而其可終已耶 但儒人多舉而不育 紹述無人 是可悲也 明直倘能不以衰耗自沮而務進德學 毋負其平日期望 則所以慰泉下之心 豈不有大於刊斯稿耶 幸須勉之也

崇禎四丙申季秋日 恩津宋穉圭書

2. 정일당유고에 대한 발문

우리 종씨인 탄재주인(坦齋主人) 명직(明直)은 독실한 행동을 하는 선비다. 그 학문은 대개 전수 받은 연원이 있었으나 그가 초년에 학문에 뜻을 두고 만년에 더욱 공부에 열중하게 된 것은 규방에 있는 어진 사위(師友)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니, 그것은 유인 『정일당유고』 한 편을 보아도 대강 알 수 있다.

유인은 하늘이 낸 재주와 학식을 가지고 덕행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문사(文辭)에 허구적이거나 화려한 자태가 전혀 없었다. 그가 열심히 연구한 ‘수신궁리설(修身窮理說)’은 박학의 노사숙유(老師宿儒)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과감하게 숨겼으므로 그의 생전에는 들은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고 또한 그대로 없어지게 할 수가 없어서 비로소 사후에 전하게 되었고, 곁하여 심획(心畫)을 묘사한 철색(鐵索)·은구(銀鉤)와 같은 몇 자의 글씨를 책 끝에 인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옷깃을 여미고 공경심이 일어나게 하였으니, 아! 기록하여라.

단, 그의 평생 저술이 거의 수십 편이나 되게 많았지만, 간수할 하나의

혈속도 없었기 때문에 흩어져 이미 다 없어지고, 겨우 티끌 앉은 상자 속에 있는 약간의 시문·책독·잡저·난초(亂草)가 그 부군의 손에 처음 발견되었을 뿐이어서, 후인으로 하여금 그 전질을 얻어볼 수 없게 하였으니, 어찌 크게 애석하고 거듭 슬퍼할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일가의 친분으로 명직을 깊이 아는 처지라, 지금 그 유인의 유고 간행을 위하여 한 마디의 말이 없을 수 없어서, 대략 보고 들은 것을 이상과 같이 기록한다.

승정 후 네 번째 되는 을미년(1835년, 현종 1년) 늦여름 하순에
과평(坡平) 윤수경(尹守慶)은 삼가 발문을 씀.

靜一堂遺稿跋

吾宗坦齋主人明直 篤行士也 爲學 蓋自有傳授淵源 而其早年志學 晚來切磨 實賴閭閻中賢師友 觀於儒人靜一堂遺稿一編 槩可知也 儒人以天挺才識 本之以德行 凡爲文辭 絕無浮靡華艷之態 而槩槩乎修身窮理之說 博學宿儒 莫或能過 雖然 果於槥晦 未有聞於生前 亦不可因以泯 始有傳於身後 兼以數字心書 如鐵索銀鉤 印之於編末 使觀者不覺斂衽起敬 吁亦盛矣 但其平生著述 殆至數十編之多 而以無一簣血屬之故 而零散已盡 纔以略干詩文 尺牘 雜著亂草之在塵篋中者 始發於其夫子之手 不能使後人獲觀其全帙 其不大可惜而重爲之悲哉 余以宗誼 深知明直 今爲其儒人遺稿之刊行 不能無言 略記見聞如右

崇禎後四乙未季夏游 坡平尹守慶謹跋

靜一堂遺稿跋終

정일당유고 편집 후기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동서울대 교양과 교수 백 남 옥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한국 사회는 정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평가를 받는 것도 실감할 수 있고 내재적으로 민족의 주체적인 자긍심이 강화되어 촛불 시위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은 풍요롭고 편리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도시화된 공간에서 인간들은 정신적 소외감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결과 현대인은 지나친 경쟁에 노출되거나 물질주의를 맹신하는 자체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정신적인 세계를 정화하고 과거의 삶을 조망하려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문화의 창출지로 역할을 수행한 점에서 주목된다. 실학의 발원지로 개항기 서양 사상을 완충하여 발전적으로 소화한 경험은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성을 시현할 수 있는 저력이 되었다. 성남은 경기도 지역에서도 인구 집중이 심화되어 94만 6,000여 명에 달하는 성장하는 도시이다. 비약적 성장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사회 발전에 역할이 기대된다.

여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 갈등이 증폭하게 되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사회 구성원이 타인을 배려하고 동반자적인 관계 설정이 요구되는데 이런 점에서 고려되어야만 하는 사항이 선인들의 인간 관계 설정이다. 특히 유교논리의 정수가 관통된 조선시대 사회에 수평적인 여성관을 형성한 강정일당의 행동과 사상은 주목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현들의 지혜로운 삶에서 현재 성남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좌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정일당은 성품이 단아하고 회로애락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중자에 한 삶을 일관한 인물이다. 20세에 윤광연과 혼인하여 시어머니 지일당과 글을 주고받았으며 시·서·척독(尺牘)·기·제발(題跋)·묘지명·행장·계문·잡저·명(銘)·만시(晩時)·뇌문(誄文)·시발(詩跋)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후세에 남겼다. 특히 부모들이 딸에게 독서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녀가 의리를 알지 못한 것과 하늘로부터 타고 난 성품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자포자기하는 현상 등을 지적하였다. 천명지성은 도의 본원이며 오류와 오상의 이치는 모두 인심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 주장하여 심통성정론에 충실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정일당은 유교적인 범주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였고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여 지고한 사람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일당 유고집 발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이대섭 시장님과 김상현 시의회의장님, 남선우 성남문화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정일당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발간 사업은 직접 번역에 참여한 한춘섭, 신원봉, 김동주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일당유고의 전반적인 사상과 배경의 흐름을 파악하여 명확한 해제를 완성해 주신

전국대학교의 조평환교수님과 난해한 글을 평이하게 수정하여 고르게 감수해 주신 홍순목교수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무 작업에 참여한 조진석간사와 교열에 임한 서승갑, 정은경선생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정일당유고는 성남인의 문화적 총체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발간된 것으로 동시대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정일당의 삶이 성남시민들에게 문화 양식의 일부로 시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발간의 의미를 대신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譯國 靜一堂遺稿（影印本）

在塵篋中者始發於其夫之手不能使後人獲觀其
全帙豈不大可惜而重爲之悲哉公以宗誼深知明直
今爲其孺人遺稿之刊行不能無言略記見聞文石
崇禎後四乙未季夏下澣坡平尹守慶謹啟

靜一堂遺稿跋

吾宗坦齋王人明直篤行士也爲學蓋自有傳授淵源而其早年志學晚來切磨實賴閨閣中賢師友觀於孺人靜一堂遺稿一編槩可知也孺人以天挺才識本之以德行凡爲文辭絕無浮靡華艷之態而慥慥乎修身窮理之說博學宿儒莫或能過雖然果於韜晦未有聞於生前亦不可因以泯始有傳於身後兼以數字心畫如鐵索銀鉤印之於編末使觀者不覺斂衽起敬吁亦盛矣但其平生之述殆至數十編之多而以無一箇血屬之故而零散已盡纔以略于詩文尺牘雜著亂草之

竊余非其人而老病濱死久廢筆研且洪洗馬_元爲
作墓誌敘述甚詳而編爲附錄余又何以贅焉第念_吾
人晉山大姓其內外世德宜其有孺人而閨閣中希聖
之工可以愧世之爲丈夫而無立志者矣然則斯稿之
刊固知非孺人之意而其可終已耶但孺人多舉而不
育紹述無人是可悲也明直倘能不以衰耗自沮而務
進德學毋負其平日期望則所以慰泉下之心豈不有
大於刊斯稿耶幸須勉之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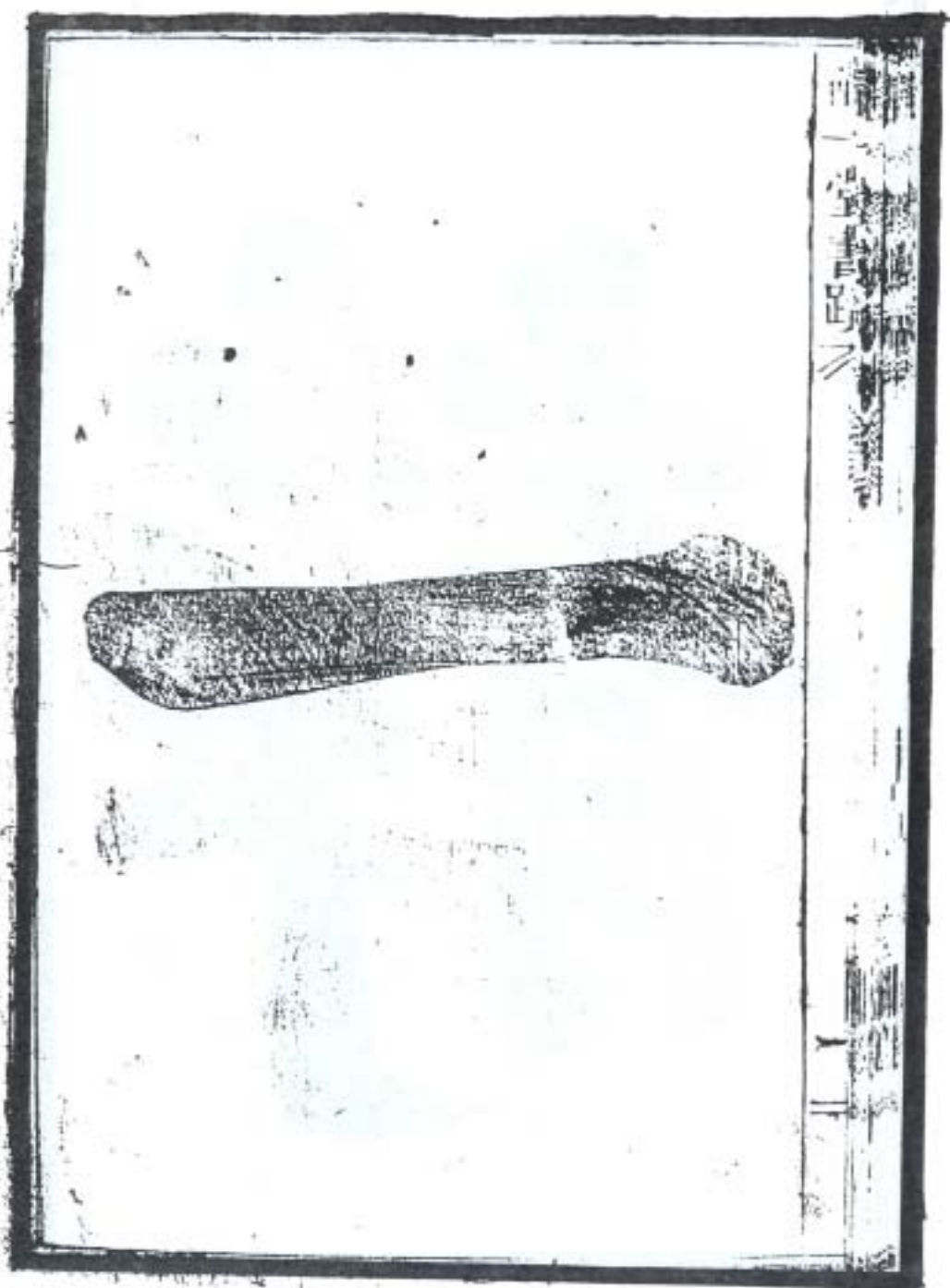
崇禎四丙申季秋日恩津宋樸圭書

書靜一堂姜氏遺稿後

嗚呼此靜一堂遺稿者坡平尹光演明直內子孺人姜氏所著也自古固多有女士之稱而女紅之暇潛心根究乎聖賢經傳其論說操心脩身之要處事接物之方不失儒家正路如孺人者蓋所未聞況其貧病平生實有人不能堪者耶苟非靜一之至何以有是所謂尺牘皆所以勸勉戒勗於其夫子者而溫柔之中又甚正直使讀之者自不覺其肅然明直之明師畏友豈待也求此明直所以叩盆已有年而悲慟不能已者也明直也示余曰不忍使之泯沒以活字印出願得一言以重

庚寅冬姜氏

寧



解

輯遺稿將以付梓又收筆蹟帖而粧之欲壽其傳余寧願載名於末謹書如右

剛齋宋先生覆書略二度

癸巳八月乙未三月

送示諸紙強病一閱不覺斂衽又知益友之失不獨喪配而已重爲之嗟傷也文字之示顧何可辭云云

賢閣遺事奉閱再三不覺起欽宜乎座下之悼惜久愈不能已也文字之托實非陋劣所可堪亦不敢以是爲

辭云云

儒人行蹟不忍泯滅焚演再請文字於師門師門下書如此而賤疾頻作未遑躬謁刊役將訖

敢遵心許謹以師門下書中大略錄于篇末

靜一堂遺稿終

問訊諺字端好詞理懇到於是默有所推想者焉既而舍伯父誦孺人二詩且爲之跋余遂得見其詩而筆則末也歲壬辰孺人下世坦齋丈乃以孺人墨蹟示余字畫勁正純古絕無柔媚之態余不覺凜然起敬如童年拜孺人時也又觀遺稿其詩文皆從義理性命中出鑿鑿如五穀淡淡如玄酒大羹令人充然有得於是益知孺人天姿之高學力之深而其文詞筆法有所自而然也孺人備經艱楚素多疾病又無血嗣天之報施一何舛也然嗇其祿于身而昌其名于後亦理也以天地之久而視百年猶一瞥也其得失孰多少哉坦齋丈方搜

名如此不可與尋常有名稱婦女同日而語矣孟子以不愧不忤爲一樂明直方以是自勵之又與孺人討論琢磨有文會輔仁之益於舉案奉檮之間不佞以爲明直有二樂茲於二詩謹書其後而賀之

靜一堂筆帖跋

癸巳

花山權用正

余於孺人爲外族始拜孺人于藥峴第見其斂襟危坐氣容靜肅如對神明問余所讀何書又曰此兒有心余時雖幼猶竦異之及歸問于家太夫人乃知孺人德行實安中君子也其後又聞孺人善文章工楷書而秒不示人余思欲一覽而不得然先妣與孺人相善數致書

應謂鴻儒是碩媛

延安金 鑑疏

猗歟姜氏姊閨範出天真進學箴夫子安貧邁古人文章亦非小誠正己能臻懿蹟從傳後千秋可質神

戚弟安東權國仁進

文章班氏姊筆法衛家娘閨閣真儒在千秋靜一堂

安東金炳雲進

鮮矣吾儒開學工況於閨閣孰能通堂名可以知其德我用爲吟女士風

豐川任翼常後

學透天人理德全性命真一片閨中月千秋不染塵

安東權敬仁

惜不為男子深悲有誅詞斯文何寂寞非一門私

識坦齋為有志之士一日過訪其讀書南榻出示其
人姜氏小集曰亡妻少好學有遺稿幾數十卷不幸
佚只此斷簡殘編綴拾於箱篋糊壁之間不忍泯棄
其詩文樸素友多追挽而稱述之者子亦其一言乎
尺牘之為夫子隨事箴規者尤見其躬行心得之實始
知坦齋之學實資於夫人開發之益雖謂之妻而師可
也嗚呼其詞書畫奇姿絕藝蓋可指數而其操存省察動
循規矩之宜參究會通深造性命之微則求之儒門亦
未易得矧在閨閣曷不君子私親狀德之言人無可問
名儒誌幽之銘文足有徵後之覽斯集者亦必有為孺
人立傳者矣坦齋其歟之顯余謏謏不足副教而感歎
之深忘拙為絕小跋如是焉爾焉人號靜一堂未嘗
自號而其夫子因
其素尚而稱之云

宣城李宜鉉

學究天人性命源短章更字摠嘉言千秋彤史書其事

完山李觀夏

役

時人皆仰坦翁儀不諱坦翁自有師泣說孺人姜氏德

非徒百事室家宜
歷數人間女士誰班家續史謝家詩藻華不過閨房秀
心性那曾道一辭

隋城白東奎

校理

古來多女士逞逞播芬芳學造精微域今聞靜一堂
探賾天人際研窮性命源却將吾道重一筆狀閨門
雖驗吾心體能於未發時偉哉刀尺上有養以爲期
片玉猶爲寶遺珠幸有餘欲識孺人者須看半卷書
六十窮而獨起齋太數奇最憐閨室裏永失一良師

第一卷詩稿附錄

觀章

二十一

靜

一室清和

金

久稱揚

以下追挽

完山李晉淵

承旨

閨門千古集羣芳道學文章靜一堂發揮性命人傳誦

自我先君起敬長

杞溪俞晦柱

良史如椽筆能書靜一堂篤王惟聖學餘事是文章夫
婦兼師友豆邊間几床古今卿士宅芳響較誰長

坡平尹顯商

君子修身士平生師其婦几案間瓶俎與謨雜醴韭道
義相磨濯文章相括垢其樂忘軒駟一朝葬草莽秋山
爲余道聽之還喏日瞻仰隔衆臺悲風來颺颺至行神
可證余言豈不朽聊慰尹子思佛頭甘露醜

作書竟無報彼天何查茫生來多疾病身後見文章古
井幽泉咽虛帷缺月涼空留伯鸞在白首淚盈衣

安東權用正

吾黨明直叟尙志坦園阿巖棲安淡泊瓢飲味潔芳雖
資師友益抑賴女士良老屋三間纔和瑟半生強譚粥
從肉袞袞葛中藏奉先還承實留客霍在場一介資
辭受百爲謹權量人人所畏難事事必亭當最是閨閣
裏誰識道義長天明恆若臨經言每在傍定靜坐一地
表裏自直友室家宜屬雍鄰驕敬端莊真玉維有靜潛
德乃舍卑玉藟山吐輝蘭幽谷生香寂寥追挽字慚愧

傍照書鍵捷靡不窮餘事文辭妙平生學問功千百編
盡閱一五機已通非特宜閨範優優入儒叢著述三十
卷惜哉付虛空餘咳有髣髴覽者必激衷愧我男子身
讓與繼家風

族從姜昌會

我昔升堂拜曾瞻淑慎儀閨中孺宿學林下得嚴師切
實常行處虛明未發時某妻與歎母同傳亦應宜
夕門女士在純粹得天公欲識婦人德能令夫子賢古
經勤講確良友勉周旋只此一誠字行之四十年
守信堅如石發言溫若春謂宜貽福祿胡乃備酸辛
竹秋無子飢鴻雪滿身悲靜一字空盈篋中塵

裁針寒燭伴書床筆拙王趙存心畫詩帶邵程玩理章
若置吾家男子列優看世稿更添光

城南有女士堂靜座無塵模範三千禮簞瓢四十春明

誠恢地步恩愛重人倫埋沒竟何故青溪暮色頻

三從之親一甲年孺人才德我知專拙篇猶不能模寫

矧可區區詔九泉

寄語坦園子如何失良友收拾遺文墨永言圖不朽

古來列女傳孰與我妹同役戮勤婦道驚箴巧女紅早

年勸夫子從師俾發蒙懇懇規勉語累累尺牘中績燈

靜一室遺稿附錄

晚章

述之責者亦無幾又何使爲人不爲吾家之丈夫而只
爲明直之一良友也此明直之季而吾家之小人也吾
安得不爲之悲且盡也蓋孺人卽我再從叔諱在之
女也系之以辭曰嗟孺人兮靜而一冰玉之質存中發
外而學問之功嗟孺人兮仁且孝舅曰賢婦撤去
土壙引正路夫曰良友嗟孺人兮備嘗艱奈何乎天君
子之速合兩美永言不朽是年冬十月下澣三從姜元
會揮淚而書

挽章

齊周周壺必稱姜靜一孺人集衆芳奉櫛良箴來正路

之步吾知其向上之功平生著述不爲不多而不使人
知如經書劄記片記歲銘之類隨錄隨祛擲地金聲盡
歸烏有惟若干篇留落篋笥一變今鼎其在斯歟奈之
何以孺人之才之德喫盡艱難一朝示愆而又無一箇
血胤扶將於死生之際安得不爲之悲且唏也吾將以
任姒之德獻與孺人則固知孺人之讓而不居如世所
稱曹大家之英才亦孺人之所不屑也一言以蔽之曰
才德兼備謂之君子宅曰女史之爲孺人立傳者其唯
曰女中之君子乎抑余有私切悲于中者文學乃吾家
之青氈也顧余顓蒙到老無成門內弟兄其能擔負繼

專精研究終始四十年之間除了供祭祀接賓客針線
憂憾疾病等事如十三經是孺人之菜飯而舜之
說心湯之說性處靡不據其精微之蘊嘗愛看周公爾
雅左氏春秋近思錄擊蒙訣諸書而閭巷諺稗一不經
眼此豈非孺人之自得於天理之粹然者乎倘使孺人
而爲男子身則可以置經幄而進善納規可以莅函席
而牖蒙警俗其爲有補於世道者何如而惟天之予齒
去角其理則然尙何怨哉嗚呼性情之正得於關雎明
誠之學得於中庸安於貧則不愧乎簞瓢之樂發於詩
則可參乎濂洛之什銀鈎之畫吾知其直內之敬尺竿

哭而慟曰天奪我良友而今而後吾不復有爲矣第念知孺人莫如我詳爲挽詩律絕四首而歸之遂續爲之誄曰婦人之有才者未必有德有德者未必有才世或有中才小德之兼而有者則猶可爲女中之士而我未之聞也今孺人以絕人之才曠世之德未并而有窈窕之稱旣嫁而有涵養之實閨門之內肅然若朝廷之儀而永夜寒燈孺人持針夫子讀書其讀書爲斯文之名儒者實孺人開發之力也使夫子不以貧窶亂心而惟學是勉則夫婦相戒之意有足以感神明而明直之爲之也亦可謂勇往直前者矣孺人於是或從傍涉獵或

竊欲從事於是孜孜不懈閉戶讀書以終餘年而顧此寸進尺退前亡後遺作一天地間無用之物他日於君於泉下安得不汗顏哉嗚呼君之云逝人或勸余繼室又或使余卜姓而余既不能遵先訓奉師教從賢妻之戒則此心誠不忍一日安養祇欲自苦以斃而但念血屬無遺重得罪於祖先是以前晝宵悲歎罔知措身之地嗚呼嗚呼夫復何言日月周替靈床將撤從今以後雖欲有言告訴無處茲陳一觴聲淚俱迸嗚呼哀哉尚饗

孺人靜一堂姜氏誄文

歲壬辰之月日坦齋尹明直喪其配孺人靜一堂姜氏

日甚兒孫盡散婢僕不留唯吾孑然一身履穿屨弊
飢呼寒卧起於荒園破茅之中一何身世之孤苦耶歲
值饑荒人心不臧盜及於庭凡之物變出於情想之外
橫來之辱無從之毀纏繳其身拂亂其心而曾無寧靜
之日又何命途之嶮巇耶是吾平日未能遵先人之訓
奉尊師之教從孺人之戒以至於此耶以吾師太賢之
德曾被毀辱於人而猶曰吾有自修之實則人言豈至
斯哉然則若余之言行謏淺未孚於人者宜其遭此矣
嗚呼先考嘗有訓矣忠孝節義是已吾師嘗有教矣克
復誠敬是已孺人嘗有戒矣存省之工中和之德是已

日辛未夫尹光演哭告于亡室靜一堂姜氏靈筵曰嗚呼今日我生之辰余早失祐悲慟在身先妣撫我期我成人當此時截髮爲饌饋及同志輒設講席非要樂康寶貴益若繼妣志勸我麗澤何有何亡平生殫力君今逝矣誰復繼之我獨斯存感舊悲時二三子來傳壺傳觴物傷懷有淚滂滂君頻入夢執策問義或告休咎指以趨避謂靈昧昧胡能如斯我分斯酒侑君一酌知君有心爲我惻惻嗚呼慟哉尙其歆格

維崇禎後四癸巳重陽日丙子夫尹光演謹以卮酒哭告于靜一堂靈筵曰嗚呼君沒未幾疾病日侵窮窶

戚戚吾時進食君又曰願慎飲食屢顧新婦意不能忘
又欲向吾有言吾曰勿勞也凡事吾已有講磨者當自
處之耳無何君遂冥然而寐遽然而化其於臨卒之際
氣貌一畧言辭周詳一如平日略無顛倒錯亂之舉亦
豈非大過於人者歟嗚呼痛哉自君之逝吾不能不過
哀或謂余曰甚矣子之哀也無乃自念夫鰥居孤處身
世飄涼而然歟抑亦自傷夫單寒窮窶殯葬饋奠無以
如禮而然歟何其異乎人之哀之也吾曰否否子安知
我之心哉生老病死卽理之常長貧固窮乃士之分吾
何爲甚哀但念吾室人之亡吾有所疑誰其釋之吾欲

讀書一
卷
通
解
卷
之
一

卷
之
一

則易主改則難承順者多勸戒者少惟君之於吾行人之所與得人之所少見吾有一善則非徒喜之又加勉焉見吾有愆尤非徒憂之又從以責焉必使吾立於中正之域爲天地間無過之人雖吾聞劣未能悉從然嘉言格論終身服膺所以夫婦之間嚴若尊師肅肅祇祇罔或有忽且與君坐如對神明每與君語如眼瞑眩自今以後斯人也不可復見嗚呼痛哉君素嬰沈疴老而尤劇長在枕席迨至今秋數旬少間吾私自喜幸謂可以及見辰忽於一朝病勢驟烈方其未沒吾入而視之君見我泫然泣下旣而正色曰死生命也何庸

理既知其當行則行之可也而必有師友之資然後所
行者不至於過差顧夫子從師取友以自益焉吾又惺
然開悟自是就師門請業又從諸君尋游用主於踐履
省察不敢自懈行年六旬迄無所成然此之少日猖狂
妄率亦自不同君又平日研窮性命之源探賾精一之
要常於應事接物之際兀然端坐體認未發自言每
疾恙輒收斂端坐覲得誠明之界自然神氣和平不知
疾之去體也吾聞之甚喜遂勉而學之雖未敢自謂有
得而此心終不放肆以至於今日微君之言吾未知其
爲何狀人也嗚呼痛哉吾嘗謂婦人之事丈夫也相愛

失業長而思駛親齡漸高家計剝落役於營生奔走東
西將不能保有恆心君嘗泣而勉余曰人而不學失其
所以爲人與其棄我而謀生不若聞道而安貧且一飲
一啄元自有定不可力求惟當脩吾本分以俟天命吾
雖不才終不以衣食累夫子之心須以讀書爲念以副
吾叩聖之誠吾始感君一言奮發磨礪取四書及程朱
書閉戶課讀頗致勤苦每展卷咿唔君執女工隅坐而
傍聽吾讀未熟君已闡誦吾疑未解君已融會往復問
難咸得領要如是五六年君又曰學而不思與不學同
思而不行與不思同凡書中聖賢謨訓俱是當行底道

僕依之室無升斗之儲而奉祭祀罔或有缺囊罄鎔銖之資而接賓客必盡其歡信於踐言及期則一刻不宿明於辭受非義則一介不取急於調濟簡於自奉嚴於律已寬於責人舉九男女不肖而心無怨焉歷三晝夜絕粒而容無戚焉字畫足以勒金石而傍人未嘗見焉文辭可以侔鉅工而親戚不之知焉炎暘雖酷晝必掩門而坐階庭雖近夜必秉燭而行聲音不出中閨足跡不及外戶飲膳極其潔針線極其精此雖出於天稟之卓異而蓋亦得力於經傳者多確有操守動成模楷類皆如是斯豈人人之所可能也哉且不唯是也吾幼而

已夫尹光演因朝奠哭告于亡室孺人靜一堂姜氏靈
筵曰嗚呼今日是君回庚之日也使君而猶在則饘
然老夫妻相對雖粟飯藜羹飲水其樂亦足而胡
爲今日徒見有我不見有君素帷風淒木榻塵凝只留
殘稿剩墨散亂於空箱破篋之中觸目淒慘而已嗚呼
痛哉君之入吾室終始四十餘年其間同憂共戚食貧
攻苦之事追而思之無一非痛哭處也而惟君至仁至
厚至誠至正可師而可法可敬而可重者非但尋常婦
女之所不可及雖成德君子亦有所難者吾於是愈爲
之悲傷焉君之于歸父母安之娣姒宜之宗黨稱之婢

非孺人所自號而乃所願在茲云銘曰

猗嗟碩媛名閥省子維德之符具茲四美敦悅詩禮循
蹈繩軌動靜無違行已有恥環佩瓊琚翼翼靡靡象服
是宜不徒簪珥好學善道是安素履天授慧識洞窮衆
理鷄鳴昧朝以勗夫子寤寐羹牆自古莘摯弗篤弗措
死而後已清溪漣漪遁山崩施永安且固以藏女士德
音孔嘉昭示無止我銘不朽敬告彤史

崇禎紀元後四乙未閏六月上澣唐城洪直弼撰

祭亡室孺人姜氏文

三篇

維崇禎紀元後歲次四壬辰十月癸卯朔十五日丁

祭文

公固窮勉學而得於內助者爲多云孺人九舉不育爲之畜妾視遇如子女而曰妬之爲惡當居七去之首繼子欽圭欽圭子九鎮嗚呼古先王施教初無男女之別而女子不就傳詩之所誠只在無非無儀惟酒食是議以故簪珥中雖有英姿朗識未嘗以道學自勗苟有一言可採聖人不棄此衛莊姜許穆夫人之詩所以見列於國風也詩猶不刪况專於學而窮天人性命之原者哉今讀孺人文其敦學問裨世程者近古閨閣中一人非特婦人之能言者也余謂明直孺人君之師君受讀十年書可以知孺人之德明直笑曰子之言是也靜

又舉戒懼俾學者先知下手處非懸空說了又曰誅地
萬物與我一體苟未格一物之理則衆吾一知自聖才
萬象以至經史百家日用所疑罔不鑽研錄爲三編多
精義名論竟秩不傳惜哉筆法一出心畫嘗不作閒言
語或爲君子代斷或爲箴戒發者偶被人見實自是彌
加韜晦以訥其出焉及疾革無怛化意見明直泣正色
曰死生命也何憾之有願夫子勉旃竟以壬辰九月十
四日卒距其生甲子一周也鄰里如喪親戚明直學徒
升堂而拜者皆素帶號哭卅月葬于廣州道退里壬坐
從先兆也明直名光演城平人世襲父行服事鰥村宋

不知有饑寒疾病每聽晨夕鐘聲默驗心體存否如朱先生同安時書童擊水杓爲戲孺人令均其節以驗操舍之頃又紉針期以從此至彼不易此心竟賴存養之力始患浮揚漸底凝定焉好學如渴遍讀十三經沈潛闡繹窮晝夜罔倦博通六籍古今治亂人物臧否燦然若指掌嘗云五倫五常之理也皆人心所自然非勉強又曰身爲萬事之本敬爲一身之主敬身一篇是小學總會又曰學莫先於格致今人不能修齊由不能用工於格致又曰性命之微一貫之妙無徒作一場空說先從人事上求之又曰天命之性卽子思極言道之本原

嘗云貧富自有定分寒士之妻厭貧而至於訕泣非人道也苟其非義死且不可受況不必死而可以貨取乎
善者治之源利者亂之嚮以故遇物先求義之當否苟
有以利來者守正以遠之居恆無疾言遽色呵叱不及
僕隸晝不窺戶夜不下堂臨財先人而後已分飪先死
而後生善則歸人不善則歸己慥慥乎隱惡揚善曰不
治已過而先言人過可乎有毀明直者勸其加厚曰盡
已而已嘗云天命之性初無男女之殊婦人不以姪奴
自期者是自棄也專於內脩動靜如一常服祿衣隨明
直晨謁家廟退必端拱跪坐體認未發境界神氣和平

固陋頑劣師友以自廣俾盡生三事一之義明直家益
落不與厥居僑寓山虎豹縱橫累日絕火又罹殤憾
而孺人猶寬明直曰守正邪自遠矣脩短自有定命饑
困尤當忍性患未在我夫何怨尤明直有過失必中
警不休雖在外堂出片幅止之有憫明直之貧操千金
干囑者孺人勸其勿受曰詎可以千金而易吾之操明
直亦嘗喪財孺人曰得失關數毋少介懷明直赤手舉
三世緬襄爲親族繼絕者近十人且營辦昏喪咸賴孺
人之力明直好賓客戶屢常滿孺人極意供歡人謂其
能孺人曰是婦道之疎節而猶不能則焉用婦人爲

靜端一足不蹈閭外處士公奇愛曰山水好從兄嘗稱
汝母爲吾宗第一婦女汝其趾矣仍受女誠罔或少違
及嫁舅宜其言行曰吾家其復興乎傳尊章至孝定省
必拜及喪哀毀幾不全時值饑家罄鉢粒而竭力終
事體膚皸瘃而不知勞致敬君子出行必拜勸其居業
曰人而不學無以爲人與其棄義而營生不若聞道而
安貧妾雖不才粗解針黹當謀體病願讀聖賢書無以
家務累心明直感其言讀四子及程朱書孺人每手執
刃尺隅坐而聽遂卽聞誦書與與皆復勉明直從師曰
學而不行與不學同竊知經訓之當然後可行獨學則

崇禎後四癸巳九月下泮三從姜元會撰

孺人晉州姜氏墓誌銘

坦園尹明直過余江漢之上示其內子姜孺人所著靜一堂遺稿要一言發其潛幽余曰婦人之德含章而不外見且竊讀其狀仁義忠信不離於心欲以文辭圖不朽者恐乖孺人素志曰無已則盍爲誌用壽厥傳余曰是不可以已也遂按而叙之孺人晉州人以高句麗兵馬元帥以式爲鼻祖奕世圭組名德輩出爲左海名族不須譜也考諱在洙妣安東權氏處士瑞應女寒水先生從玄孫也權孺人有異夢而舉孺人因夢而名性貞

曹大家孟德曜賢則貴矣吾未知其聞道也否乎孺人
生于文獻故家端莊其氣貌簡正其言辭安詳其動止
行足以標準一世文足以步驟鴻匠噫其盛矣且超逸
之才或欠於涵養光明之德易蔽於氣慾知之不至以
其無講學明理之功也行之不力以其無誠意正心之
實也惟才德兼備知行交須者余於孺人見之然則如
孺人者奚止爲女中之君子實女史中所未有也余豈
或阿其親而溢美乎哉坦齋袖遺事一編泣而曰知吾
內莫如子詳盡爲狀余曰旣輓之又誄之若其狀德文
字又烏可以拙辭也謹掇梗槩以俟他日立言者

情良有既乎孺人舉五男四女不育取宗人光周子欽
圭爲后娶韓山李文在女生一男九鎮幼孺人天姿絕
高地步醇深天人性命王霸邪正靡不溯流而窮源加
以存省之工中和之德發爲詞翰猶祥鸞瑞鷺光采爛
然而常自謙虛韜晦若無所有人亦罕有知者坦齋亦
搜輯遺稿將以入梓零金碎玉猶足以知其所存則一
齋全鼎其在斯歟嗚呼天地醇元之氣醞釀而賦人在
男子則爲堯爲舜在婦人則爲任爲姒繼堯舜而作者
文武周孔也繼周孔而作者程朱也前聖後賢統緒相
承吾道如日星于天而若夫繼任姒而作者果誰歟如

大勳封鈴平伯文康公諱彥頤以文學名父子俱見麗
史九世而昭靖公諱坤叅佐理勳封坡平君官吏判三
世而諱興商號永隱官都正值昏朝棄官隱 贈吏判
諱傳號九思掌令諱在莘號樵漁薦學行由洗馬止縣
令諱枚號浦隱 贈吏叅諱二星號克齋師允庵先生
郡守 贈戶判諱心震號正心齋知樞諱東燁號自齋
早游羨湖之門有文行卽其十世九世若七世六世而
曾王考王考考也妣天安全氏生員汝忠女也號只一
堂其行蹟有剛齋語坦齋篤學四十年內有良箴外有
賢師苑爲儒門之望而遽失閨中切磋之益其悲哀之

錄以爲模楷壬午七月孺人得危疾氣絕三日而蘇荅
問編言行錄并見闕失孺人數曰平生精力盡歸烏有
矣壬辰秋疾革屬纊前一日坦齋入見泣下孺人正色
曰死生命也何戚之有顧夫子慎旃是年九月十四日
卒于漢師藥峴里坦園第享年六十一隣里老少聞孺
人之歿皆失聲哭學徒之在門而或自幼被養或升堂
拜見者數十人亦皆帶素號哭以十月三十日葬于廣
州清溪東大旺而遁退里壬坐之原從先兆也尹子名
光演字明直師剛齋宋先生剛齋命其號曰坦齋其上
祖諱莘達佐麗祖官太師玄孫文肅公諱瓘討女真有

用功也又曰性命之微一貫之妙無徒作一場空說話
須先從人事上篤實求之又曰天命之性自是子思極
言道之本原又指示戒懼使學者先知下工夫處非懸
空說了又曰天命之性初無男女之殊婦人而不以任
姒自期者是亦自棄也又曰天地萬物與我一體也苟
未格一物之理則欠吾一知自天地鬼神卦象并由以
至昆蟲草木與夫經史難義日用所疑一一條列以質
于坦齋坦齋隨知隨荅所不知者問于師友而荅之坦
齋又或設疑問難則孺人盡其意而荅焉遂錄其問荅
爲二編以爲體行之資人有一言一行之善則聞輒入

坦齋者而未及酬應則孺人或代撰而曰此非婦人事也或恐人之見知也已未秋坦齋拜中洲李尙書文直輔語次偶及戊午一絕李公極加歎賞曰賢夫婦相戒之辭孺人聞之媿自是益加韜晦片言隻字絕不示人至辛巳除夕始見一詩蓋知坦齋之益謹於言也嘗言五倫五常之理也皆是人心自然處非勉強也又曰師者雖非天屬然生三而一事之故有心喪三年之制而今人不知有此願夫子克從古道論小學則曰身爲萬事之本敬爲一身之主故敬身一篇乃是摠會論大學則曰學莫先於格致今人多不能脩齊由其不能格致上

又嘗見朱夫子在同安聞鐘一聲未絕此心已自走作之語每當昏曉鐘時默默體驗書童擊水杓爲戲疏數無節孺人令勻其聲以驗此心操捨之頃又或持針紉線期以從此至彼不場此心自言始患浮撓漸至澹習洎晚年表裏泰然矣遍讀十三經沉潛紬繹每獨處吟誦又博觀典籍古今治亂之迹瞭如指掌喜作字書常於燈下運毫適逸楷正模寫尊王舅正心齋筆法及黃道谷都正運洪艮齋校理儀權天游進士後書亦學心齋性潭剛齋半行而銀鉤鐵索一出心畫工於詩律不甚用功而自然成章文則三十後始爲之人有謁文於

來說者但當守正以遠之耳平居無疾言遽色呵叱不
及於僕隸音樂優戲喧闐外庭而夫嘗窺戶夜不秉燭
則未嘗下堂用財則先人而後已分飪則先死而後生
善則歸美於人過則歸咎於已揚人之善唯恐不及掩
已之能唯恐有知惡而詡其善愛而知其過然未嘗言
人之過曰不治已過而先言人過可乎人有毀已者勸
夫子加厚曰盡已而已平生篤學探賾天人之際研窮
性命之源致力於存養省察敬義交須動靜如一少時
讀中庸戒慎章剖析精義闡合紫陽之旨閑居無事闔
戶端坐體認未發自言神氣和平渾忘飢寒疾病之苦

遠近接濟未嘗或闕坦齋性喜賓客戶屢常滿孺人從其志每客來極意營辦雖疏食菜羹薄酒寸肴必致精潔使客忘其貧而盡其歡人或謂其難能孺人曰是婦道之小節也此猶不能則焉用婦人爲哉嘗曰不能一炊而屢年拮据得數十緡成人大事終絕口不伐已功有所假貸於人則指日以償雖典賣裙釵不踰其期嘗曰人之貧富自有定分寒士之妻每有厭貧之心至於怨舅姑訕夫子是非人道也又曰非義之物死且不可受況在不必死之地而可以貨取乎故見一物則必先求義之當否又曰害者治之源利者亂之樞若有以利

命自有定分皆不必憂但患在已之道未能自盡夫何怨尤乎坦齋偶有過失則必申申勉戒在外堂處事又或不中則以片紙急報止之一宰臣悶坦齋之貧時有操千金而干囑者宰臣書於坦齋曰事直矣君其以書告我我其成之孺人曰以千金而易吾之操可乎勸夫子報書以辭又嘗失數百金坦齋有憂色孺人曰得喪關數何必芥懷况皇姑之言曰甌已破視何益丈夫不當憂此等小事耳坦齋素無甌石而行三世七位緬葬於千里之地爲兄弟親族立后者七八人營辦婚喪亦多且數從師友於遠道而孺人能以死守家治規井井

人每手執刀尺隅坐而聽或問字畫或問音義諦視
過遂卽闢誦又解與旨坦齋大加驚異遂相與講確
聞所不聞後數年又曰學而不行與不學同凡聖賢
謨訓旣知其當然則可以行之然獨學而無師友則
不免固陋願夫子從師取友以自益焉坦齋益自奮
勵就師門請業多從諸君子游學業大進坦齋嘗寒
餓日久過作遠行孺人奉以一絕叙臨別之懷且勉
以物理循環不足欣戚之意戊午僑居果川借人空舍
虎豹晝噪夔魑夜啼滿目淒荒且七時絕粒間遭兒
憾孺人猶能寬慰曰夫子守正邪自遠矣飢困之時
尤當忍性脩短之

夫子每出行經宿以上則必拜歸如之閨門之內肅若朝廷有丈夫弟二人友愛篤至自失所怙益加撫恤癸丑日會負笈京師從我先人平爲謹飭之士孺人志也見人薄於夫之兄弟則甚非之曰知愛其夫子而薄其兄弟是不體舅姑均視之意也尊舅喪後家計益剝落夫兄肅庵公光國光僦屋數楹身親鄙事猶不贍於奉養坦齋亦曳縷奔走於湖嶺之間孺人泣勉曰人而不學無以爲人與其棄義而營生不若聞道而安貧婦雖不才粗解針績當日夜孜孜以具醴粥願夫子讀聖賢書無以家務關心坦齋感其言取四書及程朱書讀之孺

興乎癸丑尊舅下世甲寅夏孺人始自清江舟行母夫人戒之曰善事尊姑無違夫子娣姒親黨之間須盡吾實心貧者常也一任命數慎勿戚戚孺人承聆而退終身不忘雖於無人之地昏夜之中言不敢不謹行不敢不徐夙興夜寐極其孝敬定省必拜得一味則必藏儲以爲供親奉先之需尊姑愛之甚然不敢恃此而少有怠忽終尊姑之身十六年如一日已巳尊姑之喪哀毀甚切晨夕之哭上食之節盡其誠禮時值荒年冬且寒嚴家罄銖粒而竭力營葬每事必親手足皸瘃人或言其太勞孺人曰是何言也吾不爲而誰爲之乎致敬於

過人善女紅不教而能灑掃應對恪恭訓見其時
以爲天人清江公奇愛之曰山水從兄嘗言汝母爲
權第一婦女汝其趾矣八歲先府君誦無非無儀夜行
以燭等語以訓之孺人俛首聽從罔或有違親有疾
所寒盛暑不解衣不交睫藥餌食飲必躬親之戊申
外艱哀毀踰制幾至傷孝家甚貧從母夫人針線紡績
達宵不寐母夫人悶其勞令暫休孺人對以不勞且無
睡意以安母氏心婢僕輩莫進魚果之屬雖甚飢必奉
于母夫人辛亥歸于坦齋尹子兩家俱貧未卽贅行翌
年尊舅臨見留十數日察其言行甚宜之曰吾家其復

濟溥號無有堂通德郎以文行三登銓刻終屈於命曾祖諱杜字號就將齋中景宗癸卯司馬疏伸尹公志述冤大忤一邊人遂終身坎坷有遺集藏于家祖諱心煥考諱在洙俱有篤行蚤世不振妣安東權氏清江處士瑞應之女玉所山人變之曾孫遂庵先生仲弟叅判尙明之玄孫也孺人以英宗壬辰十月十五日生于堤川近右面新村第先是母夫人有娠夢兩聖妣降其室指侍者一人曰此有至德今以付汝旣而孺人生母夫人心異之遂因夢而名焉性貞靜端一喜怒不形於色自幼不與羣兒戲足不履閭外雖清寒多疾而精力

卒知敦寧府事諡戴敏諱希孟號私淑齋三登巍科再
捷勳盟封晉山君卒左贊成諡文良俱見名臣傳皆有
集曰晉山世稿諱龜孫文科右議政諡肅憲肅憲之曾
孫諱克誠號醉竹文科舍人 賜暇湖堂諱宗慶號梅
墅文科薦史局未及補而卒 贈都承旨諱晉暉號壺
溪 睿宗寢郎牛溪先生嘗許以吾道有托不幸早塲
亦皆有集曰續世稿取第生員諱晉昇仲子爲嗣諱德
後號愚谷著訓子格言 贈春曹亞卿諱錫圭號聲牙
齋文科擢於青北謫東遷十年而宥又以文章忤權戚
官止軍資監正知製 教是孺人之五世祖也高祖諱

附錄

行狀

孺人姓姜氏號靜一堂系出晉州隋煬帝東伐高句麗時兵馬元帥諱以式大破隋師名震三國是其鼻祖也奕世蟬聯爲東方名族有諱啓庸文科以國子博士佐金方慶征日本有大勳封晉山府院君歷三世諱君寶文科門下侍中鳳山君諡文敬諱著號養真堂文科三重大匡門下贊成事晉山府院君諡恭穆事在麗史諱淮伯號通亨文科政堂文學諱碩德號玩易齋以隱逸進長國亨憲府亞東銓南宮事我英陵贊修五禮儀

外舅遺稿之營刊壽傳誠出孝思而紹述言行尤大於此所當夙夜自勉而文字剗刷家既窮窶末由強就則姑爲精寫數帙以待事力之稍裕似無害於孝道矣

先稿刊役夫子必欲成之而東伯

聲大判及西河伴大諫

既有惠助親戚知舊之出力者頗多今宜卽速始役不可遲延遷就或至乾沒自速大戾矣

洪洗馬

直弼

云以實心行實事今主友中能如是者幾人

苟有實心實事則必能終始如一表裏相合斯可以知其入矣

靜一堂遺稿拾遺終

卷三

此是嘗所惕然者今承勉勵敢不服膺

君子非禮不言怪力亂神子所不語近聞門下少輩說
利談怪濕浪度日何不嚴責使之正容讀書
從夫子游而終始不渝者無多此不可咎人而當反求
諸已矣若言不忠信行不篤敬我無自脩之實則奚暇
點檢他人曾傳云有諸已而後求諸人敢以是仰勉
海石金相公嘗謂夫子曰某在山亭終日只對坦園見
屋上烟生則想饘粥之炊否見學徒出入則知教授之
多少此固出於相愛之意然又安知非戒夫子以固窮
樂道篤學誨人耶每思其言深覺感荷

迎次見枉所講何書所質何義必多可聞幸望錄示

下示李英陽丈建所教条条皆是深用欽歎但夫祭妻

子諱祝一段與先賢說有異同蓋於淇斯文直就質焉

尹尙書普光來示其是非吟是非何日定何人定是非是

一日非是非每相違離決是非論永罷是非爲可感但詩中是非淨無指

的恐未可輒和姑以爲辭如何

下示一絕孔頴吾願學姪奴子攸翺莊誦無已人莫不

知人性之善莫不知聖人之盡性而苟不知如何性善

如何盡性則所知者固非真知又或有知而行之者然

立志不堅作輟無常一日二日年光流邁竟未免鹵莽

園中平穩臺李沆馬中變名之其地犖確不平而名曰平

穩似有所取義更逢時問之如何

凡民俊秀三古之所不棄也今書童中盧龜詳明李巖

敦厚劉喆孝謹皆可教也請勿以卑幼而忽之

族姪濬永待其從兄九若同已且睦于親戚能承先父

兄之篤行甚可嘉也

從舅東洲公字畫正直文軒叔進士光義初名光載筆法通敏今

篋中唯有數行請分送于禮山叔學光及族姪使之謹

守以存典刑焉

沈恩津文虛顧可歎任魯李郡守兩賢及沈上舍弘

靜一堂遺稿卷之三

下教水能潤物而粘石不潤此似爲下愚而發然如使
聖人當之則安知或因其一端而化之也竊願不患其
不潤而患不能潤

李承宣

晉

庸學劄疑聞是與洪尙書

周

講辨者其義周

詳又其所著山野問荅淹博綜覈可爲世用云從近借
示甚好耳

先祖愚谷公訓子格言鶴谷族兄

會昌

方付梓而將分送

于親戚云幸須托于三洲兄

元

受一秩以來如何

夫子嘗言德雖小宜思報向賴崔上舍

漢

綺借乘得遂懷

鄉宣城之行恨非小德曷不思報耶

靜一堂遺稿拾遺

詩

奉寄宗人東伯

聲大代夫子作

辛卯正月

言議常存長者風
旬宣東道誦治功
棠軒無事吟詩處
嶺月川雲似畫中

尺牘

從孫^繼之女今四歲
穎悟有心地苟隨事循循提誨導
之以誠正則庶幾他日進就婦德矣

晝寢則氣昏志墮多言則怨生
謗興過飲酒則戕性而喪德
多吸咽則損神而長傲俱宜戒之

靜一堂遺稿拾遺

存乎余聞汝祖考杞園公以校理入侍時 正廟特賜
一硯日諭曰爾是直齋之孫清寒之家勉之勉之杞園
公常寶用此硯洎晚年以付于汝汝其可不敬歟汝從
學于夫子既有年矣夫子近作懷川行又遊關西托余
教汝汝年既淺少家又酷貧若立志不堅甘自暴棄則
非但有違先祖之意亦將上負 先王之命汝須一念
兢惕所夕孜孜必以三德爲柯則介然有常如硯之貞
密然收斂如硯之靜凝然自持如硯之重從斯於是進
而不已則庶幾硯田之中日有穫焉

靜一堂遺稿終

略齋送以伸私情

以上余所聞見

古之人事死如事生故齋之日思其居處笑語志意所樂及其所嗜然貧家祭需當先期營辦若待齋日而思之則每多不及之歎况禮相助奠是婦人之職則尤是余勉力處苟見一物之合於祀用及先世嗜好者誠心藏儲及期而用可也余故錄此以備忽忘且令兒輩常目於是以盡報本追遠之誠云爾

硯說示李童子弗億

敬銘兒名

硯有三德一曰貞二曰靜三曰重貞則久靜則專重則不撓是以君子貴之况於先王盛恩先祖遺澤之所

無所欲但此時新稻未作酒飯肥牛肉作膾炙則佳耳
公諱辰適八月九日也先舅常曰子孫雖貧唯是四者
此時不甚難辦苟有誠意極力爲之可也以上聞諸夫子
祖姑貞夫人李氏嗜肉膾先舅姑臨祭必具

先舅自齋公嗜硬物先姑只一齋嗜潔膳先姑嘗謂余
曰先夫子喜食乾鮑吉豆卷菜故時辰十五日以此
爲需季兒亦同嗜而其生日後先夫子八日故儲餘菜
以食之喪後則忌辰亦用此物吾最喜精繫白飯及乾
石魚新婦亦然父子姑婦之同嗜亦奇矣

吾先父母嗜乾魚肉先姑有時命送近因夫子之教略

松翁其諱辰雖在冬月九月十日曾祖舅必具松餅松酒盛

以松盃樸薦之洎祖舅晚年猶不廢

以上家庭傳聞

曾祖舅判書公喜詩酒嘗曰先祖忘世公德行何收企及唯此二者其庶幾乎其在莅邑時值荒年急於賑民常啜粥而賑之又性至儉衣服器皿稍華則必嚴責之唯酒醪之需雖或過費無責焉客至必設酒數巡肴用脯果菜藪而已飲雖多常自溫克不至於亂時有親友謂公曰子以克號雖出於克已之克其亦溫克之謂也公笑曰溫克不亦克已之一端乎

祖舅知樞公嘗於旅館值仲秋先舅請問所欲公曰別

隱堂又於粉土山下築一堂扁曰白直齋日與學子討論經史或琴酒自娛

八世祖舅忘世軒公性喜詩酒嘗曰詩不必巧言志而已酒不可亂浹洽而止

以上見家世故事

六世祖舅浦隱公好讀書夜分方寢鷄鳴即起常節飲膳不多食夫人沈氏甚有婦德平日誦論語小學以爲脩檢之方每夜深以小盃斟酒和蜜或桂糖之屬進之因講問經義

高祖舅大憲公性愛松几杖器用皆以松飲松筍酒服松葉屑凡松之姿狀臭味與其節操靡不好焉故人稱

硯匣銘

鈍爲體藏之密須點檢無汙缺

扇銘

月在手風滿袖

木鳥銘

是何鳥坦園隅

雜著

思嗜錄

十一世祖舅議政公少時被酒睡於花樹下

卅世祖舅判書公南歸後建書齋於飛鳳山下扁曰永

靜一齋遺稿

銘

雜著

三十九

祭留取子金公允秋文

代夫子作

維崇禎紀元後四庚辰二月丁亥朔十八日甲辰坡平
尹光演竊聞留取金先生紼行將向黃驪力疾而來謹
以卮酒櫟菓哭訣曰嗚呼志尙三英颯爽倘儻欲學未
究晚陪屨杖益部耆舊衰俗興想嗚呼哀哉尙饗
銘

筆筒銘

建琴林茂文房良友贈篤不忘

案銘

肘不離此功以歲計如對嚴師終日敬畏

萬曆四十六年

維歲次甲戌三月壬辰朔一日癸巳族從某謹用酒果
之奠使從遊生韓洪基哭告于聖寬靈筵曰嗚呼今日
卽君之終祥也星霜屢易筵几將徹鶴髮之二親冤號
伶俜之孀孤茹痛君其冥漠而不知耶抑長往而不顧
耶嗚呼性行之慈仁宜享厚福而天其天年詞翰之精
妙可振衰門而未成一名此何理也同人之誼由前篤
矣而自君之弟光後吾叔父情之密而愛之摯期以長
途托以平生者今焉已矣去年湖行歷入一哭結轡之
懷未盡杼寫沮以山川間濶疾病纏身操戈一酹亦未
能躬將嗚呼聖寬諒此情而歆茲卮也尙饗

崇禎紀元後四戊辰八月甲午朔二十九日壬戌坡平
尹某謹以菲薄之奠哭告于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
五衛都總府都總管無心翁洪公靈筵曰恬靜廉介維
公常德肅整精白居家之則施政湖邑民歌惠績歸棲
南郭安于家食壽由稟厚從以人爵天褒有燁匪頌繼
修九壺八座蔭途罕覲晚忝鄰契獲侍座右不以鄙幼
賁荷提誘公少許可於我特厚勉以大節曰忠與孝大
學書贈松紳銘鏤奄悼登化祥蓍且邇迫於憂病未卽
往誄辜負夙昔如輶如噎薄醪短辭敢陳斯義尙饗

祭族弟聖寬

光德

文

代夫

子

作

正

平

不

文

國

同

風

年戊辰十月始如其請計令已十五年顧余淺陋何足以爲人師第念恭人眷眷之意積年勤摯令人感歎而欽服豈敢以存沒而有間乎最和立心持身粗知其方可謂不負義方之訓矣雖以箕裘之業從事弓馬而觀其貌聽其言儘是謹飭儒士也余於恭人之狀不敢辭而爲之者以此然其淑德懿行之可書者甚衆今略存梗槩以俟後之立言者云爾
崇禎後四壬午孟夏下浣坡山尹某謹狀

祭文

祭無心翁洪公

終浩文 附錄

第一卷 祭文

上祖諱興光以新羅憲康王第三子知宗國將亂遜于
光山子孫因以爲鄉貫蕃昌赫奕爲東方大姓入本
朝有諱成玉文科大司成五世有諱浹科校理又三
世有諱孝信始以武進官止訓諫都正錄原從動自是
世登武科冠冕相繼更四世有宣傳官贈左承旨諱

漢明宣傳官

贈叅判諱聖弼同中樞諱得衍是其曾

王考王考考也初娶延安金氏載厚女無育恭人其繼
配也育一男卽寂和辛巳登武科娶司果李時祥女二
女幼金公爲人濶達信厚庚申夏余始識面一見輒以
托子爲言余辭不敢當且余間多棲屑未暇及此越三

必求良工人欲學必求賢師聞尹子賢者也蓋使兒子就學古有三遷之教又有千里從師者況在同域而憚遷徙之勞乎夫子從其言命最和來學於余乙丑冬因婉後餘症經年沈篤語家人曰吾知此病終不可起脩短在天復何怨乎但恨未及見吾兒之將就又得娶婦以承先幹蠱也丙寅十月之望疾革猶命最和出就書齋行數百武兒忽心驚而身慄仍還歸扶持是夜恭人謂之曰夫子適出外吾病殆不救是吾憾也吾歿後爾無虛送歲月從師善學以慰吾九原也翌曉遂終某月某日葬于高陽元堂面水稀里某坐原金公字永之其

焉寧可不惕念加勉乎未嘗言人短處不對人詈罵不與人強辨恆云雖有譽我者我無喜不足喜也雖有毀我者我無過不足愠也財物取予之際分數甚明有所貸用於人者則記其月日及期必償喜施恤貧寒者衣之飢者食之無少吝惜教一子有法度恆云人孰不愛其子善教者是眞愛子也若溺於情而不知教則是禽犢也其所以愛之適足爲害矣兒子幼時惰遊不讀則反覆戒之曰所貴乎人者行也欲明其行要在讀書吾聞讀書次第莫先於小學爾須受讀而體行之兒子或有過則必告夫子訶責而夏楚之請於夫子曰器欲成

夫子事無鉅細惟夫子是從或值其怒則惴然不敢出一言嘗謂人曰家長過致恚怒雖或不當於理在我之道只當遜順承受而已雖惑於女色亦宜勿妬以違婦道也見人家婦女之妬悍及肆於言而洩於酒者恥其所爲而深戒之每早盥櫛掃除室堂終日孜孜而語音不出於閨門足跡不及於外舍膳羞必要精潔裁縫必要端正夫子喜客過從者多孺人殫心力以接待之恆云吾家男子出則爲他家客他家男子來則爲吾家客當以誠待不可踈慢况接賓之禮次於奉先而爲主人者每多不誠內間婦女尤爲忽略至於婢僕從而倍甚

副護軍道章之女 英宗壬辰六月初六日生恭人性
質溫 and 慈諒辭氣寬緩詳明自幼以孝友見稱於宗鄰
及歸夫家事尊章致其誠敬每日夙興尚寢夜分俟定
乃退習以爲常久而不少解朝夕之供極其滋味有疾
則茶藥湯糜躬自煮和適其溫冷以進未嘗卸衣就便
處復常然後乃止每事先意承順雖細微未敢專舅姑
極加愛之常撫背曰吾家賢婦也嘗抄女戒三綱等書
以諺字翻寫記誦而慕效焉見人之不孝於親者歎曰
何其爲人反不若禽鳥之反哺乎考妣既歿庶母靡所
依托請于夫子率來同居終始二十年恩義如一敬事

恭人李氏行狀

代天
子作

景賢窩金公命運與不佞有二十年之舊其子最和以親命來且受書由是益知其世德之有淵源而家範之多可傳久矣今最和以其大人命記其先恭人遺事袖致而泣請爲狀追念契分之深厚烏可終辭乎謹按恭人姓李氏璿派也 成宗大王子景明君諱忱卽其鼻祖而其子曰安南君諱壽鍊安南生錦川君諱備錦川生昌原正齊衡寔恭人六世若五世祖也高祖諱生寅進士曾祖諱端錫官吏曹叅判 贈吏曹判書祖諱克淵通德郎考諱台秀訓鍊院僉正妣淑夫人晉州柳氏

世俗簪珥之則也不妄始拜於甥館也庸駭無似孺人
問所讀書對以四書小學孺人謂曰若不體行便是虛
讀當日唯唯而已追思始知針砭之切也繼而承誨者
不一二事親飭行之要治心向學之方片言提撕簡而
不煩尤信乎所存之實含章而益光也日會有志無年
家庭事行之紀述闕如也時會懼其久而無傳以狀文
屬諸不佞旣於外舅言行忘僭而述之又略取室人所
錄孺人遺事及時會之逮於耳目者參互而刪補以備
立言者之採擇焉歲乙亥臘月下浣外甥坡平尹光演
謹狀

疾因以成疾終制後數年移往清風甲寅命長子曰會
往漢師及漣鄉爲其受學也日會以遠離病親辭孺人
勗之曰汝旣稍長吾病非朝夕危者往須讀書修行無
廢先人遺教以重吾罪也越明年冬疾革促裝還堤鄉
舊居遂以十一月十三日卒享年五十六丙辰二月十
五日葬耐夫子墓二男日會時會一女壻尹光演卽不
佞日會娶金煥參女生一男祈永一女俱幼時會娶李
載萬女生一女亦幼於乎孺人行諡淳備才識超詣處
窮鄉食苦貧凡其遭值多人所難然孺人處之沛然而
順穆如而定門戶得以維持飭先而壽後者俱可以爲

曰婦人順從爲務貞懃爲首聲音須低緩動作必有常
嫁之曰戒曰孝於姑敬夫子和妯娌是吾願也爾能如
此則養志之孝孰大於是貧富自有定分寒士之妻昧
於此義每存厭貧之意亦何益哉壬辰祖姑捐世越五
年又遭尊姑喪終事如禮哀毀踰制處士公無子取從
子中實爲后公既於癸巳喪其配李夫人因就中實居
于堤鄉孺人與之隔牆便於溫清致其誠孝者凡八年
及公疾篤三朔侍湯不暫離側及卒致其哀慕戊申秋
夫子暴疾不起殯葬畢夫不欲生念孤嗣幼而靡托強
自支延以育以誨自爲未亡人未嘗輒見天日積傷悲

其後子孫蕃昌主組相望在我 睿成兩廟有諱城策
翊戴佐理功封花川君諡襄平歷六世執義公諱格以
直節著名生三子長遂庵先生諱尙夏傳宋子道德之
統寔爲儒宗次諱尙明有志行早世 贈吏曹叅判季
判書諱尙游以德業顯叅判公卽孺人高祖考也曾祖
諱燮號玉所山人行諡高善文章隱德不仕以壽階至
同樞祖考諱初性通德郎考諱瑞應修潔好古後人稱
爲清江處士妣延安李氏學生齊哲女 英宗庚申四
月十日孺人生于清風黃江里第性端莊貞潔聰明絕
人自幼事父母能以至誠晨夕行定省禮婉容怡聲於

歸我家不過四稔壽僅二十一歲其閨範女行固不可以詳悉而壬寅往寓時雖值窮匱倉卒孝敬勤敏之節彰然自著余時五歲兒也孺人常抱負育養恩義甚摯今尙宛然可記其他可稱之行先妣在時每舉以語不肖者也其敢忘諸噫孺人乃心夫家以未及于歸爲恨竟夭逝於本第翳然孤塋寄在湖鄉其爲存沒無窮之感當如何哉余庸是結轡于中跋涉遠道奉櫬移葬以耐于亡兄幽宅者成孺人之志也辛未冬夫弟某謹狀

外姑孺人安東權氏行狀

代夫
子作

外姑孺人權氏籍安東始祖諱幸佐命麗太祖官太師

意承奉洞屬惟一終致感回而愛重之事夫子敬而無
違凡事罔敢自專夫子或以窮悴發於憂歎則輒以理
寬譬每日鷄鳴而興整理家務夜分就息或徹曉力作
不以爲勞常以婦女惰容嬉遊爲戒平居靚默端坐則
雖親戚婦人不敢褻言哄笑於其側其律已而孚人有
如此者奉先甚虔遇可於祭需者必儲而待習於薦享
辦具親黨有事咨孺人而後行族父山水軒先生震應
亟稱孝敬之篤女工之善曰吾族婦女罕有其比教子
女常謂爲母者溺愛護過不使父知是長其惡也吾所
深戒由是在膝下者無敢爲非正之事詔室人之訓有

側使親心悅豫敏於女紅精於治膳紡織裁澣擣熨之法烹飪芼擇調和之節必於親便體而適口也鉅萬之數能屈指而計之不差踦羸握算者莫能及讀列女傳婦訓女誠等書及觀古孝子烈女事潛心慕效焉與姊妹篤於恩愛親有疾達宵不卸衣煎藥煮粥必躬執之其在童年行純德美已如此蓋由處士公教導之正而出於天得不待矯勉者多焉年二十及于姜氏名族也夫子諱在洙賢有志操孺人之始歸也家道杌隳生業凋零上有繼祖姑及尊姑無以爲養乃殫誠竭力以供菽水冬月手足皸瘃不見辛楚色祖姑性嚴難事而先

往依孺人本家越一年更移他所孺人未及從常歎曰婦人有從夫之義適人固當于歸而吾則未能深可恨也性誠勤柔順早孤而事母氏盡其孝撫弟妹極其恩愛及嫁事舅姑暨夫子誠敬備至夫之弟妹亦接以友睦舅姑夫子或有不悅之甚未敢少有怫然之色終以婉順解之紡紝之工惟日孳孳家人罕見其滅燭休息治膳羞執縫紉皆精好有法度 正宗甲辰九月十六日卒于青陽本家是年某月某日葬于本縣南上面防築村辛坐之原 當宁辛未三月十二日改葬于廣州大旺面遁退里金谷亥坐之原合窆于夫子墓孺人之

內制戚毀過程慰親鰥苦夙宵營營蒲博之費稗官之
誦招延拮据以寫愁寂勸弟從師躬給衣食交人不妄
言必敦倫婦曰禹氏媿德述仁侍疾尊章誠恪聞隣嗚
呼斯人生而窮貧歿不得年一孤繼天報施理舛奈何
蒼昊載此銘辭以詔來後無或耕犁永綏斯兆
行狀

前嫂孺人柳氏家狀

代夫
子作

孺人姓柳氏系出文化曾祖諱應壽僉樞祖諱英縣監
考諱遠太妣漢陽趙氏生員仁復女生于英宗甲申
年十八歸于我伯兄是辛丑歲也翌年壬寅吾家流寓

始泉處士全義李公德來與某相善久歲玄默敦牂之仲夏訪余居泣而諗曰長子元培以昨年八月廿五日死距其生癸丑十月四日僅廿九稔也權瘞于延曙驛新寺洞又將移襄于楊州四派其妣李氏山下艮原噫元培孝子也宗鄰鄰感罔有異辭且獲遊於吾子之門吾子亦嘗以孝稱之銘其墓而徵於後非吾子而誰托敢以爲請某聞而悲之略掇其言而爲之銘曰天畀秉彝孰充厥類李氏之子伯仁其字粵自髫髻孝敬克備溫清以時便適親體就養百方務悅心志必有酒肉供以滋味客至欣接盃酌不罄親或出遊資斧常贏及遺

病固也家素貧歲且大飢親朋之知其情者欲助而全之其勢難繼及病泄甚投之藥幸或愈涉月竟不救死之日乙亥正月初四計其歲未暮也廣陵有家阡力不能致淺埋于村南圻峯之右麓厥十四日因其地完瘞焉嗚呼物之有血氣者生則有終莫非命也或養之失其宜不得全其性者亦可謂命耶如此兒之夭殛其生亦由命之固然而不責乎人事之失宜乎悲悲而不能捨從以文而誌之無乃過於情歟庶幾後人之諒此而勿使咄嗟之及而壞夷之也父坡平尹光演明直父識

孝子李君壙銘

代作

又

此辭於幽墟庶幾更百世而勿侵衷

殤女瘞誌

代夫子作

嗚呼此坡平尹光演殤女之藏也其名季淑母曰姜氏
甲戌八月二十九日兒生于藥峴坦園之第形端正內
明慧三四朔能辨其父母顏雖啼號見父母輒止其聲
近之則孩笑遠則流睨朱夫子所謂無知之兒見父則
笑者耶前此舉五男三女俱未言而天父母未聞呼父
母聲兒最後生冀其長而寄懷愛之同男子子母素患
乳無湏兒纔生七日襁抱就乳於他人所丐涓滴以活
寒暑遠近不暇顧間以糜粥哺之外氣侵而中胃傷受

長子而無或自遂乎 當寧癸酉二月二十二日越
三月二十八日窆于報恩外北而禮同里德加覬坐已
之原新兆也林叟公諱命祖慶州人前娶江陵崔氏育
一女適柳明孺人繼配也舉三男長致遠娶金振光女
次致道娶陳亮女次致達娶孫奭女致遠三女致道一
子璟俱幼致達持狀纍然而至托余以埋銘固辭非其
人而泣請不已念昔同閨也吾先妣疾病賴孺人攸助
獲以濟焉吾先妣亦嘗慕其義而稱之曰賢今忍以不
文而終默而已乎謹擬其梗槩銘而系之曰和足以宜
一室而默能以應萬爲允叶乎含章之貞閨栢之葬列

跪辭於幽墟庶幾更百世而勿侵夷

殤女瘞誌

代夫子作

嗚呼此坡平尹光演殤女之藏也其名季淑母曰姜氏
甲戌八月二十九日兒生于藥峴坦園之第形端正內
明慧三四朔能辨其父母顏雖啼號見父母輒止其聲
近之則孩笑遠則流睨朱夫子所謂無知之兒見父則
笑者耶前此舉五男三女俱未言而天父母未聞呼父
母聲兒最後生冀其長而寄懷愛之同男子子母素患
乳無湏兒纔生七日襁抱就乳於他人所丐涓滴以活
寒暑遠近不暇顧間以糜粥哺之外氣侵而中胃傷受

長子而無或自遂坐于 當宁癸酉二月二十二日越
三月二十八日窆于報恩外北而禮同里德加岷坐已
之原新兆也林叟公諱命祖慶州人前娶江陵崔氏育
一女適柳明孺人繼配也舉三男長致遠娶金振光女
次致道娶陳亮女次致達娶孫爽女致遠三女致道一
子璟俱幼致達持狀纍然而至托余以埋銘固辭非其
人而泣請不已念昔同閨也吾先妣疾病賴孺人伙助
獲以濟焉吾先妣亦嘗慕其義而稱之曰賢今忍以不
文而終默而已乎謹掇其梗槩銘而系之曰和足以宜
一室而默能以應萬爲允叶乎含章之貞閨栢之葬列

孝於尊姑而敬夫子無違在膳羞適溫清未嘗少懈值
不安節躬執湯藥累夜不卸衣尊姑感其誠嘗曰願吾
子孫皆如新婦也夫子或有過從容辨析引而當道有
憂戚則輒以理寬譬母夫人年老窮獨孺人焉依孺人
奉而致其養暨終事無憾一弟早逝而有遺孤俾成立
而奉其祀持家勤敏早作晏息執女紅節冗費而至於
周人之急無所恡惜合於祭品者則預儲以須莅事宿
齋致潔與妯娌恩愛篤至御家衆簡而恕平居沈默慈
諒罕見其疾言遽色宗部鄰里一辭稱譽焉訓諸子以
孝爲先而戒其溺愛於子女及稱未亡人家事一聽於

不肖子某泣血謹書

墓誌銘

孺人金氏墓誌銘

代夫
子作

林叟金公嘗僑居南郭與余爲鄰並而詔三子來問字於余由是習於公之質直好義而又以知壺範之懿也公之配曰金氏其先金海人也入我朝有諱始榮登武科官刑曹判書諱履行官水使寔孺人十一世若七世祖也高祖諱秉道武府使曾祖諱啓祖諱應海僉中樞考諱光時贈叅判妣全州李氏學生時暉女英宗甲戌十一月二十四日孺人生幼有德性和惠端靜

覽此者有所痛懲于不肖也

崇禎百八十一年九月十九日不肖孫某謹識

書外王考妣遺事後

代夫子作

右我外王考妣遺事略也歲己巳先妣年七十有一矣自二月寢疾跨夏漸甦以諺書草此托于不肖爲眞翻是年九月竟見背嗚呼痛矣庚午辛未兩歲行先祖考妣先考妣伯兄伯嫂三世六位緬禮仍又蒐撫三世遺事間又立伯兄後事故多端未能翻謄去月晦披閱文字得先妣遺墨迄今六年手澤如新垂淚罔極遺命之遷延未行不孝大矣謹以眞翻如右甲戌九月十二日

詩一

題跋

世牒後

代夫
子作

此卽我家坡平尹氏直派世系而自始祖太師公至不
肖身凡二十八世傍親及適庶男女皆因舊譜而記之
前月不肖將行懷川請贅于剛齋宋夫子爲便師門考
見倩宗叔健喆氏臨行書出歸後始粧池爲冊請綺園
俞公漢芝篆于卷噫祖先之成立者忠孝勤儉也子孫
之覆墜者頑率邪傲也苟欲法其成立而戒其覆墜捨
學何以哉不肖年今三十一矣姿識庸下聞道甚晚夙
夜憂慙唯是忝先之戒而略其狀于此卷俾後人之

崑溪側而折園不可謂坦矣然而主人以坦坦心行坦
坦道荒谿窮谷不爲嶮圭竇華戶不爲阨方將戒珍駕
馭直轡平驅乎仁義之域其視确者膠者隘者隆然而
舉然者或幽而或側者無往而非坦塗也壘石可以爲
山引泉可以爲池栽花接果種菜鋤菜可以爲閑中經
濟琴酒圖書之間日與山朋野客逍遙自適皆可以傲
公卿輕爵祿是則坦園畫人之真樂也彼乘肥衣輕躡
康莊而邀嬉者一遇風波顛踣不振豈若棲遲一園之
中而不失坦坦之地哉易曰履道坦坦又曰賁于邱園
坦園主人以之

夫奚特晚醒云乎哉孤幼托姑取持敬之說奉贈而自勉焉

坦園記

坦園者何坦齋之園也何云乎坦園園舊稱徐園以園主徐姓也又曰西園於漢師屬西也今也坦齋夫子居之曷不坦園云乎鄭公之鄉高陽之里蘇之堤歐之亭隨其人而名焉園稱坦園不其宜乎坦之號孰與之剛齋宋先生與之坦之義何居焉君子坦蕩蕩爾嘗試觀乎坦園則其土确其樹樛其屋隘有隆然高者俯仰臺中和壇也有崧然峙者起敬文阜也薰珮逕幽而曲小

本生舅姑服大功禮律同然且有沙翁定論恐當遵行
爲本生舅姑大功則常時服玉色衣裾尤翁說有之

記

先祖永隱公塋墓記

代夫
子作

先祖敦寧府都正

贈吏曹判書永隱公先祖妣

贈

貞夫人金氏先祖妣

贈貞夫人金氏三位合祔塋墓

在於涼畿安城郡東十里加土面九土谷粉土山東麓
辛坐之原術士稱卧牛形居民傳謂尹某陵而失傳者
四十有四年矣 正宗戊午公之後配親家後孫金麗
淳來告于光演曰有姜一文者碎公墓碑而埋之墓田

抄飯依陶庵說三年內則行之而世有一抄者有三抄者何者爲得敢乞下教剛齋答曰抄或禮所不言而鄙家未嘗行之一抄三抄之得失何敢質言上全

上食或以粥則扱匙何以爲之耶剛齋答曰上食用粥西柄無方耶則置匙于粥器上而右辛未

荅金富平別紙代夫子作丁亥

本生喪葬前所后忌祭使人代奠只入哭而退南溪說可考

本生喪中入所后廟服色遂庵曰孝巾布深衣陶庵云孝巾加以平涼子可遵而行也

附別紙

師門往復別紙

代夫子作

深衣通吉凶之服則弔哭亦當服深衣耶

剛齋答曰深衣弔哭恐似

不穩未見明據何取質言性澤答曰深衣之著凡於吉凶何所不可

右癸亥

戒愼恐懼朱子謂常存敬畏則是通動靜言也又以存

養省察言則戒懼似是專屬靜如何看得而適從耶

剛齋

答曰戒懼對慎獨言則固屬靜而章句中常存二字誠如來示故沙溪先生兼動靜看而吾先子以爲不可不

分中又有不可分者須仔細體驗方可見得

右戊辰

題主通德郎之妻或書恭人或書孺人未知何者爲得

剛齋答曰婦人題主從夫實職則以有郎階而書恭人似是俗例之誤也

太巳巳

爭一毫毫毫別紙

二二二

苦難行之患矣

陶庵詩曰壯年易失難重得須作超凡入聖人陶庵教少年猶以易失壯年爲戒矧失壯年者豈可不下百倍之功乎請夫子勉之

妾是一箇婦人身鎖閨闈無聞無識於針線灑掃之隙覽古經籍窮其理而效其行思欲與前修同歸矧夫子以大丈夫立心求道從師取友孜孜進益則何所學而不能何所講而不明何所行而不達由仁義立中正成聖成賢誰能禦之聖賢丈夫也吾亦丈夫也何畏而不爲哉萬乞夫子日新其德必以聖賢爲期

人之壽夭窮達有命焉爲父母者信世俗之語以教女
子讀書爲大忌故婦女往往全不識義理甚可笑也
允摯堂曰我雖婦人而所受之性初無男女之殊又曰
婦人而不以任姒自期者皆自棄也然則雖婦人而能
有爲則亦可至於聖人未審夫子以爲如何

允摯堂曰孝者百行之源既失於本源則雖盡天下之
賢能餘不足道也又曰未有不孝於親而能盡忠於君
者此誠確論

尹宅鎮鶴鎮既與夫子爲同人而聞其資質純實又能
贊見誠意可尙宜隨其人之可及者而教之則似無厭

從頗多損友又或論人過失似與前日所教不同果何故耶願聞其義

門生家或有饋獻則必稟于夫子而後辭受之或有不請而直辭之者獨於近日不請而受者有二一則金元伯濫眼鏡一則黃義卿敬饋肉也兩生俱自幼來學而金則誠悶眼昏黃則誠念無饌以親命而來俱是情貺夫子似亦不辭故不及請而受之未知如何

君子之爲道修己治人而已日夜孜孜猶恐不及夫奚暇於閑思慮閑言語閑酬應閑出入以自損乎任重致遠之志哉請夫子戒之勉之

弱不好弄做讀專篤其文行可尚該卿用正嘗見其爲人則端厚和易外沈內明藝而不輕智而不駁敦乎倫而博乎文守其家訓綽有成規當爲外族中第一人黃生鍾雖未親見而其在外堂未嘗聞喧話食飲之餘整而不亂足跡不到果園中侍坐聽講竟日寂然如無人其心必無出入當有成就願夫子與若而人周旋或相提誨或相切磨則庶有資益矣

夫子嘗言求婚必於其類取友必於勝已又曰金茂朱載汎論人過失而曰反而思之則却是說已病聞來不勝警發也今某人爲失類之婚而夫子不戒近者相

必體鰲村先生誠敬之訓終歸于至善則豈不美哉
無所爲而爲者循天理之君子也有所爲而爲者徇人
欲之小人也誠能反諸已而求之明乎斯而出乎斯則
坦然夷塗直轡無礙矣

諺云三歲之心八十猶在此言氣質之難化也氣質之
高者易與爲善氣質之下者難於入道教人者亦當隨
其人之高下而善導之也親黨中惟弟日會自孩提時
有懷橘讓梨之事課讀勤致不貽長者憂及其長也孝
友敦睦人無異辭見解超卓庶乎進就不幸而夭族姪
勳永容止安靜且好讀書頗有可望外親中上舍從

下示爲善最樂其言固甚大但於事事物物上必先推究其所以爲善之理明知其當然然後一於善而實踐之則可見最樂之效也

金上舍

歸

羣從兄弟時時來顧且乘軒之客自遠委訪

者亦多固爲可感然但盡吾爲主人之道而遇卿大夫則以待卿大夫之禮待之遇士則以待士之禮待之不以位勢之有無有所輕重則此心常正而無侮辱之招矣客之來見以夫子有爲己之道也性潭宋贊成曰讀書窮理自明其道而已海石相公曰爲忠孝求道德皆是自已分內事也此皆格至之論願以是孜孜自勉而

新涼入郊此正燈火可親之時也望須接客應事不得已之外專意讀書焉妾亦針線饋食之暇中夜下帷之際看字理會爲計矣向讀四書而孟子下三篇尙未訖然不久當訖擬自今冬從夫子講易而客若久留則不可爲矣從近裁書于金洗馬錢許詩書大全借示伏望洪洗馬贈夫子詩云母經未成頭髮白百年虛作丈夫身令人警惕請夫子益懋新德進進不已

眼患屢日未瘳伏切悶慮願瞑目端坐息却閑思慮平心下氣存養方寸則非但諱病之方而已亦於尊德性之工似有益矣

大於此者哉

顧夫子有善忘善無過思過見善如已出見惡如已病君子不可無義理之勇不可有血氣之怒今聞夫子責人過於聲色然則大有損於修身之道請戒之

不炊今三朝矣書童適捲南瓜蔓以歸搜得其實如拳者數枚切而爲羹謀一盃酒不得只以羹獻不任惶歎德固不可一日而不修學亦不可一日而不講講學又莫先於讀書竊聞夫子方讀易而李銀河子英晚來留過冬此自少經學之儒也相與講磨甚好願以日日討論者錄于片紙下示則幸甚幸甚

夫子之私之也假使夫子一有所私而損於德業則妾雖富貴寧逸不若窮餓而死請夫子勉之每書字錄呈直觸不遜殊失妾婦之道然而沈慰軒丈東師嘗謂夫子有虛受之量且妾嘗承隨事直言之教故不敢不盡言耳若聞過而少或吝改改或貳之則終無由進德請夫子益勉益勉

貧者士之分也儉者物之本也安分守本而從吾所好樂莫大焉雖三公之貴萬鍾之富苟非其道願勿掛念不有孔夫子之言乎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
李某炳升木其妻警諫以爲失士夫之體此甚欽歎况

利說恐門生小子習聞其言浸浸然入於其中夫子何不早遠此人遠之之道在乎不惡而嚴當正衣冠尊瞻視可無非禮之言動則彼自遠矣

人之有仁義猶四時之有春秋言仁禮在其中言義智在其中恐不必疑

師者道之所在與君父一體尋師之行與省親無異則何可以賤疾停驂也今病雖甚未必死如夫子聞道則雖死猶榮願趣駕戒程焉

事親而私妻子則孝不篤事君而私妻子則忠不盡事師而私妻子則學不誠推之事事皆然妾雖不敏不願

像冠夫子之德至於垢汚而未澣綻裂而未補妾之罪也謹和灰紉針以俟敢請

花卉宜植於園中而不宜植於內庭移種于東巖月潭之畔好而屬仙花所以染指甲者也妾性不喜此并爲移出如何

某兒家聞四不舉火吾家則三不炊此兒所饋不可受況非其親之意而渠私自持來雖是升米分銅之小義則未安若向來金童之饋則雖是石米之多與受既合情誼又以親命爲之不宜辭也

義者治之源也利者亂之樞也聞或人日來外舍多言

菱山

黃正言
基天號

文詞之

高如綺園

余永基
漢芝號

篆隸之精熟果

如下

而但夫子多病年晚經禮之學尙未融貫何暇

學此耶惟望實心自勉探蹟六籍之蘊奧追步聖賢之

閭域夙夜孜孜無負當年志願千萬千萬

時弟會早孤失學然能自力於奉先睦族愛兄子如已

子誠心教導不幸無年無兒今似聞祈永求族子爲之

后此姪自來誠心在此竟能成之奇幸奇幸伏願因徐

一心繫便書探于上舍族兄館從近詳聞而教導所后

之兒同於祈永使之守家千萬幸甚

文中子之服儉而潔今夫子之服儉則儉矣潔則未也

獻故受置矣今出而視之菜則半爲鼠耗肉則敗矣刀
拈水洗煨燐于爐火仍以紙價兩葉銅沽酒而溫之以
進此物雖細無忘所由來之艱如何少若瘳飢旋即開
卷無或流失光陰千萬伏祝

謹孫雖質勝而欠於中行然猶勝於文勝而滅質矣此
兒口有所諾必踐其言奉先守家可恃此兒而堂內無
出其右者矣幸望引而教之使得成就焉且此兒幼而
失母祖母又性嚴常視夫子與我猶其父母十里江郊
不避風雨寒暑身齋糗糧夙宵來侍念其形容番番零
涕矣此兒小或有過詳細開諭切勿外視如何如何

之際最爲緊要處近日衰症轉甚精神益耗未及於他

江夫而惟用力於此不無微效亦願夫子實心體認

年前李梧軒愚在燕行時托子于夫子夫子固辭因推

讓于老湖吳進善日昨數十章甫自鄉赴舉聞夫子之

名相率贊見且饋遺甚多夫子堅讓不受右數事果皆

善處矣一則吾無及人之德而不可遽承盛托一則未

諳誠意之如何而不可遽受腴幣此雖與前日仰達者

有若矛盾而但於事理有彼此之殊耳前日仰達指狀

伏問宵回愆度若何風雪鼎沸埃冷如冰恐致添患矣

月前謹鎖拾園栗揀其大者升許及切肉數片特而來

禮

一

禮

禮

禮

禮

禮

禮

禮

禮

禮

恐位不穩之教耶

幅巾雖非古制而朱子著于家禮則臨祭之着似愈於笠子也

椽衣士妻之服而其色純黑忌祀時着此似未穩如從

魯庵

其齋

家素椽

衣之制而但

未有所考處如何

華冠者言華人之冠也古無是名

大明革世後宮人

之避難來東者著此冠東人指以名之然考見禮十五

而笄註婦人無冠以簪固其髻而已竊恐冠之一字似

未安請易以笄字何如

戒懼是未發時工夫而慎之於已發而人不知已獨知

益爲交勉克成友道之美

李明夫

炳

居在鄉谷雖傍無師友而猶自篤學每見其

上夫子書味學之實藹然溢於辭表殊甚欽歎請諒意

荅之使得益勉進就也

父子一體也父當慈而子當孝請夫子之於欽主更加慈愛弟子之於師視之猶父師之於弟子視之猶子古道也請夫子雖泛愛而擇其誠心向上者加愛而篤教俾有成就如何

深衣雖是通吉凶之服而弔時古有弔服今有素服則不必着黑緣采帶而弔之故剛齋先生有此深衣弔哭

靜一堂遺稿

尺牘

十四

何

婦人之嫉妬甚者至於亡人家而絕人嗣此不惟不識義理亦不知利害也夫之子即已之子若子姓蕃衍則爲幸何如哉女宗言亡去之道曰妬正爲首淫辟竊盜張舌驕侮無子惡病皆在其後然則罪莫大乎嫉妬矣竊聞夫子欲作女戒以示子孫婦女請編入妬忌一章使讀者有所痛懲而進於婦德如何如何

某富人而勸酒二盃無乃過歟鈴原

尹參判行直老矣湯羹

間味及接待似爲欠事此雖小節不可不量處也

李雅

著

之保族守家奉先接賓各有次第如下示請

下示或說云云謹悉蓋畫像與神主不同不必宗子主之爲子孫者皆當守之苟有德而人所瞻仰者則門生後學亦當奉安而以時瞻謁況其子孫乎金富平素以純孝之姿出后於宗家而不得主祀於本生父則終天之痛無地可寓故奉文忠公畫像於別齋每於文忠晬辰設茶禮省謁以寓孺慕之誠此實所謂於情安於義無損者也

宋木川

敏成

剛齋之胤金上舍

炳雲

漢湖之孫屢次見訪在

夫子固當極意接待而每緣艱乏不能從心豈勝歎咄竊聞兩賢並端厚愷悌請在對切俾以爲交勉之地如

君子處世消長之理事物之變所當推究者也。山天齋

金監役相岳號

之易學八年堂

沈處士號

之數論其義精其說詳

苟能善學則斯可知要矣。鶴山公

伊澤公詩韻清穩青

翰子

李監役觀夏號

文辭瞻博夫陶情抒感達意導志是亦儒

者之所不可無也。請於究會六經之暇時時從事焉。

權童子

錫用

從兄

弟之來果有頂針之教耶。來者固不

當拒。況其父兄有勤托自家有實心者耶。且隨其人而

教之。如洪三隱

義慶號

趙子安

仁錫

有誠孝之心則易教以

事親之道。張仲深

淵

有仁厚之姿則易就其及人之善

舉此二者餘皆可推矣。

可以一善一不善而知其人哉書曰知人則哲惟帝其
難之況識鑒之不及聖人者哉望須視所以觀所由察
所安如孔夫子之教而徐徐參驗庶可知矣且夫求爲
人師則妄矣若格致誠正之工日新於已而自然及人
非我求之童蒙求我則亦何嫌於好爲人師耶愚見如
是請更剖示

我有實德人雖不知何損焉我無實德雖有虛譽何益
焉有玉於此人謂之石而無損於玉有石於此人謂之
玉而無益於石願夫子務實德上不愧乎天下不忤乎
地無恤乎人之知不知也

敢聞命無任悚惶

益齋

黃潤鍾號

自幼不入酒肆夫子恆稱其士夫之一節而

屢坐於某家何也似違言行相顧之意請受勉之

伏承下示有曰豈敢曰知人豈敢曰爲人師也但以目
下來從而相守者言之各有取焉如孔胤錫古聖之裔
而有純實之資趙仁錫松山之後而有孝友之行朴秉
殷樸實而好古林道喆和樂而愛倫黃浩淳緒于秋浦
芝所之忠孝李敬鉉裔于龜川直齋之道學權道仁姜
所承因其親姻之好林達潤金應洙難孤遠來之誠云
云竊念夫子或以一善而輒許之一不善而過乎責豈

人時頗少溫和之氣敢以仰告

今朝客

李上舍遠重

去何不挽留耶衆人猶不可然况賢者

乎想必以賤恙中恐致勞動而然也然瓶中尙餘升許之米且病症較昨稍愈豈可憚一婦人之勞而敗夫子之家規乎接賓之禮次於奉先人家之大事也切不可少忽耳

日會衝寒早來故悶其勞瘁而有此作飯之教耶禮山叔_學之來此今旣近旬而粥飲或闕今日遽爲日弟作飯非但力不贍以夫子而言之則妻兄弟親於已族以妾而言之則私兄弟重於夫黨此雖小事於義未安不

心行實事之語相爲表裏而李養馬義勝戒子書善莫大於改過惡莫大於欺心養福莫如寬速禍莫如忿四句不但戒子而已實君子所當警省者願夫子益自勉戒俞參議漢馬號李都正延仁號俱以八耄長老遠地屢顧此豈爲尋常顏分而然哉愛夫子之學行而有所期待也願修吾之實而副人之望

日昏不可行夫子何不思朴其齋宗言乎

易曰節飲食酒是飲食中一大端願夫子節飲而慎德俄頃何事切責某次或不幾於過中之責耶聲色言語君子之尤當用工處詩云溫溫恭人惟德之基夫子責

有沽惠之嫌故如是處之未知如何
俄者似聞自城內還駕歷入某家果然否此雖士夫家
今方賣酒夫子之與客歷訪固出偶然而安知外人不
謂沽飲也古人詩云君子防未然不處嫌疑間可不警
惕耶

今將進飯願不介意而畫之也今日家衆所食均贍請
無慮焉設或不贍君子不必屑屑於飯是間事也

俄聞夫子責人聲氣過厲此非申道也如是而設或正
其人已先不正其可乎願加審思

李綱庵晉存心不放循理無違八字與洪洗馬直以實

心所好不合天理之謂禮者天理之節文必先明其何者禮何者非禮然後勇斷已私一從天理則可至於消矣敢以此仰勉餘在拜時續稟不備

附
尺牘并上
夫子

今朝一老婆來獻斗米斤肉問其故對曰向出郊外被毆於無賴漢適值夫子之過泣訴馬前夫子嚴辭諭之遂得免焉感恩實深故獻此表誠云云時聞外堂有客不敢煩達自內還投則老婆執堅不肯故謂之曰夫子嘗七日絕粒而却千金之貲今豈受汝之物乎老婆歎息方持米肉還去耳彼雖以誠意來獻而我若受之則

伏問夜間慎侯比昨何如自懷還次後竊欲從頌有所
仰達而非但賤疾纔甦精神眩瞶竊慮撼頓之餘致有
勞損且鎮日客撓未暇稟質今朝則身恙稍聞賓客已
散適有酒饌恭俟晨謁後仍爲進饋隨即拜陳矣日已
晌午尙無沃盥之命伏想體內愆和猶未復常伏慮萬
萬竊聞今番師門之行受來非禮勿視聽言動字將以
刻揭書室伏切喜幸此四句孔聖所以荅顏子而顏子
所以終身請事進於聖人者也且王舅府君嘗書此自
勉以教後人伏願夫子仰孔顏傳受之重念先世箴戒
之至承師門勉勵之意日夜靡懈常日在是夫已者吾

以朱強壯完厚之質以叔主慈諒深仁之德未蒙其澤
有此夢外之變疊出於一替之內不知者壽也亦理也
召禍之存酷胡至於斯連年遭變雖家計之稍饒者似
無宿庀之需而况絕峽窮家初終襄禮其何以及期培
据喪威之餘凡百必無統緒且叔主頻見此不忍見之
境自愛保重之道應失其宜念至於斯節節悲結而釀
淚矣甥女身病漸瘳外庭亦以宿症長時欠愆其他計
活之艱去而益甚月前遭兒憾待下情理何忍提達疊
疊所懷殊不止此而書不敢盡伏祝氣體萬安不備白

上夫子書

庚寅

備伏惟亮照甲申端月念日宗末某拜

上舅氏權烏齋

中慰書

年條未考疑

便稀路遠音候漠然常用慕鬱昨冬就如回伏承覆札
始聞叔母主下世之報驚慟何言春秋殊不至篤老平
時筋力亦云康旺私情冀望必躋遐壽之域豈意今者
遽承凶音耶伏想叔主摧折悲痛之懷必難寬抑兒小
失恃呼號之狀有若目睹尤覺慘毒不忍忘食息之間
矣雖欲專人唁候以伸舅甥至切之情而近來殘疾殆
無暇日且拘於形勢之不逮若視越人每切自訟而不
勝悲念之枕憂初因致興繼聞第三從喪報慘矣慘矣

日計之成服雖後月計數月之後亦不可據此爲斷
先正說旣如是明白遵用似無疑矣餘不備疏儀丙子
二月廿五日宗末某拜

與豐川宗人澤霖

代夫一作

歲換適半信息仍阻悵作懷思曷惟其已此際漸熱
中動用諸節一向晏寧遠溯不容區區宗末宿病頻作
振劑無期自顧悶憐每念僉宗氏相愛之誼一次委進
穩叙情話兼作名區壯遊之舉初擬今春發程矣身恙
馬瘠此計竟違更以秋冬間退期而仲秋科時那中少
年如有入洛之便相報動靜如何餘官號甚遽姑此不

蟄吟疴頓無好況祇用自憐尊三世文字今始構呈而
不但非其人而已體製蕪拙不能發揮幽光第難於違
孤盛意有此僭妄之舉悚愧交中無以爲喻餘病倩不
宣書儀統希照亮乙亥臘日宗末某拜

與宗人釜山之謙

子夫

省禮頃者半晌晉晤迄庸伏慰襄奉問已過行仰惟孝
思靡逮之痛何以堪抑積日勞攘之餘風日又此愆常
哀棣侍奠動止支衛遡念不能暫弛宗末宿疾添感日
事呻卧悶苦何喻下詢禮疑歸考尤翁說則聞訃在亡
月則只計月數而丁練祥於亡日又曰喪服當從聞訃

歲六時恩津宗人各爲行者來見屢次自願於修單之
作故信而無疑矣。後得單本序文與若干單子而去
屢月後始聞之則私自印出故推見其所謂印本則昭
穆系屬姑庶混淆其他註誤無所不至此不過渠以鄉
曲無識者濫生冒托之心有此罔測之舉今番譜役又
恐此人來參致有見欺之弊若然則宗中嚴斥勿受且
懲前罪至仰至仰先事之慮有不敢不然者委此書告
耳餘不備。惟會下祭甲戌菊月望日宗下某拜

林公與宗人光周書

代夫
子作

歲暮雪海瞻逞良勤卽惟啓。清重慰溯無已宗未坏

長可幸而蒙養之功果不失義方否須及時勉誨無至
扞格之患如何令三從氏及奉早會昆季素知孝友敦
睦迥殊凡人則爲人大節不出此箇道理不必遠求師
資而但胤兒日夕薰習於其間則豈非便近而切實乎
抄秋有歷枉之期云奉企奉企餘手湍倚書不備儀戊
辰七月十九日弟某拜

與宗中書

代夫
子作

霜寒比緊伏惟僉體侯萬衛伏溯無任區區宗下身恙
經秋尚不得夬蘇私悶何狀就白宗下家曾修本旅譜
牒祖先事蹟及子孫名錄十分詳細經始有年矣甲子

非誠曷有非敬初平時斯二者入道之門

置次王舅戒後烟草約

惡草小宜吸於古未聞名矧余王舅訓垂後甚分明

偶吟

斷斷平生志唯期學古昔有知行必踐應物身先正

書

與姜就如日會書代夫

子作

令季氏來訪袖傳惠札披讀之餘從審新涼靜履茲衛
慰荷無比第聞問遭功服之喪兼以天慘驚愕何喻弟
省狀如依而身恙室寓去益沈痼悶不可狀聞胤兒善

萬理原天地一心統性情若非敬爲主安能駕遠程

聽秋蟬

萬木迎秋氣蟬聲亂夕陽沈吟感物性林下獨彷徨

仰孔夫子

大哉夫子德滄海浩無邊嗟爾則蠡智安知納百川

客來

遠人慕夫子云自北關來家貧曷飲食唯有酒三杯

坦園前路通乎康莊

哀哉叔李世幾人遯遯程坦坦吾家路願言直轡行

誠敬吟

人苟未聞道不死亦非慶惟將夫子訓一心盡誠敬

除庭草

小鋤理荒穢快雨灑塵埃縱愧濂翁意山茅舊徑開

示誠主姪

先生知爾孝以爾承兄後願爾事先生一如事父母

壬午冬夫子示余五絕一首勉志業之進就余未

及仰和矣忽於昨夜夢中追次前韵既寤而猶記

遂錄以存之

壬辰即屬
續前三日

餘生只三日漸負聖賢期想慕曾夫子正終易簀時

主敬

以下年
條未考

除夜

古聖傳斯道人人所共由
心月印寒水精光炯千秋
傳一敬字關鍵孰能拙
驚遠徒虛勞力進須近求
終身宜自強望道敢遲留

贈安秀才駿甲兼示高信義

延植代夫子作

聖道如大路古今之所由
學問非別致向上須探求
卷中指南術歷歷在前脩
勉哉駕直轡道域偕優遊

呈夫子

昔從艮齋日求道斷無他
于今三十載造詣果如何

元朝敬呈夫子

庚寅

從往叩履茲中正坦平其道

景仄虞淵冰雪磋峨秣馬脂轄前路云遐僕弱難馭登
頓于嗟遭此晚暮憂傷如何

鳥嚶才羣魚沫逐隊節舒陽和其樂自在胡爲索居終
罕朋輩願言三益勸箴吾過

謹次丈席涪灘詩韵

代夫作

寧陵追泣宋夫子中夜悲歌當日詩後生莊誦春秋義
感淚頻添白髮垂

勉諸童

汝須勤讀書毋失少壯時豈徒記誦已宜與聖賢期

奉獻青翰子

李觀夏

尊大人回里壽席

代去

養德北山下潛光道益尊鶴聲清和子筠影綠生孫弧
矢方回甲賓朋共侑樽餘庠曾未艾車駟容門

贈朴仲輅

秉殷代

志行雖貴勤門路須尋正可久終成功爲山與壑井

示同庚諸友

代夫

五旬荒鈍只依前尤悔如山孰可鑄諸子從今相攸助

願資麗澤送餘年

坦園三章

代夫

林居谷飲抱書自好前脩有心庶幾窺奧羣疑部塞勃

詩

靜一齋遺稿

能存戒慎終可致中和達道關三德誠哉理孰加

示從孫謹鎮婦

崔氏

貞懃首矣順從移焉是婦道也爾須勉旃

夜坐

癸未

夜久羣動息庭空皓月明方寸清如洗豁然見性情

坦園

甲申

坦園幽且靜端合至人居獨探千古籍高卧數椽廬

謝海石金相公

載璫

惠貺新曆

伐夫子作丙戌

莫萊陽生惠及隣山家從此記冬春只憂時月悠悠過

誦服良箴企日新

除夕感吟

無爲虛送好光陰五十二年明日是中宵悲歎將何益
且向餘生修厥已

病後

一疾幾危今幸差清秋開戶余心快調濟豈專藝朮功
伊來體認誠明界

偶吟

我乏三年艾沈疴苦未醫及今猶不蓄他日悔何追

讀中庸

編思聖傳千載繼開多體立無偏倚用行不謬差始

山中君子宅讀書對明牕有客從遠至柴門吠老獾

自勵

休令好日月游浪斷送虛宜鑑不學者枯落歎窮廬

性善

人性本善盡之爲聖人欲仁仁在此明理以誠身

呈夫子

妾愧無才德幼年學線針真工須自勉衣食莫關心

敬呈夫子行駕

清晨灑泣送君子去去湖山應不忘臨行惟有一言告
世事循環如彼蒼

靜一堂遺稿

靜一堂遺稿

卷八

詩

敬次尊姑只一堂韻

丁巳

下學須敦倫慈幼且安老直轡從此行自是坦坦道

原韻
春來花正盛歲去人漸老歎息將何爲只要一善道

始課

戊午

三十始課讀於學迷西東及今須努力庶期古人同

見書童被撻

爾能謹而慎過罪何處從自今便有悔誠心復正容

山家

附錄

行狀

墓誌銘

祭文

誄文

輓詩

十四

詩跋

筆帖跋

鰲村宋先生書略

靜一堂書蹟

遺稿跋

靜一堂遺稿目錄終

靜一堂遺稿

目錄

詩 三十七

書 七

尺牘 六十二

別紙 九條

記 三

題跋 二

墓誌銘 三

行狀 三

祭文 三

銘 五

雜著 二

拾遺

詩 一

尺牘 二十

尤豈不絕異矣乎古昔哲婦賢媛之名於後世者或以
孝烈德行言語一節之美焜耀人耳目何限而至於義
理之精解學力之深造如此卷者豈易得於閨閣之內
也其視兄弟之聯芳朋友之唱酬其難易得失果何如
也明直之圖所以不朽永作貽後之模範惡得已乎明
直甫以余有同人之好要一言以識之不致外竊不
揆僭妄而樂爲之書時

崇禎紀元後四甲午九月戊子通政大夫前大司諫坡
平尹濟弘識

中箱中者嘗自謂文章非婦人事未或出於藏其人雖
歿不欲傷平日志然亦終有所不忍湮沒者其爲詩絕
少而要皆學者自警之言其文又非華靡藻飾無非嫺
嫺於不佞身心上論學則主誠敬論工課則斷斷乎格
致與踐履條條自合於經旨者蓋其常時治紅之暇潛
心古經必有慧識妙悟而其用工之淺深見處之真確
爲其夫者亦未能盡知然而使其夫浸浸然變其氣質
從師就友能免於大罪過者皆婦人賜也余竦然聞之
如焉擊節興歎終焉斂膝起敬而曰噫余之於子重之
異之者其有驗矣其有資於簪珥之警茶飯之益也是

靜一堂遺稿序

明倫彙編家範典卷一百一十五
西曆一七七二年

六人有兄弟而埏簏相和有朋友而鐘呂相合是皆人倫中至樂而自古人之有此樂者絕難得而或有之況乎家室之內夫婦相得簪珥之警才絕於燕閑茶飯之說皆足以資益則其爲樂何如也吾宗坦園明直甫少好氣節所行者不能無得失自勝冠稍稍嚮道遂就正於剛齋先生門固讀書篤志勵行余嘗重之年來其窮益甚又喪其母體身計之淒廓殆人所不堪猶尚益奮勵不渝初志余益異之忽一日袖出一小冊子題曰靜一堂遺稿泣謂余曰此吾亡妻所著文字之收拾於

靜一室遺稿

全

部	集
類	別集類
番号	44-1444



集部	
部	別集類
種数	76
冊数	1
備考	

